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박사학위논문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 전개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김 해 영

2011년 8월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 전개

지도교수 양 진 건

김 해 영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 년 8 월

김해영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 항 재 印

위 원 印

위 원 印

위 원 印

위 원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 년 8 월

dCollection @ jeju

국문초록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 전개

김 해 영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양 진 건

본 연구는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북간도는 19세기 이래 조선인들의 대표적인 이주 지역이다. 이주지역의 정신문화적 특수성과 이주민사회의 사회상 및 생활상, 문화상은 이주민들의 독특한 현실인식과 공동체의식을 형성시켰다. 이주민사회에서 이민족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모순 속에서 이러한 의식은 점차 민족의식으로 승화되어 갔다. 또한 민족의식에 대한 고취와 전승의 필요성에 의해 교육의식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이주민사회의 교육의식은 민중으로부터, 민족유지들로부터, 내부로부터 형성되어 사회화되는 특수한 발전과정을 거쳤다. 민족교육의식의 내재적 발전과정은 1905년, 1910년을 계기로 한반도로부터 전파되는 애국계몽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계층이 북간도 유지 및 유림들이다. 그들은 민중의 막연한 교육의식을 체계화시켜 근대지향적, 민족지향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애국계몽사상가들의 민족주의 사상에 호응할 수 있도록 중재적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북간도 유지 및 유림들의 교육사상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은 이처럼 이주민사회 자생적인 교육의식을 토대로 20세기 초 북간도에 유입되는 제반 사상들을 수용함으로써 융합 및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dCollection @ jeju

첫째, 북간도 이주민사회에 있어서의 한민족교육사상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 한반도와 북간도의 민족교육 및 민족교육사상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내의 민족 및 민족교육에 관한 정의를 그대로 북간도에 대입시키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북간도에서의 민족교육 및 민족교육사상의 역사적·이론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그 특수성을 밝혔다. 이로써 북간도 한민족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전제를 제시했다.

둘째,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을 논하면서 이주민사회에서 민족교육사상의 태동과정을 살펴보았다. 북간도 이주민들의 대부분 출신지역은 함경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함경도 특유의 정신문화에 대한 규명을 통해 이주민들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이주민사회 민중의 정신문화적 연원 및 교육의식의 생성가능성과 특유의 교육열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이주민들의 북간도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살핌으로써 사회사·경제사·정치사적인 측면을 통해 민족에 대한 의식, 교육에 대한 의식의 태동과정을 유추하였다.

셋째,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 그 전개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북간도 이주민 사회에서 선각적인 유지 및 유림들의 적극적인 활약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내의 전통적 유교사상, 민족종교와 외래종교사상, 애국계몽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이 북간도 민중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을 살폈다. 이로써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 및 융합과정을 논증하였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한민족교육사상은 민족의식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북간도 한민족 사립학교설립운동 및 사회교육운동을 통해 민족교육사상의 실천 및 전개과정을 고찰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민족의식이 북간도 한민족광복운동에 미친 영향, 북간도 조선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북간도 조선인들의 이주·정착 및 조선인사회의 형성과정에서 한민족교육사상 형성과 전개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은 한반도로부터 전파되는 민족주의 사상이나 외래종교사상 또는 민족종교사상 중 어느 한 측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북간도 이주 조선인들의 특유의 정신문화와 이주민사회의 특수성에 의해 생성되어 다양한 외래사상을 수용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dCollection @ jeju

목 차

국문초록 ····· i

Ⅰ. 서 론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7

Ⅱ. 선행연구 검토와 과제 ····· 13

1. 선행연구 검토 ····· 13

1) 간도 관련 연구 ····· 13

2) 북간도 교육 관련 연구 ····· 15

2. 동향과 과제 ····· 22

Ⅲ.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의미 ····· 26

1. 민족과 민족교육사상 ····· 26

1) 민족과 민족의식 및 민족주의 ····· 26

2) 민족교육과 민족교육사상 ····· 28

2. 북간도 민족교육과 민족교육사상 ····· 30

1) 민족교육 ····· 30

2) 민족교육사상 ····· 33

Ⅳ.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 배경 ····· 35

1. 조선인의 북간도 이주 배경 ····· 35

dCollection @ jeju

1) 북간도 조선인의 역사·문화적 특징 ····· 36
2) 조선조 함경도 변방 교육현실의 제 조건 ····· 42
(1) 변방의 교육과 유배인 및 지방관 ····· 43
(2) 청(淸)과 조선의 국경정책과 변경민의 범월잠입현상 ····· 50
(3) 교육현실 제 조건의 교육적 의미 및 이주의 원리 ····· 55
2. 조선인의 북간도 이주 및 민족교육사상의 태동 ····· 58
1) 생계를 위한 이주와 교육 ····· 58
(1) 이주 및 정착, 촌락의 형성 ····· 59
(2) 교육의식의 태동 ····· 67
2)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이주와 교육 ····· 72
3) 민족광복을 위한 이주와 교육 ····· 75

Ⅴ.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 전개 ····· 80
1. 민족교육사상의 형성 ····· 80
1) 전통사상의 영향 ····· 80
(1) 종성학통의 영향 ····· 86
(2) 경성학통의 영향 ····· 110
2) 종교사상의 영향 ····· 118
(1) 민족종교사상의 영향 ····· 119
(2) 외래종교사상의 영향 ····· 124
3) 사상적 영향들의 융합 ····· 120
2. 민족교육사상의 전개 ····· 134
1) 사립학교설립운동 ····· 135
(1) 사립학교의 유형 ····· 135
(2) 민족의식의 고취방식 ····· 141
2) 사회교육운동 ····· 149
(1)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 ····· 149
(2) 민중집회와 언론교육 ····· 153
3) 민족교육사상의 역할 ····· 156

dCollection @ jeju

(1) 북간도 민족광복운동 ····· 156
(2) 민족정체성에 미친 영향 ····· 158

Ⅵ. 결론 ····· 160

참고문헌 ····· 167
Abstract ····· 184
中文摘要 ····· 187
부 록 ····· 189
[부록 1] 북간도 교육을 주제로 한 논문 ····· 189
[부록 2] 관북유배인 일람표 및 관북서원 일람표 ····· 194
감사의 글 ····· 199

dCollection @ jeju

표 목차

<표 Ⅰ-1> 재외동포 총 수 ····· 1
<표 Ⅰ-2> 주요 국가별 한인동포 수용 수 ····· 1
<표 Ⅰ-3> 한국의 북간도 교육사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 및 저서 ····· 16
<표 Ⅰ-4> 중국 측 연변조선족교육사 관련 학위논문 및 저서 ····· 19
<표 Ⅳ-1> 1886~1887년 두만강 북안 조선족 촌락 및 이주호수 ····· 63
<표 Ⅳ-2> 4보 39사 명칭 ····· 64
<표 Ⅳ-3> 19세기 말 북간도지역 조선인 거주지, 출신지 및 이주연대 ····· 65
<표 Ⅳ-4> 19세기 말 20세기 초 북간도 4현 인구 ····· 67
<표 Ⅳ-5> 연변지역 서당의 교육과정 ····· 71
<표 Ⅴ-1> 북관 서원과 사우 설립연대 ····· 81
<표 Ⅴ-2> 공교회에서 설립한 학교 ····· 117
<표 Ⅴ-3> 간도 내 각 종교교회당 및 신도 분포(1914) ····· 119
<표 Ⅴ-4> 대종교계열에서 설립한 북간도 지역 학교 ····· 121
<표 Ⅴ-5> 북간도 천도교 계통의 학교 ····· 124
<표 Ⅴ-6> 북간도 기독교 계통의 학교수 ····· 130
<표 Ⅴ-7> 각 저서와 연구에서 분류한 20세기 초 북간도 조선인학교의 유형 135
<표 Ⅴ-8> 1916년 서북간도 사립학교 수 ····· 141
<표 Ⅴ-9> 간도 조선인 민족교육기관의 교육이념에 따른 교과목 분류표 ····· 141
<표 Ⅴ-10> 역사 및 지리 관련 교과서들의 목차 ····· 144

dCollection @ jeju

그림 목차

[그림 Ⅳ-1] 북간도와 함경도 북부 대칭지도 ····· 35
[그림 Ⅴ-1] 종성학통 ····· 94
[그림 Ⅴ-2] 명동 및 함경도 북변과 북간도 ····· 101
[그림 Ⅴ-3] 경성학통 ····· 112
[그림 Ⅴ-4] 북간도 사상의 유입 ····· 131
[그림 Ⅴ-5]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의 융합 ····· 134

dCollection @ jeju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근대에 있어서 한민족 분산(分散, diaspora)의 역사[1]는 19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중국인이나 유대인, 이탈리아인 등 다수의 이주민족에 비해 그 역사가 길지 않다. 그러나 현재 이미 700만을 넘어선 재외 한민족[2]은 세계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양적으로는 세계 4위, 모국대비 인구비율로는 세계 2위에 있다.[3] 이처럼 짧은 기간에 다양한 정치체제와 적응형태를 선보이고 있는 민족은 역사상 그리 흔치 않다. 특히 강대국인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나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모국에 대한 그들의 역할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그들의 정체성(identity)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늘 이슈화되고 있으며 그들이 이주국가에서 과연 어떤 힘으로 민족의 맥을 지켜왔는지가 관심사였다.

---

1) 윤인진(2004)은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시기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누고 있다. 1860년대부터 1910년까지 농민과 노동자들의 중국, 러시아, 하와이로의 이주;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농민, 노동자들의 만주, 일본 이주, 그리고 정치적 난민과 독립운동가들의 이주; 1945년부터 1962년까지 전쟁고아, 미군과의 결혼여성, 입양, 유학 등 비이민 형태의 이주; 마지막으로 1962년 이후 공식적인 이민정책 수립 이후의 이주로 나누고 있다. 또한 거주지역에 대한 적응양태에 따라 재중, 재러 조선인들과 같은 수용형, 재미 한인과 같은 고립형, 재일한인과 같은 초기 고립형에서 1960년대 이후 수용형을 거쳐 현재의 동화형에 이르렀다며 그 성격을 구분하였다. 그 밖에 김경일, 윤휘탁, 이동진, 임성모(2004) 등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이산문제를 논하였다(박명규, 2004: 236-238).

2) 재외동포재단 코리안넷(www.korean.net) 자료에 의하면 2005~2009년까지 재외동포 총 인구수와 10만이상 한인동포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표 Ⅰ-1> 재외동포 총 수

연도	2005	2007	2009
인구수	6,638,338	7,044,716	6,822,606

<표 Ⅰ-2> 주요 국가별 한인동포 수용 수

국가	인구	국가	인구	국가	인구
중국	2,336,771	캐나다	223,322	오스트레일리아	125,669
미국	2,102,283	러시아	222,027	필리핀	115,400
일본	912,655	우즈베키스탄	175,939	카자흐스탄	103,952

3) 양적으로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다음으로 세계 4위에 있고 모국대비 인구비율로는 이스라엘의 버금이다.

dCollection @ jeju

이러한 이주 한민족을 논함에 있어서 150여년이 넘는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국가의 주류민족에 동화되지 않고 민족의 문화와 의식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형(典型)이 바로 중국 동북지역[4]으로 이주한 한민족이다. 그들은 가장 오랜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민족에 동화되지 않았다. 또한 재외 한민족 가운데서 민족의 문화와 언어 등 민족성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기도 하다. 그들은 현재도 민족보존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자치구역과 민족교육을 소유하고 있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사회와 문화의 보존, 개조, 통합이라고 할 때 이주민족이 동화를 극복하고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민족교육의 역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민족교육이 오늘날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근간이 되어 준 것은 다름 아닌 한 민족이 생존·발전 가능한 정신적 지주로서의 민족의식이 기저에서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민족의식이 역사적 과정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민족교육과 연관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이주민의 경우 이주라는 특수한 역사성 때문에 민족의 형성 자체가 단일민족국가에서 국민을 상징하여 말하는 민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주국가에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를 영위하고 있는 주류민족이 따로 있다는 이유로 이주민들은 소수민족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간도 이주민사회의 조선인 민족교육사상은 구한말 외세침점의 저항적 민족주의에 의해 생성되는 한반도 내의 보편적인 민족교육사상과는 이질적인 태동 및 생성과정을 가지게 된다. 이주민사회의 민족교육사는 그 출신지역인 두만강 남안의 특수한 정신문화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근대 이후의 교육기관이나 제도적인 교육의 연구에 더해 이주민사회의 역사적이고 독자적인 민족교육사상의 생성 및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해야 한다.

정신문화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의 생성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이주민들의 역사적 실존에 대한 강력한 주장과 확인을

4) 오늘날 中國 東北지역은 黑龍江省, 吉林省, 遼寧省 3省을 지칭하는 지역으로서 滿洲事變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滿洲라 불렸으며 일본이 이 지역을 식민지화한 이후에는 滿洲國이 傀儡의 역할을 하였다고 해서 中國 측에서는 僞滿洲國이라고 불리던 곳이기도 하다. 東北이라는 지역적 명칭은 中華人民共和國 建國(1949) 이후부터 불리기 시작했다.

dCollection @ jeju

통해 민족교육사상의 자생적 과정을 탐구하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해석학적인 역사인식론[5]에 내포되어 있는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다. 이는 이주민사회의 역사현상에 접근하여 "일반적인 법칙이나 일반적 원리보다 가능한 한 시간의 흐름 속에 잠겨있는 특수한 역사적 형식의 무한한 다양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견해"(Mayehoff, 1959: 10)이다. 즉 이주민족의 자기이해에 있어 인간실존의 역사성을 확인하면서 생성되는 교육의 사상에 접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도 민족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자의 검토에 의하면 논의되고 있는 민족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민족교육의 흐름 속에 관통되어 있는 사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 민족교육사상 자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는 교육학적인 접근이든 역사학적인 접근이든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연구접근 경향은 북간도 민족교육을 19세기말 한반도에서 전개되었던 교육구국운동의 일환 내지는 연장선으로 파악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북간도 민족교육은 1905년·1910년 일제의 노골적인 침략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한 결과이다. 북간도가 독립운동기지로 부상되면서 외세에 대한 저항적 민족주의 및 자주·독립을 표방한 애국계몽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의 전파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이미 형성된 북간도 조선인사회의 민중들은 단지 위로부터 아래로 향한 지식엘리트계층의 가르침을 지극히 수동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북간도 조선인 자체의 자생적이고 능동적인 민족에 대한 의식은 무시되고 간과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간도 관련 역사학적 연구에서 조선인들의 이주적응실태와 공동체 의식의 태동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사를 포함한 사회사나 경제사적인 측면의 연구들에서는 초기 북간도 이주민들의 이주 및 정착, 이주민사회의 양상, 청나라의 정책 등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연구들은 당대 북간도 사회에서 조선인들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접근한 것으로 이주민들의 밑바탕에 깔린 의식의 변화 자체에 초점을 맞춘

5) 딜타이(Dilthey)에 의하면 정신과학은 연구방법론으로 사실에 관한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인식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특수적인 것·개성적인 것 등을 파악하는 역사적 인식과 일반적인 것·유형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이론적 인식으로 구별되고 후자는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이다(정재철, 1987: 92).

Collection @ jeju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연구접근방식은 북간도 민족교육사를 논함에 있어 이주와 함께 시작된 서당교육과 같은 교육현상에서 비롯된 조선인들의 의식적인 교육인식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을 봉건적 구식의 전통교육사상으로 일괄하여 근대 민족교육사상과 구별시키면서 전통교육과 근대교육과의 계승관계를 외면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즉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의 출발을 1905년 이후 민족주의 애국계몽 사상가들의 북간도 망명으로 시작된 근대 민족교육[6]의 전개에 둠으로써 독립운동 및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정치사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결국 북간도 이주민사회에 있어서 민족교육이란 무엇이며 민족교육사상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논의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그 오류는 그동안 교육사 연구가 사료 취득의 용이성으로 인해 정치사 중심의 접근을 피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육사에 있어 근대 민족교육사 연구에 대한 정치사적이고 거대담론적인 접근방식을 그대로 북간도 민족교육사에 대입시켜 그 보편성만을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대이후 위대한 교육사상가들의 민족교육사상적 틀로써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을 바라보는 연구 접근의 문제점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간도 민족교육사 및 민족교육사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 한반도 교육사 및 교육사상 연구의 틀로써 북간도 민족교육사를 바라보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한 접근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시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중앙·정치사 중심 한반도 교육사상의 보편적인 틀로써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특수성을 인정함으로써 고유의 발전과정에 대한 성찰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이주사회 교육사 연구의 접근방식과 경향성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주민사회의 교육사적 특수성에 대해 인정하고자 한다.

---

6) 그 일 예로 北間島 근대민족교육의 효시를 瑞甸書塾이라고 하는 것이 학계의 통념인데 이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다. 실제로 瑞甸書塾은 당시 한반도 내의 애국 계몽운동가들의 사학설립운동이 국외로의 이동에 따라 확장된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것이 과연 북간도 근대교육의 효시인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독립운동지사들에 의해 북간도에 세워진 첫 근대식 민족학교라는 관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김경식(2004: 187)과 전 동북조선민족연구원의 남일성 등 한국과 중국의 부분 학자들은 1904년 琿春縣 玉泉洞(현 敬信鄕)에 설립된 東光學校를 재중 한민족 근대학교의 효시로 보고 있다.

dCollection @ jeju

아울러 그 민족교육사상의 독자적인 태동과정을 전제로 이주 유지들의 적극적인 중재와 함께 당대 한반도 보편적인 민족교육사상과의 융합전개과정을 탐구하기 위한 시도로 제기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을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함이며 과거의 교육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교육에서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김인회, 1994: 24).

본 연구의 대상인 북간도는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인들의 대표적인 해외 이주 지역[7]으로 오늘날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이하: 연변)에 해당된다. 연변은 200만 중국 조선족[8] 가운데 80여만이 살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큰 조선족 공동체[9]이다. 또한 재외 한민족의 유일한 자치구역으로서 중국 조선족사회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700만 재외 한민족의 주목을 받고 있는바 한민족의 민족적 속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조선족 민족성의 유지 및 계승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이나 조선족자치구역의 확보와 같은 점도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무엇보다 민족교육이 있어 가능했다 할 수 있다. 더욱이 민족교육의 저변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는 민족의식은 민족교육의 사상적 기저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존립과 함께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을 수호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민족의식의 지탱 하에 1949년 중화인

---

7) 19세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민족의 이주는 중국의 만주, 특히 간도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 일본 및 하와이 등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8) 2010년 중국 제6차 인구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2006년 3월 중국 언론 보도 및 駐中國韓國大使館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해 본 결과 延邊朝鮮族自治州 조선족 인구는 81만, 遼寧省 등 東北3省(滿洲)의 기타지역 40만, 북경·천진·청도·심천 등 도시에 분산되어 있는 조선족까지 합하면 192만 5천 정도이다(張世胤, 2006: 114).

9) 중국 조선족은 중국의 민족자치구역법에 따라 하나의 自治州-延邊朝鮮族自治州와 하나의 自治縣-長白朝鮮族自治縣과 50여 개의 自治鄕과 鎭(聯合自治鄕)과 鎭을 포함), 1500여개의 民族村을 보유하고 있는바 중국의 56개 민족 가운데 일원으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公民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최봉룡, 2002: 302).

dCollection @ jeju

민공화국이 건립된 이후에도 조선족은 중국에서 민족자치구역과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화와 교육을 통해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중국사회에서 노래와 춤 등 예술문화에 능하고 교육열이 드높은 민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조선족사회에서 민족의식과 민족성은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으며 다양한 위기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도입 및 개혁개방의 물결,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와 함께 조선족사회에는 다시 또 민족 분산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북경(北京), 상해(上海), 청도(青島), 심수(深圳) 등 중국의 대도시나 연해도시는 물론 러시아,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에까지 조선족들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조선족 공동체의 해체위기, 조선족 농촌의 피폐현상, 민족교육의 통폐합과 학생자원의 고갈 및 결손가정 자녀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와 문제점[10]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결국 조선족사회의 존속위기와 민족정체성의 혼돈 및 동화위기를 초래하게 되어 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11]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족교육의 역사와 그 민족교육사상의 형성 및 전개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족 민족교육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민족교육 위기에 대한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의식 하에 진행되었다. 186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선인들의 북간도 이주와 함께 형성된 북간도 조선인사회에서 민중들의 교육의식은 어떻게 생성될 수 있었는지, 그것은 또한 북간도 조선인 민족교육의 생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1905년·1910년을 계기로 북간도에 전파되는 애국계몽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을 수용할 수 있었던 북간도만의 자생적 동인은 무엇인

10) 1990년대 이후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에 관해서는 권태환의 저서에 주목할 수 있다. 권태환은 중국조선족의 인구와 공동체의 변화, 가족의 분산과 해체, 교육과 조선족사회의 위기, 사회적 환경과 정체성, 한국 조선족 노동자 집단의 형성, 연변 조선족사회 속의 여성들, 한국 안의 조선족 여성들, 북경의 조선족 등 다양한 지역의 조선족들의 상황에 대해 심층면담과 사례분석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였다(권태환, 2005).

11) 이러한 연구로 필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사교육과 디지털스토리텔링의 적용」(2009),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적용」(2010), 「중국조선족 민족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2010) 등 연구를 통해 중국 조선족 민족교육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탐색한바 있다.

dCollection @ jeju

지, 그러한 민족주의 교육사상을 북간도에 전파시킨 지식엘리트층과 북간도 민중들의 문화적 괴리감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 극복될 수 있었는지, 북간도 민중들의 의식과 민족주의 교육사상이 융합·조화되어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을 형성시킨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 문제들을 규명한다. 아울러 이러한 민족교육사상이 북간도에서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에 미친 영향과 북간도에 정착된 한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주한민족의 삶과 관련한 한민족교육사상의 내적 형성과정을 규명해 봄으로써 북간도라는 이주공간에서 민족의식이 어떻게 형성, 그것이 어떻게 한반도에서 들어오는 민족주의 교육사상과 결합하여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으로 승화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교육사 연구는 역사학의 영역이면서 또한 교육학의 영역이다. 교육학적 맥락에서 교육사연구는 역사 속의 다양한 삶의 표현들을 교육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하겠다. “인간의 삶 그 자체를 교육”(김인회, 1994: 33)이라고 할 때 당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교육학적인 접근에서 교육사상은 민중이 삶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지혜의 축적과 함께 이루어지는 생각의 변화과정으로서 대개 교육의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민중 내부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북간도 민중의 이주 삶 속에서 성장하는 교육적 의식에 터하여 전통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여 형성되는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이에 주된 연구방법을 문헌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귀납추리적인 방법으로 한다.

연구에서 활용되는 문헌자료는 역사적 사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사료에 대한 발굴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에 관한 문헌들은 그동안 정리된바가 거의 없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북

Collection @ jeju

간도 민족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문헌들이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일제에 의해 작성된 것과 독립운동사료 중심이기 때문에 문헌자체에서 편협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사상을 당대 교육의 주체, 즉 교육받는 사람과 교육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 때 이러한 사료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족교육사상에 대한 연구라는 점을 특히 염두에 두면서 조선총독부의 자료나 일본 관헌에 의해 작성된 자료에 대한 활용은 최소화시키려 노력한다. 반면 당대 북간도지역 민족교육의 핵심 주체인 하층 민중과 유지들의 민족 및 교육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는 문헌의 발굴과 함께 그 활용도를 최대화하고자 한다.

1차 사료는 당대 북간도 이주민들을 문화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함경도 지역 유지들의 개인 저술, 북간도에 이주한 그 후예 및 당대 북간도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직·간접적인 북간도 체험 회고록 및 수기, 연변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문사자료, 『독립신문』 등 신문자료, 일제 측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출판한 자료집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1차 사료에 대한 취사선택과 정확성 검증, 연구의 논증과정과 접근방법 도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연변지역 및 일본의 북간도 민족교육을 비롯한 관련 연구 성과에 상당히 의존하였다.

연구의 논증과정에서 차용되는 접근법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의 특수성 속에서 보편적 속성을 도출하는 귀납추리의 접근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구체적 논증과 분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에 기하고자 한다. 첫째, 사론(史論)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한다.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 및 분석의 과정은 그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한다. 역사적 사실을 대변하는 문헌과 그 문헌에 대한 해독 및 분석을 동시에 강조하여 두 측면의 유기적인 결합을 시도한다. 둘째, 비교의 방법을 강조한다. 활용되는 사료에 대한 비교를 통해 사료의 정확성을 기한다. 또한 역사 속의 교육사상(事象)들 간의 비교를 통해 그 개별성과 보편성을 확인하면서 연구의 논증과정을 보다 탄탄히 하고자 한다. 셋째, 분석적 방법을 강조한다. 역사적 사상(事象)과 그 사상을 담아낸 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론(史論)결합 및 비교, 귀납적 추리의 논증과정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보조의 방법으로 활용한다.[12]

12) 본 연구에서 정리한 연구방법은 정은해(2000)의 『교육사 연구방법론』, 박주신(2000)의 『간도한인의 민족교

dCollection @ jeju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대해 귀납추리의 방법으로 논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거친다.

첫째,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민족과 민족의식 및 민족주의 교육사상의 보편적인 함의를 밝힌다. 북간도에서의 민족교육과 민족교육사상의 생성은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보편적인 민족의 개념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고찰한다.

둘째,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주배경으로서 그들의 출신지역인 함경도의 역사·문화적 특징과 교육현실을 고찰한다. 그에 따라 이주민들의 이주 동기 및 이주 원리를 논의한다. 또한 조선인들의 북간도 이주 및 정착과정을 고찰하면서 민족교육사상의 태동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 형성과 전개에 대한 규명을 위해 내부로부터 태동되는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민족교육사상이 어떠한 계층 및 사상들의 영향을 통해 형성되는지 논증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주 유지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주목한다. 한반도로부터 흘러드는 다양한 사상들을 수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실천되는지 그 전개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넷째, 결론과 함께 20세기 초 형성 완료의 모습을 보이는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이 현대의 중국 조선족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와 지역적 범위로 나눈다.

시간적 범위는 1860년대로부터 1910년대까지를 핵심으로 북간도에 이주하는 조선인들의 이주 전, 이주 후의 전반 과정으로 함으로써 깊이와 폭을 아우르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는 주로 민족교육사상의 자생적 형성과정을 살핌으로써 1905년 이후 한반도로부터 들어오는 민족주의 교육사상과 어떻게 융합되는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조의 유교사상이 함경도에서 보급되고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17~18세기도 필요에 따라 연구의 시간적 범위에 포함시킨다. 그것은 사상의 형성이라는 것은 단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육운동사』, 김경식(2008)의 『한민족교육문화사』, 박금해(2008)의 『일본의 중국조선족에 대한 식민주의 교육정책(日本對中國朝鮮族的植民主義教育政策)』 등 연구들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dCollection @ jeju

라는 것과 함경도의 전통사상이 북간도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함경도에서의 유림과 그들 사상의 형성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연대표기는 서기(西紀)임을 미리 밝혀둔다.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두만강 북안, 현재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해당되는 북간도 지역으로 한다. 학계에서는 만주지역에 대해 대개 동만(東滿), 북만(北滿), 남만(南滿) 지역으로 나누어 그 민족운동이나 교육운동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 가운데 동만(東滿)지역이 바로 북간도 지역으로 1910년대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한민족이 가장 집결되고 많은 지역이다. 특히 만주의 민족운동과 교육운동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간도(西間島: 南滿地域), 연해주 등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 또한 민족지사, 독립지사들의 필경지지(必經之地)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만주지역 이주 한민족교육사상에 대해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그 중추지역인 북간도 지역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지역적 범위를 일차적으로 북간도로 한정하였다. 다만 북간도 이주민들의 출신이 함경도 지역이라는 점과 그들의 정신문화적, 사상적 배경이 함경도라는 점에 따라 함경도 역시 연구의 지역적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은 북간도에 이주하게 되는 조선인들인데 그들의 신분은 이주전의 함경도 사람으로부터 이주 이후 북간도 조선인, 해방 이후 중국 조선족으로 변천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때에 따라 그 명칭이 호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의해야 할 용어와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간도(北間島): 북간도는 현재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으로 대개 두만강 이북 지역을 가리키는데 중국 해방이 후 동북(東北)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이다. 종래 간도(間島)라는 지역은 명확한 구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바 대개 두만강 이북 지역을 두고 한국과 일본에 의해 불린 이름이다. 이러한 간도는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동쪽의 두만강과 서쪽의 압록강 북안 지역을 일컬었는데 두만강 북안을 북간도, 압록강 북안을 서간도라고 불렀다. 북간도는 보통 연길(延吉), 화룡(和龍), 왕청(汪淸), 훈춘(琿春) 4현[13]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만(東滿)[14], 동간

13) 현재 延邊朝鮮族自治州는 8개 현·시로 구분되어 있는데 延吉, 龍井, 圖門, 和龍, 琿春, 敦化 등 6개 市와

dCollection @ jeju

도(東間島)라고도 불린다.

둘째, 조선인(朝鮮人): 북간도 지역에 이주한 한반도 사람들의 호칭에 대해 지금까지 아직 학계에서 합의된바 없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호칭을 보면 대개 '한국인(韓國人)', '한인(韓人)', '한민족(韓民族)', '한인동포(韓人同胞)', '조선인(朝鮮인)', '조선족(朝鮮族)', '조선민족(朝鮮民族)' 등이 있다. 한국학계에서는 대부분 "한(韓)"자 돌림을 많이 쓰지만 중국 학계의 경우 "조선(朝鮮)"을 돌림자로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것은 현재 중국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도 하고 이주 당시 조선왕조에서 이주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뿐만 아니라 당대 북간도 조선인들에 대한 청이나 중국정부의 호칭을 보면 대개 간민(墾民), 한교(韓僑) 등 용어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북간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만큼 현지 학계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조선인', '조선족'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경우를 고려하여 '한국' 혹은 '조선'이라는 용어보다 가급적 '한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셋째, 민족교육사상: 민족의 개념을 간단히 공통의 문화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운명적·문화적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사상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넓게는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구체적으로 보면 낮은 단계로부터 대개 이성적 반성이 일어나기 이전의 생활에 대한 감정 및 의식 아래에 있는 지향,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에 처할 때 사물에 대한 견해, 세계관과 인생관, 명확한 이론적 체계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간도에 있어서 사상의 가장 낮은 단계의 의미로부터 출발하여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족교육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즉 이주민사회의 운명적 공동체의 의식 및 자

安圖, 汪淸 두 개 현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위에서 설명한 4개 현은 현재의 延吉, 龍井, 圖們, 和龍, 汪淸, 琿春을 포함한 것으로 당시 龍井은 延吉과 和龍에 나누어 소속되었고 圖們은 琿春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14) 滿洲는 중국이 해방 한 이후 동북이라 불리는 東北三省(黑龍江省, 吉林省, 遼寧省)을 가리키는데 滿洲事變 이전까지 주로 中國, 韓國, 日本에서 통용하던 명칭이다. 그러나 中國 측에서는 滿洲國이 日本의 滿洲침략 당시 괴뢰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 1931년 이후 일제의 만주통치시기를 僞滿洲國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滿洲는 在滿朝鮮人들의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은 대개 東滿·南滿·北滿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東滿은 오늘날의 延邊지역을 말하고 南滿은 주로 吉林省 서부의 일부와 鴨綠江 북안의 遼寧省 남부일대를 가리키는바 즉 西間島지역이고 北滿은 吉林省 북부와 黑龍江 일대를 지칭한다.

dCollection @ jeju

아의식을 민족의식의 태동으로 보고 이러한 민족의식을 교육을 통해 전승 및 계승하고자 하는 사상적 체계를 민족교육사상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민족교육사상의 핵심내용은 민족의식이다.

dCollection @ jeju

Ⅱ. 선행연구 검토와 과제

1. 선행연구 검토

1) 간도 관련 연구

현재까지 간도, 만주, 동북 등 주제 관련 연구는 주로 중국 연변의 조선족 학자들과 소수의 한족(漢族)학자들, 한국의 학자들 및 소수의 일본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그 연구의 경향이 주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 등의 주제에 치우쳐 있었으며 역사학적 접근 위주였다. 구체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내용에 있어서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 이주사, 교육사 등을 중심으로 접근해 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항일투쟁사, 독립운동사, 간도영유권문제, 간도토지제도문제, 간도조선인 국적문제, 민족교육 및 교육구국운동, 인물 관련 연구, 종교 관련 연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연구방법에 있어서 주로 역사학적 접근, 그 가운데서도 정치사적·거시사적 접근, 특히 독립운동사나 항일운동사 등 연구에 치우쳐 있다. 그 외 김영(2004)의 벼농사 관련 연구와 김주용(2000)의 일제의 간도 금융침략정책 관련 경제사적 연구나 김춘선(1998a), 손춘일(1998) 등의 토지제도 관련 사회경제사적 연구, 김춘선(1998b, 2001)의 한인사회 형성 관련 사회사적 연구도 시도되었다. 또한 문화사적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교육사 역시 연구결과물[15]을 어느 정도 축적한 상황이다. 그러나 역시 교육구국운동 및 학생운동과 같은 역사학적이고 정치사적인 맥락의 연구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존의 연구사를 정리한 논저에서도 제시된바 있다. 간도 관련 연구의 성과를 잘 분석해 놓은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중국 연변 측에서 김춘선(2001)의 『연변지역 조선족사회의 형성 연구(延邊地區朝鮮族社會的形成研究)

15) 이 연구결과물은 [부록 1]을 참조.

dCollection @ jeju

』[16], 박금해의 『동북조선족에 대한 일본의 식민주의 교육정책(日本對東北朝鮮族的植民主義教育政策)』[17], 한국 측에서 박주신(2000)의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18], 장세윤의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등 연구들이다.

그 중에서도 장세윤의 연구(2005: 18-70)는 만주 및 간도 관련 연구에 대해 영역별로 연구사 정리를 하였는데 시사 하는바가 크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발표된 조선인 이주 및 만주 민족운동 관련 연구논문 300여 편을 주제별로 묶어 정리하였다. 그 주요 연구주제는 ①재만 조선인 사회의 형성 및 여건, ②민족교육운동과 1910년대의 독립운동, ③1920년대 초의 항일무장투장, ④독립운동단체의 재정비와 3부의 정립 및 사회주의운동의 확산, ⑤민족유일당과 3부 통합운동, ⑥중국군벌정권 및 일제의 지배정책, ⑦1920년대 말~1930년대 초반의 각종 민족운동과 대중운동, ⑧1930년대 항일무장투쟁과 항일민족통일전선 등이다.

또한 한국학자의 단행본과 중국학자들의 중국내 및 한국 내에서 출판된 단행본에 대해서도 정리했으며 주요 연구논문과 여성들의 활동, 독립운동인물에 관한 연구, 자료집 및 회고록 등 분야별로 잘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간도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북간도 민족교육을 독립운동이나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어 정치사적인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간도, 만주, 동북 조선족역사 연구에서도 새로운 연구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정치사 위주로 연구되던 것이 점차 사회사, 경제사로, 나아가 생활사, 문화사 및 일상사로 연구의 접근법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 연구가 구술사를 다룬 김도형을 비롯한 한·중 학자 9명의 연구로 묶어진 『식민지기 재만

16) 김춘선(2001: 1-15)은 한국, 중국, 일본의 순서로 연구성과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한국 학계의 연구는 주로 독립운동사의 연구가 이 분야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시대별로 한국 학자들의 간도를 비롯한 중국조선족에 대한 연구를 정리했다. 또한 중국학계의 연구에 대해서는 주로 소수민족사 연구로 간주되는 경향으로 조선족의 이주사 및 형성사, 수전개간과 법적지위문제, 조선족 자치문제 등 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학계의 연구에 대해서는 1920년대로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만주에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해방 이후 일본은 동북의 역사를 일본제국주의사의 일환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17) 박금해(2008: 4-10)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해 중국, 일본, 한국 나라 별로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10년 단위 시대별로 정리하였는데 특히 식민지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측과 일본 측의 연구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18) 박주신(2000: 5-22)은 1860년대로부터 연구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만주지역 조선인 독립운동사와 항일투쟁에 관한 기존연구는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계의 연구경향은 반일무장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민족주의단체들의 전투상황과 활동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여 연구해 왔다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연구되어 온 만주지역독립운동사에 관한 연구들을 자세하게 정리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만주지역 조선인 동포들의 과거 교육활동이나 생활사 그리고 중일 양국의 간섭과 탄압하에 민족교육운동 등 교육·문화사적 측면의 연구가 빈약함을 지적하였다.

dCollection @ jeju

조선인의 삶과 기억』(2009)을 주제로 한 연구[19]로 만주 조선인들의 이주생활과 문화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조선족 생활사를 기술한 김경식·천수산·최봉룡(2001)의 『조선족생활사』, 재만조선인의 민중사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인 임성모(2007)의 「친밀한 적에 대한 랩소디」가 있다. 또한 일상사적인 접근의 회고록인 문재린·김신묵(2006)의 『기린갑이와 고만네의 꿈』이 있다.

그런가하면 내러티브형식의 접근도 있다. 신학전공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문영미(1997)의 「나의 할머니, 김신묵의 살아온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한 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빌어 역사를 비춰보는 독특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정경호(2007)의 김약연 목사의 신앙 삶에 관한 연구인 「일제하 북간도지역의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 김약연 목사의 신앙 삶 연구」도 주목할 수 있다.

2) 북간도 교육 관련 연구

만주지역 이주 조선인 역사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사를 핵심 연구주제로 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항일무장투쟁사, 독립운동단체, 민족운동사 등 거시사적 연구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한 연구 성과를 가져왔다. 즉 민족독립과 구국을 위한 망명 정치인들의 결단과 행동에 초점을 맞춰 역사연구의 주요대상을 정치적 무대에만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북간도 교육사 연구 역시 이러한 경향을 띠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한, 중, 일 학계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동향분석과 함께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9) 이 연구는 제1장 「재만조선인의 역사」와 제2장 「재만조선인의 체험과 생활」 두 부분으로 9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다. 그 연구들은 김왕배·이수철의 「구술사의 방법론적 의의와 과제」, 이종수의 「중국 동북 지역 조선족사회의 형성」, 김도형의 「한말·일제하 한국인의 만주 인식」, 문백란의 「캐나다 선교사들의 북간도 한인사회 인식」, 박금해의 「구술 자료로 보는 광복 전 재만조선인의 민속문화」, 정미량의 「일제 강점기 재만조선인의 교육과 그 체험-장춘(신경)보통학교(1922~1945)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윤진의 「재만 여성 조선인의 기억과 삶」, 길태숙의 「재만조선인 항일투쟁노래의 과거와 현재적 의미-<신흥무관학교 교가>를 중심으로」, 김왕배·이수철의 「1930년대 만주의 조선족 마을 공동체-흑룡강성 오상현 조선족 마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등 논문들이다.

dCollection @ jeju

(1) 한국 측 연구

한국학계에서 북간도지역 교육사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20]인 1960년대 말에 시작했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몇몇 역사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주로 역사학자인데다가 그 당시로서는 한중수교전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자료의 수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간헐적인 연구 성과에 그쳤다. 그러다가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연변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간도 관련 연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북간도 민족교육 관련 연구들도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간도 교육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천경화, 이명화, 김흥수, 홍종필, 서굉일, 김경식, 박주신 등 학자[21]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주제는 사립학교운동, 종교계학교의 교육운동, 교과내용 등이 주를 이루었다. 명동학교, 서전서숙 등 교육기관 연구와 김약연(金躍淵), 이동휘(李東輝), 이상설(李相卨), 정재면(鄭載冕), 여준(呂準) 등 독립운동가들의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한국학계의 연구경향은 <표 Ⅱ-1>과 같이 그동안 발표된 학위논문과 저서들에서 보다 잘 확인된다.

<표 Ⅱ-1> 한국의 북간도 교육사를 주제로 한 학위논문 및 저서

저자/연도	논문제목	소속
학위논문		
千敬化/1978	日帝下 在滿韓人 民族敎育에 관한 硏究: 1920年代를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강지현/1982	國外에서 展開된 民族敎育의 硏究: 露領, 北間島, 日本을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崔載一/1984	韓國 海外民族敎育運動의 展開過程 및 性格: 滿洲, 沿海州, 하와이를 中心으로: 1860~1945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千敬化/1988	日帝下 在滿韓人 民族敎育에 관한 硏究: 1906年~1920年代를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金善禧/1989	1910年代 間島韓人 民族敎育의 性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석사학위논문
김정아/1991	서전서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 1969년 발표된 金成俊(1969)의 「三·一運動以前 北間島의 民族敎育」 연구가 그 효시로 되었지만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로 보인다. 1970년대 연구로는 千敬化(1979)의 「日帝下 在滿韓人 民族敎育에 관한 硏究」가 있다.

21) 이 학자들의 연구는 [부록 1]을 참조.

dCollection @ jeju

		교육학과 역사교육 석사학위논문
김주용/1993	1910년대 북간도민족교육기관의 독립운동: 3.13항일독립시위운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 석사학위논문
朴今海/1996	北間島民族教育에 關한 一硏究: 1905~1920年代를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趙得濟/1996	中國東北地域의 韓民族教育運動에 관한 硏究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성배/1999	滿洲에서의 朝鮮人 民族教育에 關한 硏究: 1920年代 3府(參議府 正義府 新民府)를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석사학위논문
윤혜진/2002	북간도 지역의 조선인 민족교육: 1910년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석사학위논문
金銀珠/2007	1910年代 間島地域의 民族教育 實態에 관한 硏究: 基督教系 私立學校를 中心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석사학위논문
채휘균/2010	간도지역 기독교 학교 연구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朴州信/1998	間島 韓國人의 民族教育에 關한 硏究: 1910年代~1920年代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계근호/2001	중국동북지방 조선족 교육열의 역사적 전개양상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尹炳奭/1982	李相卨硏究: 國外獨立運動 基地設定의 活動을 中心으로	숭전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저서		
박주신/2000	間島韓人의 民族教育運動史	서울: 아시아문화사
김경식/2004	在中韓民族教育展開史 上, 下	서울: 문음사

또한 북간도 교육사를 포함하여 한민족교육운동사에 대한 저술들도 있다. 천경화(1994)의 연구인 『한국인 민족교육운동사연구-일제하 만주·노령·중국본토·미주지역을 중심으로』, 김경식(2008)의 『한민족교육문화사』와 같이 한반도 이외의 한민족교육운동사에 대해 비교 및 전반적으로 다루어준 폭넓은 연구도 있다. 그 외 북간도 민족운동이나 항일운동에 관한 연구와 함께 잠깐씩 언급한 경우도 있는데 장세윤(2005)의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양소전(1996)의 『중국에 있어서의 한국독립운동사』, 윤병석(2003)의 『간도역사 연구』, 고영일 외(2002)의 『중국항일전쟁과 조선민족』 등이 있다.

(2) 중국 측 연구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중국조선족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58년 국가 민족사무위원회의 주최 하에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북경대학, 길림대학, 연변

dCollection @ jeju

대학 등 여러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동북삼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조선족 집거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조사로부터 시작되었다(김춘선, 2006: 141). 1989년에는 『중국조선족천입사(中國朝鮮族遷入史)』 주제의 논문집을 냈는데 중국의 한족학자들과 조선족학자들이 공동으로 중국조선족역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주사를 중심으로 조선족역사의 상한선문제를 다루는 논문들로 묶어졌다. 실질적으로 조선족 교육의 역사에 대해 공식적인 저술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연변교육사』의 저술을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한중수교이후 독립운동사에 관한 연구들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면서 독립지사들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었고 그러한 독립운동가들과 연결된 교육기관에 대한 연구가 특히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서전서숙, 명동학교의 연구를 비롯하여 북간도 사립학교설립운동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연구들은 대개 1931년 만주사변(滿洲事變)을 기점으로 연구주제가 달라진다. 만주사변 이전의 연구는 대부분 민족교육에 관련된 것이고 만주사변 이후에 대한 연구는 식민주의 교육정책에 관한 주제[22]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연변대학 사학과 출신의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석·박사 학위논문[23]을 모두 만주 교육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박금해를 비롯하여 박문일, 허청선, 박태수, 최홍빈, 리정문, 손춘일 등 학자들을 들 수 있다.[24] 그러나 중국 학계의 경우 연구논문에 비해 통사류(通史類)의 저술이 더욱 잘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미 출판된 조선족교육사 관련 저서와 학위논문들은 다음 <표 Ⅱ-2>와 같다.

---

22) 중국에서 이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물들로는 1951년 동북사범대학교육학과에서 편찬한 『위만주국 노예화교육(僞滿奴化教育)』 이후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武强 주필의 『동북14년 식민지기 교육사료(東北淪陷十四年教育史料)』와 王野平 주필의 『동북14년 식민지기 교육사(東北淪陷十四年教育史)』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齊紅深의 『동북지방교육사(東北地方教育史)』, 武强 주필의 『일본의 중국 침략기 식민지교육정책(日本侵華時期植民地教育政策)』, 盧鴻德 주필의 『일본의 동북침략 교육사(日本侵略東北教育史)』 등으로 활발한 연구를 시작해 21세기에 이르게 되면 고조를 이루게 되는데 齊紅深 주필의 『동북식민지기교육연구(東北淪陷時期教育研究)』와 『일제중국침략교육사(日本侵華教育史)』, 『일본의 중국침략 식민교육 견증(見證日本侵華植民教育)』, 『중국에 대한 일본의 교육침략: 일본 중국침략교육에 대한 연구와 비판(日本對華教育侵略: 對日本侵華教育的研究與批判)』, 『말살하지 못할 죄-일본의 중국침략 교육구술사(抹殺不了的罪日本侵華教育口述史)』 등 연구들이 있다.

23) 석사학위 논문(1996)은 명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北間島民族教育에 關한 一研究: 1905~1920年代를 中心으로」이고, 박사학위 논문(2007)은 중국 연변대학교 대학원 세계사전공의 「日本對東北朝鮮人的殖民主義教育政策研究」이다.

24) 이 학자들의 연구는 [부록 1]을 참조.

dCollection @ jeju

<표 Ⅱ-2> 중국 측 연변조선족교육사 관련 학위논문 및 저서

학위논문		
朴今海/2007	日本對東北朝鮮人的殖民主義教育政策研究	연변대학교 세계사전공 박사학위논문
저자/출판일	저서	비고
저서		
연변대학교육학심리학교연실/1987	연변조선족교육사	
朴奎燦/1989	延邊朝鮮族教育史稿	漢文
中國朝鮮族教育史 編寫組/1991	중국조선족교육사	
延邊朝鮮族自治州教育志編纂委員會/1992 延邊朝鮮族自治州教育志編纂委員會/2008	延邊朝鮮族自治州教育志(1975~1988) 延邊朝鮮族自治州教育志(1988~2008)	
남일성, 방학철, 임창길/1995	중국조선어문교육사	
허청선, 강영덕, 박태수/2000~2003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1~4	
朴今海/2008	日本對東北朝鮮人的殖民主義教育政策	
許靑善, 姜永德/2009	中國朝鮮族教育史	漢文

그런데 이런 연구들은 역사학적인 맥락에서 정치사 연구를 초점으로 거대담론적이고 사실규명적인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교육사 본연에 관한 논의는 적었는바, 더욱이 철학사나 사상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정도였다. 중국조선족역사연구의 동향에 대한 박금해(2005), 김춘선(2006) 두 조선족학자들의 검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역사학적인 맥락에서 1945년 해방 이후의 중국조선족역사 연구의 성과와 연구현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주사, 국적문제, 민족주의운동과 무장투쟁문제, 민족사상과 사회주의사상의 전파문제 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민족교육과 문화에 관련된 논의는 해방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중국조선족역사 연구에 있어 사상사, 철학사 연구의 절대부족과 문제사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는 북간도 교육사연구는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간도교육사에서 서전서숙이나, 명동학교 그리고 1910년대의 사립학교설립운동 등과 관련한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육사학적이고 교육사상적인 맥락에서의 정리가 미흡하다. 실제로 기존의 간도교육사연구에서는 효시 찾기나 그 교육전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하여 어디까지나 민족교육의 전개에 대한 접근으로 그러한 상황이 형성된 원인을 지극히 근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그 해결책으로 기존연구의 공백을 부지런히 찾아야 하며 새로운 방향의 연구들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dCollection @ jeju

(3) 일본 측 연구

간도 조선인의 교육에 관한 일본 측의 연구는 일찍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주로 식민지적 교육의 고찰을 위한 것으로 대표적으로『재만조선인과 교육문제(在滿朝鮮人と敎育問題)』,『만주교육사(滿洲敎育史)』등 저서가 있다. 그 후 1950~60년대는 식민지교육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일련의 성과를 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만주교육사』를 재출판하면서『만주・만주국교육자료집성(滿洲・滿洲國敎育資料集成)』 등 연구결과물들이 나왔다. 특히 이때 만주교육사연구회(滿洲敎育史硏究會)가 발족되면서 만주국교육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성과를 이루게 되었고『만주교육의 기초연구(滿洲敎育の基礎硏究)』등 무게 있는 연구물들이 나왔다(박금해, 2008: 7). 허수동(2008)의『근대중국동북교육의 연구(近代中國東北敎育の硏究)』도 최근의 성과이다.

이러한 만주교육사 동향에 따라 연구논문 또한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즈키노키(槻木瑞生, 1975・1992・1994, 1999)의「일본의 식민지교육-만주 및 간도조선족 교육(日本在植民地的敎育-滿洲及間島朝鮮族敎育)」,「중국길림성용정촌 조선인학교-동북지구조선족학교의 전개(中國吉林省龍井村の朝鮮人學校－東北地區朝鮮族の學校の展開)」,「중국동북 조선족과 교육권회복운동(中國東北の朝鮮族と敎育權回收運動)」,「중국간도에 있어서 조선족학교의 전개(中國間島における朝鮮族學校の展開－1910年代から1920年代初頭にかけて)」, 미요시 아키라(三好章, 1998)의「만주국의 조선인-간도조선인 황민화교육에 대하여(滿州國の朝鮮人－間島における朝鮮人への皇民化敎育について)」, 타케나카 겐이치(竹中憲一: 2000)의「간도 민족주의 조직에 따른 조선인교육(間島における民族主義組織による朝鮮人敎育)」, 우봉춘(于逢春: 2001, 2002a, 2002b)의「중국조선족교육을 둘러싼 중일양국의 경쟁-1905~1931년 간도를 중심으로(中國朝鮮族敎育をめぐる中日兩國の競爭-1905~31年の<間島>を中心に)」,「중국조선족 종교단체에 의한 민족교육에 관한 일고찰(中國朝鮮族宗敎団体による民族敎育に關する一考察—1900~1930年代の中國東北地方を中心に)」,「청말 중국에 있어 동북소수민족교육에 관한 연구(淸末中國における東北少數民族敎育に關する硏究)」, 허수동(許壽童, 2002・2006)의「일본의 재만조선

dCollection @ jeju

인정책 1932~1937-간도의 조선인사립학교를 중심으로(日本の在滿朝鮮人教育政策 1932~1937-間島の朝鮮人私立學校を中心に)」, 「'간도사건'이 교육에 미친 영향(間島事件對教育的影響)」, 허수동(2008)의 한국에서 발표한 논문 「간도광명회와 영신중학교(間島光明會と永新中學校-韓日中の<理想鄕>は可能だったろうか)」 등 연구들이 일본학계에서 나왔다.[25]

이상 일본학계의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대개 일본의 침략행위를 비판하고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 천방백계로 일본의 침략행위를 미화하고자 하는 입장, 실증주의 사학에 기초하여 역사적 사상(事象)만 다루면서 능동적인 입장 등 세 부류의 특징(朴今海, 2008: 8)을 가지고 있는바 역시 정치사적인 맥락의 연구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각 국가별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가 하면 학자들의 학술교류활동이 잦아지면서 국내, 국제적인 학술대회에서도 다양한 성과물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학술대회는 2000년대 이후 더욱 활발해 졌는바 교육사 관련 연구 역시 각종 학술대회의 성과가 속출하고 있다.

2002년 한국교육사학회 주최로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과 함께 연길에서 『20세기 조선민족교육의 전개와 그 평가(20世紀 朝鮮民族教育의 展開와 其 評價)』라는 주제로 한중국제학술대회[26]를 열었다. 한국과 중국조선족 학자들을 중심으로 광복 이전과 이후의 두 시기의 교육사를 대상으로 한국학자들은 20세기 한민족 교육사에 대해, 중국조선족학자들은 20세기 중국 조선족교육사에 대해 양측에서 각각 논의 및 교류하였다.

그 후 2006년에는 서전서숙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학술활동이 진행되었으며 결과물 또한 풍부했다. 사단법인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한중공동의 국제학술대회는 『한국독립운동과 서전서숙』이라는 주제로 윤병석, 최홍빈, 서굉일, 박주신, 김철수, 이문원, 최근갑 등 한국과 중국의 역사 전문가들의 논문

25) 이 가운데 于逢春과 許壽童은 중국인으로 일본에서 학위를 받았다. 于逢春은 한족으로 일본 히로시마(廣島)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許壽童은 연변출신의 조선족으로 일본 이찌하시(一橋)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6) 이 학술대회에는 박태수, 김병민, 최문식, 최성학, 남일성, 장세일, 박금해, 강영덕, 김철수, 이천옥 등 연변의 조선족 학자들과 김경식, 심형진, 김호일, 김인회, 남궁용권, 박선영, 김대용, 안경식, 정혜정, 이항재 등 한국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세기의 한민족의 교육에 대해 양측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dCollection @ jeju

7편[27]이 발표되었다. 또한 용정(延邊: 龍井市) 3·13기념 사업회와 연변역사학회(2006)에서는 서전서숙개숙 100주년기념문집 『역사의 종소리』를 출판하여 최홍빈, 윤병석, 김철수, 김춘선, 박금해 등 한국과 중국의 역사학계 학자들의 논문[28]이 발표되었다. 그런가하면 중국 조선족 사학자와 교육학자들의 공동노력으로 중국조선족근현대교육 100주년기념을 위한 『중국조선족교육연구(中國朝鮮族教育研究)』라는 논문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중국조선족 교육의 역사와 현대의 교육의 각 분야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조선족 교육에 대해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다.

2008년에는 명동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의 국립민속박물관,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등 단체와 함께 『북간도 한인의 삶과 애환 그리고 문화』라는 주제로 윤병석, 서대숙, 이명화, 손춘일, 최봉룡, 서굉일, 김춘선 등 한·중의 학자들의 논문 11편을 발표 및 토론함으로써 명동학교 100주년을 기념하였다. 그 외 독립기념관 및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는 『북간도 명동촌, 그 삶과 독립운동』(2005), 『북간도 지역 한인 민족운동: 명동학교 100주년 기념』(2008) 등 학술활동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2. 동양과 과제

간도 역사 및 교육사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의 주제가 역사학적 맥락에서 정치사 중심으로 설정되어

---

27) 그 7편 논문은 윤병석의 「한국근대사상 간도와 독립운동, 서전서숙」, 최홍빈의 「서전서숙과 조선족사회」, 서굉일의 「상동청년회와 서전서숙」, 박주신의 「근대교육사에서의 서전서숙의 위상」, 김철수의 「연변조선족의 항일투쟁과 서전서숙」, 김문원의 「서전서숙 설립전후의 이상설의 민족운동」, 최근갑의 「북간도 조선인 항일독립운동의 원류」 등인데 2007년에는 이 자료를 책으로 묶어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한국독립운동과 서전서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28) 윤병석의 「북간도 한인사회와 명동학교」, 서대숙의 「김약연의 생애와 민족운동」, 손춘일의 「중국조선족 민족과정과 간민회」, 이명화의 「명동학교와 항일민족운동」, 최봉룡의 「북간도 간민회의 조직과 활동」, 서굉일의 「북간도지역 민족운동과 기독교」, 김춘선의 「청조의 북간도 개척 정책과 한인」, 김보희의 「북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가요」, 김홍식의 「북간도지역 한인의 주거생활」, 김시덕의 「사진으로 보는 북간도지역 한인의 민속」, 김창호의 「북간도 사진자료와 민속아카이브」, 김재홍의 「규암 김약연과 명동촌」 등 논문들이 포함되었다.

dCollection @ jeju

있다. 따라서 운동사적인 맥락의 고찰이나 식민주의 교육적 접근, 중·일 양국의 교육적 정책 등 주제들이 다수이며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순수 교육학적인 접근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유로 교육의 의미를 지나치게 제도권 교육, 형식적 교육에만 한정시키는 경향이 보인다. 즉 연구의 대상이 당대 북간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던 민중이 아니라 교육기관들의 설립이나 운영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연구의 전개에 있어 민족교육의 생성과정보다 전개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북간도 민족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민족, 민족주의, 민족교육 등 개념들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연구[29]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그러한 접근은 1905년 이후 애국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시작되는 저항적 민족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북간도 민족교육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간도 민족교육을 이끌었던 주체를 애국계몽운동가나 독립지사들로 한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민족교육을 민족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규범화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한·중·일 삼국의 학자들 대부분이 자국(自國)적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이 보인다. 지명·학교명에 대한 파악이나 용어 정의 및 개념 설정에 있어 무분별한바 대개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보편적 경향을 준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간도 교육사의 특수성과 그 자생적 측면을 인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드문 것으로 보인다. 대개 한반도 교육사 혹은 중국 교육사의 보편성을 준거 또는 기준으로 북간도 교육사를 바라보고 있는바 그 교육의 자생적인 측면은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보인다.

다섯째, 순수하게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에 관련된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 학자들이 교육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간단히 언급은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적 교육에 한한 교육이념적인 것인바 순수한 교육사상적 측면의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간도 교육사상은 대개 민족주의에 입각한 배일사상이나 항일사상에 귀결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 및 외래 종교사상 등 근대

29) 그 대표적 연구가 조동걸(1977)의 「1910년대 民族敎育과 그 評價上의 問題」이 있다.

dCollection @ jeju

이후 및 외래사상에 의존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민족의 전통교육사상을 배제하는 경향인바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섯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전통교육과 근대교육의 연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육기관적인 측면에서 서당→개량서당→근대학교의 변천과정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교육사상적 측면의 연대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당대 북간도 사회를 이끌었던 관북유지 혹은 유림들의 교육적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 그들의 사상이 근대적인 것으로 전환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사상에서 전통을 유지 및 계승하고 있다는 측면과 근대적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데는 그러한 전통사상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가능했다는 측면의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사 중심의 연구를 사회사, 경제사 나아가 문화사, 일상사, 생활사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보다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북간도 교육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흔적들 속에 감춰진 교육의 현상이나 역사현상들의 교육적 의미들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적 교육만이 아닌 사회사적, 경제사적, 문화사적 측면의 사회교육과 생활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순수 교육학[30]적인 맥락의 연구로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나 비형식적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북간도 민족교육사의 독자적인 특수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교육사의 연구대상을 북간도 민중으로 하여 그들이 살아온 삶에 초점을 맞추어 민족교육의 태동, 생성과정에 대해 면밀히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다. 아울러 그러한 삶 속에서 배태되는 교육사상의 자생적 생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전근대적인 교육사상과 근대사상의 연대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31] 일단 이주민들의 출신지역인 함경도와의 정신문화적 유대관계를 밝혀야 한다. 함

30) 교육학과 출신으로서 교육사 전공연구자들은 한국교육사학자로는 金璟植, 朴州信, 중국조선족교육학자로 許靑善, 姜永德, 朴泰洙 등 외에 교육학과 출신의 교육사학자로서의 간도교육사 연구자들은 많지 않았다. 연구자들 가운데는 역사교육 출신으로 학위논문은 교육학 학위를 받은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학자들 역시 역사학자로 보기로 한다.

31) 이와 관련해 필자는 「북간도 민족교육사상 형성의 역사적 동인」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육사상연구회 제48회 정기학술회의에서 발표한바 있다(김해영, 2010).

dCollection @ jeju

경도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그들의 북간도 이주 동기에 미친 영향, 북간도 이주 이후 민족의식의 형성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연구방법에 있어 단순한 보편성을 강조하는 접근이나 특수성을 강조하는 접근 가운데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통시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에 대한 정의를 보다 넓혀 교육현상들의 역사인 것이 아니라 역사 현상들 속에서 교육적 의미를 파헤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동향과 연구 과제들을 염두에 두고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dCollection @ jeju

Ⅲ.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의미

민족, 교육, 사상 등에 포함되는 의미가 다양한 만큼 민족교육사상의 의미 또한 시대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간도라는 한민족의 특정 이주 공간에서 민족교육사상에 대한 의미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그 접근방식 또한 달라질 것이다.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 전개를 위해 우선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족, 민족의식 및 민족주의 등 민족관련 개념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민족교육과 민족교육사상의 의미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 내에서와 북간도에서 한민족교육사상의 의미 차이를 발견, 북간도만의 특수성을 도출하고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 전개과정의 논증에 필요한 전제를 제시해야 한다.

1. 민족과 민족교육사상

1) 민족과 민족의식 및 민족주의

민족[32]이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그 어원적 의미인 내이션(nation)이라는 용어에는 민족, 국민, 국가의 의미가 아울러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과 국민 및 국가라는 개념과의 상관관계로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족은 지연적 연쇄(連鎖)에 기인한 사회적 결합체로서 혈연과 문화 및 운명의 공동에 의하여 결합된 지연적 집단으로 볼 수 있다(김경식, 2008: 8). 이는 민족에

32) 민족은 영어로 'nation'으로 그 어원은 라틴어의 'natis'인바 출생, 종속, 자손을 의미하는데 이는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과 함께 그 의미가 변천되었는데 중세에는 '특정의 촌락에 거주하는 동일혈족의 씨족집단'으로, 그 후에는 출신지역을 구분하는 지연과 관련된 명칭으로, 또한 인종집단과 연관된 것으로 변천되어 오다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특정 국가를 이룩하고 있는 구성원의 의미로 민족과 국가라는 말에 가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이항재, 2001: 264)

dCollection @ jeju

대한 수많은 개념의 합일된 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민족은 정치적인 측면보다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고 국가는 문화적 측면보다 법제적이고 정치적 측면이 강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족은 문화적인데 반해 국가는 정치적이라는 것이다(김경식, 2008: 9). 요컨대 민족은 자연발생적, 운명적, 문화적 공동체라고 한다면 국가는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조직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민족과 국민의 상관관계에 있어 인종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복합성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에 비해 민족은 보다 단일적이고 통합적인 관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은 통합에 가치부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자발적인 발표와 조정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국민과 차별된다. 결국 민족이라는 것은 개인을 초월한 어떤 단체나 민족을 구성한 어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동 문화의식 즉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으면서 역사적 공감성을 기반으로 특정 구성원들 사이에 운명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경식, 2008: 9; 이항재, 2001: 265). 이와 같은 민족의 개념에 필요한 조건은 혈연, 언어나 문화 또는 전통의 동질성, 동질적 생활환경의 지연(地緣), 독립주권을 가진 국가내의 집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의 유지 및 발전과 관련된 개념으로 민족의식, 민족주의, 민족성 등을 들 수 있다. 민족의식은 역사성과 문화성에 따라 형성되는 운명적·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우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주의는 정치적 독립주체로 기능하고자 하는 민족의 역사적 운동으로 하나로 일치된 민족구성원들의 정신적 감정상태 또는 자기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항재, 2001: 265-266). 이는 국민정신 또는 국가의식과 일맥상통한 개념이라 하겠다. 그런가 하면 민족성은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는 특성, 성격, 개성으로 지리적, 체계적,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 등에 의해 형성된다. 그것이 다시 민족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역사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환경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내함이 바뀌어 질 수 있는 민족의 특징을 말한다(이항재, 2001: 268).

이 같은 개념 가운데서 특히 민족의식과 민족주의의 구별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족의식은 민족의 운명공동체적 특징을 강조하는 것으로 민족의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민족주의는 자주와 자강의 개념을 통해 민족의 정치적인 독립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위

dCollection @ jeju

적이고 법제적이며 정치적인 국가의 개념에 입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주의나 국민주의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민족의 독립, 통일 및 발전을 지향 추진하려는 사상과 운동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겠다(손인수, 1983: 6).

한반도의 경우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공통된 민족성을 지닌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국가를 영위했기 때문에 동질적인 집단 속에서 민족을 의식하기란 그리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시행된 쇄국정책과 함께 더욱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 말 격변의 충격은 한민족으로 하여금 자(自)와 타(他)를 비교 및 변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세의 침입과 함께 서구적 민족주의의 유입은 저변에 잠재되어 있던 민족성을 일깨워 수면위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 있어서 민족구성원들이 민족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 즉 민족주의 의식을 지니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서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러한 위기해소를 위해 민중이 집단적으로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자각에 도달하게 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유근호, 1982: 17-1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9세기 이후 한반도에 있어 민족에 대한 자각으로서의 민족의식은 서세동점의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여 형성되었다. 외세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민족적 일체감이 조성, 분출되는 애국심에서 비롯된 저항적 민족주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내에서의 민족의 개념은 민족이 정치적 독립주체로 기능하고자 하는 역사적 움직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 내지는 국가와 일치한 개념으로 정치적 측면이 강조되는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나 국민주의가 부각된다. 이때 민족의식과 민족주의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민족교육과 민족교육사상

민족교육은 민족주의 기반의 교육이냐 민족의식 기반의 교육이냐에 따라 개념적 차이를 가진다고 하겠다. 민족과 국민 및 국가를 일치하게 볼 경우 민족의식과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와 국민주의는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때의 민족교육은

Collection @ jeju

민족주의 교육으로서 국민교육 또는 국가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꾀하기 위한 교육, 또는 강대국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보전하고 자주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족정신을 배양하고 고취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항재, 2001: 268).

하지만 민족에 대한 의식을 정치적 측면을 제외한 문화적이고 운명적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는 민족교육은 민족의식과 민족주의의 개념을 구별하여 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족과 국가를 차별화시키는 것이다. 이때의 민족교육은 공동체인 민족의 형성, 존속과 발전, 공동체의 삶의 개선과 증진 및 민족으로서의 존재성의 깨우침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민족주의가 아닌 순수 민족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민족주의와 민족의식의 범위문제가 민족교육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교육에 있어 국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정치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이나 국가의 지도계층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이고 사상 체계적 특징을 가진다고 하겠다. 반면 민족의식은 민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민족에 대한 자각으로 하층에 있는 민중들의 이성적 반성 이전의 생활 감정, 의식아래 있는 지향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의식의 정치적 표현이고 민족의식은 민족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족의식은 민족주의에 비해 보다 넓은 의미라 하겠다. 이를 전제로 민족교육은 민족주의 교육에 비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민족교육은 바로 이와 같은 민족의식과 민족주의를 그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근대 민족교육사상은 서구열강과 일제에 의해 강요된 압제 하에서 주권상실의 위기로부터 오는 민족적 자각과 정치적 각성에 따른 저항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서구적 이론 및 사상체계로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아시아 나라들에 의해 수용되기 시작했으며 미증유의 외세침점의 기미가 보이는 시대적 상황 구국이라는 함수와 맞물리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것은 무력항쟁에 의한 민족운동과 외교 및 조직적 시위에 의한 민족운동, 그리고 문화적 항쟁으로서의 민족교육의 형태로 나타났다(강선보, 1994: 188). 민족교육사상으로서 민족주의의 기본이념은 민족의 자주독립

dCollection @ jeju

정신을 고취, 애국애족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 함양, 교육을 통한 민중의 계몽과 민족화 수호, 민족갱생과 사회개조를 위한 민족적 생기의 진작과 이상 수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진동근, 1975: 79). 이러한 민족교육사상은 일제의 통감부 설치와 함께 시작되는 식민통치에 반발하여 급속도로 전개되었는데 세계 한민족에 미친 영향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겠다.

2. 북간도 민족교육과 민족교육사상

1) 민족교육

한 민족을 기타 민족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를 민족성 또는 민족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의식은 또한 민족정신이라고도 표현되는데 민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민족에 대한 관념 내지는 의식으로 집단의식 혹은 사회의식, 공동체의식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자기의식은 공동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족과의 접촉에서보다 이민족 및 이문화(異文化)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게 된다(김해영・양진건, 2009: 182). 북간도 이주민사회에서 근대적인 민족 개념이 생성되기 이전에 이미 민족생성현상에 해당하는 이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러한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한 공동체 의식은 이미 민족을 자각하기 시작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간도는 19세기 이래 조선인들의 이주공간이다. 조선인들의 이주라는 현상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선, 고향을 등지고 떠남을 담고 있다. 19세기 중반 삼정문란(三政紊亂)과 가렴주구로 인한 변방민중의 생활궁핍을 타개하기 위한 월경이민이 크게 늘었다. 이는 이주민들의 봉건 왕조에 대한 불만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반체제적인 성향과 함께 반골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타민족과 공존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타민족 혹은 타국의 통치권 안에 있는 이주공간에서 이주민은 필연적으로 다른 민족들과 공동생활을 영위해

dCollection @ jeju

야만 한다. 북간도 이주 조선인의 경우 적어도 만족과 한족이라는 두 민족과 공존해야만 했다. 이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름을 경험적으로 피부에 닿게 실감하는 과정으로 이주민들의 자기판별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문화의 체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현상들에 대한 비교가 진행된다.

타민족과의 공존구도가운데서 성장하는 자기판별의식과 함께 이주민들은 집단적인 생활영위가 곧 이주민사회에서 존립 가능한 유일한 대책임을 의식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의식 또는 집단의식으로 표방되는 피아(彼我)에 대별되는 '우리의식' 또는 '자기의식'이 생성된다. 특히 이러한 의식은 억압받고 착취 받고 있다는 불평등 혹은 피해의식이 강해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강렬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뭉쳐야만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는 의식이 점차 생기게 되었고 이는 서서히 민족의식으로 자각해갔으며 그것을 공동체 내에서 혹은 후대들에게 전파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절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이주민사회에서 교육은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집단거주의 형태로 마을을 형성하고 마을의 안정과 정착이 이루어짐과 함께 민중내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을 유지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교육활동은 대개 조선후기 한반도 내의 서당교육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으나 내용이나 방법 적인 측면이 아닌 교육목적에서 한반도의 그것과는 실제적으로 다른 면도 보여주었다. 이는 이주지역에서의 교육은 봉건적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화의 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이나 사회 이동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주민사회에서의 민중들의 의식이 향상되었음과 함께 당면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주 전 조선조체제 하에서 변경 민중들은 봉건적 신분계층 간의 갈등과 모순을 겪어야 했다. 그렇다면 북간도 이주 이후에는 일단 타민족과 대치상황이라는 경쟁구도로 민중의식은 더욱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주사회에서는 보다 확고한 정착과 적응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나라의 치발역복(薙髮易服), 귀화입적(歸化入籍)[33]의 노골적인 동화

33) '치발역복(薙髮易服)', '귀화입적(歸化入籍)'은 청나라의 이주 조선인에 대한 동화정책으로 청나라 사람들처

dCollection @ jeju

정책으로써 자국민화하고자 하는 움직임,(김춘선, 1998: 78) 청인이나 한인(漢人) 점산호(占山戶)들의 무자비한 착취, 동족(同族)으로서 청에 입적하여 지주가 된 조선인들의 횡포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함께 민족의식은 더욱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경제적으로 토지소유를 위한 전민제(佃民制)를 출현시켰다. 당시 북간도 지역 농경지는 대부분 이주 조선인들이 개간한 것인데 청정부에서는 귀화조선인에 한해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권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들이 귀화하지 않고도 토지소유를 할 수 있도록 출현한 것이 전민제인데 이는 비귀화인들이 귀화인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는 형태를 말한다(김춘선, 1998: 78-79).

사회적으로 북간도 이주민들은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집단공동체를 구성하여 조선인 마을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이러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집단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을공동체의 형성은 교육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문화적으로 북간도 이주민들은 당장 부딪힌 이민족과의 갈등과 모순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러한 의식은 서당교육을 활발하게 벌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족교육을 '민족의 공동체적인 삶의 증진을 위한 교육'으로서 '민족으로서의 삶을 반영하고 깨우치게 하고 개선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이종각, 1990: 15). 이때 이주와 함께 북간도 조선인 사회에서 형성된 교육은 그것이 전통적인 것이든 근대지향적인 것이든 간에 이미 민족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로써 북간도 민족교육의 출발은 한반도 근대 민족교육의 출발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임을 인식할 수 있다. 한반도 내의 근대민족교육은 외세 침입의 충격으로 형성된 저항적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이었다. 이는 근대지향적인 측면과 민족지향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북간도 민족교육의 경우 민족지향적인 측면이 근대지향적 측면보다 앞서 존재했다. 이때의 민족교육에서의 민족의 의미는 국가나 국민이라는 정치적 의미보다 삶을 반영하는 운명공동체적·문화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럼 머리를 깎고 청나라 옷으로 귀화하여 청나라에 국적을 올리고 청인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정책이다.

dCollection @ jeju

2) 민족교육사상

1860년대로부터 본격적 이주와 정착을 시작한 북간도 이주 조선인들은 일제에 저항하기에 앞서 청나라 주류민족인 만족과 그리고 한족들과 경쟁구도를 갖추어야 하는 의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주민들은 이주 전 대부분 변방의 하층 민중 출신으로 오랜 세월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봉건적 수탈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늘 반체제적인 반골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북방변경에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여진족 등 이민족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해야만 했다. 그 이유로 자와 타의 구분을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빨리 자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들어 민중의식이 비교적 빨리 성장하는 대표 지역가운데 하나가 북방변경지대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이주초기 북간도조선인사회에서 민족 및 민족의식의 개념생성은 동일한 생활공간 속에서 타민족에 대한 '우리의식', '자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결코 국가나 국민의식으로서의 거대하고 서구적인 또는 외세에 대한 저항적인 민족주의의 개념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그들은 새로운 삶의 개척을 위해 고향을 등지고 과감하게 이주를 한 이주민으로서 그들의 개념 속의 국가인 왕조에 대한 미련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의 우리의식 속에서 태동되는 민족의 개념은 운명공동체적이고 문화적 민족으로서 법제적이고 정치적인 국가나 국민과 결코 일치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민족의 끊임없는 압제와 침탈을 경험하면서 민족과 국가의 존재 당위를 서서히 체득해 나갔을 것이다. 이주 이전의 전근대적 향촌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사회·경제적 제 관계를 지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읽고 쓴다는 의미는 더 이상 한반도내에서와 같이 지배집단의 논리와 가치체계에 편입하고자 하는 허구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인간됨을 확인하는 것이었다(한국교육연구소 편, 1993: 243).

이러한 맥락에서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은 국가나 국민의 개념이 강한 민족주의적 측면보다는 사회·문화·운명공동체적인 개념이 강한 공동체의식, 민족의식을 출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주민 공동체 안의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힘(social force)'에 기인되는 것으로 이는 사회를 변화시키

dCollection @ jeju

려는 또는 그 변화를 막으려는 사회내부로부터의 움직임이다(김인회, 1994: 24-25). 북간도 이주민사회를 구성한 함경도 사람들에게 있어 사회적 힘이란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또 타민족과의 갈등과 모순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공동체의식의 변질 즉 동화를 막고자 하는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사회적 힘에 의해 이주민들은 집단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이주민들의 의식은 점차 체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경제적 힘, 종교적 힘, 교육적 힘, 정치적 힘으로 승화된다(김인회, 1994: 25). 결국 이 힘을 후세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의식이 민족의식의 초기단계이고 민족교육사상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은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 즉 이민족과 공존한다는 특징에서는 민족교육사상의 맹아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근대적인 산물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주라는 행위 자체가 민중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한 움직임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전근대적 향촌 질서에 대한 거부반응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민들의 교육적 의식 속에는 이미 새로운 사회·경제적 제 관계를 염원하는 근대지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바로 북간도 이주민들의 단순한 생존권의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던 모습 속에 담긴 발전 지향적인 의식세계가 북간도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 것이다.

이는 북간도에서 다양한 열악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의 양성과정이다. 그것은 이후의 근대적 물결의 수용과 함께 한반도에서 급속히 전파되는 자주·독립의 민족주의적 사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기반으로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적 민족교육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적극적 수용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하겠다. 사상의 개념을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이성적 반성 이전의 생활 감정, 의식아래 있는 지향 등으로 이해할 때 이상에서 살핀바와 같이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은 시종일관 북간도 이주민들의 민족의식과 일맥상통하게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Collection @ jeju

Ⅳ.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 배경

1. 조선인의 북간도 이주 배경

북간도 이주 조선인의 출신지는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도 제시되었고 또 현재의 연변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서도 표현되듯이 함경도 출신[34]이 가장 많고 그 버금이 강원도이다(이종수, 2009: 71).

[그림 Ⅳ-1] 북간도와 함경도 북부 대칭지도

* 槻木瑞生(1975)의 연구 p.102의 지도의 부분을 취해 필자가 명칭을 한글로 표기하고 함경북도와 북간도 지역의 도시를 추가 표기함.

34) 현재 중국 동북에 분포되어 있는 조선족의 한반도 출신지역을 보면 압록강 유역의 신의주(新義州)와 두만강 유역의 회령을 축으로 한반도를 동북3성 쪽으로 뒤엎은 결과라 할 수 있다(김경식, 2008: 864). 이는 동북3성에 분포되어 있는 조선족의 방언을 살펴도 알 수 있는 것으로 함경도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북간도 즉 현재의 연변(연변조선족자치주)은 주로 함경도 사투리를 쓰고 있고 평안도 출신이 다수인 遼寧省 남부 즉 서간도 일대는 평안도 사투리를 쓰고 있으며 吉林省 서북부나 黑龍江省의 조선족은 주로 경상도를 비롯한 남한의 방언을 쓰고 있다(김동춘, 2007: 22). 이러한 현상은 기타 이주민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본 오사카의 猪飼野(이카이노) 지역에 가면 도처에서 제주도 사투리를 들을 수 있어 '일본 속의 제주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dCollection @ jeju

[그림 Ⅳ-1]를 통해 함경도 북부지역과 북간도 지역은 두만강을 축으로 대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간도 이주민들의 출신이 함경도 북부지역임을 나타내는 지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간도의 역사 문화적 배경과 교육현실 및 그 사람들의 교육의식에 대한 이해는 함경도 변방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 지역의 독특한 지리·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은 특정한 역사단계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추상적인 인간 일반이 아니라 현실의 사회적 제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역사사회적 존재이고 그 생활과정 및 생존방식 자체가 교육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하기"(양진건, 1991: 25) 때문이다. 역사에 있어서 민중의 삶의 실천방식을 지도하는 교육현실은 당시의 역사적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북간도 이주한민족의 원천을 제공한 함경도 북부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및 문화적 특성, 변방 교육현실에 대한 제 조건을 고찰해야 한다. 이는 당대 함경도 변방이 처한 역사적 교육현실과 그들의 이주지역인 북간도 교육현실의 총체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이다.

1) 북간도 조선인의 역사·문화적 특징

1860년대 이전 북간도 지역은 청정부의 봉금령으로 200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였다. 북간도는 함경도 북부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곳은 당시 청과 조선의 국경이 명확하지 않았던 지역이라 왕래하던 주민들은 함경도 변방의 주민이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함경도는 평안도, 황해도와 함께 조선조의 북삼도(北三道)에 속한다. 그 가운데 함경도 북부지역은 한반도 최북단의 변방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대륙의 한족(漢族), 거란(契丹), 여진(女眞) 등 민족과 접촉해 왔으며 고구려말기 이후로는 늘 불안정 상태였던 지역이다.[35] 이러한 상황은 조선 초기(1441년: 세종 23) 김종

35) 고조선시대는 濊貊(부족동맹)의 治下, 古朝鮮 멸망 후 漢四郡(BC 108)이 설치되자 玄塊郡에 속했다가 한4군 철수 후에는 沃沮에 귀속되었고, 광개토대왕 20년(410) 고구려가 東夫餘(285~410)를 멸망시키면서 고

dCollection @ jeju

서(金宗瑞)에 의해 두만강 변 북변(北邊)에 6진(六鎭: 종성(鐘城)·온성(穩城)·회령(會寧)·경원(慶源)·경흥(慶興)·부령(富寧))을 설치하게 되면서 결속되었다. 그 뒤로 완전히 조선조에 귀속되었고, 조선은 국경 수호를 위해 충청·강원·경상·전라도 등 남도 민호(民戶)의 함경도 이주정책[36]을 펴게 되었다.

함경도의 지명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고려 성종시기에는 삭방도(朔方道)·동계(東界)·동북면(東北面)·강릉삭방도 등으로 불렸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종 4년(1404)에는 영길도(永吉道)·함길도(咸吉道)·영안도(永安道)를 교체 사용했으며 도병마사(都兵馬使)를 설치, 태종 7년(1407)에 또 함길도(咸吉道)라 했다. 중종 4년(1509)에는 함경도로, 그 후 1896년 13도 개편과 함께 함경 남·북도로 분할되었고 함경북도는 치소(治所)를 경성부(鏡城府)로 하였다.[37]

이러한 행정적·법적 지명 외에도 함경도는 관북(關北), 북변(北邊), 서북, 북새(北塞) 등 인문 및 역사 지리적 의미를 내포하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다. 관북은 주로 함경도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북변은 6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함경북도는 보통 북관[38]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함경도지역 특히 북부 변경지역은 조선초기까지도 상당히 이질적인 지역이었다. 조선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두만강 유역의 육진이 조선의 영역 안에 들어온 뒤부터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조선조의 문화에 융합되지 못했다. 그것은 함경도 변방은 워낙 중앙과 물리적으로 원격할 뿐만 아니라 중중첩첩한 산들과 물에 가로놓여 있어 육지

구려에 속하게 되었다. 668년(寶藏王 27) 고구려가 멸망하자 唐나라에 속했고, 699년 이후에는 渤海의 영토에 편입되었다. 발해가 멸망(926)한 후 차례로 契丹, 女眞의 할거지가 되었다. 1107년 고려 예종 2년에 尹瓘에 의해 吉州 ·英州 ·雄州 ·福州 ·咸州 ·公嶮鎭 ·通泰鎭 ·崇寧鎭 ·眞陽鎭에 9성(城)을 쌓게 되면서 고려에 편입되었지만 여진의 침입이나 이주는 계속되었다.

36) 『世宗實錄』 卷 95, 24年(1442) 1月 10日(壬申).
李肯翊, 『燃藜室記述』 卷4, 「文宗朝故事本末」, 문종조의 상신: "계축년(1443)에 북변에 변란이 있었다. 공은 그때 승지가 되어 임금의 명을 받들어 출납을 잘하니 임금이 중히 여겨 다음해 갑인년(1434)에 함경도 절제사로 임명하였다. 드디어 四鎭을 수복하여 성을 쌓고 남쪽 지방의 富民들을 이주시켰다. 『北關志』"

37) 1911년에 1부 10군 123면이던 것을, 1914년 富寧郡을 淸津府 관할에서 분리하여 1부 11군 81면으로 폐합·개편하고, 1920년에는 道廳을 鏡城에서 羅南으로 옮겼다. 1931년 읍면제(邑面制) 실시에 따라 나남 ·성진 ·회령 ·웅기의 4개 읍을 신설, 1부 11군 4읍 77면으로 개편하였다. 1934년에는 나진이 읍이 되고 이듬해 읍에서 다시 부로 승격하여 2부 4읍, 1938년 길주와 무산이 읍이 되어 6개 읍이 되었으며, 1941년에 城津이 부로 승격되었다. 8 ·15광복 당시 淸津市 ·羅津市 ·城津市 ·鶴城郡 ·吉州郡 ·明川郡 ·鏡城郡 ·富寧郡 ·茂山郡 ·會寧郡 ·鍾城郡 ·穩城郡 ·慶源郡 ·慶興郡 등 3개시 11개군 7개읍 68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후에도 수차례 행정개편을 하다가 1997년 淸津, 김策, 會寧 세 개의 시와 12군을 두고 있다.

38) 북관에 대응되는 南關은 咸鏡南道를 가리킨다. 關北 또는 北關이라는 호칭은 江原 淮陽郡과 咸南 安邊郡과의 경계에 있는 鐵嶺의 북쪽에 위치한다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

dCollection @ jeju

속의 섬이나 마찬가지였는바 북변지역은 북으로 남으로 고립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관의 사정은 아래 후송 유의양(後松 柳義養)의 『북관노정록(北關路程錄)』에 잘 나타나 있다(최강현 , 1984: 109).

> 대개 북도길이 뫼와 물이 많다. 물들은 다 태산 장곡(泰山長谷)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가뭄 때에는 발목에 차는 물들이라도 잠깐 비가 오면 깊기도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물 힘이 극히 세어 건널 길이 없고, 또 배들을 하류에서 끌어 올려다 건너려 해도 자연 지체하기 쉽다. 그 배라는 것도 모양은 널판 한 잎을 길게 놓고 두 옆에 성주목(成柱木)을 구유처럼 파서 양 옆에 하나씩 모로 붙였으니, 대체로 모양도 괴이하거니와 그렇게 센 물을 타고 건너기에는 퍽 위험하였다. 나도 서너곳 그런 배를 타고 건너기는 했지만 바쁘지 않은 길이라도 바로 길손이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먼저 내보내 길을 밟힌 후에야 길을 떠나야 했다.

지리적으로 열악한 이유로 함경도 북부지역은 조선후기까지 남쪽과의 교류보다 여진과의 접촉이 더 잦았다. 그리하여 삼남을 중심으로 하는 남도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또한 여진과 조선의 이질적인 두 문화의 중첩으로 변경문화 및 접경문화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정일의 택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신정일, 2004: 162).

> 우리 백성과 오랑캐가 섞여서 농사를 지어 가며 사는 곳, 풍속은 활과 칼만 알았지 책은 알지 못한다. 100년 전 옛 땅이 지금은 진이 되었는데, 알목하의 물은 흘러서 옛 터전으로 잇달아 내려가누나.

이러한 상황은 조선왕조의 함경도 출신 관리들은 대부분 무관이라는 사실에서도 반증된다.

종성에 유배되어 19년을 살았던 미암 유희춘도 북도 풍속의 우매함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내용에서도 북관의 이질적인 문화현상이 엿보인다.

> 북녘은 비루하고 무지한 풍속이 있어 매번 입춘 때마다 장정들을 벌거벗겨

dCollection @ jeju

서 목우를 몰게 하고 이것을 나경이라 한다. 그러다가 더러 추위 때문에 큰 병을 앓는 자도 있으니 감사는 모름지기 이를 엄하게 금하여야 할 것이다.[39]

실제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조선후기 지방의 모습은 대부분 경기(京畿)이남지역이었다. 황해도(黃海道)나 평안도(平安道), 함경도(咸鏡道) 등 북삼도(北三道)에 대한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토 최북단의 육진 지역에 관련된 논의는 특히 드물었다.[40] 이는 현재 북한에 속해 있기도 하거니와 자료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까닭에 연구 성과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관으로 파견된 사람들의 기행문이나 유배인들의 문학작품, 그리고 소수의 그 지역 학인들에 의한 저술에서 그 일상을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이 묘사한 북관지역은 한마디로 낯선 지역이다. 기후와 자연지형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등 풍토의 독특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남방에서 살던 지방관이 함경도에 부임하면 가장 어렵고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언어였다고 하는데 이는 제주도의 사정과도 유사했다. 육진지역은 오랫동안 여진인과 함께 거주한 지역으로서 6진이 설치된 뒤에도 여진인(女眞人)들의 잔여로 여진언어(女眞言語)가 많이 섞이게 되었다. 그 언어는 여타 지역 언어와 확연히 달라 알아듣지 못할 사투리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유의양의 『북관노정록』에서는 오히려 경성(鏡城) 이북이 경성 이남에 비해 나았다고 했는데 그 원인을 경성 이북의 육진지역은 남쪽의 사람들을 이주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41]

그런가 하면 함경북도의 독특한 문화 가운데 하나가 조선의 지지(地誌)들에 한결같이 표현되는 것처럼 무속이 성행하였다. 특히 유배인들이나 지방관들의 기록에는 꼭 무속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하곤 했다. 홍양호(洪良浩)의 『이계집(耳溪集)』에서나 유의양의 『북관노정록』, 박제가(朴齊家)의 「여차잡절(旅次雜絶)」, 「수주객

39) 柳希春, 『眉巖日記草』(박종훈, 2008 재인용).
40) 북간도와 관련지어 육진지역의 역사를 다룬 연구는 연변의 학자들에 의해 진행된바 있는데 그 가운데 김춘선(2001)의 연구에서 비교적 자세히 소개되었다. 그러나 주로 이주와 범월현상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교육사에 관련된 이 지역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41) 최강현이 역주한 후송 유의양의 『북관노정록』 89쪽에는 북관의 사투리를 기록한 것이 있다. “어미를 <워미>라 하고, 형을 <형애>라 하고, 오라비의 처를 <올집어미>, 아우는 <더런>, 도토리는 <밤>, 밤은 <참밤>, 호박은 <동화>, 동화는 <참동화>, 수수는 <숙기>, 옥수수는 <옥숙기>, 천둥소리는 <쇠나기 운다>, 강가는 <개역>, 병아리는 <뱡우리>...황소는 <둥구레>... 괭이는 <곽지>...가져오라는 말은 <개야오라> 하더라”.

dCollection @ jeju

사(愁州客詞)」 등에서 그 양상을 알아볼 수 있다. 홍양호는 북쪽 풍속은 귀신을 좋아하여 사(師)라 불리는 남무(男巫)는 많은 사람들의 추대를 받았다고 한다.[42] 또한 박제가의 『정유각집(貞蕤閣集)』에서도 무속에 관한 시가 등장한다. 무당을 흉내 내어 아이들이 흥얼거리는 무가(巫歌)[43]나 쌀밥을 놓고 기원하는 모습[44]로부터 일상화된 무풍을 이야기했으며 마지막으로 흡사 굿놀이를 연상케 하는 놀이마당의 풍경[45]을 그려냄으로써 북관의 무속흥행을 묘사했다. 정조 때의 참판 홍의영(洪義泳)의 『북관기사(北關記事)』에서는 관북의 무속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 지방풍속이 무격(巫覡)을 즐겨하여 의약(醫藥)을 쓰지 않는다. 여러 가지 병에 걸리면 곧 소를 죽여 신에 바치고는 빈다. 그리하여 소의 수효가 매우 적다. 여염집 사람이라도 소를 죽이되 그 짓을 조금도 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46]

유의양의 『북관노정록』 또한 북관의 무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최강현 역, 1976: 83).

> 읍내 동성 밖에 뫼가 있고, 뫼 언덕에 포기 나무가 있으니 읍내 사람들이 신을 위하여 집에 질병이 있으면 달려가 빌고 돼지 다리나 닭이나 술잔이나 저희 힘대로 가져다가 놓고 배례를 무수히 하며 손을 비벼 빌고 베를 짜면 두어 치를 끊어 내어 가지에 걸고 빈다. 먼저 비는 이가 내려오면 뒤에 올라가는 이가 있어 바람 불고 비가 와도 사람이 끊이는 날이 적더라.

이상에서 보듯 함경도 무속에 관한 기록에 나타난 풍경은 고조선이후 제정일치(祭政一致) 시대의 생활유산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함경도 북변에는 여타의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재가승(在家僧)[47]의

---

42) 洪良浩, 『北塞記略』, 「孔州風土記」, "巫覡謂之師. 里中公事謂之風俗."
43) 朴齊家, 『貞蕤閣五集』, 「旅次襍絶」, "婆婆巫鼓惱比隣. 恒舞恒歌夜繼晨. 道上遺音時宛轉. 兒童强半學跳神."; 「愁州客詞」, "可憐髻亂歲. 男女俱上頭. 跣行將臺畔. 鬪草作巫謳."
44) 朴齊家, 『貞蕤閣五集』, 「愁州客詞」, "白粟精復精. 炊成一鍋飯. 祈禱南山拗. 年年事如願."
45) 朴齊家, 『貞蕤閣五集』, 「愁州客詞」, "無絲廛有竹. 巫鼓才人笛. 猶傳獅子舞. 笑聲時啞啞."
46) 洪義泳, 『北關記事』(박종훈, 2007: 104 재인용)
47) 在家僧은 帶妻僧과 유사한 의미의 승려집단으로 주로 함경도 지역에서 많이 불리던 것이다.

dCollection @ jeju

행적이 보여 북관문화의 독특함을 한층 더해준다. 재가승이란 육진지역의 산간에 있는 특수한 집단으로 승려임에도 처자를 거느리고 사는 산승(山僧)을 말한다. 이에 대해 홍양호(洪良浩)의 『북새기략(北塞記略)』에서는 "산승(山僧)이 많이들 여염집에서 살면서 아내를 거느리고 고기 먹기를 예사로 한다. 그 자손들도 뒤를 이어 중이 된다."[48]고 했다. 또한 효종시기 온성에 유배되었던 유계(兪棨)의 『시남집(市南集)』에서도 그곳 절간의 중들은 처자를 거느리고 있고 소와 말을 기르기 때문에 절에서 살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북관의 재가승에 대해 김열규의 연구(1980)에서는 관북지방에서는 병역을 피해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거나 거세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재가승의 제반 양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가승집단이 승(僧)을 자처한 원인은 병역이나 군역 등 각종 요역을 피하고자 한 것이라 했다. 이로써 당대의 사회제도가 변경민들에게 주는 부담과 고난을 추정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함경도 변방의 역사적 변혁, 지정학적 위치 및 민속, 언어, 무속 등 생활문화에서 그곳 풍토의 낙후함과 우매함 및 무지함을 엿볼 수 있으며 처절한 교육현실을 추정할 수 있다. 즉 함경도 변방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글이나 책과 같은 문(文)적인 기질보다 활이나 말을 잘 다루는 무(武)적인 북방민족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및 남도와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괴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함경도 변방의 문화적, 교육적 풍토는 조선후기에 진입할수록 변모되는 양상을 보였다. 점차 무(武)적인 요소는 배제되고 문(文)적인 요소가 활성화되기 시작[49]하면서 함경북도 특유의 교육현실과 교육열을 만들어 가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열은 문재린의 아내인 김신묵의 기억 속에서도 표현된다(문영미, 1997: 16).

---

48) 洪良浩, 『北塞記略』, 「孔州風土記」, "山僧多在家挾妻食肉. 子孫繼襲爲僧."

49) 『정조실록』에는 "근래에 서북지방에는 문학을 숭상하는 폐단이 달로 심하고 날로 성하여 활쏘기를 장려하는 일들을 아예 전폐한 것 같다. 「近來西北文勝之弊, 月甚日盛, 賞射等節, 便同廢閣.」"(『正祖實錄』 卷 31, 14年(1790) 12月 癸酉條), "북관 지방의 군정(軍政)이 피폐해진 것은 오로지 유교의 풍습이 폐단을 끼친 때문으로서, 그 지방 풍속은 시골의 무사까지도 향임(鄕任)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이 풍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北關軍政之疲殘, 專由於儒風之爲弊, 而土俗無論鄕武, 爭任成風.」" (『正祖實錄』 卷 32, 15年(1791) 4月 己酉條)등과 같은 기록으로 보아 함경북도는 조선후기, 말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학문적 분위기로 바뀌어나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dCollection @ jeju

> 함경북도 어느 마을이건 골목을 지나가노라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함경도에서는 사람(남자)이라면 누구나 제 이름 석자는 쓸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는 축 정도를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들 생각했다. 여자들도 언제 배웠는지 언문은 다 읽고 쓸 수 있었다. 고만네(김신묵)의 어머니도 언문을 알고 딸들에게도 배우라고 은밀히 말하곤 했다. 양반이 아니어도 남자아이들은 누구나 글을 읽고 배웠다.

그렇다면 어떠한 원인들로 인해 함경도 변방의 향학열이 고조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일단 유의양의 『북관노정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최강현 역, 1976: 59).

> 북도 풍속이 신(神) 섬기기를 숭상하고 말달리고 활쏘기로 덕을 삼더니 번호(蕃胡)를 쫓아 보내고 수자리를 파한 후에 백성이 궁마(弓馬)를 일삼지 아니하고 귀양 오는 명인(名人)들이나 관장(官長)의 어진 이들이 교화하기에 예의의 풍속이 점점 행하더라.

여기서는 호란(胡亂) 이후 즉 조선중후기로부터 귀양 오는 유배인들에 의해 그 풍토가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2) 조선조 함경도 변방 교육현실의 제 조건

"문화를 만들고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이고,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문화와 역사의 주역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교육학에서는 교육현상이라고 부른다"(김인회·박선영·이문원 외, 1983: 4). 이러한 교육현상의 기술과 해석에서 역사의 주인공인 민중의 생활과 사회구성의 발전과정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단순한 역사적 사상(事象)의 나열이 아닌 그 사상 속에 숨겨진 제 법칙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간도 이주조선인들은 이주와 함께 함경도 북부 변방의 문화와 역사 등을 그대로 전승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함경도 북부 지역의 교육 문화적 풍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dCollection @ jeju

(1) 변방의 교육과 유배인 및 지방관

함경도 변방의 문화적, 교육적 풍토의 변동계기는 귀양 오는 유배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또한 함경도 관찰사나 북평사로 파견되는 지방관들이 학문 진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유배인 및 지방관과 유배지 교육과의 관계는 어떠했으며 또한 이들은 지방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경도 변방의 교육현실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것은 북간도 교육현실을 인식하는데 간접적이기는 하나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가. 유배지 함경도

조선왕조에 있어서 함경도의 북변지역은 강역(疆域)의 최북단이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산악이 많은 이유로 고립되어 있어 육지속의 섬이라 불릴 정도로 편벽했고 불안정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비교적 늦게 조선왕조의 행정체제에 편입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조선시기 사화나 당쟁으로 말미암은 유형(流刑) 가운데 극변안치(極邊安置)가 가능했던 지역이기도 했다.

조선왕조의 형벌은 기본적으로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했다. 유형(流刑)은 조선조 다섯 가지 기본 형벌인 태(苔), 장(杖), 도(徒), 유(流), 사(死) 가운데 하나인바 사형에서 감1등(減1等) 된 중형(重刑)이었다. 이러한 유형은 천도(遷徒), 부처(付處), 안치(安置) 세 종류가 있다. 그 가운데 안치가 가장 가혹한 유형으로 본향안치(本鄕安置), 절도안치(絶島安置), 위리안치(圍籬安置), 극변안치(極邊安置) 등이 있다.[50] 이러한 유배는 쉽게 말하면 죄인을 원악(遠惡)의 지역에 격리시키는 것으로 대부분 섬이나 극변지역이다. 조선조의 가장 대표적인 유배지역은 호남 도서지역과 서북 극변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유배지역으로 제주도를 비

50) 遷徒는 죄인을 고향에서 천리 밖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으로 심한 경우 전 가족을 모두 벽지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한다. 부처는 관원에 대한 형벌로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留居하게 하는 경우이다. 안치는 配所의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키는 것으로 왕족이나 고관 현직에 있는 자에 한해 적용되었다. 이러한 안치는 본향안치, 절도안치, 위리안치 등이 있는데 대개 극변에 안치되는 경우를 또한 극변안치라고도 한다. 이 가운데서 위리안치는 격리된 집 주위에 가시나무로써 圍墻을 설치하고 그 안에 유폐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때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金民壽, 1975: 43-44; 양진건, 1991: 35-53).

dCollection @ jeju

롯한 호남지역은 도서(島嶼)유배지의 전형(典型)이고 서북의 육진지역은 극변유배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배지는 조선초기인 태조(太祖)에서 성종(成宗)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 많지 않았을 뿐더러 주로 남쪽에 치우쳐 있었다. 이는 아무래도 이 시기는 조선조가 세종대를 거치면서 비교적 안정되기도 했었거니와 북변이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았고 특히 사화나 당쟁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그리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4차례의 사화(士禍)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유배길에 올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북변의 변경지역에도 많은 유배지가 생기게 되었으며 6진 지역 또한 유배지로 합류되었다. 그 후 조선말기까지 6진 지역은 호남의 도서지역 못지않게 많은 유배인들이 정배되는 전형적인 유배지로 되었다.[51]

그렇다면 함경도 북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유배되었으며 그 유배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은 과연 유배지의 교육적 풍토의 개변과 학문 진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이것은 당시 함경도의 교육적 풍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일 것이다.

조선조는 국초부터 유교입국(儒敎立國)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대부들 사이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많은 갈등이 있었다. 이는 결국 학설의 대립, 학문의 파벌을 잉태시켜 당파의 정권다툼으로 이어졌으며 마침내는 피비린내 나는 사화나 당쟁 등의 당옥(黨獄)을 초래하게 되었다(양진건, 1991: 44).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유형이 남발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조선조의 유배인들은 대부분이 고위정객인 정치인들이었다.

정치인들은 학문적 소양으로써 정치를 하는 선비출신인바 정치인이자 곧 교육인(학자)이었다. 즉 조선조의 선비들은 수기치인(修己治人: 개인의 인격과 학문적 소양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린다)을 전제로 한 사대부로서 기본적으로 학자이면서 정치인이었고 정치인이면서 또한 학자였다(양진건, 1991: 45). 따라서 그들이 추구하는 성리학 역시 예교(禮敎)적·정교(政敎)적인 측면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

51) 유배지와 유배길에 관한 연구로 김민수(1975)의 「朝鮮時代 流配考」와 김경숙(2005)의 「조선시대 유배길」 등 연구를 참고할 수 있고 유배의 심리, 성격 등에 관해서는 양진건(1999)의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을 참고할 수 있다. 함경북도에 유배된 인물들은 부록 2를 참조.

dCollection @ jeju

고 있다. 대개 이 두 측면의 성격을 동시에 소유한 선비를 일컬어 학자관료 즉 사대부라고 했다. 이러한 학자관료들이 유배된다는 것은 정치적 처분은 분명하나 그것은 도덕적·인간적으로 악행을 저질러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는 다만 관료적인 신분이 잠시 사라지고 학자적인 신분만 부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자관료가 유배지식인으로 머무는 동안 선비의 속성 가운데 예교적인 측면이 정교적인 측면을 능가하는 과정이 된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지식인의 본능적인 움직임인 독서와 교학의 역할로서 유배인들은 유배지역의 사상적 기풍과 학문적 풍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학자관료들의 유배는 곧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는 것으로 그러한 시간은 대부분 후학양성이나 본인의 학문적 역량심화 혹은 정치적 복권의 기회를 기다리는 은연자중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이향준, 2008: 111).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은 대개 두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학문적 자기완성 즉 자기교육[52]이고 다른 하나는 학자의 본연적 의무로 대별되는 교학활동인 제자양성과 교유(交遊)이다.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은 단속적이고 돌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예상, 계획, 방법화 할 수 없으므로 실천성이 강하다. 실제적으로도 많은 거유들이 유배 중에 학문적 완성을 보이기도 했고 문학적인 경지에 이르기도 했으며 현지의 많은 제자들을 길러냄으로써 학문진작과 교육현실을 개선하고 중앙문화의 지방화에 공헌했다.[53]

유배지에서 유배인들이 학문적 경지에 오르는 모습은 단순히 부분적 유배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 학자관료 유배인들의 공통된 속성임을

52) 유배지에서의 자기교육의 완성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桐溪 鄭蘊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유배생활동안 오로지 독서에만 열중하여 학문적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양진건, 2010). 조선후기 실학자인 茶山 丁若鏞 또한 전라도 康津에 유배되어 18년 동안 정치인들의 필독서인 『牧民心書』를 저술했다. 楚亭 朴齊家 역시 유배지 鍾城에서 이웃에 사는 초시에 막 합격한 진사에게서 『奎章全韻』과 四書를 빌려 본 사실이나, 朱若祖란 사람이 향교의 서적을 관리하게 되자 그를 통해 三經의 大全本을 구해본 것, 또 몇 번이고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 붓과 먹, 줄이 쳐진 공책을 보내라고 당부하는 등과 같이 유배인들은 유배지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자기완성을 위한 자기교육과 함께 교학활동도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서 유배의 고독을 이겨냈던 것으로 보인다.

53) 이러한 현상을 許筠은 『惺叟詩話』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요즘 館閣에서는 鵝溪 李山海를 으뜸으로 친다. 그의 시는 초년에 당시를 본받았지만 만년에 平海로 귀향을 가서야 비로소 시의 극치에 이르게 되었다. 霽峯 高敬命의 시 또한 벼슬을 떠나 한가롭게 지낼 때에 바야흐로 크게 발전되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문장은 부귀영화에 달려 있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江山의 도움을 받은 연후에야 神妙한 경지에 들게 됨을 알게 되었다. 어찌 유독 이 두 사람뿐이겠는가! 옛 사람들은 대개 그러했으니 柳子厚가 柳州에서, 蘇東坡가 嶺外에서 그러했음을 볼 수 있다. '近代館閣, 李鵝溪爲最. 其詩, 初年法唐, 晩年謫平海, 始造其極. 而高霽峯詩, 亦於閑廢中, 方覺大進, 乃知文章不在於富貴耀榮, 而經歷險難, 得江山之助然後, 可以入妙. 豈獨二公. 古人皆然. 如子厚柳州, 坡公嶺外, 可見已.'"

dCollection @ jeju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제가(朴齊家)나 정약용(丁若鏞), 김정희(金正喜) 등 당대의 거유들이 유배지에서 학문적 정상에 오르는 것은 어쩌면 아주 예사로운 것이며 그들이 유배지에서 자기교육 및 교학활동은 피치 못할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된 유자(儒者)는 벼슬에 나가면 한 시대에 도를 실천해서 백성들에게 자유로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물러나 숨어있으면 만세에 가르침을 전하여 배우는 이로 하여금 큰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행할 만한 도가 없고 물러난 뒤에는 전할 만한 가르침이 없다면 비록 참된 유자라 할지라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54]

이는 율곡이 학자로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역설하는 대목으로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은 이러한 학자 본연의 모습과 매치를 이루고 있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해 있는 동안 그의 내종질(內從姪) 민규호(閔奎鎬)는 두 차례 방문하여 김정희의 학통을 이었을 뿐만 아니라 『완당집(阮堂集)』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는 완당김공소전(阮堂金公小傳)에서 김정희에게 배우고자 몰려오는 사람들을 장날의 사람에 비유했고 또 그 가르침의 효과가 몇 달 안에 인문이 크게 발달해 탐라의 거친 풍속을 깨우침에 크게 공헌했다고 했다.[55]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유배인들은 자신이 유배된 사실에 대해 마냥 비관적이고 실망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학문적 정진을 위한 시간으로 독서나 교학에 열중했던 것이다. 초정 박제가의 경우 오히려 유배의 시간을 하늘이 준 독서의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다.[56] 그는 "혼자 생각해보니 내 평생에 이처럼 한가한 날은 없었다. 하늘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 참으로 지극하구나."[57]라고 했다.

---

54) 李珥, 『栗谷全書』 卷 15, 「東湖問答」, "夫所謂眞儒者. 進則行道於一時. 使斯民有熙皞之樂. 退則垂敎於萬世. 使學者得大寐之醒. 進而無道可行. 退而無敎可垂. 則雖謂之眞儒. 吾不信也."

55)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 1, 「阮堂金公小傳」. "居謫舍 遠近負芰 自如市纔 數月人文大開 彬彬有京國風 耽羅開荒 自公始."

56) 朴齊家, 『貞蕤閣五集』, 「六月二十八日國祥望哭」, "二十五年文武道 忽焉墜地欲何如 小臣曾是無閑日 此謫天應敎讀書".

57) 朴齊家, 『貞蕤閣文集』, 卷 4, 「寄稔兒」, "但使我有書如上所列, 則在此如在家, 自念平生無此閑日, 天之餉我至矣. 了無窮愁之意, 汝輩之可. 克己看書, 不可悠悠泛泛失此時日也".

dCollection @ jeju

결국 유배정책은 함경도 변방과 같이 지역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고립되고 폐쇄된 유배지역 학문 진작의 핵심 역량으로서 유배지역 교육사 형성의 중요한 정책적 동인으로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유배인들의 정배(定配)가 관북지역 학문적 문풍 형성에 무분별의 역할을 했다면 당쟁이 더욱 심해지는 조선후기에는 지방관들의 영향이 점차 부각되었다. 특히 어떠한 당색의 지방관이 파견되느냐에 따라 학문적 풍토가 기울어질 정도로 지방관의 역할이 컸다. 그들은 관북 서원과 사우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유배인들을 배향하기도 하고 관북의 유생들을 당대 명사들에게 소개하여 수학할 수 있도록 중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본인의 학통을 관북에 전수하는 등 관북유림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그 대표적 인물은 관북 서원과 사우들에서 가장 많이 배향하고 있는 함경북도관찰사로 있었던 노봉 민정중(老峯 閔鼎重: 1628~1692)과 북평사로 경성에 갔던 농암 김창협(農巖 金昌協: 1651~1708)을 들 수 있다.

나. 유배인과 지방관들의 교육적 영향

조선시기 관북에는 [부록 2]의 관북 유배인 일람표에서도 보이듯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배되었는데 그들은 대개 사화나 당쟁으로 유배된 고위정객들이다. 바로 이러한 유배인들이 관북 특히 북변 6진 지역의 문풍을 바꾸어 관북 특유의 교육현실을 만들어 내는 데 크게 공헌을 한다. 그 가운데 영조 49년(1773) 사헌부집의로 왕의 노여움을 사 종성으로 유배된 후송 유의양(後松 柳義養)의 『북관노정록(北關路程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최강현 역, 1976: 84).

> 전배(前輩) 명인들이 육진(六鎭)에 귀양 오는 이가 많기에 이 종성의 사습(士習)이 으뜸 낫고 회령·경원이 지차(之次)되고, 온성이 또 지차(之次)되고, 경흥은 가장 노망(魯莽)하니 이 말은 북관지(北關誌)에 있다.

유의양의 『북관노정록』에는 이렇듯 유배인들과 향사들에 관한 기록이 많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는 19세기 말 북간도에 이주하여 명동촌을 건설한 다섯 가문의

dCollection @ jeju

선대들인 오룡천 5현과 유배인들이 교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80고령의 봉암 한몽린과 그의 동생인 고희(古稀)의 유헌 한몽필 및 수헌 한여두, 오룡제 남명학 등 오룡천 지역 학자들은 젊은 유의양과 직접 만나 담소를 나누고 상호 교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관북의 또 한 갈래 학파의 거장인 송암 이재형(松巖 李載亨) 역시 유의양과 교유했다. 그는 봉암 한몽린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었는데 둘은 관북유림의 진작(振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가 하면 미암 유희춘(眉庵 柳希春)은 유배지인 함경도 종성에서 무려 19년 동안 있으면서 본인의 학문정진에 최선을 다했다. 뿐만 아니라 『속몽구(續蒙求)』[58] 라는 지방 아이들을 위한 교재까지 쓰면서 지방유생들에 대한 학문전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퇴계 이황과의 서신교환을 하면서 주자론에 대한 토론도 끊이지 않는 등 외부와 관북지역과의 메신저의 역할과 학자의 노력하는 모습을 톡톡히 보여 관북지역의 사표로 되었다. 이에 관해 광해 4년(1612) 전라도사(全羅都事)로 향시(鄕試) 시제에 왕의 실정을 비유했다가 종성으로 유배되어 6년을 보낸 하담 김시양(荷潭 金時讓)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미암 유희춘은 을사사화 때 종성에 귀양살이한 것이 19년간이나 되었다. 궁하게 살면서도 만권의 책을 독파하고 『속몽구(續蒙求)』를 지어 선비들을 가르치니 와서 배우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 북방의 사람들이 이제까지도 유정언(柳正言)이라고 일컬으니 대개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귀양 왔기 때문이다.[59]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유희춘의 북변 학풍 진작에 대한 공헌을 치하했다.

> 그는 유배지에 있을 때, 곤궁한 처지에서도 태연스럽게 여겨 깊이 사색하고 저술하며 입으로는 글을 외고 손으로는 책을 베껴 밤낮을 쉬지 않았다. 변방의 습속은 글자를 아는 사람이 적었는데, 희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로부터 글을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다.[60]

---

58) 『蒙求』는 중국 당나라 李瀚이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 엮은 책인데 眉巖 柳希春은 유배지에서 『續蒙求』를 저술했으며 그의 교학활동으로 종성지역에 글 배우는 선비가 많아졌다고 한다(朴鍾勳, 2008: 184).

59) 金時襄, 『涪溪記聞』, "柳眉巖希春. 乙巳之禍坐謫鍾城者十九年. 窮居喫口讀破萬卷. 著續蒙求以惠士子. 從學者甚衆. 北方之人至今稱之爲柳正言. 蓋以正言來謫故也."

dCollection @ jeju

1755년 나주(羅州) 벽서사건(壁書事件)에 연루되어 회령(會寧)에 유배되었던 원교 이광사(圓嶠 李匡師)는 학문으로 많은 문인들이 모여듦으로 인해 진도에 이배(移配)되기까지 했다. 이는 여타의 유배지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북쪽 변방에서 목숨을 붙이고 있으면서 지방인들을 많이 모아 글과 글씨를 가르치고 있다 합니다. 변방의 어리석은 풍속이라 어찌 선동하여 어지러운 데에 빠져드는 근심이 없을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61]

후술하겠지만 관북 종성 유배시절에 남겼던 박제가의 「수주객사(愁州客詞)」에서도 유배인들의 관북에 대한 교육적 영향과 시골 아이들의 변화모습을 시로 담았다. 유배인들의 안치로 향유들이 몰려든 탓에 함경도 변방의 사람들을 교화한다는 이유로 일부 적객들을 이배까지 시킨 것을 보면 유배인들이 향학(鄕學) 진작(振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앞서 설명했던 함경도 북변지역의 낙후한 교육현실이 서서히 변모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좋은 예로 함경도 변방 사람들의 학문적 갈망과 향학열이 고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배인들의 함경도 북변지역에 미친 교육적 영향은 서원향배에서도 나타난다. [부록 2]의 관북서원 일람표에서 제시되듯이 6진 지역 부령의 충현사, 회령의 향사서원, 종성의 종산서원, 온성의 충곡서원은 대부분이 유배인이라는 점에서 유배인들의 관북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정중이나 김창협 등 함경도에 파견되는 지방관들은 유배인을 배향할 수 있는 서원과 사우 설립 및 현지 유림들의 질서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중앙과 현지 유림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함으로써 함경도 지역 유림 형성에 크게 공헌을 한다. 이렇게 관북지역에는 17세기[62]에 이르러서야 본격

60) 『宣祖修正實錄』 卷 11, 10年(1577) 5月 1日(戊子), “其在謫也. 處困若亨. 惟覃思著述. 口誦手抄. 夜以繼日.塞俗少識字者. 因希春教誨. 士多學文. 自此始.”

61) 『英祖實錄』 卷 100, 38年(1762) 7月 25日(乙酉), “假息北塞. 多聚土人. 以教文筆. 荒裔愚俗. 安知無煽動淪胥之患哉?”

62) 17세기 이전에 설립된 서원, 사우는 여말선초 관북지역을 개척한 윤관 등을 배향하는 경성의 靖北祠와 함경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관북유생들을 교육시킨 后山 李繼孫(1423-1484)을 배향하는 함흥의 문회서원이 있다. 여기서 李繼孫은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이계손이 함흥을 맡아 흥학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지금은

dCollection @ jeju

적으로 서원이나 사우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7세기에는 주로 관북지역으로 유배된 인물들을 배향하는 서원과 사우가 많이 설립되었고 18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관북유현을 배향하는 사우가 건립되었다(정해득, 1998: 89-90).

요컨대 관북 유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요인은 유배인과 지방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배인들은 교학활동을 통해 관북의 전반적인 사회적 풍토를 학문적인 풍토로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런가하면 지방관들은 그러한 유배인들의 영향으로 형성된 관북의 유림들을 학통으로 체계화시키고 실질적인 행정조치로 관북사회교육을 진작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영향이 컸다. 구체적인 관북유림의 학통의 생성과정과 그러한 학통이 과연 어떻게 북간도에까지 이주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이하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청(淸)과 조선의 국경정책과 변경민의 범월잠입현상

가. 청정부의 봉금정책과 육진지역의 범월잠입현상

17세기 초에 시작된 함경도 변방 조선인들의 월강(越江)과 범월잠입(犯越潛入) 현상은 이주 및 정착의 목적이라기보다 인삼채집과 사냥을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은 주로 여진족의 땅이었는데 1588년 건주(建州) 여진의 수장인 누르하치가 여진부족을 통일하고 또 기타 주변 부족을 병합하여 1616년에 대금(大金: 後金)을 건립했다. 1625년 동북 전역은 누르하치에 의해 금에 귀속되었고 이듬해 그가 죽자 왕위를 계승한 황태극은 성경(盛京: 현재 요령성의 瀋陽)을 수도로 하고 국호를 청(淸)으로 바꿔 관(山海關)내 진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644년 청은 북경을 점령함으로써 270여년의 대륙통치를 시작했다.

그동안 동북지방은 오랜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는데 청은 요동 봉천부(奉天府)의 "옥야천리에 땅은 있으나 사람이 없어 개간이 시급하다"는 장계에 따라 1664년 『개간황지조례(開墾荒地條例)』를 반포하였다. 따라서 "주인이 없는 황무지는 유민이나 군인들에게 나눠주어 농사짓게 하고 주인이 있으면 개간하도록 하며 관

과거 합격자가 많이 나왔다'고 한 것, 그가 재임한 기간에 유생교육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관북 민중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丁若鏞, 『牧民心書』 四, 「禮典」, 課藝).

dCollection @ jeju

아에서는 소, 농기구와 종자를 배급"하도록 하여 개간을 적극 지지했다(김춘선, 2001: 22).

뿐만 아니라 1653년, 1656년 선후로 『요동간민모집 및 관직제수조례(遼東招民開墾授官例)』와 『요동초민개간조례(遼東招民開墾條例)』[63]를 제정함으로써 관내의 한족 백성들의 이주를 유인하였다(김춘선, 2001: 22; 유병호, 2001: 18). 이로 인해 동북에는 하남(河南), 하북(河北), 산동(山東) 등 지역의 유민이 동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민들은 동북이 늘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백성들이 산해관을 나가는 것을 호랑이 보듯 두려워한다(民人畏出關如虎)"라는 소문으로 관동(關東: 산해관 동쪽으로 동북을 가리킴) 진출을 꺼렸다. 이 때문에 청의 초민정책(招民政策)은 실패하게 되었다. 결국 청은 죄인들을 대거 유배시켜 동북을 유배지로 만듦으로써 개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렇게 동북으로 정배 받은 유배인을 비롯한 한족간민(漢族墾民)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순치(順治)황제 이후 100년간 10여만 명의 범인을 만주에 유배 보냈다(유병호, 2001: 19).

그런데 이러한 관내 한족간민들의 대거 이주는 토지소유를 두고 한족(漢族)과 만족(滿族) 사이의 갈등을 빚어냈다. 이에 동북 잔여 만족들은 중앙에 이상 조례들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특히 한족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조례에 각별히 민감했다. 결국 청은 1668년 『요동간민모집 및 관직제수조례』를 폐지하고 한족들의 관동(산해관 동쪽 즉 요동지역)진출을 제한하게 되었다.

1677년 청이 대륙을 통일하자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 이북의 천여 리 땅을 "용흥지지(龍興之地)"라고 하여 봉금정책(封禁政策)[64]을 실행했다. 전통에 대한 보호의 명목과 경제적인 고려를 수반한 봉금정책은 19세기 말까지 200여 년간 지속되었다. 봉금지대 가운데 가장 엄격했던 지역이 두만강 이북의 북간도지역으

63) 『遼東招民開墾條例』는 또한 『遼東招民開墾令』이라고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용한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것을 따르고자 한다.

64) 김춘선은 淸朝廷이 開墾政策을 폐지하고 封禁政策을 취하게 된 원인을 『吉林通誌』의 기록에 근거하여 滿族의 발상지에 대한 보호, 滿族의 旗兵과 旗人들의 養生地에 대한 보호, 백두산일대의 산삼, 진주 및 진귀한 야생동물 등 특산물에 대한 독점과 보호 등 세 측면에서 종합하였다(김춘선, 2001: 23). 또한 김철수 등은 封禁政策의 주요 목적이 山海關 일대를 봉쇄함으로써 관내의 漢族들이 동북에 이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과 압록강, 두만강을 봉쇄함으로써 한반도 이주민들을 제지하고자 함이라고 하였고(김철수 외, 1998: 9-10) 김경식 등은 동북은 만주족의 고향으로서 토지를 보유하였다가 八旗兵 후손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남겨두고 동북의 풍부한 자연자원, 즉 인삼, 녹용, 진주 등 자원을 독점함으로써 청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동북의 군사훈련과 산짐승을 잡기 위한 사냥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封禁策을 실시했다고 했다(김경식 외, 2001: 5-6).

dCollection @ jeju

로 당시 이 지역은 소수의 봉금지역을 지키는 기병(旗兵)과 명을 받고 채집을 하는 기인(旗人)들을 제외하면 거의 무인지대였다.

특히 청정부는 이민족의 동북침입을 막기 위해 특이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버드나무 울타리(柳條邊墻)[65]와 카륜(伳倫)[66]을 들 수 있다(김경식, 2004: 48-50). 결국 만족이 관내로 빠지고 대신에 한족을 비롯한 이민족이 다소 들어오긴 했지만 동북지역은 개발이 미진했다. 그 대신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인적이 희소한 황무지 지역으로의 전락은 그 반대급부로 한민족들이 이주와 정착을 위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만주족은 청을 건립하고 입관하여 중국을 300년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자신들의 발원지인 동북마저도 한족들을 비롯한 이민족에게 내주게 되었다. 또한 청정부가 실시했던 봉금정책은 비록 북변 백성들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한편 그 이후 광활한 동북지역에 한민족들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이주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조선왕조의 두만강연안 국경정책

청정부의 봉금지역 설치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범월현상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빈번해졌다. 실제로 청이 봉금정책을 실행하기 훨씬 전인 명조시기부터 조선인들의 범월현상은 이미 국경에서 자주 발생했다. 그런데 청정부가 이 지역을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출입을 금지하면서 범월현상은 차츰 범월잠입(犯越潛入)의 현상으로 되었고 그것은 곧 법을 어기는 행위로 되었던 것이다.

사실 조선의 범월금지정책은 청조의 봉금정책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더욱 엄격히 집행되었다. 그것은 조선인들의 범월현상이 때로는 중대한 외교문제를 불러

---

65) 버드나무를 심어 담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경계선을 표시하는 것으로 柳條關, 柳城, 條子邊, 邊墻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시초가 중국 명나라 때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요동지방의 遼河와 大凌河 일대에 설치한 東條邊墻이다. 이는 주로 산해관 내의 한족들의 동북진출과 몽고족들의 길림성 내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김경식, 2004: 48-49).

66) 伳倫은 滿族語로 '정탐'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초소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伳倫은 邊境伳倫과 內地伳倫이 있는데 邊境伳倫은 黑龍江 북부변계와 北間島의 琿春지역에 설치한 것이고 內地伳倫은 산삼 채집이나 사냥 유민들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內地伳倫은 또 그 설치방법과 파수꾼의 주둔방법에 따라 常設伳倫과 暫設伳倫으로 나뉘는데 常設伳倫은 말 그대로 일 년 내내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暫設伳倫은 流移民들이 산삼채집과 사냥의 성수기인 춘기(2-3월)에서 추기(10월)사이에 설치되는 것이다(김경식, 2004: 49-50).

dCollection @ jeju

오는 원인도 있거니와 더욱이 조선의 사대주의(事大主義)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또한 변경에 파견되는 지방관들이 변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각종 법조례를 반포했으며 심지어는 범월자(犯越者)를 사형에 처하는 극형(極刑)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북관(北關)의 금법(禁法)을 어기고 국경(國境)을 넘어 타국(他國)으로 간 김인술(金仁述) 등 일곱 사람을 국경에서 효시(梟示)하였다".[67] 영조실록의 이와 같은 기록은 당시 조선정부에서 국경에 대한 통제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며 이러한 강경한 국경정책과 함께 변방의 백성들은 불만이 늘어갔다. 하지만 생계유지나 진상물의 장만으로 때론 극형도 마다하지 않고 범월잠입은 계속 되었다.

결국 숙종 12년(1681) 조선조정에서는 범월금지정책을 대거 강화하기 위해 선후로 『연변범월금단사목(沿邊犯越禁斷事目)』과 『남북삼상연변범월금단사목(南北參商沿邊犯越禁斷事目)』을 제정하였다. 전자는 주로 변방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금단사목과 관리방법 및 처벌방안이다. 그 주요내용은 『비변사등록』에 나와 있다. 그 중 첫 번째 내용이 서북연변의 국경너머로 범월한 자들은 산삼채집이나 사냥 혹은 기타 어떤 사유에서든 그 주차(主次)에 상관없이 국경에서 효시(梟示)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처결방안들이 등장하는데 극변충군(極邊充軍)이나 그 연계자들도 노비로 전락시키는 조치 등[68]이다.

후자는 주로 변방 관리들을 단속하는 조치이다. 범월현상이 발생할 경우 범월지역의 수령(首領) 및 장령(將領)들은 3년 유배형(流配刑)에 처하고 좌수(座首)나 군인들은 절도(絶島)에 유배시킨다. 이 가운데는 연대책임의 관계가 있는데 수령이 적발하지 못한 것을 관찰사가 발견했을 경우 수령은 극변충군(極邊充軍)되며 관찰사(觀察使)와 그 상사인 감사(監司)의 경우는 직위에서 파면된다. 변경민들이 청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수령은 파출(罷黜)되고 그 면장·이장(面長·里長)마저도 장(杖) 백에 삼천리 유형에 처해진다(김춘선, 2001: 34-35).

그 외에도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는데 변경에 대한 조선조의 통제는 극심하였다. 범월현상은 두만강 이남의 육진지역이 각별히 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종성과 경원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69] 이는 백두산정계비사건으로 청의 두만강 이북에

67) 『英祖實錄』 卷 73, 27年(1751) 閏 5月 10日(乙亥), "北關犯越人金仁述等七人, 梟示境上."
68) 『備邊司謄錄』 卷 40, 肅宗 12年 1月 6日條, "西北沿邊凡有犯越彼邊者, 勿論採蔘佃獵與他事, 首倡與隨從生事於彼中與否, 一併梟示邊上爲白齊. … 犯越人知情容接者敎誘指示者乙良, 置與犯人一體處斷爲白乎矣, 其知而不告者乙良閑良公私賤則邊地殘邑爲奴, 定屬出身及有職名人則限已身西北沿邊鎭保從軍爲白齊."

dCollection @ jeju

대한 방어가 더욱 강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백두산정계비를 설치한 이후에는 조선정부의 국경정책 방향이 바뀌어 적극적인 북방개발정책을 펴게 되었다. 따라서 농민들의 농사를 장려하고 남도사람들의 북도이주를 장려하는 등 적극책이 동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방민의 범월에 대해서는 조금도 느슨함이 없었다. 조선조의 이러한 정책적 개선에는 내부적으로 변경민의 범월현상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변방민의 생활고를 해결해주고 경작을 장려함으로써 범월을 일삼는 변방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조의 변경통제는 청과의 외교문제와 변경의 상대적 안정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일지 몰라도 변경 백성들에게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하였다. 또 변경민들로 하여금 두만강 이북에 대해 무한한 동경을 가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폐단에 대해 『승정원일기』에서는 산삼채집을 금지한 후로 상인들이 발길을 끊어 민간의 일용품해결이 어려우며 갑작스런 수입단절로 난민들이 생길 것이라고 한바 있다.[70]

변방민들의 사정에 대해 1801년 종성으로 유배된 박제가는 유배지 종성에서 남긴 수주객사에서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도 당시 육진지역 사람들의 생계는 강 건너에 의지함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조선정부의 월강 금지령으로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 정사는 각박하게 펼칠 수 없고, 금령 또한 느슨히 할 수 없다네.
> 삼년동안 두만강 건너지 못해, 사람 가축 모두가 얼어 죽었네.
>
> 강에서 물길을 터 논을 만들어, 집집마다 메벼 찰벼 밥을 해먹네.
> 대국서는 오히려 금지 않는데, 우리나라 감영에선 허락지 않네.

---

69) 김춘선은 『同文滙考』와 『肅宗實錄』의 범월사례를 종합했는데 1636년부터 1704년 70년 사이 14건의 범월사건이 있었고 약 300명의 범월자들이 나왔다. 또한 1729년부터 1860년 사이의 『同文滙考』, 『通文館誌』,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는 20차례 범월사건이 등장하는데 통계숫자로는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범월을 했고 그 가운데 무려 14건이 사형에 처했고 그 외에는 유배되거나 노비로 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차출된 것이고 그 외에 신고 되지 않은 것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춘선, 2001: 36-37, 44-45).

70) 『承政院日記』 卷 348, 肅宗13年 丁卯 5월 11日條, "江邊各邑, 一自蔘禁之後, 商賈之路永絶, 民間大小日用之物, 亦無所資. 以此頓失生業, 其勢將未免離散."

dCollection @ jeju

땅만 있고 사람은 뵈지 않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 터전이라네.
토문강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버려두고 도리어 달아버렸네.[71]

이러한 조치로 보아 당시 범월의 주요원인을 산삼의 채집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숙종실록에는 대개 범월은 산삼채집을 위한 것인데 백성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금법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심지어 국가의 사단(事端)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후 북경사행시 관직이하사람들이 삼을 소지한자는 일률로 처벌하고 변경의 각 진에는 범월자(犯越者) 고발에 대한 포상을 하며 사정을 알고도 숨기거나 범인을 숨긴 사람을 엄히 다스린다는 내용이 있다.[72]

조선정부는 국경관리책으로 징벌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취하기도 했다. 그 첫 번째가 점호제도(點戶制度)로써 범월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취점(聚点)과 별점(別点)으로 나뉘는 점호제도는 정기와 비정기적으로 변민들에 대한 인원수 확인 작업이었다. 정기는 5일 1회, 월 6회 꼴로 변민들이 가장 활발히 범월 하는 봄철에서 가을까지 실시했고 비정기는 수시점검으로 각 변보(邊堡)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실시하였다(김경식, 2004: 61). 또한 변경지대에 월경을 감시하는 보초막인 금소(禁所)와 파수막(把守幕)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리고 변방 관리와 장교들의 변금정책(邊禁政策) 실시의 적극성 유발을 위해 포상제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선조의 국경정책에도 불구하고 변경민들의 월경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결국 조선 말기에 들어오면 이주형태는 단순 범월잠입의 채집, 수렵 등 현상에서 경작 및 황무지개간 나아가 영주의 형태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3) 교육현실 제 조건의 교육적 의미 및 이주의 원리

이상 함경도 변방 교육현실의 제반 조건은 함경도 지역 사람들, 특히 북부 변경 민중의 정신문화를 정화하고 교육열을 향상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

71) 朴齊家, 『貞蕤閣五集』, 「愁州客詞」, "政亦不可膠 禁亦不可弛 三年不渡江 人畜皆凍死", "疎河作水田 此屋可秖稴 大國却無禁 營門獨不許", "有地無人處 是我衣食碗 不知眞土門 自棄還自限"..

72) 『肅宗實錄』 卷 16, 11年(1685) 11月 29日(乙酉), "今此犯越, 蓋由蔘貨. 利之所在, 民不畏法, 甚至生事於國家. 請自今北京使行時, 員役以下及南商之齎持蔘貨者, 一切搜撿, 嚴加禁斷, 犯科者斷以一罪. 且於沿邊各鎭, 廣開購賞之路, 發告者論以重賞, 不告掩置者繩以重律."

dCollection @ jeju

겠다. 유배정책과 지방관의 파견, 국경정책 등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통한 지방교육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배인들이나 지방관들을 통해 중앙의 학문적 풍토와 문화 및 정보의 지방이식(移植)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중앙과 지방과의 공식적·비공식적 만남에서 의도치 않게 지방문화의 진작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는 중앙의 학문은 지방화과정에서 지방의 독특한 문화적 풍토와 어우러져 정치적인 측면보다 예교적인 측면이 더욱 강하게 인식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지방의 학문이 때론 중앙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조선중후기에 들어서면서 실학의 진작이 지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도 이와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함경도와 같은 가장 변방의 독특한 교육적 현실과 정신문화를 만들어주는 제반 조건이 되었다.

유배지역에 대한 중앙의 여러 정책 가운데서 해당 지역의 독특한 국경정책은 함경도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변방지역 관리들의 잔인한 횡포와 수탈은 지방 민중들의 반체제적 성향을 배태하게 하였다. 이는 결국 민란과 같은 반체제적인 운동으로 이어져 함경도 지역의 교육에 있어서 지방 자생적 교육력을 기대하기란 어려웠던 것이다.

특히 정책적인 억압과 지배는 중앙의 변방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지배 및 경제적 착취를 의미하는 내부 식민주의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편차를 증가시켜 원격의 지방에 대한 중앙의 깊은 편견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73] 이와 같은 정책적 억제현상은 결국 해당 지역의 분리주의 성향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되었다. 고립으로 인한 외부에 대한 배타적 성향과 또한 그 이율배반으로 외부에 대한 동경의 성향이 유배지역의 이중적인 성격구조를 형성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곧 유배인들에 대한 남다른 친화력으로 나타나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74]

---

73)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중앙 왕실에서는 관북출신의 인재등용 및 관찰사나 북평사 파견의 조심성 등으로 관북지방에 대한 회유와 우대정책을 보였지만 사회적 인식은 대체로 무예를 숭상하고 풍속이 비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정해득, 1998: 74).

74) 이와 같은 유배인들의 교학활동과 지방민중들의 유배인들에 대한 교육적 친화력을 잘 규명한 것이 제주도 추사 김정희의 교학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추사의 유배기간 동안의 교학활동 및 지방 민중들과의 교육적 교류에 관한 내용은 양진건(2011)의 『제주 유배길에서 秋史를 만나다』를 참고할 수 있다.

Collection @ jeju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함경도 변방지역 국경정책의 완화로 해탈의 모습을 보이는 이주현상이 대거 발생하는 내적인 동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이주현상을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접목시켜 단순히 정치적 원인이나 경제적 원인으로 귀결시키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층 민중들의 대거 이주는 그 근원을 역사적 체제의 모순에서 찾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그러한 정치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범월(犯越) 채집현상은 제도적 완화와 더불어 이 지역의 이주방향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 이주방향은 그동안 줄곧 불법으로 월강하던 두만강 북안의 북간도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함경도 변방의 사람들은 대부분 북간도를 향해 이주하였다. 그들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추구를 월강 이주로부터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한 염원의 결론이 이주정착으로 점차 이어지는 가운데 함경도 변방의 독특한 교육문화 또한 따라서 이주되었다. 그럼으로써 북간도 조선인사회 특유의 문화와 교육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함경도 사람들이 이주한 북간도사회의 독특한 교육열과 근대교육의 진작이 가능했던 것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이며 정신문화적 유산으로서 오랜 세월을 거쳐 하층 민중들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단순히 근대 이후의 독립운동가들, 혹은 선교사들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서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주민들은 단순히 사람만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육문화 역시 함께 가지고 이주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주지역의 교육사 및 교육사상을 논함에 있어서 출신지역과의 정신문화적 연대성 및 이주민들의 의식의 변화과정을 제외하고 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주사회에서 형성된 교육현실은 바로 이러한 이주민들의 민중의식의 성장과 함께 비롯됐음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간도의 교육현실이란 함경도의 교육열과 향학열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린이나 김신묵 등 명동촌의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기억에서도 실증된다(문영미, 1997: 16).

> 메마른 토지에 씨앗을 뿌리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서울에서 귀양 온 선

Collection @ jeju

비들이었다. 삼수, 갑산, 무산, 회령, 종성, 경흥, 경원으로 이어지는 귀양길마다 서당이 생겨났고 향학열에 불타는 함경도 사람들은 선비들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개혁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귀양 온 선비들의 비판적인 생각과 천민들의 반골기질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관북 실학사상이 생겨났다.

이는 조선인들이 북간도에서 이주 조선인 십 수 호가 되면 먼저 서당을 차려 자녀교육을 꾀했다는 말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2. 조선인의 북간도 이주 및 민족교육사상의 태동

1) 생계를 위한 이주와 교육

함경도 6진 지역에 있어 두만강 대안은 변경민중의 생명선이었다. 중앙에서 요구하는 삼(參), 진주, 초피(貂皮) 등 진상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땔감을 마련하거나 소먹이 꼴을 베는 일조차도 두만강 대안에서 취득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이주형태는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 기존의 범월잠입과 같은 월경(越境)형태는 산삼 등의 채집을 위주로 잠시 이동했다 귀국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농토개간과 농사를 위한 경작영주의 형태로 변화되어 북간도 지역에는 조선인들의 토지개간과 함께 이주민 마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부분 만어(滿族語)로 되어 있던 산과 강 등 지명들이 조선인들의 마을 생성과 함께 조선어 지명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 이로써 북간도 지역에서는 점차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조선인사회를 형성해가기 시작했다. 이주 성격의 변천에 따라 북간도 이주민들의 의식 역시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교육의식의 태동으로 이어졌다.

dCollection @ jeju

(1) 이주 및 정착, 촌락의 형성

사실 6진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 북간도를 비롯한 만주지역은 단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아주 가까운 곳이다. 하지만 또 국경이라는 이유로 아득히 멀게 느껴지는 미지의 세계이자 별천지로서 늘 동경의 대상이었다. 함경도 지역에서는 이미 오랜 세월 북간도는 화원 같은 살기 좋은 곳이며 만주에는 어디로 가나 기름진 황무지여서 쌀 창고로 불리면서도 땅임자는 없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다(현룡순, 1993: 68). 당시 북간도에 대한 두만강 남안 백성들의 절절한 마음은 다음『월강곡(越江曲)』(현룡순, 1993: 69)에서도 생동하게 표현된다.

월편에 나붓기는 갈잎대가지는
애타는 내 가슴을 불러야 보건만
이 몸이 건느면 월강죄란다.
기러기 갈 때마다 일러야 보내며
꿈길이 그대와는 늘 같이 다녀도
이 몸이 건느면 월강죄란다.

이는 북변의 민중들이 가사로써 간도에 대한 애절한 동경을 표현한 것으로 월강죄(越江罪)에 대한 두려움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찌할 방법이 없어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북변의 상황은 이중하(李重夏)의『감계사등록(勘界使謄錄)』에서도 나타난다.

> 관북 지역은 땅이 본래 거칠고 메말랐고 해가 갈수록 자주 흉년이 듭니다. 두만강을 건너면 곧 경작하지 않는 땅이고 바라보이는 정경이 끝없이 탁 트여서 땅의 이로움이 우리나라 보다 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금지하는 것을 무릅쓰고 숨어 들어가면 동쪽으로 해삼위(海蔘威: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가고, 북쪽으로 길림으로 갑니다.[75]

75)『勘界使謄錄』上, 乙酉 12月 6日, 別單草. (이왕무, 2008: 160 재인용)

dCollection @ jeju

뿐만 아니라 북간도 땅의 비옥함은 안수길의 『북간도』라는 작품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그는 두만강 양쪽의 땅을 두고 “이상한 일이었다. 같은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강물인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은 토질이 어쩌면 그렇게도 다를까? 이쪽이 박토인데 반해 대안지방은 시꺼먼 땅이 기름지기 그대로 옥토였다”고 했다(이승수, 2006: 345).

하지만 함경도 변방 민중의 월강은 엄격히 통제되어 있어 월강은 곧 법을 어기는 범죄행위였다. 월강죄(越江罪)는 또한 월경죄(越境罪)[76]라고도 하는데 청나라가 두만강과 압록강 북부일대를 봉금지대로 정한 뒤 몰래 월강하여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는 사람들에게 씌우는 죄목이었다. 두만강과 압록강이 변경이기 때문에 월경죄라고도 했다. 따라서 봉금령 기간(1677~1885) 조선인들의 이주형태를 일컬어 범월잠입현상이라고 하고 그 시기를 범월잠입(犯越潛入)시기라고 한다.

청은 1644년 입관(入關)한 후 만주가 조상의 발상지라는 이유와 점차 황폐하여 간다는 이유로 1677년(康熙 16년) 두만강, 압록강 대안의 천 여리 되는 간도지역[77]을 봉금지대로 정하였다. 그리고 봉금령(封禁令)[78]을 내려 민간인의 출입과 일체 활동 및 그들의 천입(遷入)을 일체 엄금하는 봉금정책을 취하였다. 그에 앞서 조선에서도 압록강 남안에는 4군을, 두만강 남안에는 6진을 설치하고 행성(行城)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변경을 통제하였으며 청이 봉금정책을 취한 이후에는 국경정책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함경도 두만강 유역의 사람들에게 생계유지의 젖줄기로서 사냥과 인삼, 약초 등 채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적 원천지였던 것이다. 그만큼 변방 민중들의 북간도를 향한 범월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순조실록』의 기록에서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

76) 越江을 통금하던 시기 월강은 죄목으로 일단 붙잡히기만 하면 사형을 당한다. 1831년부터 1869년까지 월강사건은 9번이었고 참수당한 사람이 53人에 이르렀다(洪鍾泌, 1993, 68).

77) 압록강 하류인 구련성(九連城) 부근으로부터 吉林 舒蘭縣의 法特哈門에 이르는 일선 지역에 “禁山圍場”을 설치하였다. 여기서 금산이란 특산물채집을 금지하고 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봉하는 것이고 ‘圍場’이란 청나라 旗人과 왕공귀족들이 기마, 사격 등을 연무하거나 수렵을 하기 위해 설치한 곳이다(朴昌昱, 1991, 181).

78) 김춘선은 청이 압록강 두만강 북안을 개간하지 않고 봉금정책을 실시한 이유를 『길림통지(吉林通志)』에 근거하여 세 방면으로 제시했다. 첫째는 만주족의 “龍興之地”에 대한 보존과 수호를 위하여; 둘째는 만주 기병과 기인들의 양생지역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셋째는 백두산 일대의 인삼, 진주와 진귀한 야생동물 등 토산물을 독점하기 위해서이다(김춘선, 2001: 23).

dCollection @ jeju

> 육진(六鎭)은 모두 극변(極邊)입니다. 단지 두만강(豆滿江) 일대로서 남북의 한계(限界)를 삼고 있는데, 그 너비는 거룻배도 용납할 수 없고, 그 깊이는 치마를 걷고 건널 수 있으므로, 금방(禁防)이 조금 허술해지고 방수(防守)가 점차 해이해지면, 범월(犯越)의 근심이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산(茂山)의 초피(貂皮)와 인삼은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경원(慶源)의 은화(銀貨)는 대부분 피지(彼地)에서 무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잠시라도 얼어붙으면 나무하고 꼴을 베는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이루어지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마치 외부(外府)처럼 보고 완악한 풍속이 법기(法紀)를 알지 못하니, 구탈(甌脫)이 서로 바라보이는데도 간두(奸竇)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랑캐의 산에는 초목(草木)이 무성한데, 우리나라 경내(境內)에는 민둥산이 되었으니, 백성들이 금법(禁法)을 무릅쓰는 것은 오로지 이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빨리 본도에 신칙(申飭)해서 거듭 변금(邊禁)을 엄중히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땔나무가 부족한 지역에 이르러서는 또한 그 땅을 관할하는 수령으로 하여금 특별히 나무 심는 법을 할당해 가르치게 함으로써 10년의 이로움을 기다려 훗날의 용도에 이바지하게 한다면, 폐해를 구제하는 한 가지 방도가 될 듯합니다.[79]

그러므로 생계를 위해 두만강 유역에는 변경민들이 월경하다가 붙잡혀서 단두대에 오르더라도 몰래 잠입하는 범월잠입 현상이 잦았던 것이다.[80] 두만강 변뿐만 아니라 함경도 기타 지역의 사람들도 만주를 동경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 이유는 물론 함경도 전역에 만주가 별천지이며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희망의 땅이라는 통념적인 소문이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조선조 통치의 피폐에 북관의 민중이 그만큼 힘들어 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세도정치와 삼정문란으로 조정이 불안정했다. 토지국유제의 붕괴와 함께 심한 봉건수탈로 각종 가렴잡세가 가혹했고 농촌경제의 피폐

---

79) 『純祖實錄』 卷 5, 3年(1803) 8年) 5月 11日(甲辰), "六鎭, 俱是極邊. 而只以豆滿一帶, 作爲南、北界限, 以其廣則曾不容舡, 以其深則足可褰裳, 禁網稍踈, 防守漸弛, 犯越之患, 在在皆然. 茂山之貂、蔘, 非盡我土之産, 慶源之銀貨, 率多彼地之貿. 以至江氷乍合, 樵牧成蹊, 愚氓視若外府, 頑俗不知法紀, 甌脫相望, 奸竇莫遏. 且胡山則草木蔚茂, 我境則林樾童濯, 民之冒禁, 職由於此. 亟宜另飭本道, 申嚴邊禁. 至若薪樵不足處, 亦令守土之臣, 別課種樹之法, 以待十年之利, 以效他日之用, 恐爲捄弊之一端也. 詢廟堂後, 仍命嚴飭."

80) 압록강 남안의 평안감사로 파견되었던 민유중의 1669년 보고에 따르면 "강변일대의 변민들이 국경을 넘어 인삼 캐는 것은 큰 이익을 얻자는 것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의 요행을 바라고 나라의 변금령을 어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범월잠입현상에 대한 변방민들의 사정을 말하고 있다(吳晗, 1980: 3960).

dCollection @ jeju

가 극에 달했다. 게다가 18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변지역에는 연년 수재, 한재, 충재 등 자연재해[81]가 덮쳤다. 특히 1869년 기사(己巳)년에는 전례 없는 대기근으로 일단 생계유지가 시급했다. 이러한 상황을 윤정희(尹政熙)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고종즉위 갑자(甲子)년 이후 북변은 연년 흉작으로 민생의 간난(艱難)이 심하더니 거금(距今) 85년(1870) 고종 경오(庚午)에는 전고에 없는 대기근이라 이로 인하여 경원, 경흥 양군은 폐읍의 지경에 이르렀고 유난(流難)하는 기민(饑民)은 인상식(人相食)의 참화(慘禍)와 노변(路邊)에 기아(飢餓)의 사체가 낭자(狼藉)하여 자불인견(自不忍見)의 대변을 양출(釀出)하였다. ... 유난하는 기민은 월강하여 피(彼) 청인의 노예 혹은 자녀로 환양(還糧)하고 혹 가모(嫁母), 혹 수양자(收養子)로 명을 연하여 여생을 유지하였다. 때문에 경오 기근은 아민(我民)을 월강케 한 동기라 운한다(尹政熙, 1991: 14).

결국 간도를 동경해 오던 농민들은 결단을 내리고 떼를 지어 간도이주를 시작했다. “앉아서 굶어죽을 바엔 차라리 배불리 먹기 위하여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강을 건너가련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로써 본격적인 함경도 농민들의 북간도 영주(永住)로서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영주현상은 이미 1851~1856년경에 북간도 해란강(海蘭江) 유역인 덕신향(德新鄕)에 금곡, 후동, 석문 등 조선인 집단 촌락[82]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심혜숙, 1992: 137).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860년대 계속 이어지는 자연재해에 기인된다. 이를 계기로 북간도 이주는 집단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1866년 경원(慶原) 아산(阿山)의 윤재관(尹才官) 등 75명이 훈춘으로 이주하였고

---

81) 1869년 조선 함경북도 6진-무산,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이 특대 한재가 들었다(허청선, 강영덕, 박태수, 2003, 363). 1860·1863·1866년에는 큰 물 피해가 들고 1869년과 1870년에는 왕가뭄이 들었는데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 日省錄(庚申 9월 9일~10일)에서는 부령지방의 수재상황을 소개하기도 했다(최홍빈, 2000: 46). 따라서 선행연구 가운데 이주동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 대부분 己巳年(1869), 庚午年(1870)의 자연재해를 직접적인 越江動機로 간주하고 있다.

82) 그런데 북간도 무산 대안에는 이미 1785년에 72호가 있었고, 1788년 53호가 이주하여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다만 이를 발견한 것이 1887년에 청정부에 보고되었는바 이들의 100년간의 역사는 기록에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이나 조선정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清季中日韓關係史料』 9, p.5711. 광서 29년 8월 18일, 「外務部收吉林將軍函, 附件 1, 吉林將軍收總署文. “長坡一代, 朝鮮居民計有百餘戶, 所有田廬墳墓, 均屬舊制, 僉云歷有百年, 查閱茂山府誌裁明長坡社倉, 係在乙巳當年, 已有七十二戶, 於戊申年又增五十三戶, 以時之是非道光年間之乙巳, 百年之說, 亦非無憑”

dCollection @ jeju

1869년에는 경흥(慶興) 아오지(阿吾地)의 한 개 촌 19호가 집단이주를 하였다.[83] 1867년에는 1월에 훈춘하구를 순찰하던 중국지방관원은 조선인 남녀 200여명이 중조변경지대로 이주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동년 3월에는 1000여명이 그곳에 정착하는(연변대학교육학심리학교연실, 1989: 3) 등 조선인들의 이주가 잇달았다.

초기에는 청정부가 발견하는 대로 조선에 통보하여 이주민들을 송환시키던 것이 1870년대가 이슥해지면서 점차 묵인하거나 좌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1886~1887년에 이르면 <표 Ⅳ-1>에서와 같이 두만강 북안의 북간도 일대는 이미 이주 조선인으로 형성된 조선족 마을들이 몇 십 개 형성되었다.

<표 Ⅳ-1> 1886~1887년 두만강 북안 조선족 촌락 및 이주호수

지역	촌명	조선인호수	지역	촌명	조선인호수
茂山對岸	揮半洞	30여호	鍾城對岸	聞溪洞	150호
	上下淵洞	40여호		門岩洞	몇십호
	小洞	6~8호		弟洞	70호
	上下蘆洞	50여호		鋤全坪	수백호
	咸朴洞	10여호		蒙基洞	70~80호
會寧對岸	大小牛洞	30여호		獐洞	40~50호
	漢城峴	3호		右洞	40~50호
	先岩, 鋤犁洞	50~60호		北坪	몇십호
	害難(龍井 頭道溝)	수백 호		谷味	10호
	五良洞	40~50호		盜賊洞	100호
穩城對岸	馬牌(沛)洞, 口洞	100호		子洞	150호
慶源對岸	古珥島	7~8호		豊坪	몇십호
				香木左只	몇십호

* 이 표는 김춘선(2000)의 『延邊地區朝鮮族社會的 形成 硏究』 p. 86와 유병호(2001)의 「在滿韓人의 國籍問題 硏究」 p. 60에서 인용.

청정부에서는 1875년 『성경동변간광지개간조례(聖京東邊間曠地開墾條例)』를 제정하고 이민관리처를 설치하여 서간도의 이주 조선인들을 관리했듯이 북간도에도 1881년 대규모의 조사반을 파견하였다(최홍빈, 2000: 46). 이를 계기로 줄곧 무인지대로 간주되었던 북간도지역이 이미 조선인들의 정착과 개척으로 수많은 토지들이 개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경북도관찰사의 감독 하에 경작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조사결과 가야하(嘎呀河) 하류로부터 고령진(高嶺鎭)까지의 두만강북안의 한황지(閑荒地) 8개 처에 수천 명의 간민들이 적어도 2천여정보의 토지를

83) 『通文館志』 卷 9, 紀年(김춘선, 2001 재인용).

dCollection @ jeju

개간하였고 1881년 훈춘현의 흑정자(黑頂子) 부근에 약 130여 호, 인우하(引牛河)에 30여 호, 두만강하류 어구에 50여 호의 간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미 1천여정보의 토지를 개간한 상황이었다(高承濟, 1973: 18-19).

당시 청은 이미 애훈조약(愛琿條約: 1858)과 북경조약(北京條約: 1860) 등 불평등조약으로 러시아에 연해주의 넓은 땅을 빼앗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세력은 계속하여 청을 압박하고 있었다. 청은 지속적으로 침범해 오는 러시아 세력에 대한 제지와 재정수입의 확대 차원에서 두만강 북부지역을 개방해야했다. 그리고 드디어 1881년 200여 년간 지속되던 두만강 이북 북간도 지역의 봉금령을 전면 해제하였다. 동시에 훈춘(琿春)에 초간총국(招墾總局)을 설치하고 남강(南崗), 훈춘, 동오도구(東五道溝) 등 지역에 개간국을 설치하면서 17개 간황사(墾荒社)[84]를 설치하고 이주민들을 받아들였다(김춘선, 2001: 67).

이어서 1883년 길림지방관부는 조선정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이민실변정책(移民實邊政策)』을 실시하면서 조선과 『길림조선상인무역지방규약(吉林朝鮮人商人貿易地方規約)』을 제정하였다. 1885년에는 또 조선인들의 합법적인 개간권(開墾權)을 인정하면서 두만강 이북의 남북 700리, 동서 40-50리 지대를 『한민전간지구(韓民專墾地區, 즉 越墾區)』로 정하였다. 또한 조선인들의 간도이주 통로인 화룡욕(和龍峪: 현재 용정시 지신진 지신촌), 광제욕(光霽峪: 현재 용정시 개산툰진 광소촌), 서보강(西步江: 현재 훈춘시 삼가자향 고성촌) 등에 통상분국을 설치했다. 통상 구역 내에는 월간국(越墾局)을 설립하여 조선인들의 간도 이주 개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주었다(허청선·강영덕, 2009: 6; 리광평, 2009: 132). 1984년부터는 4보(四堡), 39사(社)[85], 124갑(甲), 415패(牌)를 설치하여 이주 조선인들을

84) 南崗墾局: 志仁 尙義 崇禮 勇知 守信 明新 熟地面積: 18000餘垧; 琿春墾局: 春和 春云 春華 春明 春融 春陽 熟地面積: 5600餘垧; 東五道溝墾局: 春仁 春義 春禮 春智 春信 熟地面積: 2000餘垧(김춘선, 2001: 68)

85) 4보 39사에는 총 20899명 4308호수의 조선인들이 편입되었고 개간한 熟地는 15442垧 되었다(김춘선, 2001: 84).

<표 Ⅳ-2> 4보 39사 명칭

4堡	39社
鎭遠堡	敬信社 懷恩社 尙義社 敦仁社 興廉社 崇讓社 歸化社 輸誠社
寧遠堡	開來社 開運社 開發社 開文社 開化社 光宗社 光德社 光昭社 光風社 光化社 齊晴社 齊霞社 月朗社
綏遠堡	茂官社 茂德社 茂賞社 茂功社 對揚社 對越社 對山社 對川社 白鶴社 白雲社 白玉社 白日社
安遠堡	崇化社 善化社 德化社 上化社 山溪社 白金社

dCollection @ jeju

모두 그 안에 편입시켰다(허룡구, 1993: 75). 따라서 이주민들의 이주 통로는 두만강 줄기를 따라 남안의 동리마다에서 강을 건넜겠지만 청나라에서 설치한 세 통상국과 잇닿아 있는 회령, 종성, 온성, 경원 등 지역을 거쳐 이주했을 것이다(리광평, 2009: 135).

<표Ⅳ-3>은 이주 조선인들의 이주 이후 거주지와 출신지 및 이주 연도인데 대개 1860년대 말에서 1890년대 말까지 조선인 마을들이 주로 함경도 출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초기의 북간도 이주 조선인들의 출신은 대부분 두만강을 끼고 있는 종성, 온성, 무산, 부령, 경원 등 관북의 6진 지역[86]이었다. 그 후 점차 명천, 길주, 단천 등 남쪽 지역 사람들도 이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조금 먼 사람들은 더 멀리 들어가 정착하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이주와 정착이 대칭되는 모습으로 형성되어 갔다.

<표 Ⅳ-3> 19세기 말 북간도지역 조선인 거주지, 출신지 및 이주연대

지역	지명	출신지	이주연대
北崗	依蘭溝	明川 鍾城 端川 富寧 利源 行營	1899
西崗	四道溝黃坪	明川 茂山	1891
	四道溝黃直	茂山	1894
	四道溝中村	茂山	1899
南崗	花田坪	鍾城 會寧 行營 富寧	1878
	龍井村	會寧 鍾城 鏡城 富寧	1884
	老房子	會寧 茂山	1885
	中七道溝	會寧	1886
	東梁大村	端川 富寧 會寧 咸興 明川 吉州 茂山	1888
	東盛涌下村	吉州 明川 鏡城 富寧	1888
	東梁李村	茂山 鏡城	1890
	大楡田洞	吉州 明川 富寧 鍾城	1892
	繡紋浦	會寧 富寧 鍾城	1897
茂山對岸	南坪	明川 茂山 吉州 富寧 鍾城	1869
	東京臺	茂山 鏡城 富寧 鍾城	1879
	咸朴洞上村	鏡城 會寧 茂山	1883
	釜洞	明川 茂山 富寧	1884
	大淵	茂山	1884
	龍淵	富寧 鍾城	1884

86) 19세기 후기에는 南崗(延吉縣 남부), 西崗(和龍縣 지방), 北崗(汪淸縣 서부), 戛牙河 유역(汪淸縣) 등 말들이 사용되었고 또 두만강 북안의 지역을 동쪽으로부터 穩城間島, 鐘城間島, 會寧間島, 戊山間島라 불렀다(全海宗, 1994: 76). 이는 대개 육진지역의 穩城, 鍾城, 會寧, 茂山 등 지역의 대안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조선인들이 부른 이름으로 보인다.

dCollection @ jeju

	防川項	明川	1884
	下廣浦	茂山 鏡城 富寧 吉州	1891
	上廣浦	富寧 茂山 端川	1899
會寧對岸	甑山下村	會寧 鏡城 明川 茂山	1881
	南尙洞	會寧	1883
	椽田洞	會寧	1885
	承珠洞	會寧 明川 鏡城 富寧	1889
鍾城對岸	三屯子洞	鍾城	1871
	岳沙坪	吉州 鍾城 明川 鏡城	1872
	湖川浦	鍾城	1878
	北獐洞	會寧 明川 鏡城 富寧	1884
	白龍洞	會寧 鏡城 慶源 鏡城	1884
	馬牌	穩城 慶源 慶興 鍾城 會寧	1888
	下泉坪	鍾城	1892
	城岩村	明川	1892
	杰滿洞	鍾城 穩城 鏡城	1898
嘎呀河流域	牧丹川	鍾城 富寧 吉州 鏡城 慶興	1899

* 김춘선(2001)의『延邊地區朝鮮族社會的 形成 硏究』p. 87 참조.

초기 이주 조선인들은 토양비옥도도 낮고 기후도 한랭하며 지형기복도 있어 농사짓기에 불리하지만 산과 삼림이 무성하여 엄폐하기 좋은 산골지역을 개척지로 밭농사를 하면서 청의 봉금령을 피해 정착했다(심혜숙, 1992: 136). 그런데 청의 이민실변정책과 함께 조선인들의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청정부는 간도지역의 행정구역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인 촌락의 분포 역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즉 초반의 두만강 북안 지역에만 국한되었고 두만강에 흘러드는 각 하천들의 상류와 산골 벽지에 위치해 있던 촌락들이 하천의 하류이며 내지인 남강(南崗), 북강(北崗), 서강(西崗), 가야하(嘎呀河) 등 지역으로 확대되어 1900년대에는 부르하통하(布爾哈通河), 해란하(海蘭江), 가야하(嘎呀河) 등 하류 평야의 지역으로 조선인사회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었다(이종수, 2009: 65).

그들은 해란강, 부르하통하, 가야하, 훈춘강(琿春江) 등의 풍부한 수원(水源)을 이용해 논을 개간하여 용정촌 부근의 대불동(大佛洞)에서 처음으로 벼농사[87] 짓기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1900년 전후로 알려져 있다(윤병석, 2006: 17). 1921년에 이르면 북간도 지역에 6,605정보(1헥트)의 논을 풀어 연간 113,864석의 벼를 생산하였으며 1926년에는 북간도 4개 현의 조선족에 의해 경작되는 수전이 8만 1,854정

87) 19세기 말, 20세기 초 만주지역 벼농사에 관한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등 학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연구되었는데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金穎(2004)의 「近代 滿洲 벼농사 발달과 移住 朝鮮人」을 들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도 정리되어 있다.

dCollection @ jeju

보에 달했다(연변대학교육학심리학교연실, 1989: 6). 『용정현지(龍井縣志)』(1989: 4)에는 수로를 파 관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1906년 용지사 대교동(현재 지신진 신화촌) 14호 조선족농민들이 자비로 2418미터의 물도랑을 파서 105무의 논을 관개하였다"고 했다. 개척지로 익히 알려진 곳은 연길현의 학동, 약수동, 허내성, 이도구, 용정촌, 화룡현의 남영촌, 산불동, 토성동, 대립자, 동구성자, 왕청현의 목단천, 백초구, 라자구, 훈춘현의 하태평구, 왕바버즈, 토문자, 사도구, 연통라즈, 반석, 밀강 등 지방이었다(연변대학교육학심리학교연실, 1989: 5).

1907년 일제가 간도에 '통감부간도파출소'를 세우기 이전까지 북간도에는 이미 약7만 1000명의 조선인들이 마을을 형성해 집거해 있었다(연변대학교육학심리학교연실, 1989: 5). <표 Ⅳ-4>는 당시 인구통계이다. 그러나 고영일은 1906년 연길도(延吉道)의 조선인은 이미 82,999명이었다고 하는 것(고영일, 1990: 31)으로 보아 훨씬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 19세기 말 20세기 초 북간도 4현 인구

연도	1894	1907	1908	1909	1910	1911
북간도조선인 인구수	34,000	71,000	89,000	98,000	109,500	126,000

* 牛丸潤亮 외(1927)의 『最近間島事情』 p. 121 참조하여 작성.

결국 19세기 중반에 들어 조선인들이 조경모귀(早耕暮歸), 춘경추귀(春耕秋歸)와 함께 범월잠입하여 농사를 짓던 것이 점차 경작영주(耕作永住)를 위한 정착형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하층 민중들의 적극적인 이주와 개척정신으로 북간도에서 조선인사회는 서서히 형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한 민중들의 의식 속에는 강한 생존욕구와 함께 보다 낳은 삶을 갈망하고 지향하는 의식이 배태되어 있었다 하겠다.

(2) 교육의식의 태동

초기 북간도 이주민들은 마을을 이루어 정착생활을 하면서도 대개 오지나 산간지역을 찾아 숨어들어갔으므로 청나라의 관원들에 발견되기 전까지 비교적 안

dCollection @ jeju

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출신지역인 함경도의 정신문화와 농경문화 및 주거문화 등 문화적 구도를 이주지역에 이식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간도 조선인들의 집단거주 공동체 형틀이 갖추어지자 곧바로 제기되는 문제가 자녀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인들이 정착하는 곳마다 서당이 생겨났고 새로운 이주민들의 이사자리 선택은 의례 교육의 기회가 많은 곳을 원했다(계근호, 2001: 15). 이주초기 교육의 양상은 주로 가정교육과 서당교육[88]이 위주였는데 이는 한반도 내의 가정교육과 서당교육의 연장으로 보이지만 교육의 내용이 아닌 교육의 이념과 목적상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일단 생존과 정착 및 생활유지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이 가장 큰 문제였던 조선인사회에서는 이주민사회라는 생존환경에서 외부적 억압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배우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가정교육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어떤 형식이나 방법을 내포하지 않는 일종의 무형식교육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육은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진행되고 또 의도성과 비의도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생활 그 자체가 교과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 초기 이주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당시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생활 속에서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는 면이 강했을 것이며 정착화 단계에 들어가면서 한민족이 대대로 수행해 오던 가정교육을 그대로 했을 것이다”(김경식, 2004: 159). 하지만 이러한 교육에 대한 의식은 단순한 교육열의에서 비롯되었던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주민이라는 특수한 정치·사회적 특성으로 받는 다방면의 압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일단 청의 동화정책인 치발역복(薙髮易服)과 귀화입적(歸化入籍)에 대응해야만

88) 이 시기 서당의 유형은 첫째, 訓長自營書堂: 훈장 자신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당; 둘째, 有志獨營書堂: 지방의 유지가 자신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훈장의 급여를 혼자서 부담하고 약간의 이웃집 자제들을 무료로 교육하는 이른바 ‘동량공부’를 허락하는 서당; 셋째, 有志組合書堂: 몇몇 개인이 조합을 형성하여 훈장을 초빙하고 그들 조합원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서당; 넷째, 村組合書堂: 촌락전체가 조합을 형성하여 훈장을 초빙하여 교육하는 서당; 다섯째, 官書堂 등이 있었다(김경식, 2004: 168; 2008: 291-292). 이는 당시 조선반도내의 대표적인 양상으로서 이주 조선인들도 대체로 이러한 유형을 따랐지만 첫째 유형은 극히 드물었고 주로는 세 번째 경우와 네 번째 경우가 많았는데 대체로 봉건적 구식교육을 유지하려는 유림계통과 자녀교육을 바라는 촌락에서 서당을 많이 세웠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組合書堂’이라는 용어는 일본학자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한국 학계에서는 그동안 반성없이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김경식은 ‘조합서당’을 한국 전통적인 협동조직인 契의 일종인 學契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Collection @ jeju

했다. 이러한 압박 하에 조선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치발역복을 함으로써 북간도에서의 생업을 유지할 것이냐 그동안 고생하여 개척한 토지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느냐였다. 결국 이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적응 또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 동화정책을 강행함에 있어서 청의 태도는 상당히 강경했다. 조선인마을에 대해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귀화입적하지 않은 조선인들을 색출해냈으며 귀화하지 않으면 가옥을 불사르고 곡식을 훼손시키며 즉시 축출한다고 위협했다. 심지어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즉석에서 머리를 밀기도 했는데 불복하는 자들은 개척 토지를 몰수하여 이미 귀화한 조선인들에게 팔아버리기도 했다(유병호, 2001: 48-49). 1890~1891년 사이에는 또 두만강 대안 지역의 조선인 개간토지에 대해 조사 및 등록하고 토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토지증명서 역시 귀화입적한 조선인에 한해 발급되었다. 그들은 "치발하면 토지를 주고, 치발하지 않으면 축출한다(薙則給田, 不薙則逐之)"는 흑백논리로써 조선인들이 어렵게 개척한 토지를 위협했다.

이와 같은 갈등구조 속에서 북간도 조선인들은 뭉쳐야 함을 절감하게 되고 서서히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들을 만들어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민제(佃民制)[89]의 실시라고 할 수 있겠다. 청정부가 조선인들에게 귀화입적을 강요하는 원인은 물론 조선인들에 대한 동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조선인들이 개간한 토지를 점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민들 역시 청의 강압적인 정책에 귀화하는 이유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위함이다. 결국 이주민들의 기본 갈등과 모순은 어렵게 개척한 토지를 청인들에게 빼앗기냐 지키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지키고 토지 또한 빼앗기지 않기 위한 지혜가 절실했다 하겠다. 결국 일부 사람들만 귀화하고 그 사람들의 명의로 토지를 소유하는 전민제와 같은 일종의 토지소유제를 고안하였는데 이는 이주민사회에서 조선인

89) 佃民制度란 移民實邊期부터 薙髮易服·歸化入籍한 조선인에 한하여 土地所有權을 부여하는 淸政府의 정책에 따라 薙髮易服하지 않고서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제도로 비귀화인들이 귀화 조선인들의 명의를 빌어 토지를 구입하는 하나의 토지소유 형태를 말한다. 즉 몇 명 혹은 수십 명의 비귀화조선인들이 자금을 모아 귀화한 조선인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금액에 따라 지권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때 관아에 등록된 토지집조의 주인은 귀화인으로 그를 "명의지주" 혹은 "지방주인"이라 하고 실제적으로 자금을 내고 토지를 소유하는 비귀화인들은 "전민"이라 하였다. 이러한 독특한 토지소유제는 당시 북간도 지역 특유의 제도로 이는 북간도 조선인들이 청정부의 동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김춘선, 1998c: 184).

dCollection @ jeju

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 정책으로 북간도에는 점산호(占山戶)라는 특수한 지주계급[90]이 등장하였다. 청정부는 당시 재정결핍으로 북간도의 대부분 땅을 이 점산호들에게 팔아버렸다. 점산호들의 출현으로 북간도 이주민들은 점산호들에게 황무지 개척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점산호들의 소작농으로 전락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소작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대개 첫해에 10%, 이듬해에 20%, 그 다음해에 30%인데 개간한지 3년이 지나면 완전히 점산호의 땅으로 되어 이주민들은 점산호가 정한 대로 소작료를 지불해야만 했다(허룡구, 1993: 77).

이상과 같은 이주민사회에서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억압은 이민족으로부터 오는 압박과 착취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그것과는 별개의 상황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이주민들은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름에 따라 오는 피해의식이 생성되었으며 그것은 곧 민족의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실질적인 피해의식에서 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의 땅문서 작성이나 토지면적 계산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절실했다. 또한 그러한 피해는 후세들에게는 없어야 한다는 의식이 부모들이나 마을들에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교육 필요성에 대한 자각은 출세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지혜로운 북간도 정착생활을 희망하는 이주 조선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이민족의 억압에서 자유로워지고 북간도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힘의 원천으로 교육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주 조선인 십수호 집단이 되면 먼저 서당을 설치하고 자녀교육을 꾀하는 경향"(金正柱, 1971: 430)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조선인의 이주가 공식적으로 허가됨과 거의 동시인 1883년에 연길현 육도구(延吉縣 龍井村)에 벌써 육도구서당(六道溝書堂)이 생겼다. 이는 기록에 등장하는 북간도 첫 서당으로서 당시 이미 많은 마을들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적지 않은 서당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90) 점산호(占山戶)는 산을 점하고 있는 지주계급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북간도 지역에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만족이나 한족 혹은 소수의 귀화 조선인 지주계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산이라 함은 아마도 당시 북간도 지역은 대부분 황무지나 산악지여서 개간된 토지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 점산호들은 강과 산을 대개의 경계로 삼아 말을 타고 온종일 원을 지어 달려 그 땅을 자기 땅이라 하기도 하면서 많은 땅을 점유하기도 하였는데 많은 이주 조선인들이 점산호에게 땅을 빼앗기기 일쑤였다(허룡구, 1993: 76).

dCollection @ jeju

이러한 맥락에서 북간도에서 민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주와 함께 시작된 교육 그 자체를 민족교육의 태동으로 서당을 민족교육의 출발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주민들은 이주와 함께 가장 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이민족과의 갈등과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였으므로 그러한 문제해결과정에서 생성되는 자아의식 자체가 바로 민족의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민족의식은 변경 민중들의 독특한 교육열과 함께 이주민사회에서 민족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일제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간도 조선인사회의 교육발전 상황은 조선인마을이면 산간벽지의 3호밖에 안 되는 마을일지라도 훈장이 몇몇 어린이를 모아놓고 글공부를 시키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다른 민족마을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또한 조선인들이 집거하고 있는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이면 곧 학교라면서 아무리 빈곤한 초가마을일지라도 하나의 큰 건물을 학교로 하고 있는바 이는 조선인 촌락의 특징이라고 경탄했다(고영일, 1990: 89). 심지어 "조선민족은 그날그날 먹는 일보다 자제교육을 더 생각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嶋田道彌, 1935: 458).

서당은 신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1910년대, 20년대, 심지어 일제강점기인 만주사변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주민족의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14년 연길과 용정 지역에만도 115개소의 서당이 운영되었다(김경식, 2004: 169). 이러한 서당은 유지들의 북간도 교육개척에 기반을 마련했고 민족운동가 및 독립지사들의 북간도 교육구국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Ⅳ-5>은 북간도 서당의 교육과정들인데 비록 1915년 전후로 설립된 서당들의 상황이지만 이주 초기에도 이와 유사한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조선인 촌락들의 교육이 출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5> 연변지역 서당의 교육과정[91]

서당명칭	소재지	교과과정	교장&교사	설립일/학생수
三洞齋	和龍	小學, 童蒙先習, 聖賢要語, 千字文, 習字, 大學		18명

91) 여기서 소재지 및 학생 수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사당시 행정구역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고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dCollection @ jeju

楡基齋	和龍	漢文, 習字, 作文, 千字文, 啓蒙篇		25명
北洞齋	和龍 三浦社	漢文, 歷史, 千字文, 啓蒙篇, 史略, 通鑑, 習字	李壽益	1915.2/ 10명
岐豊齋	和龍 霽霞社	通鑑, 史略, 千字文, 修身, 歷史, 체시(體詩), 習字, 作文	金天日(교장) 方道賢(교사)	1915.1/ 15명
東京齋	和龍 三浦社	算術, 漢文, 朝鮮歷史, 初等修身, 小學, 千字文, 啓蒙篇	金允吉(교장) 崔南植(교사)	1914.11/ 18명
佛洞齋	延吉 和龍 東良下里社	詩經, 書經, 孟子, 大學, 小學, 中庸, 明心寶鑑, 童蒙先習, 千字文, 習字	崔月永(교장)	1915.10/12명 공교회
新學齋	延吉 平崗水南社	朝鮮歷史, 地誌, 孟子, 論語, 詩經, 中庸, 大學, 小學, 作文, 習字, 算術	文章國(교사)	1915.10/ 10명
漢文書齋	延吉 東吉城 會寧村	大學, 小學, 啓蒙篇, 千字文, 作文		10명
忠儉堂	延吉 志仁社 小母鹿溝	孟子, 論語, 小學, 啓蒙篇, 新簡讀, 習字	金化成(교장) 黃道國(교사)	1915.3/15명 공교회
勝地書堂	延吉 勇智鄕 勝地村	孟子, 小學, 大學, 明心寶鑑, 初等小學, 東國歷史, 修身, 習字	金成三(교장) 崔君三(교사)	1915/13명 (15?)
漢文私塾	和龍 德新社 金洞	論語, 孟子, 大學, 通鑑, 史略, 地誌, 歷史	韓豊斗(교장) 李輔浩(교사)	1915.2/ 19명
漢文私塾	和龍	通鑑, 史略, 啓蒙篇, 小學, 千字文, 習字, 作文		
漢文私塾	和龍	孟子, 論語, 中庸, 大學, 明心寶鑑, 支那歷史, 地誌		
東化私塾	和龍	聖經, 聖學		36명 耶蘇・檀君敎
白興義塾	和龍	童蒙修身, 新訂千字文, 習字, 諺文		
廟嶺義塾	和龍 明新社	漢文, 習字, 算術	金龍三(교장)	1915.10/13명 배일주의 공교회 경신참사 소멸
私塾	琿春	千字文, 童蒙先書		

* 허청선, 강영덕(2009)『中國朝鮮族敎育史』pp. 131-132 및 박주신(2000)의『間島韓人의 民族敎育運動史』pp. 593-603 참조하여 작성.

2)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이주와 교육

봉금령해제로 인한 하층농민들의 대량 이주는 관북 지식인 계층인 유림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다. 당대의 지방 유림들은 근본적으로 조선조의 통치 질서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반동은 왕조에 대한 개혁적 요구나 무장봉기(동학농민운동)와 같은 방법도 있었지만 실패를 거듭하게 되자 이주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특히 변방에서 오랫동안 정치에

dCollection @ jeju

나아가지 못했거나 중앙 진출을 하지 않은 유림들은 더욱 그러했다. 따라서 그들의 이주는 단순한 생계를 위한 농업적 이주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개척을 위한 집단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이주였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함경도 6진지역의 종성을 중심으로 하는 오룡천(五龍川) 실학파의 후예들을 들 수 있다. 관북(함경도) 유림의 한 갈래로서 19세기 말에 이르러 이상촌을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따라 그들이 선택한 곳이 바로 북간도였다. 그렇게 1899년 규암 김약연(圭巖 金躍淵)을 선두로 문병규(文秉奎), 김정규(金定奎), 김하규(金河奎), 남종구(南宗九)가 네 가문의 142명[92]을 이끌고 북간도 화룡현(北間島 和龍縣) 장재촌(長財村)[93]으로 이주했다.[94] 그들은 주변의 땅을 사들여[95] 명동(明東)이라는 촌을 형성하였으며 그곳을 제2의 오룡천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1900년에는 윤동주의 조부인 윤하현 일가가 명동으로 이주해 와서 다섯 가문이 되었다.[96] 윤씨 가문은 윤동주의 증조부인 윤재옥(1844-1906)이 1886년 솔가하여 종성대안 자동(현재의 용정시 개산툰진 자동촌)의 부령촌에 이주하였다가 다시 명동으로 이주한 것이다.

오룡천 실학파의 이주 동기에 대해 문익환의 아버지인 문재린 목사의 유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문재린, 1993: 79)

---

92) 이 142명은 종성 頭民 출신인 성암 문병규의 남평 문씨 가문 40명, 규암 김약연의 전주 김씨 가문 32명, 도천 남종규(구)의 남씨 가문 7명, 회령의 소암 김하규의 김해 김씨 가문 63명이 합류한 것이다(김재홍, 2009: 128).

93) 장재촌은 명동촌이라는 촌이 형성되자 중국인들이 부른 이름이었다. 1899년 규암 김약연 등이 집단이주를 하여 임야 수백 정보를 사들여 조선인 촌락을 형성하였는데 이를 明東村이라고 하였다. 그 후 1905년까지 명동을 중심으로 한 50리 안팎에 조선인 마을이 잇달아 들어섰다. 그 대표적인 마을은 용암, 장재, 대룡, 영암이었고 인근의 소룡동, 풍락동, 들미동, 중왕동, 상중왕동 등 여러 마을들을 포괄하여 명동촌으로 되었다. 조선인들이 이민하기 전에는 董閑이라는 지주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라 하여 董家地方이라고도 하고 또 비둘기 바위라고 불굴라재라는 청국식 이름도 있다. 현재 명동촌과 장재촌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용정에서 조선 회령 대안인 삼합으로 가는 길에 있으며 용정시 지신진에 속한다.

94) 이들 4가문의 이주노선은 광제욕통상분국(현재 개산툰)의 두만강을 건너 자동, 회경, 남양, 금곡 등 조기의 조선인 마을들을 거쳐 명동에 이르렀다(리광평, 2009: 135).

95) 명동촌의 사람들 역시 이주와 함께 薙髮易服 및 歸化入籍의 문제와 토지소유권문제에 봉착했다. 특히 이주초기에는 청나라사람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이때 청나라 말에 능한 사람을 명의상의 향윤(鄕允: 이후에 洞長으로 바뀜) 즉 지주로 삼아야 했다. 귀화한 사람에 한해서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사들인 땅은 전부 향윤의 명의로 등록되었고 그 실제 토지소유주는 서류상에서 향윤의 소작인으로 되었던 것이다. 향윤은 이 뿐만 아니라 조선인 마을들의 청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역할도 했다. 당시 청나라 관리들뿐만 아니라 걸식자까지도 조선인들이 사는 마을을 다니며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는데 특히 중국 내륙에 흉년이 들게 되면 50~60명씩 무리를 지어 조선인 마을을 돌아다니며 강제로 걸식, 투숙하기도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여 청나라 말을 알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는데 이때도 향윤이 나서서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문재린・김신묵, 2006: 37)

96) 윤하현 일가가 명동촌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계기는 의화단 운동의 영향으로 명동촌 사람들이 잠시 자동으로 이주한 적이 있는 데 아마도 이를 계기로 이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dCollection @ jeju

> 북간도는 고구려 때부터 우리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함경산간에서 고생하면서 산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던 차 기사(1869)년 흉년이후엔 농민들이 살아갈 수 없어서 이미 도강한 조선동포가 수천 호에 달함을 알고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오룡천 동지들이 합심하여 이상촌을 꿈꾸었던 것이다.

또한 문재린의 아내이며 김하규의 딸인 김신묵의 기억에서도 그 이주 이유가 등장한다(문영미, 1997: 14).

> 간도로 간다. 땅 좋고 살기 좋은 간도로. 거긴 땅값도 여기보다 훨 싸고,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농사가 절로 된다더라. 김을 매지 않아도 감자 알이 주먹만한 게 열리고, 땅이 없어도 개간만 하면 자기 땅이 되거든… … 그리고 거긴 오래 전에 우리 민족의 땅이었어.

이러한 이주 동기는 김약연에게서 직접 들은 문재린의 증언에서 더욱 확연해진다. 그 동기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척박하고 비싼 조선 땅을 팔아 기름진 땅을 많이 사서 좀 잘 살아보자, 둘째는 집단으로 들어가 삶으로써 간도를 우리 땅으로 개척하자, 셋째는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로 세울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다(문익환, 1997: 174). 경제적,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담은 그들의 목적의식은 이주와 함께 매입한 토지 가운데서 제일 먼저 교육기금 조성을 위한 학전(學田)을 떼어냈다는 점에서 또한 잘 드러난다.

문익환 역시 그들의 이주 목적을 강조했다(문익환, 1984: 222). 유학자이면서 또한 실학적 전통을 계승한 김약연 등이 집단적으로 간도에 이주한 것은 거기서 빈부귀천이 없고 평등한 이상적인 사회건설을 목표로 했다. 아울러 국권회복을 위한 후대양성사업에 전력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주성격에 대해 연변대학의 박문일(朴文一, 2006: 27) 역시 그들의 이주는 당대 한반도의 긴박한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 이주를 하는 기타 조선인들과는 다르다고 했다.

dCollection @ jeju

이렇게 함경도 변방 유림들의 이상사회 건설의 목표로 결실을 맺은 곳이 바로 북간도 명동촌이다. 명동촌은 이주한 관북유림들의 10년간 노력으로 북간도 조선인사회의 근대문명의 발원지, 독립운동의 책원지, 민족주의 교육운동의 총본산으로 부각시켰다(김재홍, 2009: 127).

당시 이주의 상황에 대해 간도(주로 서간도)에서 의병활동을 활발히 벌였던 유인석(柳麟錫)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양국의 영계에는 근래 흉년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건너와 거의 수만 명이 되었고 또 나머지 땅에서도 몇 만 호를 수용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이 경작하면 3~4년은 먹을 수 있다.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그 가운데 간혹 의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 가히 더불어 일을 꾸미기에 좋다. … … 국경을 넘었으나 멀리 떨어진 줄을 모르겠다.[97]

한편 의병계열의 함경도 출신 유림들도 1900년대를 전후하여 북간도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위정척사사상을 바탕으로 의기 있는 사람들을 모아 국권회복을 기하고자 했다. 1905년 을사조약 전후로 재기되기 시작한 의병항전은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으로 인한 광무황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전국적인 구국의병으로 발전하였다. 함경도 의병계열로 북간도에 건너가 교육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용연 김정규(龍淵 金鼎奎)가 대표적이다.

3) 민족광복을 위한 이주와 교육

19세기 말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의병항전은 1910년 경술국치이후 독립군의 항전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의 이념과 논리를 합일시켜 형성된 독립전쟁론(윤병석, 1996: 383)을 뒷받침으로 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은 1905년, 1910년 일제의 노골적인

97) 柳麟錫, 『義菴集』 卷 24, 「與同門士友書」, "近因大荒禁不得. 來居者不下萬數. 其餘地尙可容幾萬戶. 土甚饒. 一人耕而食十人. 一年耕而食三四歲. 菽粟如水火. 人多有仁心. 其中往往有義氣人. 可與之爲善謀事. 延攬英雄. 不難容接. 徐圖所爲. 果若庶幾矣. 至於自守之事. 今不遑念及. 而要之亦庶幾耳. 且越國境而卽止. 得吾不忍遠去之心."

dCollection @ jeju

한반도 침점과 함께 국내에서의 활동이 한계에 부딪치자 해외독립운동의 기지를 설립하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1905년 을사조약은 그동안 반봉건, 반외세 운동을 활발히 벌이던 선각자들의 활동무대를 국외로 전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른바 독립운동기지란 이주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여러 지역을 민족정신이 투철한 항일운동의 세력근거지로 만들어 그곳을 중심으로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준비하고자 하는 근거지를 말한다(박주신, 2007: 58).

당시 한반도 내에서는 애국계몽운동에 의해 다양한 구국운동이 일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애국계몽운동은 의병운동과 함께 국권회복운동으로 민력계발 및 민족독립역량양성운동을 총칭한다. 그것은 문화운동, 신교육구국운동, 언론계몽운동, 민족산업진흥운동(실업구국운동), 국채보상운동, 신문화·신문학운동, 국학운동, 민족종교운동, 해외독립기지 창건운동 등을 포함한다(愼鏞廈, 1987: 352).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운동기지 선정에는 다음 여건들을 충족시켜야 했다(최홍빈, 2000: 44). 첫째, 해당 지역 조선인사회를 바탕으로 반일단체를 조직하여 조선인사회의 자치능력을 신장시키면서 강력한 항일투쟁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조선인사회에 대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애국계몽운동과 민족주의 근대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근대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업권장활동을 통한 경제적 기반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기독교·대종교 등 종교의 선교활동을 통하여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선인사회의 단합과 근대의식의 각성을 조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조선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어 1900년대에는 조선인사회가 전면 형성된 북간도 지역은 해외 독립운동기지로 가장 먼저 주목될 수 있는 여건을 지닌 지역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을 계기로 한반도 내의 애국지사 및 반일운동가들은 간도, 러시아의 연해주 등 곳으로 정치적 망명을 시작하였다. 1897년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조직된 상동청년회마저 1906년 초에 해산되어(徐紘一, 2006: 81-82) 독립운동가들의 망명은 더욱 활발해졌다. 이는 1910년 경술국치 및 일제의 무단통치와 더불어 조선반도 내에서 조직적인 민족운동이 완전히 불가능해지자 더욱 고조되었다.

당시 북간도 망명 정치인들 가운데 주목할 수 있는 인물이 이상설(李相卨)과 이동녕(李東寧)을 중심으로 하는 여준(呂準), 장유순(張裕淳), 이회영(李會榮) 등[98]이다. 이들은 망명하여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함께 근대교육을 진흥시키고 군

dCollection @ jeju

사학교를 개설하여 광복군과 같은 민족군대와 민족운동의 전위대를 양성하려고 계획했던 것이다(윤병석, 1984: 115). 그들은 이회영의 자택에서 망명계획의 모임을 가졌다. 그 결과 해외 독립운동기지의 첫 정착지를 북간도 조선인사회의 중심지인 용정(龍井)으로 정하고 이상설[99]을 만주망명 선발대 핵심인물로 정했다. 당시 북간도 용정은 이미 형성된 조선인사회를 기반으로 교육활동이 가능했다. 국내와 거리가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연해주, 동·서간도와도 편리한 교통으로 외교에 이로워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쉬운 곳이었다(강재언, 1984: 11). 또한 독립운동기지 선정의 여건과도 일치했다. 이것이 용정을 독립운동기지로 선정한 이유이다.

이에 대해 이회영(李會榮)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李觀稙, 1985: 130-131).

> 단기(檀紀) 4239년 병오(1906) 하(夏) 선생이 광복운동의 원대한 素志를 행함에는 국내에서만 행하는 것이 불리한 줄 각오하셨다. 선생은 이상설(李相卨), 유완유(柳完悠), 이동녕(李東寧), 장유순(張裕淳) 등 여러 선생과 심심(深深)밀의하시고 광복운동을 만주에 전개키로 하고 만주택지와 도만인물을 논할 새 북간도 용정촌은 교포가 다주(多住)하여 교육하기 최미(最美)하고 노령(露領)이 북통(北通)하여 외교가 편리하며 내지가 일위수(一葦水)를 격(隔)하여 왕래가 역호(亦好)하니 택지(擇地)는 용정촌으로 정하고, 그러나 도만(渡滿)인물을 택(擇)키 난(難)하도다. 요컨대 동지 중에 명예(名譽)·지식(知識)·도량(度量)·지고(志高)·인내(忍耐) 등을 겸비한 인물이라야 한만인(韓滿人)의 모본(模本)이 되어서 기초를 선수(善修)하고 사업의 성공을 가히 기약할지로다. 보재(溥齋) 선생이 개연(蓋然)히 말씀하시되 수모(誰某)를 막론하고 인정상에 이친척(離親戚) 기분묘(棄墳墓)하고 황한한방(荒漢寒方)에 고주고난(孤住苦難)하는 것이 또한 어렵지마는 조국과 민족이 중대한지라 이제 이험(夷險)을 어찌 선택하리오. 내가 불민하나 만주에 나아가 운동을

98) 이 가운데서 李會榮을 비롯한 기타 新民會 회원들인 李相龍, 安昌浩, 朴殷植, 申采浩 등 독립지사들은 주로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99) 이상설은 충청북도 출신으로 이회영, 이시영, 여준(일명 여조현) 등과 함께 이제촌의 문하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유인석에게 배우기도 했다. 그는 25세인 1894년에 마지막 과거에 급제하여 승정원, 성균관 등에서 두루 관직을 거치는 와중에 헐버트박사를 만나 신학문을 배웠으며 또한 동서양의 다양한 학문들을 습득하여 당시 학계의 권위자로 되었다(일목, 2002: 97). 이상설은 1906년 4월 18일 이회영과 이동녕의 전송을 받으며 간도로 출발했는데 그의 노선은 서울→인천→상해→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海蔘威)→간도 용정촌의 순서였다(金錫營, 1979: 129).

dCollection @ jeju

> 열고자 하노라 하신대 만좌제공(滿座諸公)이 보재선생의 기고(氣高)를 다 절찬하시더라. … … 선생은 용정촌에 기주(寄住)하시고 차지(此地)에 서전서숙(瑞甸義塾)을 설립하여 교포자제를 교육하시며 비밀리에 선생과 기맥(氣脈)을 통하여 광복소지(光復素志)를 신(伸)하시도다.

이상설(李相卨)에 이어 여준(呂準, 일명 呂祖鉉), 이동녕(李東寧, 일명 李亮), 박무림(朴戊林, 일명 朴禎瑞), 정순만(鄭順萬, 일명 王昌東), 황공달(黃公達) 등이 잇따라 용정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즉시 교육활동에 착수하여 용정에 서전서숙을 설립하였으며 이로써 북간도에서 교육구국운동 및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간도에 망명하여 교육활동을 비롯한 민족운동을 활발히 벌인 독립지사들 가운데는 양인출신의 인물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동휘와 계봉우를 들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외래사상인 기독교와 애국계몽운동과 연결시켜 망명 후 간도 교육구국운동에서 기독교사상의 전파와 조선인 교육에 큰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두 사람은 모두 함경도 출신으로서 하층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신양명의 성장기를 거쳐 민족의 불운을 감지하고 민족운동에 적극 나섰다. 1905년 을사조약을 전후로 애국계몽운동에 투신, 국권수호를 위한 민족주의 성장에 선도자로 부상했다. 또한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 및 신민회 등 항일애국결사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漢北興學會) 및 이 두 학회를 통합한 서북학회(西北學會)에 참여하면서 구국교육을 주도하기도 했는데 이미 함경도 지방에서는 명성이 자자했다. 1911년 간도 망명 후에는 그곳 독립운동 및 교육구국운동의 핵심인물로 부상했다(윤병석, 2003: 164). 특히 당시 북간도의 이주 조선인들은 대부분 함경도 출신으로 이동휘(李東輝)와 계봉우(桂奉瑀)는 그곳 주민들을 단결시키고 교육운동에 참여시키는 데 용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정치지식인들의 북간도 망명을 계기로 애국계몽의 민족주의 사상이 북간도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1860년대부터 이루어져 온 조선반도 사람들의 북간도 이주는 반세기를 거쳐서 그 이주 동기나 목적에서 점진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생계를 위한 농업이주의 초기 이주동기에서 1880년대 이후 유지들의 이상사회 건설을 위

dCollection @ jeju

한 집단이주를 거쳐 독립을 위한 항일민족운동의 성격이 강한 정치적인 민족이동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간도의 사회, 정치, 교육 등 분야에서 공간적인 비약을 일으켰다. 특히 교육은 이주 초기의 가정교육에서 유지들의 진보적인 서당교육을 거쳐 독립지사들의 근대식 개량서당의 형성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결국 1910~20년대 활발하게 전개되는 사립학교 설립운동의 동인으로 되었던 것이다.

dCollection @ jeju

Ⅴ.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 전개

20세기 초 북간도의 교육이념을 크게 1910년대의 민족주의 교육사상과 1920년대의 사회주의 교육사상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 것이 이 연구 분야의 경향이다. 즉 이주이후에 그러한 이념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그 형성과정을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910년대의 한민족교육사상이 형성되는 근원적인 원인과 그 사상에 합류되는 각 지류사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의 융합 및 형성과정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북간도 사립학교설립운동 및 사회교육운동을 통한 민족교육사상의 전개과정과 그렇게 고취된 민족교육사상으로서의 민족의식이 당대 민족독립운동 및 민족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1. 민족교육사상의 형성

1) 전통사상의 영향

북간도에 유입된 전통사상은 종성(鍾城)을 중심으로 하는 오룡천(五龍川) 지역 실학파의 실학사상과 경성(鏡城)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성학통의 성리학의 위정척사사상이 대표적이다. 이 두 학통은 종성의 희성사(希聖祠), 그리고 경성의 도북사(道北祠)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바 모두가 우암 송시열에 학문적 연원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발전과정을 거쳐 완연히 다른 모습으로 북간도에 영향을 미친 전형(典型)이라고 할 수 있다.

종성학통은 성리학을 지방 실제와 결합시켜 향촌질서의 유지와 함께 지방의 학문적인 진작을 도모하였다. 이 학통은 조선후기로 점차 들어서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당대의 현실과 실제에 맞추었다는 점에서 실

dCollection @ jeju

학으로써 북간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가 하면 경성학통은 학문적 계보의 확립과 성리학의 굳건한 수호를 강조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성리학적인 위정척사의 맥락에서 그대로 북간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북 나름대로의 학통이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앞서 제4장에서 관북의 문화적 특징, 교육현실의 제 조건을 논의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관북 학통의 형성에는 유배인과 지방관들의 영향이 지대했다.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관북학통의 형성배경을 논의한다.

관북지역은 세종 조에 이르러서야 북관 6진이 개척되었고 또한 풍속에 궁마습사(弓馬習射)를 숭상하여 향유(鄕儒)의 성장이 상당히 미진한 지역이었다. 더욱이 1467년 이시애의 난(李施愛 亂)[100]으로 말미암아 함경도민에 대한 중앙 정계의 불신과 배척이 심해지면서 점차 소외되었다. 따라서 관북 출신의 중앙 진출이 어려워졌으며 관북 유림의 자체적인 성장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17세기 중반까지 관북에서 단 두 명의 문·무신[101] 외에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크게 출세한 인물이 없을 정도(정해득, 1996: 4-5)였다는 점에서도 미루어 볼 수 있다. 이처럼 관북은 조선후기까지도 학문적으로 상당히 지체된 지역이었다. 그리하여 주자성리학의 보급은 삼남지역에 비해 퍽 늦은 17~18세기가 되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무산(茂山), 부령(富寧), 회령(會寧), 종성(鍾城), 온성(穩城), 경원(慶源), 경성(鏡城), 길주(吉州) 등 지역에 유배되었던 유현과 지방관을 배향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 사우들이 대개 17~18세기에 들어서야 배향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표 Ⅴ-1> 북관 서원과 사우 설립연대

지역	서원·사우	설립연대	종향인물 신분
茂山	鄕祠宇	1711	유배인·지방관

100) 李施愛의 亂은 吉州 胡族 李施愛가 1467년(世祖 13년) 회령부사 당시 咸吉道 수령에 함길도인을 삼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일으킨 반란으로 중앙의 중앙집권강화에 따른 지방관 파견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101) 安邊 사람으로 참판을 지낸 貧郊 李之馧과 南九萬에 의해 兵曹의 武士로 擢用된 북도 穩城 사람 全百祿이 있다.

dCollection @ jeju

富寧	忠賢祠		유배인
會寧	鄕祠宇	1610	유배인・지방관
鍾城	鍾山書院	1666(1686)	유배인・지방관
	希聖祠	1799	관북유현
穩城	忠谷書院	1606	유배인
慶源	忠烈祠	1688	지방관
鏡城	華谷書院	1730	유현 지방관
	淸德祠	1643	지방관
	興惠祠	1695	지방관
	道北祠	1795	관북유현
吉州	溟川書院	1670(1696)	유현 지방관
	景賢祠		관북유현

* 이 표는 부록 2의 서원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

<표 Ⅴ-1>에서 보면 관북의 북관지역에서 가장 이른 서원이 온성의 충곡서원으로 1606년에 설립되었는데 유배인을 배향하기 위한 것이다. 관북유현을 배향하기 위해 설립한 서원은 종성의 희성사와 경성의 도북사인데 모두 1790년대에 들어서야 건립되어 가장 늦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립연대가 미상인 경현사는 그 배향인물인 현이규(玄以規, 1641~1706)가 1706년에 졸(卒)하였으므로 그 이후일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부령의 유배인 김제겸(金濟謙, 1680~1722)을 배향한 충현사 역시 김제겸이 졸한 1722년 이후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관 서원 및 사우들의 설립연대에서 추정하건대 북관의 학문적 진작은 적어도 17세기 이후에 들어서서야 서서히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학문적 활동 가운데서 희성사와 도북사를 중심으로 하는 관북 유림이 점차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7~18세기를 거쳐 하나의 학문적 유파로 성장한 관북 북관지역 학통 및 학문적 연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선 이 지역 서원과 사우에 배향된 유배인 및 지방관들에 대해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서원과 사우에 배향된 인물들은 대개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지역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점과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사람들의 정신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것은 해당지역 유림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북관지역에 유배인이 정배된 것은 사림들의 사화(士禍)가 시작되면서 비롯되었다. 무오사화(戊午士禍, 1498년)에 연루된 정여창(一蠹 鄭汝昌, 1450~1504),[102]

102) 鄭汝昌은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의 학문을 전승한 것으로 圃隱 鄭夢周의 嫡統이다. 그는 寒暄堂 金宏弼(1454~1504), 靜庵 趙光祖(1482~1519), 晦齋 李彦迪(1491~1553), 退溪 李滉(1501~1570) 등과 함께 東方五賢으로 추앙되어 문묘에 배향되었다. 1498년 종성으로 유배되어 1504년 적거지에서 죽었는데 그해

dCollection @ jeju

기묘사화(己卯士禍, 1519년)에 연루된 기준(服齋 奇遵, 1492~1521),[103]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년)에 연루된 유희춘(眉巖 柳希春, 1513~1577)[104] 등이 종성에 유배되었다.[105] 그 후 김시양(荷潭 金時讓, 1581~1643)[106]이 종성에, 김우옹(東岡 金宇顒, 1540~1603)[107]은 회령에 정배(定配)되었고 김덕함(醒翁 金德諴, 1562~1636)은 남해에서 명천, 온성 등지에 이배(移配)되었다. 그리고 정홍익(休翁 鄭弘翼, 1571~1626),[108] 유계(市南 兪棨, 1607~1664),[109] 조헌(重峯 趙憲, 1544~1592)[110] 등이 종성, 온성, 길주 등 북변지역에 유배, 김제겸(竹醉 金濟謙, 1680~1722)[111]은 부령에 유배되면서 북관 육진지역에 유배인들이 연이었다.

일어난 갑자사화(甲子士禍: 1504년)에 또 연루되어 剖棺斬屍의 참사를 당하기도 한다.(金宗直, 『佔畢齋集 門人錄』「門人錄」, 附門人錄, "鄭汝昌字伯勖. 河東人. 號一蠹. 以孝行薦爲參奉. 辭不就. 登第. 爲翰林. 官至安陰縣監. 與金宏弼受業於先生. 事性理學. 戊午. 謫鍾城以卒. 旣而. 又剖棺. 中廟初. 贈都承旨. 後加贈右議政. 宣廟朝. 賜謚文獻.")

103) 奇遵은 趙光祖의 학문을 전승하였는데 1591년 己卯士禍에 연루되어 牙山에 유배되었다가 1592년 加罪되어 穩城으로 이배되었는데 1521년 宋祀連의 誣獄에 추론되어 謫所에서 賜死되었다. 1568년 穩城 선비들이 그 적거지 터에 사당을 세워 배향하였고 그 후 온성의 충곡서원과 종성의 종산서원에 배향되었다.

104) 柳希春은 新齋 崔山斗(1483~1536)와 慕齋 金安國(1478~1543)의 학문을 전승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했는데 을사사화로 파직되어 귀향했지만 곧이어 良才驛 壁書事件(1547년)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하지만 고향과 가깝다는 이유로 곧 북변의 종성으로 이배되어 거기서 19년을 보냈다. 그는 유배지에서 여러 유생들과 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續蒙求』를 지어 아이들을 교육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기타 저술에 전념하기도 하였다. 후일 종산서원에 배향되었다.

105) 鄭汝昌, 『一蠹先生續集』 卷 2, 金起泓, 「鍾山書院請額疏」, "伏以臣等所居. 乃北鄙之鄕也. 地與戎羯爲隣. 俗以弓馬爲習. 士之生乎其間者. 其何所觀感而啓發其知識乎. 惟幸先正諸賢. 謫居斯土. 不鄙夷而訓迪之. 由是人皆興勸. 始知有所謂詩書禮樂之敎。孝悌忠信之道焉. 其垂惠於後學. 有補於聖化. 夫豈淺鮮也哉. 蓋昔戊午史禍作. 而文獻公臣鄭汝昌謫鍾城. 己卯士禍作. 而應敎臣奇遵謫鍾城. 乙巳士禍作. 而文節公臣柳希春謫鍾城. 有若文肅公臣鄭曄. 嘗爲鍾城府使. 忠貞公臣鄭弘翼謫鍾城. 至于近世. 則大提學臣趙錫胤, 參判臣兪棨. 俱以一時恩譴. 或守鍾城. 或竄穩城. 玆數臣者. 皆以名世儒賢. 遠斥荒裔. 處困以亨. 益肆力於經籍. 推其緖餘. 以訓蒙士. 雖施敎有久近. 收效有淺深. 而能使俗習丕變者. 其功甚大. 有不可誣也。臣等遠則耳飫。近則親炙. 高山景行之思. 實有萬倍於他人者也. 遂與數三同志之士. 協謀鳩工. 營立一祠于鍾城涪溪里. 以文獻公鄭汝昌主享. 而其與八賢配食. 以寓沒世之慕. 兼作藏脩之所. 列邑人士. 聞風興起."

106) 金時讓은 향시를 주관하면서 왕실의 실정에 빗대어 시제를 출제했다는 이유로 종성에 유배되어 영향을 미쳤는바 그는 유배기간에 『涪溪記聞』을 지어 북관의 풍토를 소개하기도 했다.

107) 金宇顒은 부인의 외조부인 南冥 曺植(1501~1572)의 문인인데 1589년 己丑獄事 당시 鄭汝立(1546~1589)과 함께 曺植의 문하에서 수학했다는 이유로 회령에 유배되어 3년 있으면서 북변과 연을 맺게 되었다. (鄭介淸, 『愚得錄』, 「困齋先生愚得錄附錄上」, 困齋先生事實 : "金東岡宇顒, 字肅夫. 南冥門人. 定配會寧.")

108) 金德諴은 인목대비 폐모론으로 李恒福, 鄭弘翼의 의견을 좇아 반대하다가 남해에 유배되었는데 또다시 북변의 明川, 穩城 등 지역에 이배된다. 관직생활 동안 白沙 李恒福(1556~1618)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鄭弘翼 역시 인목대비 폐모론 반대로 1617년 종성에 유배되어 6년 있었으며 종산서원에 배향되었다.

109) 兪棨는 沙溪 金長生(1548~1631)의 문하생으로 宋時烈, 同春堂 宋浚吉(1606~1672), 美村 尹宣擧(1610~1669), 草廬 李惟泰(1607~1684) 등과 함께 충청 유림의 5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인조의 묘호를 정하는 문제로 1649년 온성에 유배되었으며 종산서원에 배향되었다.

110) 趙憲은 栗谷 李珥(1536~1584)와 牛溪·默庵 成渾(1535~1598)의 문인으로 교육에 일각을 나타낸 인물인바 鄭汝立 모반사건에 따른 시폐를 극론하다가 길주로 유배되었으나 바로 풀려났다. 그가 짧은 유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길주의 명천서원에 봉향된 것으로 보아 교육적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11) 金濟謙은 金昌集의 아들로 작은 아버지 三淵 金昌翕(1653~1722)의 문인이었으며 노론과 소론의 대립으로 아버지 夢窩 金昌集(1648~1722)이 소론에 의해 사사되자 1722년 울산에 유배되었다가 부령에 이배되지만 결국 사사되고 만다.

dCollection @ jeju

유배인들이 어쩔 수 없이 관북에 머물게 되었는가 하면 중앙 정계의 중요한 인물들이 관북의 지방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김세렴(東溟 金世濂, 1593~1646), 남구만(藥泉 南九萬, 1629~1711), 정엽(守夢 鄭曄, 1563~1625), 조석윤(樂靜齋 趙錫胤, 1605~1654), 이광하(貞翼 李光夏, 1643~1701) 민정중(老峯 閔鼎重, 1628~1692) 등이 함경도관찰사로 있었다. 또한 송상현(泉谷 宋象賢, 1551~1592), 김상헌(淸陰 金尙憲, 1570~1652), 민유중(屯村 閔維重, 1630~1687) 등은 경성판관으로, 이식(澤堂 李植, 1584~1647)은 북평사로, 김창협(農巖 金昌協, 1651~1708)은 함경북도병마평사 등으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모두 북관의 학풍 진작을 위해 크게 공헌하게 된다.[112]

이들 유배인과 지방관들은 함경도 북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의례 지방의 유풍진작과 교학에 힘쓰게 되었는바 이로부터 북관의 지방 유생들이 서서히 학문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유배인들이 비형식적으로 무분별하게 함경도 변방의 학문진작과 향학열의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방관들은 점차 형성되는 관북유림들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학문적 계보로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113] 이는 <표 Ⅴ-1>과 같이 지방관과 관북 유림들의 노력으로 설립된 서원과 사우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무산의 향사우에 남구만, 부령의 충현사에 김제겸, 회령의 향사우에 김우옹, 이윤우, 김세렴, 김시양, 민정중, 종성의 종산서원에 정여창, 기준, 유희춘, 정엽, 김

112) 관북에 영향을 미친 지방관 가운데서도 閔鼎重은 특히 관북유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관북의 학문적 진작과 향학열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관북에서 무려 6곳의 서원과 사우에 배향되었었다. 1664~1665년 사이에 그는 함경도관찰사로 재직하였는데 관북의 유생들을 그의 스승인 송시열의 문하생으로 추천하기도 하였고 또한 吉州의 溟川書院, 鏡城의 彰烈祠, 鍾城의 鍾山書院 등 書院과 祠宇들의 건립과 永興의 興賢書院을 移建 등을 관여하는 등 관북 유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113) 이들 지방관들의 종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鄭曄과 趙錫胤은 모두 鍾城府使로 재직했던 인물들로 재직 당시 교육에 힘썼고 지방 민중들의 추대를 받아 종산서원에 배향된 것으로 보인다. 南九萬은 宋浚吉의 문하생으로, 閔鼎重은 宋時烈의 문인으로 모두 함경도관찰사를 지내면서 함경도지역에 공헌이 큰 것으로 종산서원을 비롯한 관북 다수의 서원, 사우에 배향되었다. 鄭蘊의 경우 함경도 지방 근무경력이 잠깐임에도 불구하고 종산서원에 화곡서원 등에 배향된 것으로 보아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李潤雨(沈悅, 『南坡相國集』 卷 5, 「書狀」, "鏡城, 北靑判官. 自前例以有名望文官差送者. 其意有在. 鏡城之人. 言及金尙憲, 吳允謙之淸愼. 至今以爲美談. 追思李潤雨, 南以俊之善治. 亹亹不忘.")는 鏡城判官으로 있던 鄭蘊과 왕래가 잦았는데 1613년 경성 판관으로 되어 북관에 머물게 되었고 會寧에 鰲山書院을 세워 金宇顒을 봉안하기도 하였고 1624년(인조 2년) 함경도 宣諭御使로 되는 등 북관과의 인연이 깊었다. 그는 金宇顒과 함께 會寧의 鄕祠宇에 봉향되었다. 李植은 북평사로 부임되었을 때 『北關誌』 편찬을 시작하였는데 그의 아들 李端夏가 북평사로 왔을 때 완성했으며 金世濂, 宋時烈 교유하기도 하면서 관북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 金昌協 역시 북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는 宋時烈과 李端相 학통을 받아 함경도 지방관으로 부임되었을 당시 관북에 주자 성리학을 전파하는 대표적 인물이 된다.

dCollection @ jeju

상헌, 정홍익, 정온, 유계, 조석윤, 민정중, 남구만 등이 배향되었다. 또한 온성의 충곡서원에 기준, 김덕함, 유계 등, 경성의 화곡서원에 송상현, 김상헌, 정온, 민유중, 이식, 김창협 등, 청덕사에 성하종, 홍혜사에 이광하 등, 길주의 명천서원에 조헌, 민정중 등이 배향되어 관북 유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진다. 특히 민정중이나 김창협, 이광하, 남구만 등 지방관들은 다수의 서원과 향사에 배향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관북 학문 진작에 미친 영향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114]

이들 뿐만 아니라 서원이나 사우에 향배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관북의 학문적 진작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그 외에도 다수 있다. 그 가운데서 갈암 이현일(葛庵 李玄逸, 1627~1704), 퇴어당 김진상(退漁堂 金鎭商, 1684~1755), 담정 김려(潭庭 金鑢, 1766~1822), 원교 이광사(圓嶠 李匡師, 1705~1777), 후송 유의양(後送 柳義養, 1718~미상)[115]과 실학파의 대표 인물인 초정 박제가(楚亭 朴齊家, 1750~1805) 등 역시 관북에 유배되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관북의 서원과 사우에 배향되었거나 유배된 인물들은 거개가 중앙 정계의 거유(巨儒)들로서 자의든 타의든 그들의 관북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곳의 학문 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그 징표가 바로 이상 설명한 서원과 사우에서의 향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 관북 지방관이나 유배인들은 그것이 가통(家統)적이든 또는 학통(學統), 도통(道統)에서든 서로 연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교육하기도 하고 또 서로 제문(祭文)이나 서문(序文)을 교환하기도 하면서 학문적 성장을 해 나갔다. 그 교유와 종유 및 사사의 관계 속에서 점차 관북유림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관북유림의 형성은 함경도 북변에 성리학, 실학적 사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통사상은 진보성과 보수성을 보이면서 북간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북간도 이주민들의 공동체의식과 집단의식 역시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겠다.

114) 여기서 서원, 사우와 인물들 이름의 한자 표기는 [부록 2]의 서원일람표를 참조.
115) 1788년『春官通考』를 저술한 것으로 보아 그의 卒期는 그 이후일 것이다.

dCollection @ jeju

(1) 종성학통의 영향

가. 종성학통의 형성

유배인과 지방관들의 왕래로 관북의 북관지역은 유풍이 크게 진작되었다. 일단 북관의 향학열이 크게 향상되었고 주자성리학에 입각한 학문적 경향이 날로 늘어 북관 유림 독자적인 학통이 서서히 자리 잡히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이유원(橘山 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북관유풍에 대해 묘사하고 있었다.

> 함관(咸關) 이북 지방은 가옥(家屋)이 토굴(土窟)과 같고 사람들이 짐승의 가죽을 입고 산다. 그러나 평소 유풍(儒風)을 숭상하여 남자들은 모두 글을 읽을 줄 알고 여자들은 다 길쌈을 할 줄 안다. 제사(祭祀)는 반드시 정성스레 지내되, 탁의(卓椅)를 설치하는 일이 없고 땅바닥에 척포(尺布)를 펴고 그 위에 과일과 어포(魚脯) 등의 제물을 벌여 놓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수달이 물고기를 제사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밤에는 강비(穅秕)의 기름을 짜서 삼줄기[麻莖]에 발라 벽의 구멍에 꽂아 두고 두 머리 부분에 불을 붙여 밖으로는 남자가 읽는 책을 비추고 안으로는 여자가 길쌈하는 곳을 비추는데, 글 읽는 소리가 베 짜는 소리와 더불어 서로 어울려 우렁차다. 이 때문에 회령(會寧)과 종성(鍾城) 사이에 석유(碩儒)가 많이 나왔으니, 예컨대 동호(東湖) 문덕교(文德敎)와 송암(松庵) 이재형(李載亨) 같은 여러 사람들은 북쪽 지방에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자들이다.[116]

관북 유림 형성의 직접적인 계기는 17세기 후반 북관을 비롯한 관북지역의 함흥(咸興), 영흥(永興), 길주(吉州)지역을 효시로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의 문인들이 속출하게 되면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함경도관찰사로 있었던 민정중(老峯 閔鼎重 1628~1692)의 중재로 이루어졌다. 관북에서 처음으

116) 李裕元,『林下筆記』 卷 27,「關北儒風」, "咸關以北. 屋如土窟. 人服獸皮. 然素尙儒風. 男子皆知讀書. 女人擧解紡績. 祭祀必誠. 無卓椅之設. 展尺布於地. 按排果脯等物. 遙望之. 怳如獺祭魚也. 夜則榨穅秕膏. 塗諸麻莖. 揷於壁穴. 以兩首燃之. 外照於書. 內照於績. 讀聲與機響相徹. 以是會寧鍾城之間. 碩儒多出. 若文東湖德敎. 李松庵載亨諸人. 能冠冕北地者也."

dCollection @ jeju

로 송시열의 문인이 된 사람은 함흥의 주비(閑山 朱棐 1643~미상)와 주남로(聽天窩 朱南老, 1651~미상)이다. 이들은 민정중의 소개로 편지를 들고 송시열을 찾아가 향음주례에 대해 배워서 관북지방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것이다.[117]

> 두 주군은 그곳 감사(監司)인 민공 대수(閔公大受 민정중(閔鼎重))의 편지를 내보이는데, 이는 또 향음주례(鄕飮酒禮) 등을 알아가지고 돌아가서 그것을 북방(北方)에 시행하려는 뜻이었다.[118]

송시열은 수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서문을 지어주기도 하면서 북변의 학문적 진작을 희망하였다.

> 북방은 실로 우리 성조(聖祖 조선 태조(朝鮮太祖)를 가리킴)께서 입신출세(立身出世)한 지역인데도 조정(朝廷)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대해 왔기 때문에 문헌(文獻)이 동남쪽보다는 약간 손색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북쪽 사람들의 한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또한 사람마다 될 나름에 달려 있는 것이다....지리(地理)에는 구역(區域)의 구분이 있지만 인성(人性)에는 풍색(豐嗇 풍부함과 박약함)의 차이가 없는 것이요, 다만 그 사람이 분발하여 힘써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
> 두 주군(朱君)이 돌아가거든 나의 이 말을 감사(監司)에게 고하고, 또 그 고을의 수재(秀才)들에게 말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북방 풍속의 변해 가는 것을 내가 곧 귀를 기울여 듣게 될 것이다.[119]

그런가하면 길주 사람 현이규(白菴 玄以規, 1641~1706) 역시 송시열, 송준길(宋俊吉, 1606~1672)과 서신을 통해 예학(禮學)을 배웠으며 송시열이 덕원에 유배되

117) 宋時烈, 『宋子大全』 卷 119, 「答朱棐」, "心是一箇虛靈底物事. 故舍之則亡去. 然懲於此而欲一切把捉. 則轉見躁擾而亡失尤甚. 正當勿忘勿助. 使此心虛閒時節漸多則思過半矣. 大槩私欲惡念. 却易驅除. 而惟泛泛閑思慮乍往乍來者尤害心術. 先賢最怕此物事. 後學最當深念也. 除是淨掃一室. 對案看書. 則自可湊泊此心. 而漸見虛閒消息也. 須以此試之如何."

118) 宋時烈, 『宋子大全』 卷 137, 「送咸興二朱君序」, "已而二君出示其監司閔公大受書. 而又欲以鄕飮酒等禮. 歸而行之北方."

119) 宋時烈, 『宋子大全』 卷 137, 「送咸興二朱君序」, "且念北方. 實我聖祖發跡之地. 而朝廷待之以荒裔. 故文獻少遜於東南. 豈不爲北人之恨也. 然亦在乎其人矣.……夫地理有區域之辨. 而人性無豐嗇之殊. 只在乎其人之奮厲勉慕之如何爾. 二君歸以此告於監司節下. 又以語於鄕秀而共勖焉. 則 北俗之變也。余將側耳而佇聽也."

dCollection @ jeju

었을 때 직접 방문하여 사사(師事)받기도 하였다.[120] 이로써 『가례(家禮)』, 『근사록(近思錄)』 등을 깊게 이해하였으며 고례(古禮)에 따라 관혼상제를 치러 북방 호걸지사(豪傑之士)라 불리기도 했다.[121]

그 외에도 많은 관북 사람들이 송시열의 문인으로 되었는데[122] 이러한 상황은 당시 북평사나 함경도관찰사로 있었던 이단하(畏齋 李端夏, 1625~1689), 민정중 등과 송시열과의 깊은 연원에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단하는 전 북평사로 경성의 화곡서원에 배향된 이식(李植)의 아들이다. 그는 민정중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정문부(鄭文孚)의 사적(史蹟)을 조사하여 조정에 알림으로써 관직을 추증시키고, 사당을 세워 충렬사(忠烈祠)라는 사액을 내리게 하였다. 민정중은 송시열의 문인으로 관북 유학(幼學)들을 가르치기도 송시열의 문인이 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하면서 관북의 학문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관북의 학통이 점차 확고하게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회령(會寧)출신의 최신(鶴巖 崔愼, 1642~1708)이 송시열의 문하에 들어가 중앙정계에서 유명해지게 되면서부터이다.[123] 그는 어려서부터 「맹자(孟子)」를 읽으면서 학문

---

120) 宋時烈, 『宋子大全』 卷 118에 송시열이 玄以奎에게 답한 書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家禮』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다.

121) 李縡, 『陶菴先生集』 卷50, 「處士玄公行狀」, "公諱以規字自强號白菴. 其先出廣州. 高麗星山府院君德秀始祖也. 入本朝參判用富. 錄開國功. 其曾孫仲滿坐豪右流明川. 後五世徙于吉州. 子孫遂爲吉州人. 祖諱演考諱太虛. 妣陽川許氏. 吉城君惟禮之後. 父曰應魯. 公幼而嶷然有巨人氣度. 及長聰明絶倫. 淹穿經史. 年十八讀尙書之朞三百璣衡註. 默契其理. 患初學難曉. 別爲補註. 以發其奧. 又削竹作渾天之制. 晷刻節候. 無毫髮差者. 如醫藥卜筮筭數之書. 亦皆旁通. 而不屑爲也. 其事父母. 常愉色婉容. 務悅其心. 父母或怒他人. 輒屛氣起敬. 俟怒弛而後始敢舒顔. 老婢僕有過. 以父母所使不敢罪. 子弟有失. 亦必溫言誨諭. 或語及人長短得失則必痛禁之. 仲嘗遘癘. 有子在傍. 公猶親執藥不去. 從姊患疽. 往救之. 疾瘳乃歸. 朞功之喪. 食素不飮酒. 以終其月. 內行之美如此. 早專意禮學. 以書質於二宋先生. 凡累十條. 尤菴之謫德源也. 晉謁而叩其疑. 又退而記其答問. 自是廢擧. 杜門讀書. 沉潛義理. 於近思錄得力最深. 家甚貧. 終身無戚戚容. 篤志爲己. 不求人知. 言行相顧. 動靜有度. 尤嚴於在色之戒. 飮酒終日. 無失儀. 常以忿思難三字爲處身之要. 又嘗語學者曰懲忿窒慾. 可以存心養性. 然要當以一箇敬爲主. 徐相國宗泰奉命至州. 聞其名請見. 辭以疾不往. 御史薦聞于朝. 不果用. 丙戌十一月七日卒. 年六十六. 翼年三月. 葬於本州刀山艮向之原. 州人咸驚嗟相告曰賢士亡矣. 人各出米幾石石灰幾石以賻之. 公娶陽川許氏. 擧二男三女. 男益章, 得章. 金泌, 崔萬重, 許槩其婿也. 益章男慶垕. 女宋弘緖. 得章男某某. 金氏子興植. 崔氏子斗成. 許氏子濬. 公起於遐陬. 倡明禮學. 冠昏喪祭. 一遵古禮. 遠近人士. 以爲模範. 蓋北方豪傑之士. 惜乎. 其沉淪不見用於世也. 記余少時. 以評事之北. 公歿已數載矣. 恨不及見之. 李君瑮以其門人呂尙賢之言. 來請狀德之文. 余旣慕公德義. 又嘉呂生之志. 就所示行錄. 叙其大略以歸之. 後之君子或有以考焉."

122) 永興의 朴虎卿, 張文吉, 張文炯, 張永紀; 咸興의 朱汝奎, 朱汝斗, 朱汝井, 朱必大, 朱宅正, 安邊의 金淑 등이 송시열 문하로 들어갔으며 안변의 吳翊達, 吳翊逸, 李世文, 李好遊 등은 송시열이 德源府에 유배 갔을 때 사사한 사람들이다(정해득, 1998, 76).

123) 崔愼, 『鶴庵集』, 序, 宋近洙: "關北. 遠隔京師. 俗貿貿. 事弓馬. 不議儒術之爲何事. 有崔鶴庵先生出. 而吾道始北. 幾乎齊魯之一變. 自是. 數百年間. 有名應之儒. 蔚然可觀. 語其淵源所自. 莫不以鶴庵爲祖. 其嘉惠之功. 烏可誣也. 公天姿剛毅質直. 自幼已知聖賢之可學. 性又至孝. 居喪盡禮. 老峯閔公適按道. 見而異之. 與畏齋李公. 資送于吾先子文正先生之門. 先生許其北方之强. 視同子姪. 而敎育之. 公亦誠心服事."
權敦仁: "大嶺之北. 距京師二千里. 窮山鉅海. 綰轂而雄崛. 其民懻忮. 無砦竄好氣義. 重爲邦起. 則力騁射. 往往跅弛之士. 聲名傾邑里. 勞勣於國. 獨不治六經四子之書. 以究所謂聖人之術者. 令滯而陋. 禮樂之敎不聞。

dCollection @ jeju

에 뜻을 두었는데 약관에 부친상을 당하자 모든 예를 갖추었으므로 조정에 알려지기도 했다. 그 후 북평사로 온 이단하와 함경도관찰사로 부임된 민정중을 연이어 찾아다니며 종유하였고 1666년에는 민정중의 소개로 송시열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송시열이 가장 총애하고 신임하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송시열의 학문을 관북에 전파하는 핵심인물이 되었다.[124] 그는 『화양견문록(華陽見聞錄)』[125]을 지어 관북 유생들에게 송시열의 학문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 중앙의 학문을 관북에 전파 및 보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로써 송시열의 문인사이에서 '관북유림지종(關北儒林之宗)' 혹은 관북성리학의 비조로 불려 그러한 인식이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최신을 관북 학문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최신 이후 그의 학맥을 이은 관북 유림들이 등장하면서 학통이 형성되었던 것이다.[126]

> 최신(崔愼) 이래 북방학자들이 돌연 흥하기 시작했다. 한치암(韓耻庵) 세양(世襄)이 가르침을 받았고 그는 한봉암(韓鳳巖) 몽린(夢麟)에게 전했으며 그 뒤로 한유헌(韓楡軒) 몽필(夢弼), 한수헌(韓睡軒) 여두(汝斗), 남오룡재(南五龍齋) 명학(溟學)에게 차례로 전승되었다.……[127]

최신의 문집인 『학암집(鶴庵集)』에는 한세양(耻庵 韓世襄, 1656~1725)에게 쓴 편지 20건과 김기홍(寬谷 金起泓, 1635~1701)에게 쓴 편지 5건이 수록되어 이들의 사제관계를 입증하고 있다.[128] 이로써 최신의 학통은 한세양, 한몽린을 통해

有鶴庵處士崔公. 起於數百年之後. 以卓犖不群之才. 得當世賢大夫之冊睞. 而贄及于大老之門. 然後始聞天德人道之奧. 慨然以倡學爲任. 剔蓁蕪而豎堂室. 放瞻詿而安詩絃. 駸駸駕軼於先路. 於是. 北之士冠帶衣履文學代不絶. 而擧以鶴庵爲初祖."

124) 崔愼, 『鶴庵集』 卷 6, 「附錄下: 遺墟碑陰記」, "盛說宋先正尤庵先生道學淵源分流北來. 寔賴崔鶴庵是已. 鶴庵遺墟. 在會寧府治. 會寧諸君子. 與吾濟共謀豎石. 以寓慕賢之誠. 其聞之乎. 仍爲余道其事頗詳. 嗟乎. 鶴庵少從閔老峯李畏齋兩先生講學. 遂得執贄於尤庵先生門下. 爲高弟."

125) 崔愼의 『華陽見聞錄』은 그의 문집인 『鶴庵集』 권2~5까지 수록되어 있다. 또한 『宋子大全』 附錄 卷17~18에는 崔愼이 기록한 語錄 上, 下가 등록되어 있다.

126) 崔愼, 『鶴庵集』 卷 6, 「附錄下: 筵說」, "關北多士. 皆知爲學之方. 至今淵源種子. 慇然可數. 而擧而崔愼爲宗師. 至若流竄十二年. 一節之不渝. 可見信道之篤. 而甲子一疏. 尤可謂秉執之卓絶矣. 其學文氣節. 有如此者. 生不能展布於世. 死未蒙褒異之典. 北士之齎鬱. 積有年所. 如李載亨韓夢麟. 爲其私淑後進."

127) 崔愼, 『鶴庵集』 卷 6, 「附錄下: 遺墟碑陰記」, "自是以來. 北方學者. 蔚然而興. 韓恥庵世襄親炙. 而傳之於韓鳳巖夢麟. 鳳巖之後. 有若韓楡軒夢弼韓睡軒汝斗南五龍齊溟學. 或衣鉢相傳. 或私淑諸人. 其餘砥行立名之士. 指不勝屈. 大抵皆以鶴庵爲宗匠. 此所謂一人而師百世也. 關北諸州後進英又. 不界年代. 觀感興起. 則其功德. 容有極哉. 桑梓敬止. 不但子孫之追慕. 杖屨戾止. 永作多士之瞻仰."

128) 朴義成, 『紀年便攷』 卷 28, "韓世襄號耻庵崔愼門人有學行愼之學一傳而得世襄再傳而得世襄之從姪夢麟."

dCollection @ jeju

북관에 널리 전파된다. 이 한씨(韓氏)가문은 청주(淸州) 한씨(韓氏) 관북파(關北派)로 한몽린(鳳庵 韓夢麟, 1684~1762)의 6대조인 한원길(韓元吉)이 종성에 유배되면서 종성지역에 세거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씨 가문은 최신의 학문을 받으면서 관북 유현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 가운데 최신의 학문을 크게 발양시킨 사람은 그의 재전(再傳)인 한몽린이다. 그는 경성(鏡城)지방의 이재형(李載亨)과 함께 '관북부자(關北夫子)' 불리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후학양성과 함께 『속근사록(續近思綠)』을 편찬하기도 했다.[129] 한몽필, 한여두는 한몽린의 학통을 이어받아 또한 남명학에게 전승되면서 남씨네 가문에서 그 학맥을 지속시켰는바 종성을 중심으로 하는 오룡천 학통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최신으로부터 이어지는 학통은 유배인이나 지방관과도 상당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신은 민정중, 이단하, 민유중(屯村 閔維重, 1630~1687) 등을 비롯한 많은 지방관 및 당대의 유현들과 교류하였다. 한몽린은 유람 차 관북에 온 김창흡(三淵 金昌翕, 1653~1722)에게 잠시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또 무산부사로 부임했던 김진상(退漁 金鎭商, 1684~1755)과 만나고자 했지만 만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평소 사숙(私淑)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한몽린은 신설양사청절목서(新設養士廳節目序)를 씀으로써 조정이 관북의 교양에 소홀히 하고 있는바 육진지역의 중심인 행영(行營)에 양사청(養士廳)을 설치하여 관북 선비들에게 교양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130]

한몽린의 제자인 남명학(五龍濟 南冥學, 1731~1798)은 한몽린의 문집인 『봉암집(鳳庵集)』의 서문을 남공철(南公轍, 1760~1840)에게 청탁하면서 서로 교유했다. 또한 한세양, 한몽린, 한몽필, 한여두, 남명학 등은 경성의 이재형과 함께 후

129) 吳常熙, 『老洲集』 卷 15, 「續近思錄序」 "余嘗從關北多士. 聞故參奉鳳巖韓公. 隱居敎授. 蔚然爲北儒之冠. 至今衣縫掖者. 咸翕然宗之. 意其邃學博識. 必有以大過人者. 迺者公孫國襏. 携公所輯續近思錄三. 千里來訪. 屬余爲序. 竊惟子朱子近思一書. 卽四書之津筏也. 大而天人性命之原. 細而日用躬行之實. 遠而齊治兼善之術. 包涵該括. 開卷燦然. 其所以繼往開來者. 可謂本末畢擧矣. 淸儒張伯行又取朱子微言之切於學問者. 彙分類次. 編爲續錄. 夫朱書之宏博浩穰. 不啻倍蓰於四子之遺書. 而宇宙間義理. 至朱子而大備. 玆續錄之所由作也. 今公此書發凡立例. 一遵寒泉之成規. 而揀擇去取. 與張氏之書. 大畧相似. 曠世殊域. 不謀同志者. 亦云異矣. 況其爲書也. 分之則各專一家. 合之則互見得失. 雖與並行無傷也. 噫. 公生於窮髮荒僻之埜. 奮起孤唱. 與中華述者相上下. 所謂豪傑之士非耶. 且聞公蒐輯之時. 年已七十有餘. 右腕病痿. 左掬管繕寫卒稿. 好學之誠. 老而彌篤. 尤非浮慕之所可幾也. 苟使北方之學者. 皆能以公之心爲心. 而沉潛玩繹. 俟其怡然渙然. 以進乎大全. 則庶幾巨細不遺. 博約兩盡. 雖不見張氏書足矣. 異日是編. 儻入中國而有具眼者. 則尙可見朱子書大明於左海. 而絶徼之外. 亦有如張伯行者出焉. 是不可以無傳也. 於是畧加修整而序之. 公諱夢麟. 學於崔鶴庵愼. 鶴庵之學. 出於華陽宋文正云爾. 崇禎後四周己卯季冬下澣. 首陽吳熙常書."

130) 이러한 내용들은 韓夢麟의 『鳳庵集』에서 확인할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송 유의양과 교류하게 된다. 후송 유의양(後松 柳義養, 1718~미상)은 1771년에 남해에, 1773년에 종성에 유배되면서 한글로 『남해견문록(南海聞見錄)』과 『북관노정록(北關路程錄)』을 지어 유명하다. 그는 종성 유배지에서 한여두(韓汝斗)의 집에 머문 적 있는데 그때 한몽린, 남명학, 한몽필과 교유했다. 또한 농암 김창협(農巖 金昌協)의 제자인 도암 이재(陶庵 李縡, 1680~1746)와도 깊은 인연이 있어 상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최강현 역, 1976: 11-12).

관북지방에서 송시열의 학통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자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老論)의 사대부들에게 서원의 기문(記文)이나 봉안문(奉安文)[131] 등을 청하여 서원의 위상을 높이고 학문적 연결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정해득, 1998: 77). 18세기에 최신에서 시작된 송시열의 학통이 한씨, 남씨 가문에 의해 서서히 북관에 정착되면서 종성을 중심으로 하는 오룡천지역에 5현이 등장하여 추앙되게 되었다. 바로 회령의 학암 최신, 종성의 치암 한세양(恥菴 韓世襄, 1656~1725), 봉암 한몽린(鳳菴 韓夢隣, 1684~1762)과 유헌 한몽필(楡軒 韓夢弼, 1699~1782) 형제, 수헌 한여두(睡軒 韓汝斗, 1677~1754), 오룡제 남명학(五龍濟 南冥學, 1731~1798) 등과 경원의 향곡 채징은(香谷 蔡徵殷)이다. 이들은 종성 희성사(希聖祠)에 관북유현이라는 이름으로 배향되면서 관북의 사표로 되었다.[132] 즉 종

131) 이러한 사정은 北淸, 汶川, 鍾城, 鏡城 등 지역의 서원과 사우들이 모두 宋時烈 학통의 祝文과 祭文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삼수·갑산지역까지도 記文을 써서 보냈다(정해득, 1998: 77-78).

132) 오룡천 오현 가운데서 향곡 채징은에 대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출생연도라든지 그의 신원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그의 이름에 대해서도 蔡徵殷 또는 蔡徽殷으로 가운데 한자가 징 또는 휘로 혼용하고 있다. 다만 한몽필의 『楡軒遺稿』에서는 「與蔡生尙質徵殷. 蔡公號香谷」라는 제목으로 학문적 교류를 한 것으로 보아 蔡徵殷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日省錄』(正祖 7年 4月 25日)에는 경원 유생 채징은을 자리가 나는 대로 조용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는 채징은에 대한 인물소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慶源 儒生 蔡徵殷은 天性이 지극한 효자이고 杜門不出한 채 독서하여 經學에 깊이 몰입하고 後進을 가르쳤으며, 兩親의 喪期를 마치고 移葬할 때에 다시 緦麻服을 입고 시묘살이 3년을 하였으니, 효성이 돈독하여 원근의 사람들이 감복하였습니다. 전에 회령과 경원의 개시 때에는 각종 邑贈을 모두 백성에게 거두어들였는데, 해마다 증가하자 백성들이 장차 유리하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징은은 개탄스럽게 여기고 발분하여 도보로 상경해서 간곡하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윤허를 받아 별도로 어사를 보내 도신과 함께 定例를 만들어 특별히 읍증을 혁파하여 적체된 폐단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6진의 人士들이 채징은에 대해서 學行을 높이 우러르고 功德에 감동하여 받들었습니다. 신이 가는 곳마다 길을 막고 하소연을 하는데, 모두 나이 70이 되도록 표창해 주는 은전을 입지 못했다고 말하는 경우로, 10여 차례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진달합니다." 이때가 1783년으로 그가 1759년에 慶源 開市의 弊端을 시정하여 줄 것을 상소(『英祖實錄』 35年 1月 10日)한 바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 그는 이미 만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며 楡軒 韓夢弼, 五龍齋 南冥學 등과 비슷한 연령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간도 명동촌 후손인 문재린과 김신묵의 회고록(2006: 417-419)에 따르면 문씨네 가문에서 북간도로 이주할 때 가장 어른이었던 문병규가 경원 채씨네와 결혼을 했는데 그 채씨가 바로 채징은의 가문이라고 하는바 문씨네와 채씨네의 깊은 연원을 설명하였다. 또한 채징은이 한몽린의 함경도 북변 조세문제로 상소문을 쓰자 그것을 도보로 상경하여 英祖에게 바쳤다는 일화가 있는데 한몽린과 채징은의 학문적

dCollection @ jeju

성의 한씨 가문, 남씨 가문, 경원의 채씨 가문인데 이들이 바로 훗날 북간도에 이주 하는 다섯 가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남명학의 손자인 남대임(涪菴 南大任)의 남씨 가문을 통해 후일 북간도 명동으로 이주하는 유지들에게 전승된다. 남대임은 당시 종성학통을 적통으로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바 종성을 중심으로 하는 오룡천 지역에 영향이 지대했던 것으로 보인다.[133] 어려서부터 남다른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과거(科擧)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했는데 상경하여 노주 오희상(老州 吳熙常, 1763~1833)의 문인이 되기도 한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고 학문적 조예가 깊었는데 학교를 만들어 제자들을 받기 시작하자 원근을 불문하고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북평사의 천거로 참봉에 재수되고 의금부도사에 천거되지만 나아기자 않았다. 또한 유생들을 모아 최신의 관직을 추증하고 봉암 한몽린의 『속근사록(續近思錄)』을 재발간하는 등 일을 하면서 오로지 학문적 성장만을 기했다. 그로 인해 최신 등 제현(諸賢)을 그의 조부를 봉향한 오룡재사(五龍齋祠)[134]에 같이 봉향하면서 오룡재사는 희성사로 편하게 되었다.[135] 이로써 종성의 희성사를 중심으로 [그림 Ⅴ-1]과 같이 종성학통이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가 바로 북간도에까지 전승되었던 것이다.

나. 종성학통의 북간도 이주

종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문적 연원을 종성학통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또한 오룡천(五龍川) 지역이기 때문에 오룡천 실학파라고도 한다. 여기서 실학파

관계를 입증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133) 尹定鉉,『柊溪遺稿』 卷9,「墓碣銘: 南涪菴墓碣銘」, "關北舊無儒學. 有崔鶴菴愼倔起窮鄙. 親炙于尤齋先生. 爲師蒙險難. 再罹縲紲而不悔. 所樹立卓然. 比於子路之禦侮. 自是六鎭始知洛閩之道. 彬彬可觀. 鶴菴以其學傳于韓恥菴世襄. 耻菴傳于韓鳳巖夢麟. 南五龍齋溟學得于鳳巖之門而傳于家. 有孫號涪菴. 篤志自修. 以濟其美. 裒然爲北儒領袖. 君子賢之. 而鶴菴首倡之功遠矣. 涪菴宜寧人. 大任其名."

134) 이 사우는 원래 南大任이 그의 할아버지인 五龍齋 南冥學을 향배하기 위해 건립한 祠宇였는데 후일 崔愼을 비롯한 종성학통의 오룡천 학자들을 아울러 배향하면서 希聖祠로 되었다.

135) 尹定鉉,『柊溪遺稿』 卷9,「墓碣銘: 南涪菴墓碣銘」, "幼岐嶷有志. 知科第爲外物. 慨然從事於問學. 旣冠淸贏善病. 簡出入. 終日危坐讀聖賢書. 入京都請業於老洲吳公之門. 事親孝. 生事葬祭. 情文備至. 父沒不赴擧. 建講舍授徒. 遠近從學者甚衆. 敎人必先以朱子小學. 老益嚴於持守. 書座右以自警曰不談身外事. 自治心上惡. 與諸生行飮射禮. 揖讓樽俎秩然也. 朴評事來謙造廬叩其蘊. 還奏其經行. 道臣前後交薦. 純廟癸巳. 授和陵參奉. 辭不就. 直陞六品除義禁府都事. 以老疾不復至京. 使儒生籲於朝. 請贈鶴菴官. 重訂鳳巖所輯續近思錄梓行之 .議於士友. 移鶴菴諸賢俎豆. 合享于五龍齋祠. 扁以希聖. 行修家庭而矜式鄕里. 身隱邊城而名達京都. 非有充積之實. 能如是乎."

dCollection @ jeju

가 된 이유는 후술하기로 하고 우선 종성학통이 북간도에 어떻게 이주하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오룡천 실학파 가운데 핵심인물들인 최신, 한세양, 한몽린, 남명학, 채징은을 일컬어 오룡천(五龍川)[136] 오현(五賢)[137]이라고 한다. 문재린은 오현이 났다고 해서 오룡천이라 했는지, 아니면 오현 출생을 예언적으로 오룡천이라 했는지 모르겠다며 우연의 일치를 감탄했다(문재린, 1993: 79-80). 앞서 설명했듯이 오룡천지역에서는 17~18세기에 걸쳐 19세기 초까지 송시열(宋時烈)→최신(崔愼)→한세양(韓世讓)→한몽린(韓夢麟)→한몽필(韓夢弼), 한여두(韓汝斗)→남명학(南溟學)→남대임(南大任)으로 이어지는 학통이 형성되었던바 이 학통의 학문적 계보는 결국 19세기 말기 간도에 이주하게 되는 두 김씨, 문씨, 남씨 등 가문에 의해 북간도에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북간도에 이주하는 오룡천 오현의 후예를 보면 종성 성암 문병규(省齊 文秉奎: 문재린 목사의 증조부), 도천 남종구(道薦 南宗九), 규암 김약연(圭巖 金躍淵), 김정규(金定奎) 등 종성의 여러 학자들과 회령의 소재 김하규(素齋 金河奎: 문재린 목사의 장인) 등 학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바로 간도로 이주해 명동촌을 만들었던 것이다(문재린, 1993: 80).

[그림 Ⅴ-1]에 의해 이들의 학문적 연원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남명학의 제자로 문병규가 있고,[138] 남명학의 손자인 남대임과 후손 남종구[139]의 문하에서는 문병규의 외손인 김정규(金正奎)와 규암 김약연, 그리고 그의 장남인 남위언(南韋彦) 등이 수학하여 그 실학사상을 전승하였다. 이들은 모두 과거(科擧)보다 지방 청소년들의 교육에 더 힘을 쏟았으며 실제적인 학문 정진을 더욱 강조하여 문병규는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특히 남종구의 가문은 독실

136) 五龍川은 會寧細谷에서 발원한 작은 내와 鍾城鹿野 山谷에서 발원한 내가 鍾城 龍溪面에서 五龍川으로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五龍川은 慶源 松亭에서 두만강에 합류되고 慶興 西水羅에서 동해로 유입된다(김재홍, 2009, 130). 종성을 중심으로 하는 함경북도 두만강 연안의 會寧, 鐘城, 溫城, 慶源, 茂山 등 6진 지역은 또한 五龍川 지역이라고 불렸다.

137) 문재린 목사가 5현이라고 했는가 하면 연변대학의 역사학과 박창욱 교수는 7현이라고 했다. 위 5현에 한몽필, 한여두 두 사람을 더한 것이며 현재 함경북도 종성에는 이들을 추모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하였(김재홍, 2009: 133)는데 이는 아마도 希聖祠에 배향된 인물들이 7명인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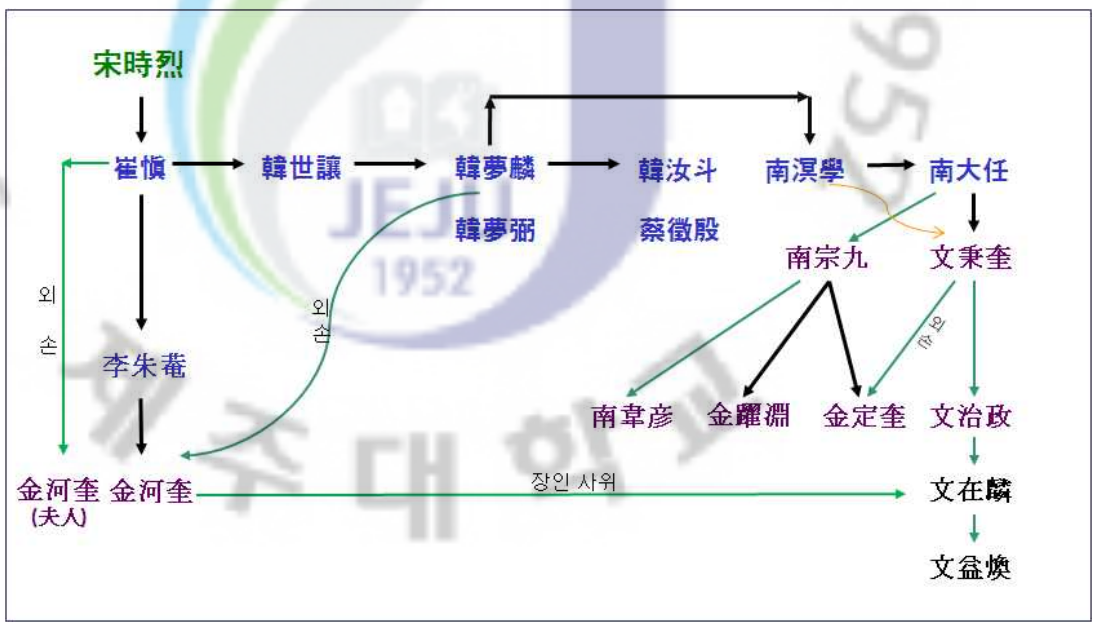
138) 문재린이나 김재홍 등은 文秉奎가 南冥學의 문하에서 수학했다고 증언하는 반면에 필자는 오히려 南冥學이 아닌 그 손자인 南大任의 문하에서 수학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것은 南冥學은 1798년 별세하는데 文秉奎는 1834년 생으로 그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9) 문재린은 그의 회고록에서 남종구 역시 오룡재 남명학의 손자라 했다(문재린 · 김신묵, 2006: 31).

dCollection @ jeju

한 실학파의 가문으로서 그 학문의 계승이 3대에 이르렀다. 그것은 명동이주 후 김약연의 규암재(圭巖齋), 남위언의 오룡재(五龍齋)로 이어졌다. 이렇게 남종구, 김약연, 문병규, 김정규, 김하규, 남위언 등이 간도로 이주하면서 명동은 명실상부의 간도 오룡천으로 되었다. 그들은 함경도 종성을 중심으로 하는 오룡천 계열의 학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이다.

[그림 Ⅴ-1] 종성학통



이렇게 남종구, 문병규, 남위언, 김약연, 김정규, 문치정, 김하규 등이 중심이 되어 북간도 이주를 도모하였다. 이주 당시 남종구와 문병규[140]는 이미 연로하였으므로 김약연, 김하규, 문치정, 남위언 등이 명동사회를 이끌어 간도의 오룡천으로 만들었던 주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중 특히 중요한 인물은 김약연과 김하규로 종성학통의 학문은 주로 이들을 통해 북간도 명동에 전승된다고 하겠다.

김약연은 회령 출신인데 8세 때부터 남종구 등의 문하에서 한문(漢文)을 수학하여 맹자(孟子)를 통달한 사람이다. 이러한 김약연을 두고 스승인 남종구는 "규암은 맹자에 통달했으니 맹판(孟板)이요, 예절이 각별하니 예판(禮板)이요, 한번 보기만 해도 척척 기억하니 피판(皮板)이요, 처사가 견실하니 철판(鐵板)이라"(문

140) 남종구와 문병규는 명동촌에 이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문재린 · 김신묵, 2006: 375)

dCollection @ jeju

재린・김신묵, 2006: 53-54)고 하여 그의 학문과 인품을 치하하였다. 그 외에도 노자의 도덕경 등 다양한 학문을 두루 통달하여 학식이 뛰어났다. 그런가 하면 김하규는 주역에 통달한데다 또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그는 한몽린의 외손으로 최신의 제자인 이주암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므로 한몽린과 최신의 학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또한 최신의 외손과 가정을 이루어 북간도에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앞서 오룡천 학자들은 송시열 계열의 정통 성리학적 학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학파라고 불렸다고 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두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하나는 오룡천 실학파라는 말 가운데 실학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연 조선후기 등장하는 학문적 경향인 실학사상을 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실학이라고 했는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만약 여기서 실학의 의미가 조선후기 실학사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과연 어떤 실학자와의 교유로 실학사상을 전승하게 되었는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으로서의 실학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에 있어서 관북지역은 제4장에서도 기술한바 있지만 중앙과 지리적으로 원격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이질적인 지역이라는 이유로 관북출신의 유학자들은 정치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그들의 학문은 자연스럽게 공리공론에 치우치지 않고 실사구시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한 학문으로 흘러갔다. 이러한 실정은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중앙의 토관제(土官制)에 따라 지방의 유림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등 지방 인재등용정책으로 지방유림들에게 관직을 제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하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한 데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141]

사실 '실학(實學)'이라는 말은 조선후기 발생한 학문유파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는 아니었다. 그것은 본래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고 하는 유학의 본령에 충실한 학풍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내용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

141) 관직을 제수 받고도 나아가지 않은 관북 유림—李載亨, 韓夢麟, 玄翼洙, 任宗七, 南大任, 文秉奎, 金魯奎 등이다(정해득, 1996・1998; 문영미, 1997; 문재린, 1993). 정조대에서 철종 때까지 함경도 지방의 문과급제자는 모두 32명으로 전체의 2.6%, 별시급제자는 50명으로 3.3%에 지나지 않아(정해득, 1998: 98; 최강현, 1984: 27-34) 함경도 유림들은 중앙 관직에 나아가기보다 실질적인 학문을 통한 향촌사회의 질서 유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Collection @ jeju

시대의 현실성 또는 현실적 의의가 있는 학문을 실학이라고 하였다. 이를테면 고려말기 신흥 유학자들은 타락한 불교를 배격하고 인륜도덕의 실천규범인 예학(禮學)을 내세워 그것을 실학이라고 하였다. 조선 초기 정통 유학자들 또한 뜬구름과 같은 사장학(詞章學)에 대하여 성리학을 실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관북 실학파들이 말하는 실학이라는 것은 구태여 성리학 또는 조선후기 등장하는 실학사상과 같은 학문적 유파를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학문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실학이지 정통 실학사상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처음에는 우암 송시열 학통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성리학을 접해가면서 학문에 임하였지만 지방이라는 특정한 지리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점차 그러한 학문과 실질적인 생활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조선후기의 시대적 영향과 함께 점차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으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을 특히 강조했던 학자는 경원(慶源)출신의 학음 김노규(鶴陰 金魯奎)[142]이다. 그는 "춤과 노래로 조상들을 기쁘게 해야"한다며 제사상 앞에서 춤을 추게 한 일화로 유명한데 심지어 남녀 사랑을 다룬 노래도 만들어 온 동네에서 부르도록 했다는 파격적인 학자였다(문영미, 1997: 17). 또한 유학뿐만 아니라 불교, 노장사상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주역까지 통달해 관북 실학의 뿌리라고까지 불렸다[143]. 이렇게 파격적인 실학자인 김노규는 교학도 특이했는바 제자들에게 글뿐만 아니라 실과도 가르쳤는데 벽돌을 만들고 기와와 도자기를 굽는 법, 새끼를 꼬고 신틀에 신을 삼는 것, 심지어 물 긷고 돼지, 닭치기, 노래, 그리고 농사짓는 법 등 다양한 실과를 가르쳤다(문익환, 1984: 216).

관북에서 이미 환갑의 나이가 되어 명동으로 이주한 "남명학의 후손인 도천 남종구는 앞으로 선조에 대한 제사법이 폐지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자신의 선조에

142) 金魯奎는 북간도를 비롯한 북쪽 강역을 역사적으로 고찰한『北輿要選』을 찬술한 경원 출신 실학자로서 五龍川 五賢에 못지않는 현인이라고 했다. 또한 잘 알려진 15만엔 탈취사건의 핵심인물이며 북간도 의병계열의 핵심인물이자 공교회 등을 창설한 金鼎奎와 학문을 함께 한 사이이며 북간도 대종교의 주요 인물인 徐一의 스승이기도 하다.

143) 이러한 그의 학문적 조예로 중앙에서는 수차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거절을 거듭하던 차 중앙에서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하자(『高宗實錄』44卷, 41年(1904) 10月 22日 甲辰條)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열흘 말미를 달라고 하고 그 사이에 죽어버렸다(문영미, 1997: 17).

dCollection @ jeju

게 제사를 하지 않았으며 제자들에게 축문도 가르치지 않았다. 또한 군자는 의관을 정제하지만 본래의 의관은 변해진다고 하면서 흰 도포 대신에 흑포로 된 의관을 하였으며 헤지면 스스로 기워 입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비법이라고 해서 오줌을 한 표주박씩 마셨다"(문재린, 1993: 80; 김재홍, 2009: 132). 이처럼 그는 성리학적인 학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지만 성리학적 사상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였다.

따라서 남종구나 김노규에서 비롯된 관북의 실학사상은 남쪽 실학자와 달리 정책에 입안하는 입장에서의 실학이 아닌 이론보다는 실천, 정책보다는 삶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결국 관북의 일상사에 영향을 미쳤고 이주 이후의 명동촌의 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조선후기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실학을 의미한다.

그런가하면 또한 실제적으로 조선후기 실학파의 영향을 받았을 법한 경우도 보인다. 앞에서도 누누이 언급했지만 조선시기에 있어 유배지는 학문과 문학의 산실이라고 할 정도로 유배인들이 학문적 성과가 많았으며 당지의 풍토를 학문적으로 바꿔놓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에 들어 유배된 학자관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 가운데 1801년 함경북도 종성에 유배된 실학파의 중추인물인 박제가에 주목할 수 있다. 이미 설명한 유배지에서 유배인들의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이해한다면 초정 박제가와 같은 당대의 대학자의 유배는 그야말로 종성 중심 오룡천 지역의 행운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박제가의 유배 교학활동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의 연구들에서 논의된바 없었으므로 유배지에서의 그의 학통이나 기타 지방 사람들과의 교류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유배지에서 자기학문의 완성을 보이면서 학문정진에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의 유배문학인 수주객사에 표현되고 있다. 그는 유배기간에 독서활동에 충실했다. 이러한 자기교육활동으로서의 독서활동은 자신의 학문의 추구, 지식의 습득, 기술의 연마, 인격의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에서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막론하고 교육 성립의 기본임을 시사하고 있다(양진건, 2010: 135).

박제가의 사회개혁론에 의하면 그는 네 가지 자기 속임(自欺)과 세 가지 자기 폐단(四自欺・三自弊)을 없앨 것을 주장하였다(윤종일, 2007: 57-88). 첫째, 인재

dCollection @ jeju

양성과 재물 유통방책은 생각하지 않고 백성이 가난함만을 한탄하는 국가의 자기 속임, 둘째, 지위가 높을수록 실무를 등지고 권세와 체면만을 추구하는 사대부의 자기 속임, 셋째, 과거시험에만 매달리는 공령(功令)의 자기 속임, 넷째, 비인간적인 신분제에 따른 습속의 자기 속임 등 사기(四欺)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법이 사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폐단, 과거제도가 오히려 인재를 잘못 뽑는 폐단, 서원이 범법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는 폐단 등을 없애야 한다고 과감히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학의(北學義)』에서 '좋은 환경'과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갈망하는 '문명도아'의 사상도 엿보인다.

이처럼 박제가의 사회개혁론 사상은 그가 종성에 유배되었을 때 종성을 중심으로 하는 오룡천 유학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박제가의 주장을 실천으로 펼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박제가의 사회개혁론 중심의 실학사상과 오룡천 학자들의 실학사상에는 과거제도에 대한 반발, 신분제의 부당성을 논하는 등 유사성이 엿보인다.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무시하지 못할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것이 바로 박제가가 종성에 유배된 4년 동안(1801~1804) 그 지역에 미친 영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학통과 혼인으로 인연을 맺고 뜻을 같이 하여 유교적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과감한 이주도 한 것도 이러한 특수한 연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종성 유배지에서 북관의 풍토와 유배인의 마음을 「수주객사」 79수에 담아냈다. 그 가운데 북관 인물들에 대한 평가와 유배인들이 북관 학문에 끼친 영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연히 시골 아이 글씨를 보니
원교(圓嶠) 필법 홀연히 이어지누나.
누구에게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부령(富寧)의 적객(謫客)이라 대답을 하네.[144]

귀양 온 사람이 없었더라면

144) 朴齊家, 『貞蕤閣五集』, 「愁州客詞」, "偶見村童書, 忽傳圓嶠脈. 問爾何從師, 曾是富寧謫."

dCollection @ jeju

이 땅에서 시부가 어이 나오랴.
다만 난 몽구(蒙求)에도 부끄럽구나
공령문(功令文)의 기술을 아니 배워서.[145]

이상 그의 시문들은 비록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담은 것은 아니지만 유배인으로서 선배들에 못미치나 나름대로의 학문적 전파를 했음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박제가의 유배생활과 학문적 정진의 모습은 늘 학문적 탐구에 목말라 있었던 오룡천 지역 학자들의 적극적인 수용태도와 궁합이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배인과 관북향유들의 우연적인 만남은 인간 본연의 실존을 되찾게 하며 이는 환경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관계로서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만남의 궁극적 결과가 교육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배인과 향유는 만남에 직면하였을 때 공존으로서의 실존을 확인하고 서로를 깨우쳐야 할 과제를 갖고 있는 활동이었던 것이다"(양진건, 1991: 48). 이처럼 명동에 이주한 간도의 오룡천 학자들은 조선왕조의 송시열계열 및 유배인들의 성리학적 학통 및 실학계열의 사상을 동시에 이어받았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관북 특유의 교육현실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학문경향으로 발전하여 오룡천 실학파로 칭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북간도 이주의 동력으로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 당시 그들의 사상은 이미 봉건적 구식 사상을 초월한 것으로 근대사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내용이나 구조상에서는 봉건적인 모습이지만 그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전통적인 봉건사상 그 이상의 진보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미 이상촌 건설을 위한 이주라는 이주목적에서 이러한 사상의 진보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 진보적인 면은 우선, 전통적인 봉건적 교육기관과 달리 과거와 관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둘째는 실제생활을 반영하고 삶을 보다 이상적으로 영위해 나가며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교육하였다. 셋째는 학자들의 전통 유교적 선비상(相)에 대한 반발로 유교적인 논리에 어긋나는 행색들이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들의 실학사상은 이미 반봉건적인 요소가 다분했고 북간도 교육이

145) 朴齊家, 『貞蕤閣五集』, 「愁州客詞」, "不有謫來人, 詩賦寧地出. 而我慚蒙求, 不學功令術."

dCollection @ jeju

근대적인 신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상적 전환요소를 마련했다. 또한 그 후 전개된 민족교육운동의 원천과 동력으로 되어 간도 민족교육 형성의 기반을 다져주는 중요한 교육사적 의미를 가진다.

다. 명동 유지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사상의 변화

명동에 관한 연구 가운데 문재린과 김신묵의 회고록인 『기린갑이와 고만네』, 그리고 그들의 손녀인 문영미의 할머니에 대한 생애사 연구(1997)와 문재린 목사의 유고 「명동은 간도의 오룡천」 및 김약연의 증손인 김재홍의 연구(2009) 등 명동촌 유지들의 후손들의 기록과 연구에서는 이주 이후 명동촌의 생활상과 일상사에 대해 폭넓게 다루어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 명동 교육사상의 변화경위와 그러한 사상적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와 함께 그들이 가지고 간 함경도 특유의 정신문화 및 실학적 학풍의 역사적 기능을 알아봐야 한다.

1899년 음력 2월 18일 밤 종성 등 지역에서 총 25세대 142명이 간도로 집단 이주를 했다.[146] 종성에서는 김약연을 선두로 하는 전주 김씨 가문 32명, 김약연의 스승인 도천 남종구의 가문은 그 아들 남위언의 인도 하에 남씨 가문 7명,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었던 문병규를 중심으로 하는 남평 문씨 가문 40명, 회령에서 온 김하규의 김해 김씨 가문 63명이다. 이들은 함경북도 종성군 상삼봉(上三峯)에서 얼음 진 두만강을 건너 자동(子洞: 현재 龍井市 開山屯鎭 子洞), 호천가(湖川街: 현 龍井市 開山屯鎭 懷慶), 만진기(萬鎭基: 현 龍井市 德新鄕(前 팔도하자향)) 등 지역을 거쳐 당시 화룡현 불굴라재(鶉鴿磴子)[147]에 정착하였다.[148]

[그림 Ⅴ-2]는 명동촌을 중심으로 한 북간도 지도이다. 지도에서도 확인되듯이 명동촌은 당시 북간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정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

146) 宋友惠의 김신묵 여사 인터뷰 기사인 "북간도의 바람소리가 듣고 싶다" 등 일부 회억록에서는 김약연의 전주김씨네 가문을 31명으로 기록해 총 141명이 이주하였다(박주신, 1996: 84)고 했지만 김약연의 증손자인 김재홍의 조사(2009)에서는 142명이 정확하다고 강조했고 문재린과 김신묵의 손녀인 문영미의 연구(1997)에서도 142명이라고 했다.

147) 불굴라재(鶉鴿磴子)는 비둘기 바위라는 뜻이다. 이 지역을 일부에서는 대랍자(大拉子, 혹 한자 발음 그대로 따라즈) 혹은 董家地方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동씨 성을 가진 대 지주의 땅이 대부분이었다는 데서 얻은 지명이다. 지금은 龍井市 智新鄕 明東村으로 되어 있다.

148) 김재홍의 연구(2009: 128)에서는 호천가를 현재 용정시 회경가라고 했는데 필자의 현지답사에 따르면 용정시내인 것이 아니라 개산툰 자동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의 懷慶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명동이 현재 화룡시라고 했는데 현재의 명동지역은 모두 용정시의 행정구역으로 용정시 지신향 명동촌이 정확한 주소이다.

dCollection @ jeju

있다. 이로써 북간도지역 및 두만강 기슭에서의 명동촌의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Ⅴ-2] 명동 및 함경도 북변과 북간도

명동촌으로 이주한 이 다섯 가문은 지연, 혈연, 학연적으로 상호 연원이 깊은 가문들이다. 이는 이미 제시한 학맥관계에서도 드러나는 것인바 다섯 가문은 이주로부터 명동촌의 건립, 교육실천 및 시국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상의 제반 변화의 수용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단결, 협력, 진보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그들이 모든 일을 회의로써 결정하고 아이들과 마을사람들의 교육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 결과이다.

오룡천 학자들이 이주할 무렵은 동학혁명과 개화운동이 실패한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다. 김약연은 이 두 혁명에 참가하였지만 혁명이 모두 실패하자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이때 회령과 종성 인근의 젊은 학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토론을 거듭한 결과 만주이주를 결정하였다. 그렇게 선택한 이주지가 바로 후일 명동이 되는 불굴라재였던 것이다.

당시 이 지역에는 이미 적지 않은 이주 조선인들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오룡천

dCollection @ jeju

계열의 학자가문의 집단이주는 이 지역을 졸지에 조선인 지역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이주 집단이 들어가기에 앞서 선봉대가 이미 이 지역의 천일경(天日耕: 일경은 소 한 마리가 하루에 가는 밭의 면적) 정도의 땅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었기에 이주민들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그 후 육진지역의 종성, 회령, 부령 등 지역에서 육속 이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어 불굴라재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고추를 초가지붕 위에 말리는 조선인 마을[149]로 바뀌었다(문영미, 1997: 21; 김재홍, 2009: 128).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들 가운데 문병규, 남종구, 김약연, 김하규 네 학자들은 오룡천 실학파의 후예로서 함경도 고향에서도 서재를 열어 제자들을 키우던 유지들이었다. 북간도 이주 당시 문병규와 남종구는 이미 환갑을 넘은 나이었다. 그러므로 이주한 이후에는 김약연(당시 32세), 김하규(당시 38세)와 남종구의 아들인 남위언 세 학자가 각각의 정착지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정착 이듬해인 1901년에 김약연은 장재촌(長財村)에 규암재(圭岩齋)를, 남위언은 상중영촌(上中英村)에 오룡재(五龍齋)를, 김하규는 대룡동(大龍洞, 일명 큰사동/대사동)에 소암재(素岩齋)[150]를 개설하고 교육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주하자마자 교육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에서 학전(學田)이라는 명목의 땅을 떼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개척되는 황무지에서 제일 비옥한 땅을 늘 학전에 편입시키거나 또 농민들이 정착하여 농토를 개척[151]할 때마다 10분의 1씩 학전으로 기증토록 하였다. 세 서재 가운데 규암재는 기숙제를 실시했는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학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무상교육[152]을 실시했다(김재홍, 2009: 134). 이를 통해 우리는

149) 명동은 1899년부터 1905년 사이에 기본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선바위 골에 40호, 수남촌에 80호, 장재촌에 400호, 중영촌에 250호, 성교촌에 130호 등 명동을 중심으로 50리 안팎에 조선인 마을이 잇따라 섰(김재홍, 2009: 134)으므로 명동지역은 급속히 조선인 지역으로 바뀌었다.

150) 문영미의 논문(1997)에서는 김신묵(김하규의 딸)의 기억에 따라 소암재를 서암재라고 했다. 하지만 다른 두 서재가 모두 호를 따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 김하규 역시 자신의 호인 소암을 따서 서재의 이름으로 했을 것이며 이는 발음이 비슷한 것으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여기서 오룡재는 남위언의 호인 것이 아니라 앞서 학통계보에서 나오는 오룡천 오현 가운데 오룡재 남명학의 호로서 남씨 가문의 선조이다. 따라서 남위언은 선조의 호를 따라 서재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151) 이주 당시 명동지역에는 600만 평정도의 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개간된 땅은 겨우 4~5만평에 불과했다(김재홍, 2009: 128).

152) 문영미의 연구(1997)에 따르면 규암재와 달리 김하규의 소암재는 학생들에게서 학비를 받았는데 한 아이당 1년에 서른냥을 받았다고 한다. 서른 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20여명 가르쳤다는 것(문영미, 1997: 20)에서 당시 명동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갈망을 알아볼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당시 명동 학자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알 수 있다.

이주한 오룡천의 학자들은 모두 굴지할만한 거유(巨儒)들이었으나 조선시기의 의관을 정제하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으면서 학문과 예의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는 보통 선비들과 달랐다. 그들은 청소년 교육에 전념하면서 다른 농부들과 다를 바 없이 농사를 지었다. 땔나무를 벌채하여 등짐으로 운반하였고 머슴과 같이 물을 지게로 길어왔고 넉가래로 외양간에서 쇠똥을 쳐냈으며 매년 한 번씩 온돌을 고치고 도배도 자수로 했다(문재린, 1993: 80). 심지어 김약연이 친히 벌목개토를 했다는 이유로 그의 자(字)인 용구(龍九)를 마을이름으로 정한 사례도 있었다(문재린, 1993: 80). 이러한 이유로 명동촌에서 조선인들은 신분·계급의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육자이자, 생산자이자, 피교육자였고 심지어 규암재의 숙장인 김약연도 호박을 심고 타작을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문재린·김신묵, 2006: 42).

이렇게 시작된 명동촌 사람들의 삶과 교육활동은 함경도의 문화와 정신을 그대로 명동촌에 이식하는 역할을 했다. 그들은 조선인들의 문화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나라의 운명에 대해 늘 걱정을 했다. 김신묵이 시집을 가기 위해 삼을 삼고 물레질을 배우는 것, 가장 큰 날인 14일 보름 아침에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키가 작으면 그 해 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키가 작은 사람이 못 다니게 했다는 풍속, 또 15일은 한보름이라 해서 집 안팎 할 것 없이 달이 뜨기 전에 비질할 경우 곡식이 잘 여물지 않고 죽정이가 많다는 등 문화적 풍속과 전통들이 그대로 명동에 정착하였다(문영미, 1997: 21-22). 이로써 명동은 명실상부의 간도의 오룡천이 되었다.

이 무렵 8살이 된 문재린[153]은 규암재에 들어가 천자문, 문림을 배우고 사략 초권, 통감 1권까지 배웠는데 외우기를 못해 매일 회초리로 살았다는 일화도 있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남자애들은 머리를 길렀고 또 여자애들은 공부를 하지 못했다. 김신묵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김하규는 실학과 동학에 눈을 떴음에도 여자가 공부하는 것만큼은 반대했다면서 여자는 그저 바느질 잘하고 살림 잘하면 시집가서 잘 살 수 있다고 늘 말했다고 회억했다(문영미, 1997: 21).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당시 명동촌은 관북의 전통과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으며 동

153) 문재린은 "내가 4살 때였다. 어른들은 서강(西江: 두만강 이북)으로 이사하였으니 이는 가장 뜻 있는 일 중의 하나이다"라고 말했는바 이주 당시 문재린은 4살이었다(문재린, 1993: 79).

Collection @ jeju

시에 이주 이후에도 유교적인 사회풍습을 유지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향학열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명동촌의 변화를 예견하는 에피소드들이 김신묵의 회고에 등장한다. 공부에 대한 갈망은 김신묵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서재에서 공부하는 동생 김진국의 어깨너머로 한글을 깨우치게 하였다. 소설책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되자 이웃마을 아이들이 자랑하는 복음서(福音書)를 사기 위해 여름 내내 호박씨를 모아 팔아서 1전짜리 복음서를 사게 되고 그 복음서를 통달해버린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아주 사소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다가오는 명동촌의 변화를 예견하며 교육에 대한 명동촌 아이들의 심경을 밝혀주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 무렵을 시작으로 명동촌에는 중대하고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된다. 이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오룡천 사람들이 간도로 이주한 지 6년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 충격으로 마을에서는 서양의 문화와 학문을 받아들여야만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서울이나 평양에서 신학문을 접하고 돌아온 젊은이들은 아이들에게 노래와 체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김하규의 서재에서도 '교육은 왜 필요한가?' 등과 같은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로써 신문화가 민족의 앞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서 굳혀지기 시작했다.

첫째, 명동촌의 신문화 수용

1908년 명동의 세 서재를 명동서숙으로 통합하게 되었는데 명동촌에서는 이때로부터 신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명동서숙이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전부터 이미 마을에서 태동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조에 대한 갈망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두 방면의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다.

그 하나는 1906년 용정(龍井)에 설립된 서전서숙이 설립된 지 1년 반 만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그 폐숙 원인을 보편적으로 1907년 간도에 통감부 간도파출소가 설립된 것도 있고 친일단체인 일진회의 간섭이 심해진 결과라고 보고 있지만 김신묵의 회고에서는 달리 보고 있다. 김신묵은 당시 명동촌의 상황을 미루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고 학교를 세워서 그랬는지 용정이 무력항쟁지도자 양성하는 곳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학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문영미, 1997: 33)고 했다. 이로부터 일제의

Collection @ jeju

간섭에 의해서 폐교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서전서숙이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봉변을 당하거나 냉대를 받은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 김립(金立) 문경(文勁) 양씨(兩氏)가 엇던 촌중(村中)에 가서 학교설립(學校設立)을 권고(勸告)하다가 수백명(數百名) 인민(人民)의 소타(騷打)를 조(遭)하야 상신유혈(傷身流血)한 사(事)도 잇섯다. 교사(敎師)라 하면 문명국(文明國)에서는 극존경(極尊敬)하야 수상(首相)의 귀(貴)로도 강심배굴(降心拜屈)하는 사(事)가 유(有)하것만 십년전(十年前) 간도(墾島)는 그러치 못하야 교사(敎師)는 호구책(糊口策)이 업서서 교편(敎鞭)을 의탁(依托)한 줄로 알고 냉대(冷待)한 곳이 유(有)하야 속반토장(粟飯土醬)도 완전(完全)치 못하고 이(履)까지 업시 지낸 적이 잇섯다.[154]

서전서숙 개교 당시 김약연은 동생인 김학연과 남씨 가문의 남위언을 서전서숙에 보내 교육받도록 했다. 당시 명동 인근에서 비교적 유명했으며 군중기반이 있었던 김약연의 이러한 움직임은 서전서숙의 학생모집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서전서숙과 명동은 특수한 인연이 닿게 되었다고 하겠다. 어쨌거나 서전서숙의 폐숙(弊塾)으로 그 설립자들은 흩어지게 되었다. 이동녕은 서울로 다시 돌아가 신민회와 교육단을 조직했고 박무림은 명동으로 와서 교육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서전서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이 급히 필요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직접적인 계기는 김하규를 한북흥학회 회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임명장과 통지문, 책과 백로지가 명동에 도착한 것이다. 이 일은 김하규네 먼 친척이 함경북도 경원으로부터 조카인 김하규에게 자신과 아이들을 살린 부인의 열녀문을 써달라고 찾아온 것에서 비롯되었다. 김하규는 그 열녀문을 지어줬고 그 친척은 그것을 들고 상경했는데 이를 계기로 중앙에서 김하규의 학문적 경지를 알게 되었고 임명장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임명장에는 고종이 신학문을 장려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명동의 세 서재 사람들은 이 임명장과 통지문을 간도의 각지에 보내게 되었고 명동에도 이제는 세 서숙을 통합하여 신식 학교를 설

154) 四方子, 「北間島 그 過去와 現在」, 『獨立新聞』(1920) 1월 1일, 제34호 5면.

dCollection @ jeju

립하자는 의견을 내놓게 되었던 것이다(문영미, 1997: 32-33; 문재린・김신묵, 2006: 401).

이렇게 마침내 명동촌의 세 서재를 기반으로 1908년 4월 27일에 명동서숙이 설립되었다. 숙장(塾長)에 박무림(朴茂林, 일명 朴禎瑞), 숙감(塾監)에 김약연, 재무는 문치정(文治政: 문재린의 아버지)이 담당하였다. 교사로는 김약연과 서전서숙 출신의 김학연(金學淵), 남위언(南葦彦), 그리고 김하규(金河奎), 서전서숙의 교사인 여준(呂準) 등이 있었으며 초기의 학생은 42명이었다(현규환, 1967: 466; 中國朝鮮族教育史編纂組, 1991: 21). 명동마을 사람들은 10년 동안 모은 학전에서 얻은 수익으로 마을사람의 협력과 단결로 손수 학교를 지었다. 용정의 서전서숙이 준비되지 않은 황무지에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씨를 뿌린 것이라면 명동학교는 마을 사람들의 오랜 염원과 함께 준비해 온 결과이다(문영미, 1997: 34). 이러한 점에서 명동학교의 의미와 사상적 뿌리를 알 수 있다.

또한 학교가 생기면서 명동에 야학이 생기게 되었다. 야학은 낮에는 일을 해야만 하는 나이든 사람들을 위한 신학문 전수와 사회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로써 명동의 사람들은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에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교육에 관심이 있었으며 그것을 실천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기독교사상 수용

명동학교는 설립되자마자 인근에 소문이 났고 많은 학생들이 배우려고 몰려왔다. 그런데 이때 명동서숙의 가장 큰 난관은 신학문을 확실하게 가르칠 교사가 부족한 것이었다. 따라서 김약연을 비롯한 명동마을의 어른들과 명동학교 교사들은 실력 있는 신학문 교사를 구하기 위해 수소문 하던 중 정재면(鄭載冕, 일명 鄭秉泰)을 교사로 초빙하게 된다. 그는 서전서숙을 설립한 이상설과 친분이 있었다. 마을의 어른들은 패기 있고 젊은 정재면을 교사로 삼기 위해 열심히 설득했다. 하지만 정재면은 교과목에 성경을 포함시켜야 하고 일요일마다 학생들이 예배를 보아야 한다는 명동마을 어른들에게는 심히 충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당시 명동마을은 아직도 유학의 학문과 제사의 풍속이 그대로 전해온 상황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 그들이었지만 기독교에서는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금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바 있기 때문이다. 잘못 결정을 내렸다가 마을 전체적인 풍기를 흐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명

dCollection @ jeju

동마을 사람들은 대형회의를 열어 의논했다.

> 마을 어른들은 학교에 모여 꼬박 이틀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 막상 거절을 하자니 배짱 있고 당돌한 젊은 선생을 놓치기 아까웠다. 근 일년동안 찾아보았지만 그만한 선생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 마을의 어린이들이 전부 양인(서양인: 필자주)들의 기독교를 배우게 된다면 앞으로 마을의 꼴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 가장 걸리는 것은 제사문제였다. 전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신학문을 위해 전통을 과감히 포기할 것인가?(문영미, 1997: 36)

김신묵의 회고에서도 보이듯 당시 명동마을 사람들은 상당한 갈등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육을 위해 정재면의 조건은 받아들여졌고 명동마을의 어른들은 앞으로 자식들로부터의 제사 받는 것을 포기했다.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셋째, 명동사람들의 기독교사상 수용

1909년 정재면이 명동학교에 부임되면서 학교 면모가 확연히 달라졌다. 정재면은 명동학교의 교무주임으로 취임하여 명동서숙의 교육체제를 완전히 독립정신에 바탕으로 하는 신교육으로 쇄신하였다. 또한 국내외에서 역사에 황의돈(黃義敦), 윤리에 박대환(朴兌桓), 한글에 장지영(張志暎), 체육에 김홍일(金弘一) 등 교사[155]들을 초빙하였다(현규환, 1967: 466-467; 윤병석, 2003: 43). 명동서숙도 정식 명동학교로 개칭하였다. 그런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재면이 갑자기 사퇴의사를 밝혔다.

그 1년 사이에도 충격적인 사건은 계속 있어 왔다. 어느 날 정재면은 그때까지도 땋아 기르던 남자아이들의 긴 머리를 부모님께 한마디 상의 없이 학교 문을 잠그고 기습적으로 다 잘라버렸던 것이다(문영미, 1997: 39). 그때까지만 해도 명동촌에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명동 어른들은 훌륭한 교사를 놓치기 싫어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도 덮고 넘어갔다.

155) 문재린은 「명동은 간도의 오룡천」에서는 황의돈, 박태환 외에 박상환, 오의선도 포함되어 있는 것(문재린, 1993: 81)으로 보아 당시 명동촌에는 다수의 교사들이 온 것으로 보인다.

dCollection @ jeju

그런데 단발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 선생은 또 한 번 명동 어른들을 놀라게 했다. 정재면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 예배를 봐야만 남겠다는 것이다. 마을 어른들은 또 한 번 회의를 열어 토론에 토론을 거듭한 결과 결국 정재면의 요구를 받아주게 되었다. 이유는 세 가지였다. 1년 동안 봐 온 정재면의 인품, 아이들로부터 전해들은 기독교 교리가 도덕 종교인 유교와 큰 모순이 없다는 것, 제사를 포기할 때가 되었다는 것 등이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제사에 대해서는 김약연이 도천 남종구의 제사폐지에 대한 주장[156]으로써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였다. 결국 명동촌에서는 집단적으로 기독교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명동사람들은 유학사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실학과 유학사상을 전제로 기독교와 성경을 이해,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민족정신의 바탕 위에 기독교를 수용하였다. 당시 간도에는 민족운동과 교육을 위해 마을 전체가 단체적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문영미, 1997: 42).

하지만 명동 학자들 가운데서 김하규만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아마도 아버지를 잃은 깊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제사를 선뜻 포기 못했을 거라고 했다(문영미, 1997: 43-44). 이 무렵(1911년) 이동휘의 명동방문과 사경회(부흥회)의 개최는 명동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독립을 하려면 교회와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역설, 여자 아이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의 설립과 함께 여자들이 신앙생활로 인한 활동이 활발해 진 것은 사실이나 여자들에게까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못했던 차에 이동휘의 설교와 여성교육론은 명동사람들을 깨우치게 했던 것이다.

이로써 1910년 3월 정재면 선생이 명동학교에 온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명동학교는 3년제 중학교를 증설했다. 이동휘가 다녀간 뒤 1911년 2월에는 명동여학교도 병설했는데 이 여학교는 간도의 첫 여학교로서 간도 여성교육의 효시가 되었다. 이동휘의 방문은 또한 여성교육을 반대했던 김하규의 생각을 바뀌게 했는데 이때로부터 김신묵은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욱 큰 변화는 문씨네로 시집을 간 김신묵이 머리를 얹고 여학교에 나갈 수 있게 문씨네 집에서 지지해주었던 것이다.

156) 앞 1부분에서 남종구의 제사에 관한 태도를 참고.

dCollection @ jeju

그때로부터 명동촌의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도 이름이 없어 고만네, 곱단이, 개똥네 등 아명으로 불리다가 시집을 가면 종성댁, 회령댁 등등으로 불리던 여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157] 이로써 남존여비의 사상과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명동촌의 변화는 결국 김하규도 교회에 나오게 만들었다. 그는 기독교가 명동촌에 정착한 지 3년이 넘도록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었다. 게다가 정재면 선생을 포함한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김하규에게 만큼은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을 만큼 강경했던 그가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왔던 것이다. 알고 보니 김하규는 이미 3년 동안 혼자 조용히 성경을 1년에 한번 꼴로 세 번을 읽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민족을 위해서는 적당히 믿을 수 없어 예수의 가르침이 과연 유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냈다. 그는 "유교에서는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길이 없지만 기독교에서는 있고 또 유교에 없는 것이 신앙으로서 유교에서는 자기에게 싫은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했지만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다면서 훨씬 적극적이라는" 설득력 있는 깨달음으로 기독교를 수용하게 된 경위를 말했다(문영미, 1997: 61).

김하규의 사상적 변화는 바로 당시의 구국과 독립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유교적 실학주의 사상을 밑바탕으로 민족의 장래를 위해 심사숙고 끝에 가져온 사상적 변화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명동마을 사람들은 교육과 구국, 독립을 위해서는 유교사상과 기독교사상, 및 독립운동사상을 분리시키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이러한 사상들 사이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관계였다. 이로써 명동마을은 그 어떤 사상도 교육이나 구국, 독립을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으로 되었다 하겠다.

이렇게 명동의 성리학적 학통으로부터 실학과 동학을 거쳐 기독교사상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변화에는 늘 비판의식이 있었으며 그 어떤 사상도 맹목적으로 주입식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없었다. 특히 양반의 위선과 허례허식을 싫어하고 민

157) 문재린 목사의 아내이자 문익환 목사의 어머니이신 김신묵 여사의 이름도 이때 지어진 것이다. 그의 어릴적 이름은 고만네였는데 이는 김신묵의 어머니가 줄줄이 딸만 낳자 그만 낳으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한다(김재홍, 2009: 138; 문영미, 1997). 당시 이름을 지을 때 믿을 신(信)자를 돌림자로 썼는데 형제나 부모의 이름자에서 한자씩 떼어 "신~"이라고 했던 것이다. 신묵이라는 이름은 그의 오빠의 이름자에서 묵을 떼어 지은 이름이다. 당시 명동에는 50여명이 되는 여자들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문영미, 1997: 58).

dCollection @ jeju

중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기준,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정신, 노동과 일상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 실학사상은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폐기한 것이 아니었다. 명동은 이를 계속하여 전승함으로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그것은 결국 민족과 나라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점에서 당대 북간도 교육, 정치, 문화의 중재적 역할을 잘 해 냈던 것으로 보인다.

(2) 경성학통의 영향

가. 경성학통의 형성

간도에 이주하여 크게 영향을 미친 또 한 갈래의 함경도 유림은 의병운동을 주도했던 위정척사파였다. 만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척사파의 인물은 화서 이항로(華西 李恒老)의 문인인 유인석을 대표로 하는 의병단들의 활동이다. 그 가운데 관북 또 하나의 학통인 경성학통을 전승하였고 유인석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주로 북간도지역에서 활동했던 주요 인물은 김정규(金鼎奎)였다. 그가 유인석의 문인이 된 것은 간도 망명 이후의 일이었다. 따라서 그의 함경도에서의 학통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그의 사상과 이 학통이 북간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후기 관북에는 육진지역의 종성을 중심으로 하는 오룡천 실학파의 종성학통 외에 경성(鏡城)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한 갈래의 학통이 있었다. 이 학통은 경성의 도북사(道北祠)에 배향된 인물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통이다. 경성의 유생인 송암 이재형(松巖 李載亨: 1665~1741)이 북평사로 경성에 갔던 농암 김창협(農巖 金昌協: 1651~1708)에게서 수학하는 데로부터 연원된다. 김창협의 학통은 또 송시열(尤庵 宋時烈)과 정관재 이단상(靜觀齋 李端相: 1628~1669)에 연원된다. 이렇듯 이재형의 학통은 성암 김병진(性菴 金秉振: 1865~1914)에 의해 이어받게 되어 김정규에게까지 전승된다. 김병진은 김정규가 평생 사사하면서 성리학적 학문을 전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그 유교(遺敎)를 받든 인물이다. 이 학통 역시 앞서 설명했던 관북 서원 사우에 배향된 유배인 및 지방관들의 영

Collection @ jeju

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재형은 앞서 종성학통의 한몽린과 함께 관북 유림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한몽린의 스승인 최신을 사숙(私淑)하기도 했다. 그는 김창협의 문인으로 그의 학통을 이어 받아 관북에 전파하였다. 또 김제겸(金濟謙), 김진상(金鎭商), 유의양(柳義養), 민정중(閔鼎重) 등 유배인 및 지방관들과 교류하면서 경성지방의 학문적 진작에 크게 공헌하였다.[158] 이 학통에 대해 김정규의 『야사(野史)』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59]

> 선생(先生: 金秉振 필자 주)연원(淵源), 농암 김창협(農巖 金昌協)이 송암 이재형(松巖 李載亨)에게, 이재형이 경재 이서세(敬齋 李瑞世)에게, 이서세가 질손 구암 이원배(龜菴 李元培)에게 전하는데 이원배는 사도(斯道)를 천명(闡明)하여 그 문하에 회당 현익수(晦堂 玄翼洙)와 돈오 임종칠(屯塢 林宗七)이 있다. 임종칠 문하에 운암 허간(雲菴 許柬) 및 근재 김종선(謹齋 金鍾善)이 있고 허간이 이를 용호 허전(龍湖 許佺)에게 전한다. 선생은 허전의 적전(嫡傳)이며 김종선 사후에 가마(加麻)하고 의암 유인석(義菴 柳麟錫)의 문하생으로 헌지(獻贄)한다.[160]

[그림 Ⅴ-3]과 같이 경성학통의 계보에서 보면 김정규의 학통은 이재형으로부터 내려오는 경성을 중심으로 하는 관북유림에 연원되었다. 또한 스승 김병진과 함께 유인석의 문인이기도 했다. 이러한 학문적 연원은 그로 하여금 사상적으로 관북지

158) 李載亨의 『松巖集』에는 尹鳳朝가 쓴 序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재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松巖處士李公載亨起北邊. 傑然爲學問士. 北俗業弓馬. 羯獫勁悍. 風氣 之所蔽. 耳目之所限. 苟非姿性特絶心力精確者. 孰能與乎斯文之林哉. 公始從農巖金先生學. 農巖佐北 幕. 從游者甚衆. 而獨以遠大期公. 公自是知學問有門路. 益自淬厲. 蚤夜取聖賢書. 俯讀仰思. 初若分才躋 攀. 而卒迺左右兼該. 存心則體驗栥密. 正家則倫理甚篤. 聲光不可揜而望實與之高. 朝廷旣禮之以徵士. 寵之以侍從. 命方伯爲之勸駕. 北士知讀書者. 莫不視爲師表. 而國中賢士大夫亦皆誦其名不已. 詩云 鶴鳴于九皐. 聲聞于天. 非是之謂歟. 公於著述. 本不屑意. 今草藁所刪定. 堇若干編. 而學識之淹洽. 言 議之峻正. 略見於一二文字者. 有令人掩卷起敬. 信乎洛建之遺風. 尙可尋於肅愼之舊鄕. 而天之降才果無所 擇矣. 世或有不悅公者. 謗公爲黨論. 公何嘗有是哉. 其師友淵源旣如是. 而黑白陰陽胸中之所涇渭者. 又不可奪 則公雖平日歛嘿. 絶口世事. 而可免訾傷之及乎. 然程子以論古今人物. 別其是非. 爲格致之大端. 然則彼所以謗公者 非曰病公. 而適足以驗公學力歟. 余故序其遺稿. 而又特論之如此. 乙丑臘後二日. 坡平尹鳳朝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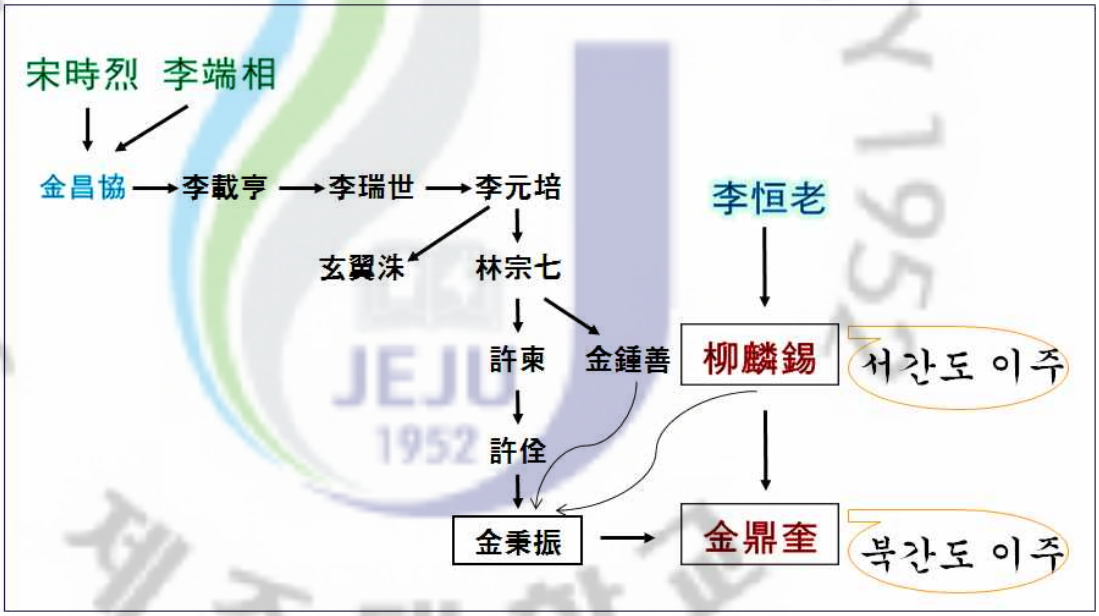
159) 金鼎奎, 『金鼎奎日記』 卷10, 1914年 4月 21日字. "先生淵源 金農巖諱昌協傳之李松巖諱載亨 松巖傳之李敬齋諱瑞世 敬齋侄孫有龜巖諱元培 闡明斯道 龜巖之門 有玄晦堂諱翼洙 屯塢諱宗七 屯塢之門 有許雲菴諱柬, 金勤齋諱鍾善 雲菴傳之許龍湖諱佺 龍湖之嫡傳是先生也 而加麻於 勤齋之死後 獻贄之於毅菴之門下".

160) 敬齋 李瑞世(?~?), 龜菴 李元培(1745~1802), 晦堂 玄翼洙(1766~1827), 屯塢 林宗七(1781~1859), 雲菴 許柬(?~?), 謹齋 金鍾善(1766~1810), 龍湖 許佺(?~?), 義菴 柳麟錫(1842~1915).

dCollection @ jeju

방을 대표하는 위정척사론을 견지하게 하였고 마침내 의병항쟁에 직접 헌신하는 배경이 되었다(윤병석, 2003: 212). 이는 그의 이주와 함께 북간도에까지 전승된다.

[그림 Ⅴ-3] 경성학통



이 학통의 이재형, 이원배, 임종칠, 현익수 등은 모두 당시 관북에 유배된 정객들과 교유하였다. 문헌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재형과 이원배가 도학을 발전시킴으로써 경성지방이 예속지향이 되었고 송암제현(松巖諸賢) 이후에 유풍이 크게 진작되어 경성을 관북의 추로지향(鄒魯之鄕)이라고 했다.[161] 이를 보아도 이들 학맥을 통해 관북의 학문이 크게 진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종이 이원배와 임종칠에 대한 포상을 윤허한 사실[162]에서도 입증되는 것으로 그들의 학문적 조예를 확인할 수 있다.

161) 『關北誌』, 「鏡城邑誌」, 風俗條, "文學禮節은 松巖諸賢以後에 家絃戶誦하야 儒風이 彬彬하니 號稱關北鄒魯之鄕하니라."

162) 『承政院日記』 高宗12年 乙亥(1875), 「작년 관북 암행어사가 올린 單子에, 집의 李元培와 고 첨지 林宗七의 學行에 대하여 褒奬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당시 筵敎에서, '그 사람들의 학행이 이와 같다면 증직하여 포장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 전하께서 儒術을 숭상하시는 마음에 대하여 신은 대단히 흠앙합니다. 대개 章簡公 李載亨이 文簡公 金昌協을 섬겨 道學의 旨訣을 얻어 한 번 전하여 이원배가 있었고 두 번 전하여 임종칠이 있었으니, 그 연원이 분명하고 행실이 질박합니다. 그리하여 멀고 외진 곳의 선비들이 그 기풍을 듣고 학문에 흥기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원배와 임종칠에게 아울러 正卿을 증직하여 조정에서 선비를 배양하는 교화가 먼 지역에 대해서도 차등이 없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dCollection @ jeju

따라서 이재형에서 시작되는 경성학통의 형성에는 이원배와 그의 제자들의 역할이 컸다. 현익수(晦堂 玄翼洙)는 스승인 이원배 사후에 관북유학의 학통을 확립하고자 도북사(道北祠)의 사액을 추진했던 중심인물이다.[163] 그는 동문(同門)인 임종칠(屯塢 林宗七)과 함께 명천 유배인 김이교(竹里 金履喬, 1764~1832)와 교류가 깊어 관직을 제수받기도 하였다. 임종칠은 스승의 명으로 김이교의 기거(起居)를 돌보기도 했는데 이들은 김이교와의 인연으로 오희상(老洲 吳熙常, 1763~1833) 등과 교유하면서 관북 유학의 진작에 공헌하였다.

임종칠 사후에는 그 제자들이 그의 문집인 『둔오집(屯塢集)』을 들고 한양의 김병학(穎樵 金炳學, 1821~1879), 박규수(瓛齋 朴珪壽, 1807~1876), 이응신(素山 李應信) 등을 방문하여 서문과 발문을 청하였다. 이는 경성학통의 연원이 김창협에게서 이재형, 이원배, 임종칠에게로 전승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정해득, 1998: 93). 이러한 것이 임종칠의 제자들인 김종선(金鍾善), 허간(許諫) 등을 통해 김정규에게 전해지게 된다.

이상과 같은 학문적 연원을 가지고 있는 김정규는 관북시절부터 많은 사우들과 교류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북 명산인 용연(龍淵)의 용을 돌림으로 8명의 동학(同學)을 모아 팔용(八龍)이라 하기도 했으며 20세 이후에는 만권서(萬卷書)를 갖춘 회양재(回陽齋: 扶陽抑陰의 뜻)를 지어 후진양성에 주력했다.

그러던 차 그가 27세 되던 1907년 헤이그밀사사건으로 광무황제가 퇴위하게 되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구국의병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러자 1908년 그 역시 사우(士友)들을 모아 경성(鏡城), 명천(明川) 등 지역을 중심으로 관북의병진을 결성하여 활동했다. 그런데 이 의병운동이 국내에서 좌절하게 되자 1909년 7월 16일 김정규는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 송언(松堰) 유전곡(楡田曲)을 거쳐 간도로 망명했다. 그는 이미 북간도에 도착한 용호 차호균(龍湖 車鎬均), 용담 지장회(龍潭 池章會) 등과 회합하여 망명생활을 시작했고 이듬해 한일합방 직전에는 가족도 이주시켰다. 그 이후 간도에서 유림을 모아 의병활동과 함께 항일운동을 했으며 유림을 발전시키고자 사회단체를 발족시키기도,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기도 했다.

163) 林宗七, 『屯塢集』 卷 7, 「參奉玄公行狀」, "松龜相傳之緖業…若有實心推慕兩先生者 按而考之 庶得兩先生用心處也 翼洙謹受 謹勤誠敬四字 旨訣於龜巖".

dCollection @ jeju

나. 경성학통의 북간도 이주

이상과 같이 함경도 경성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통을 경성학통이라고 하는데 이 학통의 핵심 인물들은 경성의 도북사에 배향되었다. [그림 Ⅴ-3]의 경성학통 계보를 보면 김병진(金秉振), 유인석(柳麟錫)과 김정규(金鼎奎) 등 세 사람이 간도에 이주하여 의병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 가운데 김병진과 유인석은 주로 서간도와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했고 김정규는 북간도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경성학통의 북간도 이주는 김정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김정규는 북간도에 이주하기 전 함경도에서도 왕성한 교육활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세거지에 회양재를 짓고 후진양성에 전력했다. 학생들이 많이 모여 강습교회(講習敎誨)가 성황을 이루었는바 그는 경원의 학음 김노규(鶴陰 金魯奎)와 병칭되는 학자로 꼽혔으며 그 문하에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그의 열의는 1909년 북간도에 망명 및 정착하자마자 시작한 첫 번째 일이 함경북도의 정사(精舍)인 회양재를 그대로 열고 후진양성을 전개했다는 사실[164]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독실한 성리학자였던 김정규는 이주 후 간도 유학(儒學)의 학풍에 대한 관찰을 통해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간도 지역 유학(儒學)의 수준은 성리학의 강습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또한 초학자들은 그저 통감(通鑑)이나 사략(史略)을 읽으면서 멋진 글과 구절만 찾아 외우(尋章摘句)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하고 있어 의리(義理)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했다.[165] 이에 그는 학규(學規)를 저술하여 자신의 교학방법과 강령을 작성하였고 학생들에게 매일 암송하게 하였다. 김정규는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성리학의 진수를 깨우쳐주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서학(西學)에 몰리는 유학의 진작을 위해 "성심성의껏 학문을 깨치(求道之誠)"는 방법으로 성리학을 탐구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윤병석, 2003: 223).

164) 金鼎奎,『金鼎奎日記』卷 3, 1909年 11月 15日字, "詩餘留於延吉廳東谷. 地名雙浦洞. 與二三學業者. 危坐小齋. 安過炎涼. 名其齋曰回陽. 盖扶陽抑陰底意思也."

165) 金鼎奎,『金鼎奎日記』卷 5, 1910年 5月 25日字, "元來此地習俗. 以通鑑史略爲初學先頭. 以尋章摘句爲一生事業. 不知義理之爲何種物. 不知世界之爲何歲月. 而其中十餘年. 最善讀者. 乃僅接字則其餘可知矣.……旣著學規. 使之日日講習. 又諷訟之曉喩之. 此欲開來學. 扶吾道之永滅. 而亦不負我平日求道之誠心也."

dCollection @ jeju

그리하여 회양재는 이름 그대로 부양억음(扶陽抑陰)의 뜻을 짙게 가지고 있는 바 일제와 외세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 밝음을 되찾고자 하는 김정규의 염원을 담았던 것이다. 이는 그의 사상 속에 담겨진 민족의식이 뚜렷이 엿보이는 것으로 그는 유교적 사상으로써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되살리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김정규 사상의 철학적 기조는 강력한 주리론(主理論, 혹 唯理論)인데 이는 조선조의 체제보위(體制保衛)라는 실천목표와 직결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존기비(理尊氣卑)의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조선조의 체제와 문화를 이(理)로 보고 외세를 기(氣)로 보는 자존적 의식이 바탕을 이룬다(양진건, 1991: 148). 광무황제의 퇴위는 이러한 위정척사파들의 분개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으며 이것이 의병활동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당시 조선은 이미 일제의 간섭에 들어갔으므로 이러한 의병운동의 근거지 역시 조선인들이 가장 많은 북간도를 비롯한 해간도(海間島: 간도와 연해주의 통칭)지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정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북간도에 이주하게 된 것으로 북간도 이주 이후의 사상에는 위정(衛正)보다는 오히려 척사(斥邪)에 더 주력했다고 생각된다. 이는 이때 김정규의 사상 속에는 조선왕조라는 개념보다 민족해방이라는 개념이 앞섰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이 민족의식으로 승화되어 서재를 통해 후학들에게 전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시 의병운동을 목적으로 북간도에 진출한 유림들의 의무는 반일독립운동을 전개할 기지 건설과 유교를 보존하는 것이다. 유인석의 『관일약(貫一約)』에 의하면 김정규의 사상적 근거는 “국권 회복, 화맥(華脈) 보존, 인종 관리”로서 애국심, 애도심, 애신심, 애인심을 강조함으로써 독립과 유교적 윤리도덕을 고수하고자 했던 것이다(楊昭全, 1996: 34). 이와 같은 사상을 기반으로 김정규는 의병활동의 중심을 간도로 정했다. 그의 일기내용에 따르면 간도에 대해 상당한 믿음과 함께 간도 조선인들을 모아 의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 가위(可謂) 십승지지(十勝之地)이다. 하물며 수십 년간 풍년이 들어 곡식이 많으니 거의(擧義)하는 일을 이곳에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일즉 듣건대 한민(韓民)으로 서강(西江: 間島)에 이주한 호수가 수만호 헤아린다. 한

dCollection @ jeju

집에서 한 사람씩 부양한다면 수만의 의병을 기를 수 있다.[166]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김정규는 3년 동안의 후진양성을 비롯해 간도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1913년에는 쌍포동(雙浦洞: 延吉 東盛湧 부근, 필자주)의 고개 너머에 위치한 달리동(達理洞: 延吉縣 智仁鄕 長山屯)에 집과 토지를 마련하여 항산별서(恒山別墅)라 하고 계속하여 회양재를 열어 교학활동을 진행해 나갔다.[167] 그는 또 간도의 사우(士友)들을 규합하여 사우계(士友契)와 농무계(農務契)를 조직하였으며 이로써 "치발역복(薙髮易服) 및 입적(入籍)"을 반대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유교의 재건을 기하기 위한 공교회가 많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사조에 따라 김정규 역시 간도의 유림을 모아 1913년 10월 1일자로 간도공교회(間島孔敎會)를 발족시켰다. 공교회는 연길, 용정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공자묘(孔子廟)를 건립하고 많은 공교회 학교를 설립했다. 이 공교회는 1921년에는 동학계열 교파인 청림교와 연합하여 대성유교(大成儒敎)를 창립하기도 하였다(許靑善・姜永德, 2009: 152). 이를 기반으로 항일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대성중학교(大成中學校: 龍井)를 설립했는바 유교의 부흥과 함께 민족해방을 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정규의 영향은 중화민국 당시 북간도에서 한인의 보호와 민족운동에 우호적이었던 연길도윤 도빈(延吉道尹 陶彬)으로부터 '존성위교(尊聖衛敎)'라는 현판까지 받아 공자묘에 걸었다는 사실(윤병석, 2003: 207, 216)에서 더욱 실증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벌써 1910년에 현천묵(玄天默)의 권유로 대종교에 입교하여 대종교의 활동도 병행했던 것이다. 그가 대종교에 입교한 이유는 대종교의 교리가 유교적 사상과 비슷할뿐더러 무엇보다 조국정신을 고취시켜 외교(外敎)에 대비하고 국혼을 잃지 않게 한다는 대종교의 취지에 감명했던 것으로 보인다.[168]

---

166) 金鼎奎,『金鼎奎日記』卷2, 1909年 6月 5日字, "潤島(潤島則西江也)之方. 可謂十勝之地也. 況數十年歲豊穀多. 楛謀義事. 非此地則不能爲之. 曾聞韓民之移來江西者. 數萬餘戶. 一家而供糧一人則數萬之士. 可以擧矣."

167) 金鼎奎,『金鼎奎日記』卷9, 1913年 4月 23日字. "乙酉陽是午移入新宅. 門之前而溪之後而山慕義山其主脉也達理洞是地名而時人或稱月明洞是乃諺音之變也旣入大筆特書揭東日回陽齋揭前日恒山別墅盖恒者因其洞名而取如月恒之之義也山則因其可見而十員艮之宅也是日也隣里來會賀成而行酒數巡乃罷相送"

168) 金鼎奎,『金鼎奎日記』卷 8, 1912年 1月 29日字. "是暮玄天默自南營來謂余曰. 今西潮動盪士異. 道人異論而惟檀君敎爲名者. 有祖國思想. 子意如何. 余問其旨趣書. 玄氏曰. 是敎也非今世所謂謀會謀敎之可比也. 使我民族鼓動祖國精神. 以比外敎. 而欲不失國魂也.……敎旨若果然則吾人之幸若不然我爲我. 彼爲彼. 彼焉能浼我哉. 主義已定. 謂玄氏曰. 然則願奉敎. 玄氏大喜曰. 子若入敎. 江西之事半成遂."

dCollection @ jeju

이러한 김정규의 활동은 당시 신교육을 진행하며 기독교와 같은 외래사상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민족광복운동을 하고자 했던 간민회(墾民會: 전신 墾民敎育會)와는 정반대되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한 운동이라는 일치한 최종목표로 인해 갈등 없이 병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규를 중심으로 하는 간도공교회에서는 간도 여러 곳에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유교적인 위정척사론으로써 광복을 기리고자 했던 것이다.

<표 Ⅴ-2> 공교회에서 설립한 학교

학교명	소재지	설립일	설립자 및 교원	학생수	비고
回陽齋	延吉縣 東谷 雙浦洞	1909	金鼎奎		
大聖學校	延吉縣 局子街	1914.1			
忠儉堂	延吉縣 志仁社	1915.3	金化成(교장) 黃道國(교사)	15명	
私立初等小學校	延吉縣 崇禮社	1915.11	金成九(교장) 金明基(교사)		
廟嶺義塾	和龍縣 明新社	1915.10	金龍三(교장)	13명	배일주의 경신참사멸
佛洞齋	和龍縣東良下里社	1915.10	崔月永(교장)	12명	
東興學校	汪淸縣 春華社	1921.4	金一禮(교사)	30명	배일주의
大成中學校	延吉縣 勇智鄕(龍井)	1921.7	姜勳(설립자), 林奉奎, 玄璣衡, 韓長淳, 金素然, 李貞烈(교사)	160명	공교회 (대성유교)

* 박주신(2000)의 『間島韓人의 民族敎育運動』과 윤병석(2003)의 『간도역사의 연구』를 참조해 작성.

이러한 김정규의 간도 교육활동과 민족운동은 그의 저술인 『야사(野史)』에서 보다 잘 나타난다. 야사는 일지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광무황제의 퇴위 직전인 1907년 3월 29일(음력 2월 16일)부터 만주 연해주의 독립군이 큰 시련기에 접어든 1920년의 경신참변(庚申慘變)과 그를 이은 1921년의 자유시사변(自由市事變) 직후인 1921년 11월 16일(음력 10월 17일)까지의 15년 동안의 상황을 기록한 사서(史書)이다.[169] 야사의 주요내용은 유학(儒學)에 관한 논술, 한반도 전시대의 역사를 기술한 「대한사(大韓史)」, 한반도 역사와 관련된 견문과 문헌, 세계열강의

169) 『野史』는 『金鼎奎日記』인데 분량이 전 17권 18책 총 2044면에 달하는 거질의 문헌이다. 이 17권 가운데 제1권인 첫째, 둘째 책은 「回陽齋日記」, 「心銘日記」, 「龍淵山房日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野史로 표기되어 있는데 . 야사의 史書적 성격과 時政記적 가치에 대해 윤병석(2003: 220-248)의 연구에서 자세히 논증한 바 있다.

dCollection @ jeju

역사와 중요도시의 인문지리 및 각종 종교 등 크게 네 방향으로 수록하고 있다(윤병석, 2003: 220-230).

이 내용 가운데 한민족 역사를 저술한 「대한사(大韓史)」는 회양재의 운영과 병행하여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170] 따라서 대한사의 국사에 관한 내용들은 회양재의 후진들에게 전승되었을 것이다. 민족의식 고취에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역사에 대한 내용들은 회양재 학생들의 민족의식 고취에 큰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규의 이와 같은 역사에 대한 인식은 회양재 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한 공교회 계통의 학교들에서도 강학(講學)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척사론적 사상을 기반으로 역사와 결부하여 민족의식을 형성시켜 나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척사론을 바탕으로 하는 의병운동계열의 활동은 신민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운동지사들과 사상면에서 대립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민족의 광복이라는 동일한 목표로 인해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유인석 등이 연해주에 망명한 1910년 6월 연해주 항일세력의 통합체인 '13도의군'이 편성되고 유인석을 도총재로 '복국존사 부도보민(復國存社 扶道保民)'의 기치를 내걸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윤병석, 1990: 175-176). 유인석을 핵심으로 하는 이 군사 조직에는 이범윤과 함경도 의병장이었던 이남기의 의병세력을 중심으로 홍범도 의병, 간도 의병, 황해도 의병장이었던 이진룡 의병 등이 합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국계몽계열의 신민회 핵심인물들인 이상설, 안창호, 이갑 등도 포함되었다(정지영, 2009: 23). 이는 애국계몽사상과 위정척사사상이 민족해방운동이라는 민족주의의식 하에 통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2) 종교사상의 영향

심여추(1987: 58-61)의 조사에 따르면 20세기 초 북간도 조선인 종교는 매우 복잡한데 대체로 그 종류가 19가지에 달했다. 그 가운데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외래의 기독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공자교(공교회: 필자 주), 대종교, 동

170) 金鼎奎,『金鼎奎日記』卷4, 1910年 3月 11日, "山齋從容 從日草大韓史"

dCollection @ jeju

학계열이다. 이러한 종교사상 가운데서도 천도교, 시천교, 대종교의 세력이 가장 크다고 했다. 시천교는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천도교와 대종교의 사상이 민족주의 교육사상에 미친 영향이 크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민족종교 계열로 천도교와 대종교의 사상을 살피고자 한다.[171] 그리고 공자교 즉 공교회를 종교로 보지 않고 유학사상의 전개로 이해하여 이미 앞에서 다루었다. 또한 외래 종교사상으로서 천주교와 기독교사상의 전개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1) 민족종교사상의 영향

가. 대종교의 북간도 이주와 교육사상

대종교는 국조 단군을 구심점으로 하는 한민족 고유의 민족종교로서 단군시조신(檀君始祖神)을 신봉하는 종교이다. 1909년 1월 15일 나철(羅喆: 羅寅永 1863~1916) 등에 의해 서울 제동(齊洞)에서 단군교(檀君敎)로 중광(重光)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1910년 4월 7일 대종교(大倧敎)로 개칭된 것이다.[172] 1914년 5월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그 총본사를 만주의 화룡현 청파호(和龍縣 靑波湖)로 옮기게 되었다. 북간도에서의 대종교는 서일(徐一), 박찬익(朴贊翊)[173] 등을 중심으로 민족교육을 통해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보다 앞서 박찬익은 벌써

171) 당시 간도의 종교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V-3> 간도내 각 종교교회당 및 신도 분포(1914)

	호수	신도수	교회수	비고
기독교	429	3,145	21	반일태도 강함
천주교	268	1,340	9	배일사상 고취
대종교	165	825	5	항일경향 있음
단군교		820		항일경향 있음
천도교	108	540	7	항일경향 있음
시천교		1300		유명무실함

* 朝鮮總督府, 國境地方視察復命書 참조, 崔峰龍(2003)의 「日帝下 在滿韓人의 宗敎運動」을 참조.

172) 일제 조선총독부의 국경지방시찰복명서 등 자료에서는 단군교와 대종교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별개의 종교단체가 아니라 다만 단군교를 대종교로 개칭한 것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오류인바(김경식, 2004: 400) 기존 대종교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이 두 명칭을 달리 구분하지 않고 같이 보고 있다(현규환, 1976; 박영석, 1983)

173) 간민교육회 및 간민회 등 사회단체의 중요 인물이다. 일부 자료들에서는 朴昌益 혹은 朴贊益 등 오기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朴贊翊의 오기로 보인다.

dCollection @ jeju

1910년 11월에 서울 본교의 파견을 받고 북간도 화룡현 평강상리사(和龍縣 平崗上里社)에 분교(分敎)를 내어 시교당(施敎堂)을 설치하고 민족교육을 시작했던 것이다.[174] 특히 그 후 신단실기(神壇實記), 신단민사(神壇民史) 등 역사책을 편찬하기도 했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국사 교과서로 지정되기도 했다.

대종교는 단군문화의 각성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가고자 했다. 따라서 간도이주 이후 그들은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기했다. 문화적 항쟁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핵심요소가 곧 국어와 국사의 교육이라 하겠다. 대종교에서는 그 헌장인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를 통해 민간기층문화에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했다(서굉일, 2009: 112-113).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족문화를 굳건히 수호하여 국교(國敎)와 국사(國史)가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신조로써 민족정신과 민족종교 및 국어와 국사를 지키고자 했다(서굉일, 2009: 120).

대종교의 사상적 원천을 보면 그 설립자인 나철이 온건개화파의 대표적 인물 김윤식과의 깊은 관계로 개화사상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종교를 구성한 인물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설립자 나철을 비롯한 지도층의 인물들은 유교적인 신분과 교양을 가진 양반 및 유생, 또는 그 후예들이다. 이들은 유학자이면서도 한말 관직에 있었거나 의병운동에 관여했거나 그 양병정신(養兵精神)을 계승한 인사, 시국(時局)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권회복을 위한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신학문을 수용한 유생, 단군을 추대하는 민족종교라는 이유로 종교를 통한 구국을 시도하고자 했던 애국운동사상가 등이었다(朴永錫, 2002: 438-439). 이를 보더라도 대종교를 구성한 사상적 원천은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전통적인 유교사상이나 개화사상, 나아가 신학문을 민족의 해방과 구국의 사상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는데 이러한 과정은 바로 교육활동을 통해 실현해나갔던 것이다.

---

174) 현규환(1976: 569)은 대종교의 첫 간도 진출은 1911년 6월경에 교인 이정완(李貞完)이 회령(會寧) 대안의 화룡현 鶴城林에서 포교함으로써 발단되었다고 했는데 일제의 자료에 따르면 “大倧敎(檀君敎)로서 明治四十三年 十一月頃부터 京城本司所에서 施敎師로 파견된 鮮人 朴昌益(朴贊翊의 오기: 필자 주)은 平崗 上里社 靑山里靑湖北路 第二十七號 安泰鎭이 寄附한 家屋을 施敎堂으로 表面上 改過遷善을 目的으로 하나 其實 排日을 鼓吹하고 漸進主義를 취한다 함. 其 附屬學堂은 本年二月中旬부터 開校하여 當初 五六名의 生徒있으나 其後 一個月間 二十八名이 되어 漸次 增員의 傾向임. 其 敎科目은 初等科: 算術, 習字, 作文, 朝鮮國文, 修身, 體操; 高等科: 漢文, 作文, 歷史, 地理, 國文, 算術, 習字, 修身, 敎鍊.”(國史編纂委員會 編, 1966: 558)이라고 했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대종교는 중광하자 바로 간도 진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dCollection @ jeju

이와 같은 대종교의 취지에 따라 많은 독립지사들도 대종교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앞서 설명한 김정규도 입교를 했고 또 북간도 용정에 서전서숙(瑞甸書塾)을 설립한 이상설과 이동녕[175] 역시 대종교의 지도자로 활약했다(朴永錫, 2002: 444). 국어학자로 유명한 주시경의 경우에는 기독교를 포기하고 대종교에 입교하기도 하였다. 그는 무력침략보도 정신적 침략을 더 무서운 것으로 여겨 예수교인이 되었다는 자체가 이미 정신적 침략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면서 대종교로 개종했던 것이다(서굉일, 2009: 113).

이렇게 보면 대종교는 민족종교 가운데서도 상당히 개명적인 종교였으며 민족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외래 사상과 문화는 물론 문물마저도 배척했던 독실한 민족정신을 소유한 민족종교였다. 따라서 이러한 대종교를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들은 이와 같은 민족적 사상을 전승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표 Ⅴ-4> 대종교계열에서 설립한 북간도 지역 학교

대종교 설립학교					
학교명	소재지	설립년	설립자 및 교원	학생수	비고
東一學校	延吉縣 三道溝		朴陽洋(교장) 崔成文(교감) 崔鍾漢(교사)		
鳳鳴學校	延吉縣 大松墟社				
東新學校	和龍縣 大楡田洞	1905	崔時雨(초대 교장) 崔仲三(2대 교장) 徐承志, 尹濟憲, 朴南俊 등(교사)	60명	庚申慘變 弊校, 1921년 復校
靑一學校	和龍縣 平崗上里社 (三道溝 靑坡湖)	1912.9	朴贊翊(설립자) 玄天默(교장) 金俊弼, 金泊(교사)	18명	排日主義
東一學校	和龍縣 平崗上里社 (三道溝 靑坡湖)	1912.10	玄天默(교장) 桂和, 姜元實(교사)	32명	排日主義
崇信學校	和龍縣 明新社	1913.3	金權洙(설립자) 玄天默(교장)		排日主義 庚申慘變失
明東學校	汪淸縣 春明社	1913.5	徐一(설립자) 韓承點, 徐煥學(교사)		排日主義
光東學校	汪淸縣 春陽社				排日主義
昌東學校	汪淸縣 春明社		韓致默(교사)		排日主義
進東學校	琿春縣 崇禮鄕	1913.2	安泰明(교장)	30명	
九龍學校	延吉縣 依蘭溝	1920			

175) 신민회 시절 기독교를 신봉했으나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대종교로 돌아섰다(강만길, 2000: 69).

dCollection @ jeju

단군교 설립학교					
勇智學校	延吉縣 大許門				
義合千一學校	和龍縣 平崗上里社		정하구(鄭河九)	9명	千一學校의 分校
養成學校	和龍縣 楡田洞			31명	
東華學校	和龍縣 平崗上里社			36명	耶蘇・檀君敎
學成學校	和龍縣 松堰洞		金德賢(설립자) 韓昌權(교감) 金相元(교사)	68명	排日主義 3.1운동 失

* 박주신(2000)의 『間島韓人의 民族敎育運動史』를 참고하여 작성함.

나. 천도교의 북간도 이주와 교육사상

천도교는 1860년 창립된 동학교(東學敎)를 모태로 1905년에 창시된 것이다. 이 역시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북간도를 비롯한 만주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주 이후 지속적인 포교활동으로 1910년대를 전후하여 북간도에는 북간도 교구를 비롯하여 화룡현교구와 연길교구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교세확장의 일환으로 교육활동을 시작하였다(성주현, 2002b: 142).

그러한 가운데 1908년 연길 국자가에 설립된 한명의숙(韓明義塾)[176]이 북간도 지역 천도교계통 학교의 효시로 되었다. 한명의숙은 초등부와 중등부를 설치하여 교인의 자제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교세확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1913년에는 화룡현에 강당(講堂)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여 초등학교수준의 신식학문을 가르쳤다. 1916년에는 연길현 숭례사(崇禮社)에 동흥학교(東興學校)를 설립하여 초등수준의 교육을 했는데 이 학교는 천자문, 통감, 사략 등 구학문을 위주로 수신, 산술, 역사, 국문 등 신학문도 가르쳤다.

천도교 학교의 교과내용 가운데 핵심은 동경대전(東經大全)이라는 교과목이다. 이는 천도교 경전으로 1880년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崔時亨)이 교조(敎祖) 최제우(崔濟愚)의 유문(遺文)을 편찬 간행한 것이다. 이는 동학의 대표적인 경전인데 시천주 사상으로써 외래종교를 배척하고 주체화하고자 했던 동학의 취지를 잘 반영한 민족종교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천도교의 사상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성주현, 2002b: 143).

176) 韓明義塾 외에도 1916년 開山屯 杰滿洞과 局子街 西에 교회학교가 설립되었으나(朝鮮族簡史組 編, 1986: 220) 구체적 상황은 기록이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과한다.

dCollection @ jeju

첫째, 양반지배를 벗어나 새로 대두되는 민중의 보국안민(輔國安民)과 광제창생(廣濟蒼生)의 근대적 사회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반체제사상과 외세침략에 대한 민족적 저항을 구체화하고 조직화함으로써 민족주의 사상의 형성과 민족적 주체의 사상사적 계기의 마련 및 근대화의 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이러한 사상은 천도교 계통의 사립학교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승됨으로써 반일민족의식과 민족의 주체성을 고취했다.

이와 같은 동경대전은 주로 화룡현의 강당(講堂)에서 가르쳤는데 당시 북간도의 교육적 풍토를 보아 기타 지역의 천도교 학교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가 하면 천도교에서는 이러한 정규적인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도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강습소나 야학, 간이학교 등 비정규 교육기관도 설립하였다. 이로써 "교인의 자제에게 천도교의 교리를 강습하여 도덕의 본지를 확립하고 과학을 연습하여 보통지식을 배양하"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다. 당시 이러한 교리강습소는 한반도와 해외 전체에 800여개 있었는데 만주지역에 8개소가 설치되었다(성주현, 2002a: 53). 북간도에는 국자가 광제촌 제366강습소[177]가 있었다. 강습소의 주요 교과목은 수신, 조선어, 산수, 역사, 이과, 도화, 일어, 농업, 체조, 창가 등이었다. 이 가운데 교리는 천도교의 진리, 수신은 인도실천의 방법, 역사는 본교역사[178], 창가는 천덕송(天德頌: 최제우의 용담유사(용담유사)의 일부 가사에 곡조를 붙인 것) 등을 교재로 활용하였다(성주현, 2002a: 53).

이러한 강습소는 용정, 연길, 화룡교구가 합동으로 설립한 것인데 그 주요 활동인물들은 당시 청년단체의 활동요원으로 요직을 맡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성주현, 2002a: 53). 그들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의 불행의 전부는 무지와 빈궁이란 말도 있거니와 이 무지를 타파하지 않고는 모든 무엇을 더불어 논의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민중을 무지의 구렁에서 제도(濟度)"시키기 위한 교육운동(청년당휘보, 신인간 29호, 1928.11. 55면; 성주현, 2002a: 52)에 적극 참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천도교 강습소의 교육대상은 통상 청년

177) 이러한 강습소는 북간도에 1개소, 서간도에 5개소, 임강현에 1개소, 장백현 1개소 등 모두 8개소였다(성주현, 2002b: 152-153).

178) 본교역사(本敎歷史)는 1902년 천도교에 입교한 秋菴 吳尙俊이 천도교회월보의 창간호부터 37회에 걸쳐 國漢文으로 연재한 東學敎團史이다(성주현, 2002a: 53).

dCollection @ jeju

들이었으나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 사회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천도교의 포교와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이렇게 양성된 학생들은 3·13운동 등 독립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그들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의식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표 Ⅴ-5> 북간도 천도교 계통의 학교

학교명	소재지	설립일	설립자&교원	학생수	비고
韓明義塾	延吉縣 局子街	1908			
東興學校	延吉縣 崇禮社	1916.1	李化俊(교장) 南澤龍(교사)	12명	
講堂	和龍縣 三浦社	1913.4	孫基鳳(교장) 許允(교사)	20명	
化成學校	和龍縣 同新社	1916.4			
陽振書塾	鍾城間島 濟霞社 岐豊峴		趙權植	15명	
延吉第1學校	延吉縣 臥龍洞	1921.3			
東興小學校	龍井	1921.4	崔翊龍(설립자)	156명	1921년10월 동흥중학교로 전환
東興第1小學	延吉縣 勇智鄕	1922.3			
東興第2小學	延吉縣 勇智鄕	1923.10			

* 박주신(2000)의 『間島韓人의 民族敎育運動史』와 성주현(2002b)의 「만주 천도교인의 교육운동」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함.

(2) 외래종교사상의 영향

가. 천주교의 북간도 정착과 교육사상

외래종교로서 가장 일찍 북간도에 정착한 것은 천주교인데 1896년경에 북간도에 전파된다(현규환, 1976: 552). 이는 동학교도(東學敎徒)인 함경북도 경성 출신으로 1892년에 북간도 호천동(湖泉洞)에 이주하여 동학을 연구하던 김이기(金以器)[179]에서 비롯되었다(서굉일, 1994: 153-154; 현규환, 1976: 553). 그는 1893년에 벌써 호천동 동민들에게 추대되어 알미대라는 곳에 학원(學院)을 설립하였는데 무려 200여명

179) 현규환(1976: 553)은 金以器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鏡城사람으로 본명이 鎭九 또는 重聲이고 號는 漁樵子 한반도 내에서는 東學과 漢醫學을 習得한 사람이며 佛敎는 吉州成佛寺에서 希臘敎는 露領 地境에서 修練한 多才多能한 碩學이라 했다.

dCollection @ jeju

의 학생들에게 동학을 교수하기도 하였다(현규환, 1976: 553). 그 후 동학이 탄압을 받게 되자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북간도에서 천주교의 정식 전파는 김이기의 제자였던 함경북도 온성 출신의 김영렬(金英烈)에 의해서이다. 그는 김이교의 조언을 받고 강원도 원산교구에서 세례 받은 뒤 관북 12종도[180]에게 전도하면서 북간도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관북 12종도는 당시 원산 파리외방선교부의 신부에게 세례 받고 북간도 용정지역을 순회하게 되었는데 북간도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간도에는 1896년 화룡현 삼원봉(三元峰), 호천포, 대교동에 영암촌(英岩村)교회, 학서골교회, 부채골(佛洞)교회 등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천주교의 북간도 정착과 교세 확장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천주교는 초기에는 사상전파보다 교리보급을 강조함으로써 표면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선정부 봉건관리들의 탐학과 중국인 관리, 토호, 지주들의 횡포에서 이주 조선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청국관민에 의해 교회가 탄압되었을 때 청국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기도 하면서(서굉일, 1994: 154) 민족에 대한 고민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들에서 민족에 대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이는 근본적으로 이주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청과 대항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10년 이후에는 간도 각 지역을 돌면서 일제에 대항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했는데 간도 각 지역에 신앙촌을 형성하여 독립운동의 기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1900년까지만 해도 인가가 희소했던 용정촌이 천주교인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조선인 농민들이 이주하게 됨으로써 이주 조선인 집거지역으로 되었다는 점에서 천주교의 북간도 사회에 대한 공헌을 알 수 있다.

천주교의 교육사상적 영향은 이렇게 사회교육적인 맥락에서 민족의식을 전개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하면 제도적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04년 영암촌 삼원봉에 화룡서당(和龍書堂: 후일 德興書堂), 1905년 용정에 근대식 학교인 삼애학교(三愛學校)[181]와 같은 교육기관이 바로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간도에서 천주교도들로 형성된 집단부락들은 어느 곳이나 서당이 있었고 그것은 이후 학교로

180) 이 關北 12從徒는 崔規汝, 劉覇龍, 朴連三, 金眞五, 金仲烈, 李桃先, 崔益世, 趙汝天, 崔文化, 池有鉉, 韓在興, 金成俊, 金秀烈, 金昌燮 등인데 이들은 모두 김이기를 통해 입교하게 된 것이다(현규환, 1976: 554).

181) 三愛學校의 설립 연도에 대해 학계에는 아직 논란이 있다. 현규환(1976), 서굉일(1994)은 1905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경식(2004)은 1906년이라고 보고 있다.

dCollection @ jeju

발전되었다. 당시 북간도 지역의 용정, 8도구지방, 백초구지방, 훈춘지방을 포함하여 전 북간도에 무려 57개의 천주교 기반 조선인촌들이 형성되었다(서굉일, 1994: 156). 결국 천주교는 이러한 조선인촌락들을 중심으로 교육활동과 함께 민족의식을 전개하였는바 그것은 민족교육사상으로 융합되어 3·13운동에서 크게 표현되었던 것이다(서굉일, 1994: 157).

북간도에 있어 외래종교 사상적 영향은 1910년을 계기로 그 전에는 천주교가 주도권을 확보했고 그 이후에는 기독교가 민족사상을 고취시킴으로써 더욱 주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현규환, 1976: 552). 하지만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천주교는 이주 조선인들이 단결할 수 있는 기반으로 공동체를 마련해주었다는 측면에서 강한 민족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그러한 사상적 배경이 결국 북간도 사회에 적지 않은 교육사상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독교의 북간도 정착과 교육사상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선교를 시작한 것은 1880년대에 들어서서부터이다. 한반도 내에서 교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캐나다, 미국에서는 선교비용과 인력을 크게 확충하여 각 지역마다 선교기지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함경도 지역을 책임진 캐나다 장로교의 선교사 푸트(William R. Foote) 목사 부부, 그리어슨 목사부부, 매크래(Duncan M. McRae)목사가 1989년 한국에 도착한 후부터 원산, 함흥, 성진, 회령, 북간도의 용정에 선교기지를 세우게 되었다.[182] 1913년 용정 선교기지 설립 후에는 바커(박걸: A. H. Barker, 1913~), 푸트(W. R. Foote, 1914~1920), 마틴(S. H. Martin, 1916~), 스코트(W. Scott, 1918~)가 활동했고 그들의 부인들과 독일여성[183] 선교사들이 함께 활동했다. 그들은 선교와 함께 병원과 학교[184]

182) 외국 선교사들은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만주에서 선교활동을 했고 만주는 오히려 한반도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통로이기도 했다. 만주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스코틀랜드 자유연합교회'의 존 로스(J.Ross)는 이곳에서 이미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국립 성서공회 주재원과 긴밀한 교섭을 가지면서 1876년 4월 고려문에 전도차 갔을 때 한국인 이응찬(李應贊)을 만났고 그와 함께 1877년부터 본격적인 성서 번역에 착수하였다. 이로써 서간도 지역에는 이미 1883년부터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1884년에는 집안현(集安縣)의 조선인 85명이 세례 받음으로써 교회를 창설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된 성서는 한반도에 유입되어 기독교 전파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서정민, 2007:443)

183) 그들은 스미스(E. M. Smith), 크룩생크(E. Cruikshank), 페일소프(E. M. Palethorpe), 맥키넌(M. J. Mckinnon), 화이트로우(J. G. Whitelaw) 등이다(문백란, 2008: 109).

184) 병원은 제창병원(St. Andrews Hospital. 1916)이고, 학교는 은진중학교(1920), 명신여학교(1923)이다(문백

dCollection @ jeju

를 설립했다(문백란, 2008: 108-109).

이들 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은 주로 교단 차원의 선교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간도에 이주하는 유지들과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하는 인사들의 요구에 부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간도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수용은 그 어느 지역보다 활발했고 적극적이었으며 1910년대 사립학교설립운동 당시의 학교들 역시 교회와 관련 없는 학교가 아주 적을 정도였다.

이러한 북간도 기독교의 수용은 처음부터 민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초기 한반도에 전해진 개신교는 정교분리의 이념이 분명한 교파교회(敎派敎會)였다. 하지만 그 수용지인 한반도의 상황은 일제라는 함수와 맞물리면서 그 시작부터 민족과 관련짓지 않고서는 해석될 수 없는 불가피적 관련성을 강하게 띠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당시 한민족의 기독교 수용은 민족적 지평 위에서 신앙을 수용하는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눈앞의 민족의 독립, 혹은 민족의 부흥을 위한 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서구문명 혹은 힘의 배경이 되는 기독교에 입신하게 된 형태의 신앙이다(권평, 2003: 218).

이는 신앙보다 민족 우선 동기로서 이 때 신앙은 민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재면, 이동휘 등의 기독교활동이 이러한 측면을 강하게 띠고 있었으며 특히 북간도의 기독교 수용은 독립운동기지라는 역사적 사명으로 이러한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의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出埃及記)』[185]와 같은 내용은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것은 이동휘가 명동학교 사경회(査經會) 당시 강의했던 내용인바 민중들의 강한 반응을 얻었던 것이다.

더욱이 1905년, 특히 1910년 이후 한반도 내에서는 물론 간도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간섭으로 공공연한 사회단체를 만들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쉽게 건드릴 수 없었으며 외국인선교사들은 더더욱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이로움 때문에 교회는 독립운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서굉일, 1986: 397; 문영미, 1997: 46). 이러한 상황은 당시 선교사들의 우려와 걱정이

란, 2008: 109).

185)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지도자였던 모세(Moses)가 이집트(Egypt)의 탄압과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다(한규원, 1979: 60-61).

dCollection @ jeju

담긴 서신 및 선교보고서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 선교사들은 선교는 잘 되고 있고 조선인들이 기독교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들이 기독교를 이용하여 반일감정을 증대시키려고 함이 더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다(문백란, 2008). 선교사들은 간도 조선인들의 기독교 수용의 정치적 동기를 크게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선교사 바커(Barker)는 많은 정치인들의 망명으로 간도는 정치 중심으로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맥도날드 또한 명동 지역에서 교회건축을 위해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권장할 만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거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도는 애국심으로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순전히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며 학교가 크게 성행하지만 선교사들의 통제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문백란, 2008: 111). 또한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간도 조선인들의 적극적인 수용태도로 인해 시작과 전파는 어려움이 적었지만 전파된 뒤 그 기독교정신의 활용과 재해석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 이러한 것은 선교를 받은 교인들이 교회보다 학교를 더 많이 설립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선교사들이 관여하고 있는 함경북도지역에는 학교가 회령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데 비해 간도지역에는 20여개나 있다고 하면서 간도가 전도사업과 교육사업이 일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이유로 조선본토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지하지도 멀리하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는 간도의 조선인들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통해 민족의식, 반일·항일 사상을 키우고자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당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하고 또 선교를 선도한 정치적 망명인사들을 살펴봐도 기독교 수용의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를 수용한 유지들은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에 대한 감정, 그리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독립의지를 기독교의 정신을 매개체로 만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명동학교를 선두로 간도지역에 설립된 창동(昌東)학교, 창동(彰東)학교, 광성(光成)학교 등 간도의 종교계 학교들이 대부분 반일의식, 민족의식, 독립의식 고취의 거점이었다는 점이 이를 설명해준다. 이들은 기독교를 단순히 신앙으로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국권을 회복하고 교육을 통해 구국을 하고자 하는 운동에서의 사상적 무기로 활용하

dCollection @ jeju

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기독교와 같은 서양 종교들은 간도에서 일제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이 가능했고 또 재원 확보가 쉬웠으며 반일의식 및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실정은 계봉우의 회술에서도 알 수 있다(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147).

> 우리는 외지(북간도: 필자 주)에 나와서 교육을 확장하는 그 일에만 전력하려고 아니하였다. 예수교회를 또한 확장하려고 주의하였다. 왜 그랬느냐하면 누구던지 예수를 믿게 된즉 완고한 낡은 풍습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교육하여야 된다는 의무를 자각하게 되며 또는 교회 안의 학교에 대하여는 관립으로 변경하려는 중국관청의 무리한 간섭이나, 교과서에 관한 일본영사의 불법행동을 받지 않는 까닭이다. 그 까닭은 영국선교사가 교회를 관리하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외국 사람을 의뢰하는 듯하여 일부의 비난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 처지로서는 방법상으로도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지방에 천주교도가 많게 된 것도 그러한 까닭이겠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교육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큰 결점이었다.

이렇게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그들의 의도와 달리 민중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으로 자신들의 처지에 따라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민족의 해방과 연결시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입지를 강하게 하는데 연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유에서 선교사 맨스필드가 용정을 향해 가던 중 마을에 들렸다가 뜻밖의 환대를 받았으며 식후 노래를 부르려고 찬송가책을 꺼내자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저들의 책을 꺼내 노래를 들려주어 간도 조선인들의 적극적인 기독교 수용태도를 말해주었다(문백란, 2008: 110).

교회와 관련된 학교는 일단 일제의 간섭을 적게 혹은 받지 않았고 재정의 확보가 보다 쉬웠으며 외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어 조선민족의 억울한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 특히 성경시간을 이용해 민족의 불운한 현실을 고무하고 독립쟁취를 위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간도의 민족교육 특히 사립학교의 형성과 유지(維持)에 기독교의 전파는 중요한 동

dCollection @ jeju

인이 되었다.

이는 한일 합방이 되자 일제는 즉시 종교와 학교를 분리시키고자 했고 민족학교에 대해 탄압하기 시작하였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 이전 일제는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한일 합방 전까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감시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북간도에 유입된 기독교사상은 대개 두 경로를 통해 전파되었다. 그 하나는 외래 선교사들이 직접 선교활동을 하면서 전파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독립지사 중심의 움직임이다. 전자의 경우 대개 근대지향적인 측면이 강하면서 민족을 자각하도록 하지만 후자의 경우 민족주의적 측면이 강해 민족의식 및 민족정신의 함양에 주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민족의식은 결국 북간도 기독교 학교들의 민족교육사상으로 되어 대부분의 기독교계 학교가 반일, 항일의 성격을 띠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표 Ⅴ-6> 북간도 기독교 계통의 학교수

종교단체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비고
조선인 기독교	캐나다장로교파	43	2451	102	
	남감리교파	8	347	21	
	안식교파	1	105	4	
	천주교파	8	343	13	
	계	60	3246	140	
외국인 종교단체	기독교캐나다장로교파	2	240	15	
	천주교	17	785	34	
	계	19	1025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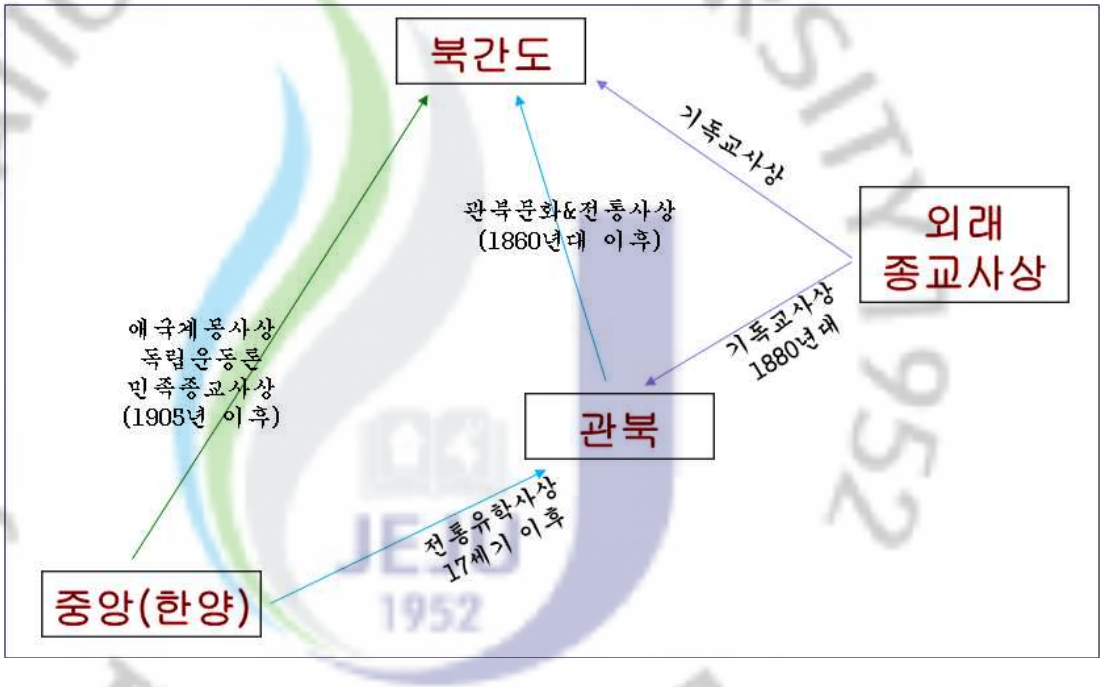
* 심여추(1987)의 『연변조사실록』 및 허청선 외(2002)의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 1』 p. 229, p. 218 참조.

3) 사상적 영향들의 융합

이상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20세기 초 북간도에는 관북지역의 실학계열, 의병계열을 비롯한 유림의 전통사상과 지방에서 활동하던 동학계열, 대종교계열, 기독교계열 등 역사변혁을 기도하면서 민족이념을 견지한 다양한 사상계열 들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그림 Ⅴ-4] 북간도 사상의 유입



이러한 사상적 유입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Ⅴ-4]와 같다.[186] 그림에서 보면 관북의 전통사상은 대개 17세기 이후 중앙으로부터 관북지역에 전파 및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1860년대 이후 관북민중의 대량적인 북간도 이주를 통해 관북의 정신문화와 함께 북간도에 유입되는 것으로 북간도의 가장 기반이 되는 민족사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가하면 외래종교사상은 1880년대 이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북간도에도 역시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1905년 이후 애국계몽사상에서 비롯된 독립사상, 민족주의 사상의 유입, 그리고 대종교, 동학계열의 천도교 등 민족종교사상이 유입되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애국계몽사상은 대개 외래 기독교사상을 수용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사상을 민족주의운동의 방편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종적으로 살펴본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의 수용 및 형성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횡적으로 융합되어 형성된 민족교육사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86)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사상이 이주민과 함께 어떻게 유입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므로 1910년대 중국의 신해혁명, 5.4운동 등 중국 측 사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향후 별도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

dCollection @ jeju

첫째, 전통사상으로서 실학사상과 성리학적 위정척사사상의 영향이다.

우선, 관북 종성학통의 영향을 받은 오룡천 실학사상계열의 민족사상이다. 이는 오룡천 후예들인 김약연, 김하규 등을 통해 명동에 전파된다. 이 사상계열의 교육사상은 17세기 이후 성리학적 영향으로 형성된 종성학통의 오룡천 학자들이 강한 현실적 요구로 실학사상을 수용하고 이주 이후 실학사상의 근대지향적인 전환과 함께 기독교사상을 수용하여 민족교육사상으로 융합된 것이다. 따라서 그 특징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유연성·융통성 있는 대응으로 전통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근대적인 사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점진적으로 병행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통사상과 근대사상 및 외래사상의 적절한 조화로 이루어진 교육사상은 북간도에 유입되는 다양한 사상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이를 민중들의 자생적 민족의식과 중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관북실학은 현실인식을 철저히 사회과학적으로 규명한 변혁사상"(서굉일, 1993: 132)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관북 경성학통의 영향을 받은 의병계열의 위정척사론적 민족사상이다. 김정규를 통해 북간도에 전해지는 이 사상계열 역시 17세기 이후 성리학의 관북정착으로 형성된 학맥에서 연원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학맥은 실학사상을 전승하지도 근대지향적으로 전변되지 않고 위정척사론적 사상의 영향으로 결국 전통을 고수하게 되는 대표 사례로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상은 민족의 정신과 의식을 전승하고자 하면서 반외세적인 성향을 띠었는데 이는 곧 민족의식의 표현으로 결국 민족교육사상에 합류된다. 특히 이러한 반외세적인 성향은 일제에 대한 저항은 물론 청이나 중화민국으로의 귀화입적 또한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보수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의병은 군중중심의 근왕적 성격을 표출하였으나 북간도의 의병은 자강주의적 개화세력과 연계하여 민족적·민중적 성격과 함께 공화제적 국민국가체제를 지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전통적 유림의 성리학적 사상으로 민족의 광복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종교사상으로서 민족종교사상과 외래종교사상의 영향이다.

우선, 대종교와 동학계열의 천도교 등 민족종교이다. 이들의 경우 이미 한반도 내에서 활발한 항일운동을 해 왔던 것으로 그들의 북간도 이주는 분명한 민족독

dCollection @ jeju

립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민족종교들은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을 계기로 한반도 내에서의 활동이 제한을 받자 그 근거지를 북간도를 비롯한 해간도(海間島: 서북간도와 연해주를 통틀어 이르는 명칭) 지역으로 옮긴 것이다. 이로써 이주와 함께 바로 각자의 교리와 특징적인 교과목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운동을 진행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종교가 민족교육사상 형성에 미친 영향은 실력양성을 통한 민족의 자강과 독립을 기한다는 직접적이고도 목표 뚜렷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외래종교사상이다. 이러한 외래종교사상은 선교사들의 직접 선교와 한반도 내의 선각자들의 기독교 수용과 함께 그들의 북간도 망명으로 인한 유입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북간도에서 수용한 기독교사상은 단순한 신앙적인 의미를 넘어서 늘 민족과 연관시켜 교회와 학교는 의례 민족운동의 본산으로 되었다. 그것은 일제의 이목을 피해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안전한 방패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간도에서 기독교학교는 대부분 반일의식을 가진 학교였고 이로써 기독교사상이 민족교육사상으로 융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신민회, 서북학회계열의 애국계몽의 민족주의 사상이다.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서북학회, 한북흥학회, 신민회의 회원들은 교육구국운동의 기지를 서북간도로 옮겨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들은 철저히 민족주의를 지향하였다. 이동휘, 이상룡, 정재면 등은 본격적인 민족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서북간도에 이주하여 민족광복을 위한 민족교육기지를 건설하였다.[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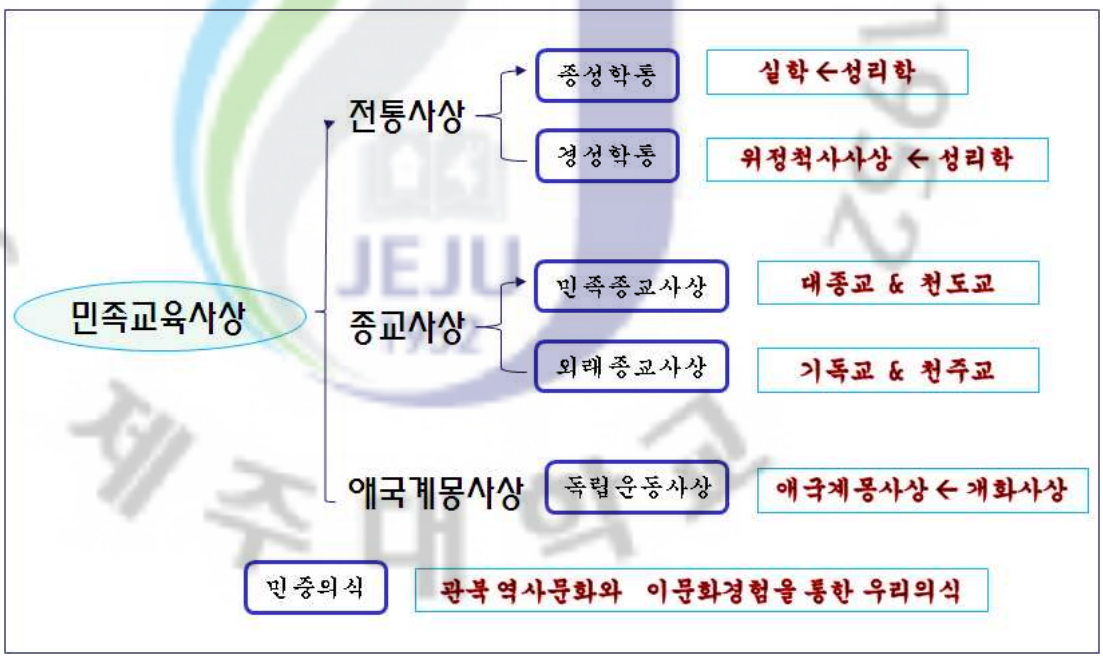
이러한 사상들은 전통사상이든 민족종교사상, 외래종교사상이든 모두 북간도 이주민들이 이주, 정착과정에서 이민족과의 갈등과 모순 속에서 형성된 민중의식, 공동체의식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이주민 내부에서 자생적 민족의식을 전제로 한다. 즉 북간도 민족교육의 사상적 바탕에는 조선조를 거쳐 형성된 피차별의 설움과 이주민사회에서 이민족과의 갈등과 모순에서 오는 자기의식, 그리고 외세로부터 오는 고난의 체험이 바탕이 된 변혁사상을 기반으로 위로부터 오는

187)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논의를 간소화하고자 한다. 그것은 선행연구에서도 검토되었듯이 북간도 민족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주제가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고 이미 많은 성과물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장 이주배경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구체적인 전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dCollection @ jeju

애국계몽사상과 조화되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융합의 과정에서 민족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게 하였고 민족 및 민족광복의 개념을 전제로 북간도에서의 민족교육사상이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그 융합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 Ⅴ-5]와 같다.

[그림 Ⅴ-5]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의 융합



2. 민족교육사상의 전개

북간도에 흘러든 다양한 사상들의 융합을 통해 형성된 20세기 초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은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사립학교 설립운동, 그리고 이주 조선인사회의 다양한 사회단체나 언론 등 사회교육을 통해 전개, 전승, 발전된다. 따라서 그러한 민족교육사상이 어떻게 전개되며 그것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표출되며 민족해방 및 이주국가에서 민족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dCollection @ jeju

1) 사립학교설립운동

(1) 사립학교의 유형

20세기 초 북간도에 들어오는 다양한 사상적 유파와 사회단체들은 그것이 어떠한 성격을 띠었는지를 막론하고 공통된 특징이라면 바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학교설립운동을 통해 나름대로의 사상과 이념을 북간도 조선인사회에 이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한 학교설립운동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교육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민족교육의 확산과 전개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곧 사립학교설립운동이라 하겠다.

당시 북간도는 매우 혼돈스러운 상황으로 1907년 일제가 통감부간도파출소를 용정에 설치하면서 북간도지역은 명실상부의 3관 지역으로 되었다. 즉 중국정부의 회유, 일본의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 및 통치, 독립지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반일활동 등이다. 따라서 북간도 지역에 설립되는 조선인학교들 역시 다양한 성격을 띠게 되었는바 크게 중국정부에서 설립하는 관립학교, 일본 측에서 설립하는 일본인 보조학교, 조선인들이 설립하는 사립학교 등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각 저서에 등장하는 북간도 조선인학교의 유형이다.

<표 Ⅴ-7> 각 저서와 연구에서 분류한 20세기 초 북간도 조선인학교의 유형

저서/연구	설립기준	유형
연변대학교육학심리학교연실 (1989: 26-28) 『연변조선족교육사』	설립주체, 재산출연금	-각 계층 인민 특히 평범한 농민들에 의하여 설립 운영된 학교 -종교단체 설립 운영학교 -학교의 재산수입에 의해 운영된 학교 -개별적 선각자의 개인재산에 의해 운영된 학교
北京大學朝鮮文化硏究所 (1997: 26-40) 『敎育史』	설립주체	-반일 민족단체에서 설립 운영한 조선족 사립학교 -종교 계통에서 설립, 운영한 조선족 사립학교 * 조선족 종교단체 및 그 인사들에 의해 *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 반일 애국지사와 진보적 지식인 및 광범한 민중들에 의해
朴奎燦(1989: 14-16) 『延邊朝鮮族敎育史稿』	설립주체, 출연금	-조선족 각 계층의 민중 특히 광대한 농민이 세운 학교 -종교단체의 보조기금에 의해 설립된 학교

dCollection @ jeju

		-장영 즉 농사수입 혹은 기금의 이식으로 설립한 학교
中國朝鮮族教育史編纂組 編 (1991: 33-49) 『동북조선족교육사』	설립주체	-반일 민족단체에서 -종교 계통에서 -광범위한 민중들에 의해 설립한 학교
李勳求(1932: 231-238) 『滿洲와 朝鮮』 玄圭煥(1976: 431) 『韓國流移民史』	설립주체	-종교계통에서 -조선민족주의 단체에서 -조선총독부의 보조금으로 -함경북도 도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학교 -남만주 철도회사에서 -조선 아동과 공학하는 일본인 학교 -순한국 이주민이 설립한 학교
桑田忍(1929) 『在滿朝鮮人と教育問題』		-만철경영학교 -조선총독부 직할학교 -조선총독부 보조학교 -종교인계 사립학교 -반일단체 관계 사립학교 -순조선인 사립학교 -중국측 설립학교
金璟植(2004: 208) 『在中韓民族教育展開史』	주체의 범위가 한민족이주민,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외국 선교사단체 포함	-일반 이주민에 의해 -항일 민족주의 단체에 의해 -한민족 종교단체에 의해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金成俊(1969: 47-48) 「三.一運動以前 北間島의 民族教育」		-배일계 학교: 독립운동자 및 순민간인으로서의 망명인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와 기독교인이 종교계통으로 구분 -중립계 학교: 이민 후계 중 자산가의 유지가 세운 일부 학교와 중국계 한국인 학교를 그 범주로 넣었으며 -친일계 학교: 일진회 및 간도파출소, 총독부에서 설립한 보통학교 내지 그 비용을 보조해 준 학교를 그 범주로 하였다.
이정문(1993) 「20세기 초 조선족의 사립학교 교육」		-각계 각층의 국민, 특히 농민들의 의연금에 의해 -학회나 실업단체 또는 종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학교 -학교의 논 밭 즉 수입으로 운영된 학교 -각 개인 선각자들의 사재(私財)에 의해

* 김경식(2004)의 『재중한민족교육전개사』 pp. 204-208 참조.

표에서도 제시되었듯이 20세기 초의 북간도 조선인학교는 그만큼 복잡했고 성격이 다양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 가운데 민족교육사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또 민족해방운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은 단연 조선인들이 스스로 설립한 사립학교들이다. 당시 사립학교의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許靑善・姜永德, 2009: 151-152).

dCollection @ jeju

첫째, 근대성과 민족성의 결합이다. 조선인사립학교는 민족의 정신문화와 고유한 전통사상을 기반으로 외래의 근대과학지식과 민주사상 및 교육제도와 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이질문화와 민족문화와의 유기적인 결합으로써 자주적인 민족주의 교육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둘째, 교육운동과 반일독립운동의 결합이다. 조선인사립학교의 민족지향적인 성격은 자연히 반일독립운동과 연결되어 독립운동에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경로가 되었는바 사립학교교육을 통해 민중의 지혜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실력과 역량을 축적하여 1920년대의 반일무장투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립학교설립운동은 독립운동에 있어 선도적, 기초적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교육운동과 종교운동이 교차되었다. 사립학교 설립자 및 독립운동자들 가운데는 종교계 인사가 많았는바 종교단체에서 운영되는 많은 사립학교들이 직접적인 반일운동을 함으로써 반일성격을 띠고 있었다.

넷째, 민족자주성이다. 조선인사립학교는 선명한 민족자주성을 가지고 있었는바 중일양국의 분쟁 가운데서 교육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사립의 형식으로 민족교육을 진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특징에 근거하여 교육사상적 측면에서 20세기 초 북간도 사립학교들의 유형을 분석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그림 Ⅴ-5] 제시했듯이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의 구성 요소는 전통사상, 종교사상, 애국계몽사상 등과 민중의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상들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들의 유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첫째, 전통사상과 외래종교사상 및 애국계몽의 독립운동사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학교이다. 앞서 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정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성리학적 학통을 연원으로 하여 발전한 실학사상의 북간도 이주와 독립운동가들의 애국계몽사상, 기독교사상 등이 결합하여 형성된 학교가 이 유형이다. 그 대표적 학교가 바로 명동학교이다. 따라서 명동학교가 간도 조선인 사립학교 및 민족교육운동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북간도 최하층 민중의 두터운 신망을 얻은 중간층 유지와 최상위 엘리트층에 있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근대적인 사상을 함유한 기독교사상이 조화를 이루어 형성되었으므로 그 어느 계층에게든 물론하고 거부감을 산생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둘째, 순수 애국계몽사상을 기반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이는 북간도를 독립운동기지로 삼고 애국계몽사상을 통한 교육구국운동으로 독립운동을 진행하고자 했던 순수 독립지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대표적 학교가 바로 이상설, 이동녕 등이 1906년 용정에 설립한 서전서숙이다. 서전서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바로 기독교 성격도, 전통사상의 영향도, 유지들의 중재역할도 없이 재정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모두 독립지사들이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188] 그래서 민중의 호응을 얻기 위해 독립지사들이 도처에 학생모집을 나서야 했는데 모집교사들이 생계를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오해와 냉대를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구타당한 사례도 있었다(박주신, 2007: 65). 이러한 서전서숙이 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용정과 가까운 명동촌의 김약연이 두 명의 학생을 보내준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명동은 조선인지역으로 유명했을 뿐더러 김약연은 인근에서 상당히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서전서숙은 결국 개숙 1년 반 만에 문을 닫게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공유된 원인은 1907년 북간도 용정에 일제 통감부 간도파출소가 설치되면서 일제의 간섭이 심해졌고 또한 헤이그밀사로 이상설이 떠나게 되어 재정난에 부딪치게 되면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현적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그 내부적 원인을 보면 역시 현지 실정을 잘 몰랐던 독립지사들의 한계에서 비롯된바가 크다고 하겠다. 앞서 말했지만 서전서숙은 민중의 기초가 약하고 중재하는 유지들의 역할이 당시로서는 미흡하여 민중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상설과 같은 독립지사들은 북간도, 서간도, 연해주 등 지역을 돌며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고 자주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민중기초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내외적인 원인으로 서전서숙이 폐쇄되긴 했지만 독립지사들의 그 사상적 깊이로 인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깊이 침투할 수 있어 서전서숙 이후 북간도의 사립학교교육운동의 전개에는 서전서숙 졸업생들의 영향이 지대했다.

188) 서전서숙에 관한 연구는 용정 3·13기념사업회·연변역사학회에서 공동주최한 학술대회 기념논문집 서전서숙개숙 100주년기념문집-역사의 종소리와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학술대회 논문집『한국독립운동과 서전서숙』등 서전서숙 100주년 학술대회의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dCollection @ jeju

셋째, 애국계몽사상과 민중의식의 결합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이는 독립지사들의 사상과 촌민들의 교육열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독립지사들은 대개 기독교를 신앙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민중에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서전서숙과 명동학교의 설립에 따른 영향에 힘입은바 큰 것으로 명동학교 설립 후 인근 조선인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독립지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켜 독립지사들의 학교설립운동이 비교적 용이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길 소영자(延吉 小營子)의 광성학교(光成學校), 와룡동(臥龍洞)의 창동학교(昌東學校), 화룡 덕신사 장동골(和龍 德新社 長洞)의 창동학교(彰東學校), 자동(子洞)의 정동학교(正東學校) 등 일련의 촌민들과 독립지사들의 노력으로 설립된 학교들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 특히 이 유형에서 속하는 학교는 이로써 1916년까지 간도에는 156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는 성황을 맞이했다.

넷째, 민중의식을 기반으로 외래종교사상을 수용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이러한 학교는 북간도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근대식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학교와 이상 세 번째 유형의 학교와의 구별은 학교설립주체에 있어 전자는 근대지향적인 측면이 더욱 강했고 후자는 민족지향적인 측면이 더욱 강했다는 것이다. 1904년 4월 16일 설립된 훈춘 옥천동(琿春 玉泉洞)의 동광(東光)학교[189]와 화룡현 대유전동(和龍縣 大楡田洞)에 설립한 동신(東新)학교(延邊政協文史資料委員會, 1988: 5-16)가 그 전형이다. 이들 학교는 이주초기 교육을 간절히 바라는 이주민들과 교육을 통해 선교활동을 하고자 했던 개신교 선교사들의 의도가 매치를 이루면서 성사된 것이 아닌가 싶다. 동광학교의 경우 당시 인근 촌락들의 인기를 얻어 상당히 흥성했는바 학생이 150명이었다고 한다(연변일보, 1998년 6월 15일자).

그런가 하면 천주교 계통의 학교 역시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있은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는 1890년대 이미 간도에 전파되기 시작했는바 외래종교 가운데서

189) 김경식(2004) 및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1998: 962)에서는 모두 옥천동(琿春縣 黑頂子 玉泉洞) 동광학교(東光學校)를 북간도 근대학교의 효시로 보고 있다. 그것은 조선어교과목과 신학문 교과목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흥수(1995)는 1905년 북간도공립소학교를 근대교육의 효시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경식, 남일성 등이 직접적인 현지답사와 그곳 주민들의 증언과 다양한 사료를 통해 고증한 결과 동광학교가 간도 근대학교의 효시임을 밝혔다. 그런데『吉林省教育志』(허청선・강영덕, 2002: 34)에서는 동광학교의 초기 설립주체를 천주교계통이라고 하고 있는데 반해 연변일보(1998년 6월 15일자)에서는 기독교라고 했다.

dCollection @ jeju

가장 일찍 간도에 진출한 종교이다. 따라서 1898년에 불동(佛洞)의 집단교우(集團敎友) 20호가 강당(講堂)을 설립하기도 하였고 같은 해 대교동에 중앙공소가 설립되기도 했다(현규환, 1976: 555). 이러한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천주교는 일찍부터 교육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04년 벌써 연길현 영암촌에 독일 천주교파에서 화룡서숙(和龍書塾)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905년에는 장(張)고스마의 건물 제공과 지(池)다두, 한(韓)요셉 등이 무보수교사로 헌신하여 국문, 산술, 성경, 교리를 내용으로 첫 교육기관인 삼애학교(三愛學校)[190]가 용정에서 경영되었다(현규환, 1976: 555). 성경과 교리가 주요 교과내용으로 된 것을 보면 대개 순수한 신앙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다섯째, 순수 민중의식을 기반으로 촌민들의 교육열의에 의한 학교이다. 이러한 학교는 오랫동안 청나라 생활을 하면서 이주민들이 터득한 교육에 대한 의식과 그러한 의식을 집결시켜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준 유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지는 친청(親淸)인물이거나 일찍이 귀화한 사람들로 이주민과 청나라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면서 이주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곧 이동춘(李同春: 1873~1940)으로 이 유형 학교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그에 의해 1907년[191] 3월에 설립된 양정학당(養正學堂)이다. 양정학당은 이주민중이 청나라에 적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1908년에는 관립학교로 전환되었다. 특히 이 학당을 설립한 이동춘은 오래 전부터 이미 청나라로 이주하여 청에 입적하고 치발역복(薙髮易服)하였으며 청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주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진행해야만 해야 함을 깨닫고 이른 시기부터 교육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상 사상적 측면에서 북간도의 사립학교들의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그 어떠한 유형이든 민족의식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민족교육사상을 기반으로 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바로 이와 같은 사립학교들을 통해 민족교육사상의 핵심내용인 민족의식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립학

190) 김경식(2004: 197)은 삼애학교의 설립연도에 대해 1906년이라 했지만 현규환(1976: 555)은 천주교의 북간도 활동을 소상히 정리하면서 1905년이라고 했다. 또한 현규환은 북간도 천주교계통 학교의 효시가 삼애학교라고 했지만 이광록, 김경식 등은 1904년 연길현 영암촌에 설립된 화룡서숙(和龍書塾)이라고 했다.

191) 양정학당의 설립연도에 대해서『길림교육지(吉林敎育志)』에서는 1906년 3월이라고 했지만(허청선·강영덕, 2002: 33) 학계에서는 대개 1907년으로 보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1907년으로 보고자 한다.

dCollection @ jeju

교는 <표 Ⅴ-8>에서 나타나듯이 단지 두만강 대안만 하더라도 163개 학교가 있었고 보유한 학생은 4094명이 되었다.

<표 Ⅴ-8> 1916년 서북간도 사립학교 수

두만강 대안			압록강 대안		
현별	학교수	학생수	현별	학교수	학생수
동녕현	6	258	통화현	19	628
밀산현	1		류하현	11	660
연길현	55	1,370	장백현	18	382
화룡현	56	1,219	집안현	15	147
훈춘현	32	757	무순현	7	144
왕청현	13	490	안동현	1	90
			흥경현	2	61
			안도현	2	51
			임강현	1	15
계	163	4,094		76	2,177

* 姜德相(1970)의 『現代史資料』 27 (朝鮮三), pp. 141-165, 朝鮮駐箚憲兵司令部(1916)의 『在外朝鮮人經營各學敎 書堂一覽表』.

(2) 민족의식의 고취방식

당시 북간도의 민족학교들은 대개 두 방향으로 교육목표를 정했다. 하나는 신학문, 신문화를 받아들이는 근대지향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보존을 위한 민족 지향적 측면이었다(서굉일, 1993: 132). 그러나 아래 <표 Ⅴ-9>는 1910년대 설치된 몇 개의 중학과정과 대부분의 초등과정에서 운영되던 교육과정인데 여기에서도 확인되듯이 북간도의 사립학교들은 신학문이나 신문화를 받아들이는 근대지향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민족지향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Ⅴ-9> 간도 조선인 민족교육기관의 교육이념에 따른 교과목 분류표

理念	敎育內容	敎科目
近代	自然科學敎育	物理·化學·生物·算術(數學)·衛生·生理·理化·植物學·動物學·幾何·三角·博物學·鑛物學·代數
	實業敎育	實業·農業·手工·習字·簿記·珠算·圖畵

dCollection @ jeju

志向	法律·經濟教育	憲法·政治學·國際公法·法學·法制·經濟學
	教師養成教育	教育學·師範教育學
	外國語教育	通譯·英語·中國語·日本語·독일어·러시아어
	宗教教育	新約全書·聖經·禮拜·東經大全
民族主義志向	國語教育	朝鮮語(國語)·初等小學·初等小學讀本·高等小學讀本·幼年必讀·新纂初等小學·作文
	歷史教育	歷史·東國歷史·本國歷史·近世史·新韓獨立史·最新東國史·朝鮮史略·最新大韓歷史·中等東國史略·支那東國歷史·東洋歷史·內外歷史·越南亡國史
	地理教育	地理·地誌·大韓地誌·萬國地理/誌·內外地理·朝鮮地理·外國地誌·
	修身·倫理教育	吾讐不忘·修身·初等修身·童蒙修身·中等倫理
	音樂教育	唱歌·校歌·愛國歌
	尙武體育教育	兵式體操·軍事訓鍊
	軍事教育	步兵操練·戰術學·軍人須知·步兵操典·軍隊內務書·野外要務令·築城教範·陸軍刑法·軍銃取扱方法·尙武體育·銃槍術

* 이 표는 박주신(2000)의 『間島韓人의 民族教育運動史』 pp. 232-233과 박금해(2008) 『日本對東北朝鮮族的植民主義教育政策』 p. 28을 참고하여 보완 작성.

당시 북간도에는 사립학교들이 우후죽순마냥 설립되었는데 대부분이 초등교육이었다. 박주신(2000: 224-231)은 다양한 사료들을 검토하여[192] 1920년대 초까지 설립된 북간도 88개 사립학교들의 교육과정을 정리하였다. 이 정리에 의하면 당시 중학과정은 극 소수였는데 앞서 설명했던 연길의 광성학교와 창동(昌東)학교 및 영신학교(永新學校), 화룡의 명동학교와 정동학교, 왕청(汪淸)의 신흥학교(新興學校)와 명동학교(明東學校: 대종교의 徐一이 설립한 학교) 등에만 설립되었고 그 외 학교들은 초등교육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광성, 명동, 정동, 영신, 신흥 등 학교들은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을 함께 운영하였고 연길의 창동(昌東)과 왕청의 명동(明東)학교는 중학과정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어찌되었건 사립학교들은 이러한 초등과 중등의 교육내용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민족교육사상의 핵심내용을 민족의식이라고 할 때 민족의식의 고취과정은 곧 민족교육사상의 전개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북간도 사립학교들은 대체로 다음 세 방향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고 할 수 있다.[193]

192) 여기서 검토한 자료들은 姜相德(1970)의 『現代史資料』, 朝鮮駐箚憲兵司令部(1916)의 『在外朝鮮人經營各學教書堂一覽表』, 朝鮮總督府(1915)의 『國境地方視察復命書』, 金正柱(1971)의 『朝鮮統治史料』, 金澤의 『延邊文史資料』 및 기타 독립운동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93) 이 부분은 필자(2008)의 논문 「만주사변이전 북간도 학생들의 교육운동」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dCollection @ jeju

가. 교육내용에 반영된 민족교육사상

첫째, 학교의 준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당시 초등학교의 준칙에는 “소학교는 아동의 신체발육에 유의하며 도덕교양과 국민교육의 기초 및 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근본 종지로 한다”와 “나라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품행을 단정히 하고 의지를 굳게 연마하여 진취심을 높이고 도덕적 교양을 함양하며 애국심을 배양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리정문, 1993: 282-283). 이러한 준칙을 기본 학습·행동준칙으로 하는 초등학교의 교육목표는 단지 기초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민족교육 혹은 반일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반일사상과 민족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역사와 지리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한반도를 합병한 일제는 식민통치의 민족말살정책과 황민화정책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식민지교육정책을 실행하려고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에게 한반도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하지만 역사와 민족의식 및 민족해방운동과의 역동관계를(연변민족교육연구소 교육사연구실, 1987: 38) 자각한 사립학교들에서는 역사교과서를 편찬하고 역사교육 중시하도록 하였다. 당시 북간도는 아직 완전히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과목들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따라서 다양한 역사, 지리 교과서들이 사립학교에 보급되었다.

당시 교과서들로는 『최신동국사(最新東國史)』, 『초등동국사략(初等東國史略)』, 『동양역사(東洋歷史)』,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 『오수불망(吾讐不忘)』 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순신전』, 『안중근전』 등 민족영웅전기도 있었다(연변민족교육연구소 교육사연구실, 1987: 38; 박금해, 1998: 316). <표 Ⅴ-9>에서도 나타나듯이 역사교과목이 가장 많았는바 역사교과목을 통해 민족의식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며 민족주의 교육사상이 가장 잘 반영되는 교과목으로 지목된 것 같다.

<표 Ⅴ-10>은 『오수불망(吾讐不忘)』, 『유년필독(幼年必讀)』, 『동국사략(東國史略)』 등의 목차인데 이 목차에서 본다면 대개 애국심을 키우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신동국사(最新東國史)』의 일부분 목차들, 즉

Collection @ jeju

「조선 이태왕의 밀사」·「의병의 인과(因果)」·「의사(義士)의 종기(踵起)」·「합병의 치욕」 등을 보면 모두 민족과 깊이 관련된 내용으로 민족의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역사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오수불망(吾讐不忘)』의 일부분을 보면 “일본은 동해중의 구구한 삼도(三島)로서 굴혈(掘穴)을 만든 왜종(倭種)이라 그 흉악하고 간악함이 유전성으로서 우리 동방역사상 누차 나타났다가 누차 몰락하였다.”(金正明, 1967: 607)고 하였다.

또한 「의병의 인과」에서는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 살해된 당시 일본을 토벌하기 위해 조선 각 도에서 의병운동이 앙양되고 도처에서 국권상실에 분통해하는 국민들이 봉기하는 것을 묘사하였는데 학생들의 일제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증오심을 불러 일으켰다.

<표 Ⅴ-10> 역사 및 지리 관련 교과서들의 목차

교과서 명	목차	비고
吾讐不忘	·新羅時의 讐敵 日本 ·百濟時의 讐敵 日本 ·高麗時의 讐敵 日本 ·大朝鮮時의 讐敵 日本 ·東學黨의 作亂理由 ·日本의 起兵은 五件의 隱衷이 있다 ·大韓時의 讐敵 日本 ·開墾問題와 軍隊警察 ·對韓政策의 一般 ·條約締結後의 歷史的 奇花 ·條約締結後 皇城新聞社長 張志淵은 締結 眞末을 揭載하였는데 그 題目은 ‘是日也放聲大哭’ ·海牙事件의 槪略 ·我廷은 食言하였기 때문에 獨立을 失한 事 ·墾島에 關한 日淸間 條約 ·間島境界에 對한 條約 ·倭王 合併令(合併條約) ·合併後의 倭人政策: 1.抑壓策-韓族에 施用한 特別한 刑罰. 同上 法令 2.懷柔策 3.外交策-韓國과 諸外國과의 條約 3.植民政策 4.探偵政策 5.敎育政策 6.宗敎政策	
幼年必讀	·나라 ·우리 大韓나라 ·平壤 ·地勢 ·地質 ·山 ·金剛山 ·乙支文德 ·楊萬春 ·江과 原野 ·우리나라 面積 ·百濟 ·成忠 ·階伯 ·氣候 ·人情 ·宗敎 ·後百濟 ·慶州 ·金庾信 ·金陽 ·張保皐 ·崔致遠 ·風俗 ·國家 ·開城 ·庾黔弼 ·徐熙 ·姜邯贊 ·高麗歷代總說 ·本朝歷代 ·三角山 ·黃喜 ·九港口三開市場(仁川, 東萊 등 12개 항구) ·李舜臣 ·血竹歌 ·島嶼(濟州島, 巨濟島 등 6개 섬) ·壬辰亂 ·金德齡 ·學問 ·李元翼 ·悔改홀일 ·學問을 自修홀일 ·鄭忠信 ·林慶業 ·人類 ·젹은일을賤ᄒᆞ다말일 ·鄭起龍	이는 유년 필독권1~4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

dCollection @ jeju

東國史略	・檀君朝鮮 ・箕王厂代 ・三國中世 ・百濟高句麗滅國 ・駕洛任那及耽羅 ・支那급日本關係 ・渤海 ・制度 ・隋唐來寇 ・新羅統一 ・新羅衰國 ・泰封及後百濟 ・敎法文學及技藝篇	여기서는 동국사략 권1의 장목 차 만 수록

* 이 표는 박주신(2000)의 『間島韓人의 民族敎育運動史』 p. 488와 허청선 외(2001)의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 1』 pp. 74-87를 참고하여 정리.

셋째, 국어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언어는 민족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으로서 언어가 한 민족을 특징지어 주기도 하고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별해 주기도 한다. 일제가 식민지통치로써 민족말살을 감행하고자 하는 민족의 위기상황에서 국어교육은 언어교육 그 자체로도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내용 또한 학생들의 민족적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더욱 의의가 있다. 당시 사용한 조선어교과서들로는 『국어』, 『국어독본』 등이 있었다. 그 중 『국어』에 수록된 내용으로는 「지기지우(知己之友)」, 「고향(故鄕)」, 「공원(公園)」, 「무기(武器)의 변천(變遷)」, 「씨비리철도」, 「독립」 등이 있었다(리정문, 1993: 283). 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선조들이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운 투쟁업적을 찬송하였다. 그중 국권회복을 갈망하고 민족정신과 반일사상을 고취하는 『국어독본』 중 「애국심」의 내용을 한 단락 들면 다음과 같다.

> 지금 우리는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데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겠는가고 생각할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며 주권을 빼앗긴 것을 여읜 부모를 생각하듯이 그리어야 한다. 이런 정신으로 학습하고 일한다면 국권을 도로 찾을 수 있게 된다(연변민족교육연구소 교육사연구실, 1987: 39).

특히 명동학교에서는 입학시험이나 평소 작문을 하는데 있어 문장에 '애국'이나 '독립'의 내용을 담지 않으면 낙제점을 받거나 불량성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김약연(金躍淵)도 한문과 작문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애국이나 반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제가 금지

dCollection @ jeju

하는 역사과목을 강의할 때는 학생들에게 문밖에서 망을 보게까지 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정신과 애국심을 고취시켰다(박주신, 1996: 90-94).

또한 「고향」의 한 단락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오인(吾人)의 고향은 원수의 수라장이 되어 오인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신대한(新大韓)을 건설할 활동지는 외국이 아니고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조국 광복의 큰 뜻을 품은 소년 남아들이 고향에 대한 각자의 정을 버리고 해외로 나와 확실한 목적과 간고한 수단으로써 단구(短軀)를 조국 광복의 희생으로 바쳐야 한다. 유골(遺骨)이 어찌 무덤 속에만 묻힐쏘냐. 남아에겐 어디나 청산이 있도다(김경식, 2004: 314; 김택 외, 1995: 442).

「독립」이라는 과목에는 "우리는 독립의 길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힘으로 발전향상하는 사상을 잃지 말아야 한다."(김경식, 2004: 315)와 같은 구절이 있다. 뿐만 아니라 「무기의 변천」이라는 과목에서는 무기의 발전사가 아닌 선조들이 왜적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운 업적들에 초점을 맞춰 임진왜란 당시 전선(戰船) 제작의 효시를 보였던 조선이 오히려 타국에 뒤처져있음을 통한해하는 내용을 담아 민족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담기도 했다(김택 외, 1995: 442).

나. 과외활동에 반영된 민족교육사상

전란과 난국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과외활동으로써 민족의 처지를 고민하기도 했다. 운동회나 군사훈련과 같은 체육단련 및 강연회, 토론회와 같은 학습활동들을 통하여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고 그러한 가운데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서 점차 민족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운동회 등 각종 체육활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교육과정 속에 체육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신체를 단련시키는 한편 완강한 인내력을 키워주고자 했다. 병식체조(兵式體操)와 군사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체육과는 반일교육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학생들의 단결력과 굳은 의지를 키워주었다. 단오나 추석이 되면 각 사립학교들에서는 운동회를 조직하는데(勸業新聞, 1913년 9월

dCollection @ jeju

20일자, 제28호) 많은 사람들이 집중된 기회에 학생들에게 단결정신과 항일애국정신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운동회가 끝난 뒤에는 시가행진을 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그러므로 간도에서의 사립학교들의 연합운동회는 단순 운동경기가 아니라 민족단결의 실천이며 조선민족의 저항을 뜻하는 것이고 학생들과 군중들의 반일애국사상을 확인하고 확고히 하는 좋은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각종 강연회, 토론회, 웅변대회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반일사상과 애국정신을 다시 한 번 되뇌고 일제의 만행을 성토하였다. 특히 명동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토론회와 강연회를 열어 "지식이 좋으냐, 금전이 좋으냐?", "영웅이 시대를 창조하느냐, 시대가 영웅을 창조하느냐?", 등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렸던 것이다(김경식, 2004: 248).

다. 창가(唱歌)에 반영된 민족교육사상

당시 사립학교들에서는 나라의 흥망은 민족정신에 달려있고 민족정신을 강조키고 고앙시키는 것은 노래가 제일이라면서 창가과목을 개설하고 노래로써 학생들의 민족의식과 민족해방에 대한 열망을 키워 주었다. 이로써 학생들은 반일민족해방운동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노래는 계몽적인 가사와 쉽고도 간결한 음악선율로 짧은 시일 내에 광범한 민중들의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어떤 장소, 어떤 형식으로든 자유로이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학생들의 민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주요 노래책은 명동학교에서 1913년 3월 19일에 발간한『신찬창가집(新纂唱歌集)』과 1914년 7월 25일 연길 광성중학교에서 발간한『최신창가집(最新唱歌集)』등이 있었다.[194] 당시 북간도에서 많이 불려지던 노래들로는 "소년남자가(少年男子歌)", "학도가(學徒歌)", "권학가(勸學歌)", "혈성대가(血誠隊歌)", "동심가(童心

194)『新纂唱歌集』에는 光復歌, 朝鮮獨立歌, 冒險猛進歌, 復讐雪恥歌, 運動歌, 大韓魂歌, 熱血隊歌, 感動歌, 薩水大捷歌, 海歌, 父母恩德歌, 檀君歌, 丹心歌, 學生前進歌, 國魂歌, 本國歌, 軍人歌, 居國歌, 禹德淳歌 등 노래들이 수록되었다(서굉일, 1985: 258; 박주신, 2000: 492).『最新唱歌集』에는 國歌, 國旗歌, 自由歌, 大韓魂歌, 勸學歌, 去國行歌, 韓半島歌, 學徒歌, 帝國歷史歌, 復讐懷抱歌, 大韓少年氣概歌, 檀君歌, 血誠隊歌, 愛國歌, 冒險猛進歌, 乾元節慶祝歌, 祖國생각歌 등 152곡의 노래가 수록되었다(박주신, 2000: 496).

dCollection @ jeju

歌)", "운동가(運動歌)", "학생전진가(學生前進歌)", "한산도가(閑山島歌)", "응원가(應援歌)", "광복가(光復歌)", "자유가(自由歌)", "십진가(十進歌)" 등이 있었다(연변민족교육연구소 교육사연구실, 1987: 40-41; 박주신, 2000: 497). 그중 "응원가"와 "한산도가"의 내용(연변민족교육연구소 교육사연구실, 1987: 41)을 보면 학생들의 의식 속의 민족과 국권회복에 대한 갈망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응원가

무쇠골격 돌근육 소년남아야
황황한 대한 혼(조선의 넋) 발휘하여라
다달았네 다달았네 우리 나라에
소년의 활동시대 다달았네
만인 대적 연습하여
후일 공훈 세우세
절세 영웅 대사업이
우리 목적 아닌가.

한산도가

쾌하다 장검을 비껴들었네
오늘날 우리 손에 잡은 칼은
한산도에서 왜적을 격파하던
충무공의 칼이 오늘날 다시
번쩍번쩍 번개같이 번쩍
쾌한 날이 나의 손에 빛나네
제국의 위업을 떨치는구나

이러한 민족의식 표출의 일예로 "한황(韓皇)양위의 보(報)가 한번 당 지방에 이르자 교원, 직원, 연장생도 등은 누구나 비분하고 나아가 왕창동(王昌東)은 의관을 찢고 이를 땅에 던지며 강개하기"(박문일, 1993: 295)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일제의 경영학교에 통학하는 조선인 아동과 학부형들까지도 일본의 앞잡이로 멸시하였고 "민족의 변절자"로 치부하기도 하였다(박주신, 1996: 83).

학생들의 표현은 민족의식이 학생들에게 내면화되어 이미 독자적으로 민족에 대한 정의를 판단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의식이 승화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러한 학생준칙, 교과내용과 과외활동 및 창가들은 학생들의 민족주의 의식과 당면한 민족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양하는 원천이 되었는바 사방자(四方子)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목하(目下) 팔십여(八十餘) 소학교(小學校)에 학생(學生)의 사상계(思想界)를 보면 지식(智識)보다 정신(精神)이 도리혀 배가(倍加)하다. 이것은 교육자(敎育者)가 복수주의(復讐主義)로 정신상(精神上)에 최전력(最專力)함일다.[195]

195) 四方子, 「北間島 그 過去와 現在」, 『獨立新聞』(1920) 1월 1일, 제34호 5면.

dCollection @ jeju

2) 사회교육운동

(1)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

이주 조선인들은 그 수가 양적으로 확대될수록 지속적인 청나라와의 갈등과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북간도 조선인들은 더욱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이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이러한 노력의 시도로 북간도 이주 조선인사회의 첫 사회단체인 간민교육회(墾民敎育會)가 1909년 7월 설립되었다.[196] 간민교육회는 이주민사회에서 이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제와 같은 외래세력에 대항하면서 이주 조선인들을 일깨워서 보다 낳은 이주사회에서의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던 일종의 이주민자치단체였다.

1907년 일제는 만주 지역 조선인들을 보호한다는 명의로 북간도 용정촌에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주 조선인들은 일제의 치외법권(治外法權)을 반대하기 위해 뭉쳐야 했고 이를 견제하고 이주 조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식 조직을 구성해야 했다. 공식조직에 대한 구축 필요성은 사실 이주민들의 '우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성장하면서 줄곧 잠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제의 간도진출은 바로 이주 조선인들이 자치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일제의 세력 확장에 맞서 청은 조선인들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제2차 치발역복을 통한 귀화입적을 강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중압박에서 북간도 유지들은 조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몽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간민교육회를 발족시켰던 것이다.

1909년 「간도협약(間島協約)」 체결 후 김약연(金躍淵), 박무림(朴茂林) 등 이주민 사회 유지들을 기반으로 한민자치회를 결성하였으나 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공식적 단체로 성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타국에서 언어, 풍속,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민족자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면서 청의 연길부청에

196) 간민교육회의 설립연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대체로 연변조선족자치주당안관(延邊朝鮮族自治州檔案館)에 소장되어 있는 연변대사기에 따르면 1909년인 것으로 확인된다.

dCollection @ jeju

지속적인 인가신청을 하였다(전신자, 2002: 109). 결국 조선인학교에서 '중국어를 주요과목'으로 교육에 있어 '청의 지도에 의거'할 것을 전제로 간민교육회의 성립을 인가받았다(전신자, 2002: 109). 당시 간민교육회의 회장은 이동춘(李同春)이었는데 그는 이미 오래전에 북간도에 이주해온 재산가로서 조선인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다(반병률, 1998: 88). 당시 연길지부(延吉知府) 도빈(陶彬)의 통역관이었던 이동춘이 있었기에 중국지방 당국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 간민교육회의 발족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간민교육회는 북간도 각지에 지회를 두어 한민족 이주민의 사회를 조직화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모범농촌활동을 벌이고 사회교육운동을 전개하여 이주 조선인들의 사회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문맹퇴치운동과 농촌사회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식산회(殖産會)를 조직, 생산 판매 소비조합 등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갔다.(김경식, 2004: 334)

한편 간도 각지에 학교와 교회를 설립하고 교사를 파견함으로써 반일계몽운동을 추진할 인재를 양성하여 후일의 북간도 민족운동의 기초를 쌓았으며 또한 교회설립과 소비조합 상조회 조직을 통한 동포들간의 단결을 도모했다(勸業新聞 1914년 4월 12일자).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북간도 이주민들의 민족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그들의 노력으로 많은 민족교육기관이 설립된 것은 물론 이주조선인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북간도 각 지역에 권학위원(勸學委員)을 파견하여 교육비를 징수하였다. 한편 조선족 농촌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함으로써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적극적인 학교설립을 위해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피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자가에 간민모범학당(墾民模範學堂)을 설립하여 소학부, 직업학교, 교사양성소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연구회를 만들어 중국지방정부의 이주조선인교육을 지도하기도 하였다(박금해, 2008: 35). 이와 같은 간민교육회의 노력으로 당시 북간도에는 명동, 와룡동, 소영자 등에 중학교가 설립되었다. 당시 소학교는 훈춘지역까지 합하여 약 20개 설립되어 북간도 교육운동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간민교육회는 또한 당시 사립학교들에 교재가 없거나 있지만 미숙한 상황을 파악하고 교과서편찬에 착수했다. 이 작업은 계봉우(桂琫瑀), 정재면(鄭載冕), 남공선

dCollection @ jeju

(南公善) 등 당시 광성(光成), 명동(明東), 창동(昌東) 등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민족의식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교재들이 편찬됨으로써 사립학교들의 교재로 보급되었다. 대표적인 교재는『오수불망(吾讐不忘)』,『최신동국사(最新東國史)』,『대한역사(大韓歷史)』,『大東歷史略(대동역사략)』,『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유년필독(幼年必讀)』등이다(박금해, 2008: 35).

이러한 간민교육회는 4년 남짓한 활동을 통해 연길을 중심으로 북간도 지역의 교육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관여하는 내용이나 범위면에서 교육이라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음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회단체라는 성격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간민교육회의 지도자들은 전 영역에 걸친 실질적인 간민자치기구의 발족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해혁명(辛亥革命)의 승리로 탄생한 중화민국의 연성자치(聯省自治)제도가 출범되었다. 이에 힘입어 이동춘, 김약연, 김립 등 간민교육회의 주요 인물들은 1913년 2월 간민교육회를 토대로 한인자치기관으로서 간민회를 건립하기로 결의했다. 그 후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한 결과 1913년 4월 26일 국자가(局子街延: 오늘날의 延吉)에서 북간도 지방 최초의 조선인 자치기구인 간민회를 탄생시켰다(서정민, 2007: 464).

간민회는 조선인의 중국 입적(入籍)을 비롯해 민생, 교육 등을 관장하였는데 이로써 북간도 조선인들을 조직화하고 규범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호구(戶口)를 조사하였다. 당시 동만(東滿)지방 조선인들은 15만여 명에 달했는데 간민회는 조선인의 토지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하기도 하면서 조선인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음악이나 체육을 통해 당시 북간도 민중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노력했다. 일단 명동학교와 광성학교에서『신찬창가집(新撰唱歌集)』과『최신창가전집(最新唱歌全集)』을 편찬하여 간도 내의 민족교육기관에는 물론 북간도 전 역 조선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하게 되었다(박금해, 2008: 36). 1913년 단오절에는 북간도 각 지역의 조선인 학교들을 연합하여 용정과 국자가(局子街)에서 연합운동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당시 북간도 지역 학교와 학부모들이 참여한 사회운동으로 한인사회의 조직화에 기여했다(서정민, 2007: 464).

이처럼 간민교육회, 간민회와 같은 자치단체와 기관들은 북간도 유지들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애국계몽사상의 영향을 수용하면서 중국정부의 정책에 유연히 대처

Collection @ jeju

하는 지혜를 보였다. 이로써 간도 조선인들의 이주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자생적으로 마련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197]

그 외에도 당시 북간도에는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사상적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유림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많았는데 이를테면 친협회(親協會), 사우계(士友契), 공교회(孔敎會), 농무계(農務契) 등 단체들이다(김경식, 2004: 355). 이러한 단체들은 간민회의 급진적인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단체들은 서당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사조에 걸맞게 사숙개량회(私塾改良會)를 조직해 신교육을 수용하고자 했다. 그들은 민족의식의 고취를 전통의 강한 유지(維持)와 함께 수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진과 온건의 사회단체인 간민회와 농무계가 모두 해체의 상황에 놓이자 일부 인사들의 협심으로 장업회(奬業會)가 발족되었다.

> 오직 실업교육만이 현 세계 인류의 급선무이며 잠시도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심이 흩어져서 대중적 힘이 전혀 없는 때를 맞아 자본이 충족하지 못해 유통이 원활하지 못할까 근심하고 지식이 완비되지 못하고 소식이 통하지 못하여 실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연고로 우리 동인들은 장업회를 특별히 발기하였습니다. 이 장업회는 신(新), 구(舊)를 가리지 않고 정치와 관계없이 오직 실업교육을 진흥시키려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김경식, 2004: 359).

197) 墾民敎育會와 墾民會의 성립과정 선후 순서와 연계성에 대해 학계에서는 상이한 주장이 있다. 김경식(2004: 332-340)은 이에 대해 잘 정리했다. 즉 墾民敎育會가 먼저 성립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墾民會로 발전되었다는 주장과 그 반대로 墾民會가 먼저 성립되었고 그 뒤 墾民敎育會로 되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전자는 본 연구에서 소개한바 대로이고 그 후자의 논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07년 金躍淵, 金永學, 具春善 등이 和龍 明東의 長財村에서 '延邊僑民會'를 조직하여 이주민들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함으로써 일제와 중국 측의 압박에 대항하고자 했다. 그 후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자 墾民會를 조직 및 성립하여 반일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일제 측과 중국 측의 견제를 받게 되자 墾民敎育會로 바꾸어 중국(중화민국)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합법적 활동을 전개했다. 즉 墾民會로부터 墾民敎育會로 발전했다는 논지다. 그런데 일제의 자료에 보면(허청선·강영덕, 2002: 25) 韓民敎育會라고 표기하기도 했는데 이는 墾民敎育會를 지칭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간도 조선인을 부르는 명칭은 墾民, 韓民, 韓僑, 韓人 등으로 다양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주로 墾民이라 부른 것으로 보이며 일제 측에서는 墾民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韓民, 韓人 등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중국 측과 이주 조선인들은 墾民敎育會라고 불렀지만 일제는 墾民이라는 용어 사용을 꺼려했으므로 한민교육회라고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용어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dCollection @ jeju

장업회의 발기는 이주민사회에서 지나친 급진사상과 지나친 보수사상이 아닌 그것을 절충하여 이주민들의 민족적 지위를 실업교육을 통해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전통과 미래에 상관없이 현실적인 민생문제를 우선으로 하여 사회교육을 강조하자는 요지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업회의 발족으로부터 비로소 각 사회단체들이 특정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북간도 전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는 북간도에서 민족 공동체가 서서히 형틀을 갖추어가고 있음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그 어떠한 사회단체이든 모두 당대 북간도 조선인들의 민족적 힘을 기르고자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의 최종 지향한 염원은 민족의 해방이었는데 그것을 후대양성사업과 사회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2) 민중집회와 언론교육

사회적으로 민중의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한 경로는 민중집회와 언론교육을 들 수 있다. 민중집회는 야학이나 포교활동 및 선교활동을 통해, 언론교육은 신문과 기관지를 통해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북간도의 민중집회는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회단체는 앞서 설명했듯이 주로 북간도 지역의 유지나 지식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북간도 조선인 사회의 상부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민중과 외부에서 오는 다양한 사상이나 인사들과의 중재, 청이나 중화민국 등 중국정부 및 일제와의 교섭 등을 책임지고 운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주요 역할은 북간도 민중들로 하여금 민족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주는 것이며 민족의 해방을 기하고자 움직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민중집회이다. 이러한 종교단체의 민중집회는 대개 두 방면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민족종교 중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외래종교 중심이었다. 당시 북간도에 전파되는 민족종교는 대개 대종교, 천도교 등 단군사상과 동학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유교사상을 기반으

Collection @ jeju

로 하는 공교회나 불교도 있었다. 이러한 민족종교에 대별되는 사상들은 민족의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도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동기(動機)로 대부분 외래사상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외래사상은 주로 기독교와 천주교인데 선교와 교회의 설립을 통해 조선인들을 기독교에 가입시키고자 했다. 이는 북간도에 서구문화를 수용시켜 근대화되기를 촉구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래종교사상은 북간도의 진보파 지식인들의 입지와 맞물리면서 북간도에서 급속히 퍼지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명동촌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명동촌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양한 집회를 통해 교류하고 민족의식을 키워나갔다. 그 중 하나가 일요일 교회에 집합하여 예배를 보면서 대내외의 소식을 접해듣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종교들은 그것이 민족종교든 서구의 외래종교든 크게 충돌이 없이 북간도에서 각자 한 지역씩 책임지고 북간도 민중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민중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계(契)의 형성이나 야학에 참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부 촌락에서는 아예 이름을 계라고 따서 지은 곳도 있었다.[198] 이러한 계는 촌락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활동범위가 넓지 못했다(홍종필, 1993a: 192-1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사회에서 촌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사람들의 집결과 단결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생성되는 공동체의식과 집단의식 내지는 동족의식은 이주민사회에서 민족의식이 생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당시 이주민들은 대다수가 농민이다 보니 낮에는 일을 하고 야간에는 마을의 특정 집에 모여 글을 깨치면서 문맹퇴치운동을 진행했다. 이른바 야학운동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연변의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곳에 학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와 함께 마을 주민들의 교육의 필요성도 느꼈으므로 더욱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명동촌의 경우 명동학교가 설립되면서 바로 명동지역에 3개의 야학이 생겨났던 것이다(문영미, 1997).

이와 같은 사회교육을 통해 문맹퇴치운동을 진행함으로써 간도 이주민들은 일

198) 그 일예로 지금의 흑룡강성 상지시 하동향에는 아직도 1~20계까지 촌명을 계자 돌림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당시 계를 붙여 이름을 딴 마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김경식, 2004: 169)

dCollection @ jeju

차적으로 이주국가인 중국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태동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러한 민족의식은 일제라는 침략세력에 맞부딪치면서 사회 모든 계층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다양한 민중집회의 형태가 북간도 조선인들로 하여금 모임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면 신문이나 기관지와 같은 인쇄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기도 했다.

간민교육회는 『교육보(敎育報)』를 발간하여 상호간의 소식을 전달하였고 연해주의 『권업신문(勸業新聞)』과 미국의 『신한민보(新韓民報)』까지 주문하여 이주민 사회에 보급시켰다(김경식, 2004: 335). 뿐만 아니라 월보(月報)를 발간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조선인 민중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도록 역할을 하였다.

> 각 지방에서 학교를 권설(勸設)하야 교사를 의무로 파견하며 월보(月報)를 간행하야 민지(民志)를 환성(喚醒)함으로 장래 사업상에 다대한 교과가 유(有)하얏다.[199]

또한 이동휘는 간민회 간부인 이동춘과 상의하여 계봉우를 책임주필로 『대진(大震)』이라는 월간잡지를 발간하였다. 이 기간지는 대동협신회(大東協新會)라는 애국청년단체에서 만든 것이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애국청년단체로 청년친목회(青年親睦會)에서는 남공선과 정재면이 주요 간부로 활동했는데 『청년(青年)』이라는 월간지를 발행했다(반병률, 1998: 93). 이러한 기간지들은 북간도 조선인들의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고 국민의식을 고양하여 반일 무장투쟁의 기운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김방, 1999: 99-100).

이처럼 신문을 비롯한 언론 인쇄물들과 당시 북간도에서 출판된 교과서들은 북간도 지역 학생들은 물론 조선인 민중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 민족교육사상의 전개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비롯한 기타 한인사회, 이를테면 연해주, 미국 등 지역과의 교류도 가능하게 하여 사상적 교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199) 四方子, 「北間島 그 過去와 現在」, 『獨立新聞』, 1920年 1月 1日字.

dCollection @ jeju

3) 민족교육사상의 역할

(1) 북간도 민족광복운동[200]

1919년 3월 1일 전 세계 한민족은 마침내 '평화'를 기치로 민족독립운동을 일으켰다. 10년 무단통치의 압박, 해외독립운동기지의 성장, 한민족 민족의식의 성장이 그 동인으로 되었다. 이는 전 세계 한민족의 민족의식이 가장 크게 표출된 거사였다. 전 세계 한민족이 "자주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일치단결해서 봉기한 전형적·전 민족적·대규모 독립운동이었으며 이는 그 전이나 후를 막론하고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신용하, 1988: 215).

운동은 국내외로 급속히 퍼졌다. 한반도 내에서는 각 도, 각 지방으로 번졌으며 해외로는 간도, 연해주 등 모든 독립운동기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간도에서는 2월부터 이미 운동의 조짐을 감지하고 연해주와 연계하여 거사준비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김약연(金躍淵) 등을 파견하여 연해주와 독립운동 관련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2월 18일과 20일에는 33명의 북간도 주요 반일지사들이 연길에서 반일운동방략(反日運動方略)을 결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간도의 각 사립학교들에서도 2월부터 거사소식을 전해 듣고 지원준비를 하고 있었다. 명동(明東), 광성(光成), 정동(正東) 등 학교들에서는 학생대표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할 것을 비밀리에 결의하였다. 이는 교원과 학생대표들의 적극적인 인도와 민족의식으로 고취된 학생들이 적극적인 호응결과이다. 또한 1905년 이래 각 사립학교들에서 민족교육사상을 토대로 교육을 진행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학생대표들은 선두에 서서 반일사상을 선전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할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기독교동지청년회(基督教同志青年會)', '충열대(忠烈隊)'. '자위단(自衛團)' 등 반일청년단체들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김경식, 2004: 428).

1919년 3월 7일, 북간도에 3·1운동의 소식이 전해졌다. 국자가(菊子街: 지금의 연길)와 용정촌 소재의 조선인 사립학교들은 3월 10일부터 휴교에 들어갔고 학생

200) 이 부분은 연구자의 논문(2008)「만주사변이전 북간도 학생들의 교육운동」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dCollection @ jeju

과 교사들은 독립선언 축하식(金東和, 1992: 99)과 시위운동준비에 들어갔다. 명동, 정동 등 학교들에서는 300여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시위운동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재원 확보, 정보 입수 등 일들에 착수하였다. 드디어 3월 13일 반일시위운동이 용정에서 터졌다. 당시 용정은 가장 큰 조선인 집거 지역인데다 일본 총영사관이 주재하고 있어 반일시위에 맞춤한 곳이었다.

조선독립축하회와 반일시위운동이 열린다는 소식에 교원, 학생들과 군중들은 원근을 막론하고 결집되었다. 용정 부근은 물론이고 멀리는 200리 밖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밤새 도보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왔다. 이날 모두 12개 조선인 사립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운동에 참석하였고 일제가 운영관리하던 학교의 학생들까지도 몰려들었다. 용정, 화룡, 국자가 등 각 지역의 수천 명 학생을 비롯한 총 3만여 명이 모인 서전대야(瑞甸大野)[201]는 전례 없는 반일 대시위장이 되었다.

김영학(金永學)은 김약연 등 17명의 독립지사들을 대표하여 용정천주교의 종소리가 울리자 "독립선언포고문"과 "공약3장"을 낭독하였다. 그의 낭독이 끝나자마자 대회장은 "조선독립만세"가 진동하였다. 이어 곧 거리시위로 나섰다. 시위대의 선봉은 명동학교와 정동학교의 교원과 학생 320여명으로 조직된 "충열대(沖烈隊)"가 맡았다(김철성, 1993: 376). 일제의 자료에 의하면 그 중 과반수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金正明, 1967: 23; 李明花, 1990: 121). 그 동안 민족의식과 민족정신으로 무장된 교원과 학생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선봉에 섰다. 그들은 일제에 대한 증오감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구호에 담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날 시위행진에서 17명이 장렬히 희생되었는데 대부분 선열에 서서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이었다(이명화, 1990: 118).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북간도 민중들의 반일투쟁은 3·13운동 끝난 후에도 지속되었다. 충렬대의 대원들 또한 결사대(決死隊), 맹호단(猛虎團)을 조직하여 계속 반일운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맹호단은 충렬대 대원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반일비밀무장조직이었다. 이는 충렬대 대원중에서 20세 이상의 우수한 청년학생으로서 명

201) 현재 中國 吉林省 龍井市中心幼稚園마당에는 自然石으로 된 紀念石碑가 있는데 正面에는 漢字로 "瑞甸大野"라고 새겨져있고 背面에는 "1919년 3월 13일 延邊人民 3万余名이 이곳에 會集하여 反日大會를 擧行하였다. 1995년 4월 15일 龍井 3·13紀念事業會"라고 새겨져 있다.

dCollection @ jeju

동학교의 학생 15명, 정동학교 학생 10명, 국자가 도립학교 학생 3명, 화전사 명당모 배영(培永)학교 학생 2명으로 조직된 암살대였다(김철성, 1993: 378). 맹호단은 일본 밀정과 친일주구들을 암살하고 일제의 통치기관을 파괴하며 일본침략세력을 유력하게 타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적극적인 반일활동을 벌였다. 학생들은 그동안 민족교육사상을 기반으로 교육운동을 통해 쌓아온 민족의식과 애국주의 독립사상으로 진정 투쟁의 선두에 서서 일제와 맞대고 싸웠다. 그들은 민족교육구국운동이 점차 반일무장투쟁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선봉, 교량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민족교육사상의 표현은 1920년 일본인이 감행한 간도 특대 참사에서 무려 38개의 학교(박금해, 2008: 83-84)가 일제에 의해 소실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그리고 1920년대에도 사립학교와 학생들은 줄곧 교육운동을 통해 반일, 항일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보면 당시 조선인사립학교들은 대부분이 민족교육사상을 발양, 전승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동시에 학생들을 선두로 민중들의 규합은 간도 조선인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스스로 개척한 땅에 대한 보호의식을 키워주었다. 이는 북간도에서의 적극적인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2) 민족정체성에 미친 영향

1910년대를 걸쳐 형성된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은 결국 민족교육의 큰 발전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양성된 학생들은 1920년대의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핵심 역량으로 되었다. 민족교육사상의 가장 큰 역할은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과정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중국이라는 대국에서 민족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시키도록 만든 의식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저변에는 바로 이주와 함께 자각하기 시작한 북간도 조선인들의 자생적 민족의식이 짙게 깔려 있었다.

민족교육사상은 이주민의 자생적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전통사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외래사상,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을 수용함으로써 1910년대 형성된 것이다. 그것을 기반으로 1920년대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조를 받아들이기도 했으며 1930년대 이후의 일제의 식민주의 정책의 민족말살에도 견뎌냈다. 뿐만 아니

dCollection @ jeju

라 이주국가에서 끊임없는 자치운동으로 이주민들의 법적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1952년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창립을 보게 되었다. 자치구역의 확보는 민족교육의 전개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그러한 민족교육은 또한 민족의식의 전승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는 토대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1960~70년대를 걸쳐 일어난 중국의 문화대혁명 10년 동란은 중국조선족의 민족교육은 물론 모든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폄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좌'적 관점은 사회주의 중국에서 민족문제의 가장 주요한 위험요소가 지방민족주의라고 인정(연변대학교육학심리학교연실, 1989: 302)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교육은 바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민족언어무용론(民族言語無用論)', '중국어학습대방향론(漢語學習大方向論)' 등 역설적인 내용들의 충격으로 민족어맹이 속출했다. 뿐만 아니라 한족학교에 진학하는 조선족학생들이 증폭하였고 민족학교가 통폐합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했다.(김성봉・김해영, 2010: 49-54)

그러나 이러한 민족문화에 대한 의도적인 타격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사회는 민족교육과 민족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한 민족문화와 민족언어를 고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주 초기로부터 줄곧 쌓아온 민족의식에 기반을 둔 민족교육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해외 학자들은 중국의 조선족 문화가 강대한 중국 문화권 안에서 자기들의 문화의 맥을 이어왔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김강일, 1993: 13-26; 김정길, 2005). 특히 문화대혁명이라는 무지몽매한 문화말살의 정치운동 가운데서도 민족의 문화를 보존하여 왔다는 사실에 경이로워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민족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민족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민족교육을 통해 민족사, 민족지리, 민족언어 및 민족문화[202]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주국가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203]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

202) 중국조선족민족사교육과 민족문화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김해영의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사교육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적용」,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적용」 등 논문을 참조.

203) 중국조선족 사회의 민족교육과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조윤덕(2001)의 「중국조선족의 정체성 형성과 교육」을 참조.

dCollection @ jeju

Ⅵ. 결론

교육사의 서술은 단순한 기록의 작업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교육을 영위한 사람들의 역사적 실존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그 이상으로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역사적 모습을 살피는 작업이라 하겠다. 따라서 건조한 교육이론이나 제도적 교육활동 뿐만이 아니라 당대 사람들의 삶의 지혜 속에서 묻어나는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 역사 속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교육에 대한 소신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사 기술을 위해서는 특수성을 통해 보편타당한 원리를 발견하고 또한 보편성 속에서 특수성을 탐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에서야말로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탐구는 변방 민중의 삶과 이주민들의 삶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통해 나름의 내재적 발전법칙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개 교육사상의 경우 역사 속의 한 시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이나 중앙적이고 지배계층 특유의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이 압도적이라 하겠다. 기존 역사인식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변방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하면서 내부적으로 형성되는 의식이나 교육적 역동성은 흔히 간과되거나 무시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일변도의 교육사 및 교육사상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북간도 지역의 민족교육사 및 민족교육사상은 변방 조선인들의 이주지역이라는 북간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변방민중들이 출신지역의 민중에서 이주민으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들의 변화에 능동적인 반응을 해 준 계층은 어떤 사람들인지 등을 살피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간도 이주 조선인들이 함경도에서의 삶, 이주와 정착 및 이민족과의 갈등과 모순을 겪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서서히 교육적 주체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을 살폈다. 또한 교육적 의식과 민족의식이 생겨남으로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는 당대 이주민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들을 통해

dCollection @ jeju

이주 조선인들의 자주적인 교육적 노력을 확인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이주민들의 삶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우리의식', '자기의식'으로 표방되는 사회적 힘을 통해 공동체의식, 집단의식이 생성될 수 있었다. 그러한 의식들로부터 민족의식이 자각되기 시작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및 후대들을 향한 교육적 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전근대 상황에서의 민족의식의 생성과 전파가 1905년 이후 북간도에 유입되는 민족주의 교육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사상들과 융합되면서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민족교육사상의 전개과정에 대해 사립학교들의 유형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그러한 교육사상이 북간도에서 진행된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에 미친 영향과 중국이라는 이국에서 살면서 민족의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북간도는 여진족이 발족한 지역이다. 여진족의 민족적 특성상 농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근세이후 청정부의 봉금령 영향으로 개간되지 않은 황무지가 대부분이었으며 무인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었다. 이러한 북간도로의 함경도 변방 사람들의 영주(永住)를 위한 이주는 1860년대 이후 시작되었다. 대규모의 집단이주는 단순한 사람의 이주인 것이 아니라 함경도 변방의 고유의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오랜 정신문화를 함께 이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두 지역은 결국 문화적 전승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아울러 북간도에 이주하게 된 함경북도 사람들의 정신문화적 특징과 근원을 살피면서 북간도에서의 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정을 고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간도 조선인 근대교육사의 출발을 독립운동가들의 북간도 망명으로부터 보고 있던 기존의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북간도 이주 조선인들의 성격에 대해 재분석하였다. 따라서 이주민 사회에서 제시되는 민족, 민족교육, 민족교육사상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그것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접근되고 있으며 북간도의 그것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주 지역 북간도에 있어서 민족이라는 것은 지극히 근대적이고 또한 일제에 대한 저항적 의식에서 배태된 한반도 내의 민족의식의 생성과정과는 구별적이었다. 그것은 일제라는 근대적인 외세에 대항하기에 앞서 이주와 함께 이주국 및 이주

dCollection @ jeju

국가의 주류민족인 만족, 한족들과 부딪쳐야 했던 것이다. 그러한 접촉과정에서 생성된 민족의식은 외래적이고 근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이고 근대지향적인 것이었다.

아래로부터 내부로부터 생성된 민족의식과 교육의식은 생계 이상의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유지계층의 발견과 인도를 통해 발전하게 되었다. 유지들의 중재적 역할로 반외세적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의 사상들이 북간도 이주와 정착이 가능했던 것이다. 내부로부터 생성되는 의식과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의식이 맞물릴 때 폭발적인 에너지가 분출된다는 것이 역동성의 논리라 할 수 있다. 당대 북간도라는 이주 공간에서 민족교육 및 민족교육사상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데는 이로부터 연유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그 역동성에는 대개 계층간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 클 우려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북간도에서 이러한 상하의 괴리를 극복해 주는 역할을 바로 관북유지 및 유림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이주와 함께 이루어지는 유지들의 교육사상적 중재 역할은 두 측면에서 표현되었다.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면서 북간도 교육사상에 영향을 미친 명동촌 및 명동학교와 같은 사례가 그 하나였다. 그런가하면 또 시대적 변화와 외세의 강제적 침입에 대해 전통을 통해 수호함으로써 체제보위적 사상으로써 북간도 교육사상에 합류되는 의병계열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결국 그 어떠한 사례이든 자생적 교육력을 체계화하여 북간도 교육사상의 민족성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그것은 당대 민족의 최대 과제였던 민족광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으로 민족교육사상에 합류되었던 것이다.

셋째, 한반도 근대적 사상들의 합류는 북간도 교육사상을 민족교육사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전통사상의 계승과 함께 근대사상, 이를테면 애국계몽사상 및 개화사상 등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교육운동은 전례 없는 열기를 띠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는 외래사상인 기독교사상의 영향을 수용함으로써 근대 지향적인 교육사상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 외세의 침입이라는 함수와 맞물리면서 이러한 근대사상은 근대지향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민족지향적인 측면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 민족성을 강하게 강조함으로써 외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구국운동으로 전환되었다.

dCollection @ jeju

이러한 교육구국운동의 북간도 진출은 북간도 자생적 민족교육사상을 근대지향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국 북간도의 자생적 민족교육의식과 근대라는 두 함수의 결합이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을 형성시켰다. 그러한 결과 수많은 한민족 사립학교의 설립운동과 다양한 사회교육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민족교육사상은 바로 이러한 사립학교들을 통해 전승 발양되었으며 북간도 이주 조선인의 민족성은 이로써 크게 고조되어 민족광복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독립운동가들의 애국계몽운동 및 외래사상의 영향은 북간도 교육적 자생역량의 근대화를 촉진시킨 촉매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북간도 민중의 근대 교육에 대한 수용성과 전통에 대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계승 등 움직임이 정치운동가들의 민족사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넷째, 민족종교사상으로 대별되는 동학계열의 사상과 대종교계열의 사상 역시 북간도 이주를 계기로 북간도 민족교육사상에 합류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이미 국내에서 외세와 봉건적인 압박에 저항하는 민중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중을 바탕으로 민족의 광복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와 자유를 지향하는 사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의 민족교육사상에로의 합류는 민족교육사상의 민족성을 더욱 민중기반으로 하게 만들었다. 이는 결국 북간도 자생적 교육의식을 더욱 강하게 고착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섯째, 20세기 초에 일차적인 완성을 보이는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은 결국 북간도 민족교육을 근대 지향적으로 발전시켰다. 북간도 조선인의 민족의식의 고취와 민족성을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효과가 1919년 3·13운동에서 표출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민족교육사상을 바탕으로 진행된 민족교육은 독립운동 및 민족광복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 결코 그 운동들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겠다.

민족의식의 고취와 민족성의 강화는 민족교육사상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는 이주국이라는 타민족 국가에서의 북간도 조선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민족 정체성은 이주 국가에서 이주민들의 민족적 지위와 자치지역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창건된 이후에도 민족교육이 지속될

dCollection @ jeju

수 있도록 초석의 역할을 했다 하겠다.

요컨대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민족의식이 북간도 이주 조선인들 속에서 내부적으로, 심층적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민족교육사상으로서의 지주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905년 이후 북간도 지역에 급속하게 전파되는 민족주의 교육사상을 수용하여 교육구국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북간도 자생적인 민족교육사상의 태동과 함께 근대지향적이고 민족지향적인 교육사상에 대한 수용 기반을 갖추었기에 북간도에서의 교육구국운동 및 민족광복운동이 가능했다고 하겠다.

민족교육사상은 민족의식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사상과도 융합될 수 있었으며 일제의 만주 강점기의 고압적인 식민통치 하에서도 민족교육을 지킬 수 있었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창건된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으며 문화대혁명의 10년 동란시기 역시 잘 거쳐 왔으며 현재까지도 민족교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흐르고 있는 주체성의 갈등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갈등은 과거 완료형인 것이 아니라 이주 3~4세가 주류인 현대의 중국 조선족사회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부단히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하면 그 반대급부로 한반도에 역이주하는 경향이 늘기도 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두만강을 건너 조선인들의 이주는 끊이지 않고 있는바 탈북자들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따라서 그들이 조선족 사회에 합류되기도 혹은 한국으로 향하든 정체성의 혼돈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주민들의 정체성 혼돈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체성의 혼돈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은 결국 조선족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모순을 배태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15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조선족의 역사와 그들이 피와 땀으로 개척한 이주공간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선족사회의 위기요소는 특히 문화대혁명의 타격과 1980년대의 개혁개방이후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더욱 심해졌는데 이때 민족교육 역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도시화·산업화·정보화의 빠른 현대화 과정에서 민족교육은 낡은 교육체제를 개혁할 틈이 없었다. 게다가 문화대혁명의 종결과 함께 회복된

dCollection @ jeju

입시제도에 따라 급급히 응시위주의 교육으로 전락되었다. 결국 민족교육에서 민족성, 민족의식 등의 의미는 점차 희박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족사회 경제구도의 변혁은 인구이동, 저출산, 농촌사회붕괴, 인재고갈 등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이는 민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인구이동으로 결손가정, 조손가정이 속출하였고 그에 따라 가정교육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세부적인 가정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이었다. 그런가하면 학생자원의 고갈로 인한 농촌학교의 폐교현상, 도시의 학교 통폐합현상, 인재고갈로 인한 교원확보의 어려움, 교원자질문제 및 불안정성 문제, 학교 및 교원들의 교육질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한족(漢族)학교 등 기타 학교 선호현상, 재정확보의 어려움, 교육내용의 비현실성 등 심각한 교육문제가 잇따라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조선족사회와 민족교육의 문제점들로 인한 조선족공동체의 해체설, 민족교육의 위기설 등 악성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선족사회의 민족교육으로 하여금 민족성을 잃게 하였다. 이는 결국 이주사회에서 민족의 존속을 결정하는 민족의식의 전승과 보존이 어려워지게 되는 위기를 초래하였다. 민족성과 민족의식을 가장 잘 반영하는 내용이 민족의 언어, 역사, 문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에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민족의식도 함께 희박해져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개혁개방이후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해 물질적인 재부를 어느 정도 축적하게 된 조선족사회에서는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민족의 문화의 민족성 및 민족의식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소수의 학자층이나 정치인들을 비롯한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에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측에서도 소수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정책을 적극 강조하게 되면서 학교교육을 선두로 민족문화교육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는 문화유산 관련 자료수집과 인쇄물 및 기관단체들이 속출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상 조선족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조선족의 사이버공동체가 형성되어 민족

dCollection @ jeju

문화의 보전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들은 사회전반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자층 또는 정부기관인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안들 역시 조선족사회의 대중을 향한 실천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이론적 접근이 위주여서 학자층, 정부기관인사, 민중들 사이의 괴리감이 심하다. 또한 민족성을 반영하는 예술문화나 언어문화에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역사, 특히 산재해 있는 교육사 유적지와 같은 문화유산은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조선족사회 민족의식과 민족성에 관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족교육의 사상적 기저에 대한 논의는 현대조선족사회의 이와 같은 민족교육 위기의 심층적 구조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시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dCollection @ jeju

참고문헌

■ 자료

『關北誌』「鏡城邑誌」.

金時讓.『涪溪記聞』.

金鼎奎.『龍淵金鼎奎日記』.

金正喜.『阮堂先生全集』 卷1「阮堂金公小傳」.

金宗直.『佔畢齋集門人錄』「門人錄」.

四方子.「北間島 그 過去와 現在」.『獨立新聞』(1920) 1월 1일. 제34호 5면.

朴齊家.『貞蕤閣集』「愁州客詞」.「旅次雜絶」.

朴羲成(1917).『紀年便攷』.

『備邊司謄錄』.

宋時烈.『宋子大全』.

『承政院日記』.

沈悅.『南坡相國集』 卷5「書狀」.

吳常熙.『老洲集』.

兪棨.『市南集』.

柳希春.『眉巖日記草』.

柳麟錫.『毅菴集』「與同門士友書」.

尹定鉉.『梧溪遺稿』.

李珥.『栗谷全書』 卷15「東湖問答」.

李肯翊.『燃藜室記述』.

李裕元.『林下筆記』.

李縡.『陶菴先生集』.

李載亨.『松巖集』.

林宗七.『屯塢集』.

『日省錄』.

『世宗實錄』.

dCollection @ jeju

『宣祖修正實錄』.
『肅宗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高宗實錄』.
丁若鏞.『牧民心書』四「禮典」.
鄭汝昌.『一蠹先生續集』.
鄭介淸.『愚得錄』「困齋先生愚得錄附錄上」.
朝鮮駐箚憲兵司令部.『在外朝鮮人 經營各學敎 書堂一覽表』.
朝鮮總督府.『國境地方視察復命書』.
『靑年黨彙報』「新人間」29號 1928.11.
崔愼.『鶴庵集』.
韓夢麟.『鳳庵集』.
韓夢弼.『楡軒遺稿』.
許筠.『惺叟詩話』.
洪良浩.『北塞記略』「孔州風土記」.
洪良浩.『耳溪集』「北俗」.

■ 단행본

1. 한국

강만길(2000). 통일지향 우리 민족해방운동사. 서울: 역사비평사.
고영일 주필(2002). 중국抗日戰爭과 조선민족. 서울: 백암.
高承濟(1973). 韓國移民史硏究. 서울: 章文閣.
고려대학교 교육사·철학연구회 편(1994). 民族敎育의 思想史的 眺望. 서울: 集文堂.
권태환(2006). 중국조선족사회의 변화-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국립민속박물관·독립기념관·동북아역사재단(2008). 북간도 한인의 삶과 애환 그리고 문

dCollection @ jeju

화. 명동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국제학술대회 자료집.
國史編纂委員會 編(1966). 韓國獨立運動史 二(資料篇).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김도형 외(2009). 식민지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서울: 선인.
김방(1999). 이동휘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金仁會・朴先榮・李文遠・李元浩・丁淳睦(1983). 韓國敎育思想硏究. 서울: 集文堂.
김인회(1994).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서울: 문음사.
金璟植·千壽山·崔峰龍(2001). 朝鮮族生活史. 文音社.
金璟植(2004). 在中韓民族敎育展開史 上. 서울: 문음사.
김경식(2008). 韓民族敎育文化史. 서울: 교육과학사.
金穎(2004). 近代 滿洲 벼농사 발달과 移住 朝鮮人. 서울: 國學資料院.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1996). 북우 계봉우 자료집(1): '꿈속의 꿈'・'조선문학사'. 韓國獨立運動史 資料叢書 第10輯.
문재린・김신묵(2006). 기린갑이와 고만녜의 꿈. 서울: 삼인.
반병률(1998). 성재 이동휘 일대기. 서울: 범우사.
朴州信(2000). 間島韓人의 民族敎育運動史. 서울: 아세아문화사.
사단법인 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2006). 韓國獨立運動과 瑞甸書塾. 서전서숙 10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徐紘一・東巖(1993). 間島史新論 上. 서울: 우리들의 편지사.
서정민(2007). 이동휘와 기독교. 연세대학교출판부.
孫仁銖(1983). 韓國近代民族敎育의 理念硏究. 서울: 文音社.
신정일(2004). 다시 쓰는 택리지 3(강원 함경 평안 황해편). 서울: 휴머니스트.
愼鏞廈(1987). 韓國近代社會思想史硏究. 서울: 一志社.
愼鏞廈(1988). 韓國近代民族運動史硏究. 서울: 一朝閣.
양진건(1999).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서울: 문학과 지성사.
양진건(2011). 제주 유배길에서 秋史를 만나다. 서울: 푸른역사.
李勳求(1932). 滿洲와 朝鮮. 평양:平壤崇實專門學校 經營學硏究室.
윤병석(2003). 간도역사의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尹炳奭(1984). 李相卨傳. 서울: 一潮閣.
윤병석(1990).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서울: 일조각.
윤인진(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李觀稙(1985). 友堂 李會榮先生實記, 友堂 李會榮略傳. 서울: 乙酉文化社.

dCollection @ jeju

장세윤(2005).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서울: 명지사.

정은해(2000). 교육사 연구방법론. 서울: 원미사.

千敬化(1994). 한국인 민족교육운동사연구-일제하 만주·노령·중국본토·미주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白山出版社.

최강현(1976). 北關路程錄. 서울: 一志社.

한국교육연구소 편(1993). 한국교육사(근·현대 편). 서울: 풀빛.

한국교육사학회·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2002). 20世紀 朝鮮民族教育의 展開와 其 評價. 한중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현규환(1967). 韓國流移民史 上. 서울: 語文閣.

2. 중국

金哲洙·姜龍範·金哲煥(1998). 中國朝鮮族歷史常識.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金春善(2001). 延邊地區朝鮮族社會的 形成 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김택·김인철(1995). 길림조선족.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남일성·방학철·임창길(1995). 중국조선어문교육사. 연길: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盧鴻德 주필(1995). 日本侵略東北教育史.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東北師大教育學科 編(1951). 僞滿奴化教育. 長春: 東北師大教育學科.

동북조선민족교육연구소 편(1998). 중국조선족학교지. 연길: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武强 주필(1989). 東北淪陷十四年教育史料.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武强(1994). 日本侵華時期植民地教育政策.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朴奎燦(1989). 延邊朝鮮族教育史稿.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朴今海(2008). 日本對東北朝鮮族的植民主義教育政策. 연길: 延邊大學出版社.

北京大學朝鮮文化研究所(1997). 教育史. 北京: 民族出版社.

沈茹秋(1987). 延邊調查實錄. 연길: 延邊大學出版社.

楊昭全(1996). 中國에 있어서의 韓國獨立運動史.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延邊朝鮮族自治州教育志編纂委員會(1992·2008). 延邊朝鮮族自治州教育志 (1975~1988) (1988~2008). 延邊朝鮮族自治州教育局.

延邊政協文史資料委員會(1988). 延邊文史資料 第5~6輯.

연변일보. 1998년 6월 15일자. "중국조선족의 첫 근대학교-훈춘 동광학교".

延邊大學教育學心理學教研室(1989). 延邊朝鮮族教育史. 서울: 논장.

dCollection @ jeju

吳哈(1980).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 第9輯. 上海: 中華書局.
용정현지방편찬위원회(1989). 龍井縣志. 연길: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용정 3.13기념 사업회・연변역사학회(2006). 서전서숙개숙 100주년기념문집: 역사의 종소리.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王野平 주필(1989). 東北淪陷十四年教育史.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朝鮮族簡史組 編(1986). 朝鮮族簡史.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齊紅深(1990). 東北地方教育史.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齊紅深(1997). 東北淪陷時期教育研究.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齊紅深(2002). 日本侵華教育史.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齊紅深(2005). 見證日本侵華教育. 沈陽: 遼海出版社.
齊紅深(2005). 日本對華教育侵略: 對日本侵華教育的研究與批判. 北京: 崑崙出版社.
齊紅深(2006). 抹殺不了的罪證-日本侵華教育口述史.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中國朝鮮族教育史編纂組 編(1991). 中國朝鮮族教育史. 연길: 東北朝鮮民族教育出版社.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廣州: 泰東文化社.
중국조선족교육사편찬사조 편(1991). 동북조선족교육사. 연길: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허청선 주필(2006). 중국조선족교육연구.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허청선・강영덕・박태수(2000).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 1.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許青善・姜永德(2009). 中國朝鮮族教育史. 延吉: 延邊教育出版社.

3. 일본 및 기타 나라

姜在彦(1984). 朝鮮獨立運動の根據地問題. 朝鮮民族運動史研究會, 朝鮮民族運動史研究 第1號. 東京: 青丘文庫.
姜德相(1971). 現代史資料 27 (朝鮮三). 東京: みすず書房.
金正明(1967). 한국독립운동 I II. 東京: 原書房.
金正柱(1971). 朝鮮統治史料 第10卷. 東京: 韓國史料研究所.
嶋田道彌(1935). 滿洲教育史. 大連: 文教社.
滿洲國教育史研究會 編(1993). 滿洲・滿洲國教育資料集成. エムテイ出版.
桑畑忍(1929). 在滿朝鮮人と教育問題. 大連: 中日文化協會.
牛丸潤亮・村田懋麿(1927). 最近間島事情. 京城: 朝鮮及朝鮮人社.
竹中憲一(2000). 滿洲教育の基礎研究. 東京: 柘書房.

dCollection @ jeju

許壽童(2008). 近代中國東北敎育の硏究. 東京: 明石書店.

勸業新聞. 1913년 9월 20일자. 제28호.

Mayehoff, Hans(1959). *The Philosophy of History in Our Time*. New York: Doubleday・Company.

■ 논문

1. 한국 논문

강선보(1994). "日帝下의 民族敎育-1910년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사・철학연구회 편. 民族敎育의 思想史的 眺望. 서울: 集文堂, pp. 175-203.

강지현(1982). "國外에서 展開된 民族敎育의 硏究: 露領, 北間島, 日本을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평(2003). "김인서의 선교론에 관한 연구: 만주선교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고영일(1990). "중국 朝鮮族 敎育史의 서막을 논함".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2, pp. 81-92.

김강일(1993). "연변조선족문화의 보존과 전망". 한국사회사학회, 역사와 사회 12, pp. 13-26.

김동춘(2007). "북간도 조선민족사회의 형성과 기독교 수용과정".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81, pp. 19-33.

김도형(2009). "한말, 일제하 한국인의 만주 인식". 식민지기 재만 조선인의 삶과 기억. 서울: 선인, pp. 83-113.

金東和(1992). "3.13抗日獨立示威運動에 대하여". 朴成壽 외. 獨立運動史의 諸問題. 서울 범우사, pp. 90-113.

金民壽(1975). "朝鮮時代 流配考". 梨花女子大學校 師範大學 社會生活科, 綠友會報 17, pp. 40-52.

김경숙(2005). "조선시대의 유배길", 남명학연구원, 선비문화 5, pp. 22-30.

金善禧(1989). "1910年代 間島韓人 民族敎育의 性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

dCollection @ jeju

육 석사학위논문.

金成俊(1969). “三・一運動以前 北間島의 民族教育”. 東亞日報社 編. 三・一運動50周年紀念 論文集. 서울: 東亞日報社.

金石柱(2009). “北間島地域 民族學校에 關한 地理學的 硏究”.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 590-603.

김인회(2002). “한국교육사 연구의 관점과 서술의 제 문제”.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24**(2), pp. 11-18.

김해영(2008). “만주사변 이전 북간도 학생들의 교육운동”.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22**(2), pp. 77-95.

김해영・양진건(2009).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동인(動因)으로서 표류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23**(3), pp. 173-189.

김해영・김성봉(2009).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사교육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적용”.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19**(3), pp. 227-247.

김해영(2010). “20세기 초 북간도 민족교육사상 형성의 역사적 동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제48기 학술대회 논문집, pp. 3-21.

김해영・김유리・양진건(2010).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적용”. 한국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 **5**, pp. 261-289.

김성봉・김해영(2010). “중국조선족 민족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전북대학교교과교육연구소, 교과교육연구 **3**, pp. 47-70.

金銀珠(2007). “1910年代 間島地域의 民族教育 實態에 관한 硏究”.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석사학위논문.

金烈圭(1980). “咸鏡北道의 在家僧Ⅱ”. 북한연구소, 북한 **100**, pp. 242-246.

김재홍(2009). “圭巖 金躍淵과 明東村”. 한국간도학회・자유선진당, 간도협약 100년의 재조명 회고와 전망, pp. 119-140.

金貞亞(1991). “瑞甸書塾에 관한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 석사학위논문.

金貞亞(1992). “瑞甸書塾에 관한 硏究”, 동선사학회, 성신사학 **10**, pp. 159-186.

김정길(2005). “중국조선족 신문의 민족문화전승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주용(1993). “1910년대 북간도민족교육기관의 독립운동: 3.13항일독립시위운동을 중심으

dCollection @ jeju

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 석사학위논문.

김주용(2000). "日帝의 對 間島 金融侵略政策과 韓人의 抵抗運動 硏究 : 1910~192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金周溶(2009). "1920년대 전반기 북간도지역 학생운동의 양상".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51**, pp. 281-300.

金哲星(1993). "충렬대와 맹호단의 반일활동". 徐紘一・東巖 편저. **間島史新論 上**. 서울: 우리들의 편지사, pp. 373-380.

김춘선(2006). "중국 조선족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중앙사학회, **중앙사론 24**, pp. 139-160.

김춘선(1998a). "1900~1920年代 北間島地域 佃民制와 韓人의 토지소유권 문제".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3**, pp. 77-117.

김춘선(1998b). "'北間島'地域 韓人社會의 形成 硏究". 국민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춘선(1998c). "北間島地域 韓人社會의 形成과 土地所有權 問題".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전주사학 6**, pp. 177-191.

金興洙(1991). "日帝下 在滿韓民族의 歷史敎育". 江原大學校 史學會, **江原史學 7**, pp. 53-74.

金興洙(1995). "中國 延邊朝鮮族의 近代民族敎育에 關한 硏究; 1910년 前後의 延吉과 龍井 지방을 중심으로". 國史編纂委員會, 國史館論叢 **64**, pp.1-36.

계근호(2001).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 교육열의 역사적 전개양상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리정문(1993). "20세기초 조선인의 사립학교교육". 徐紘一・東巖 편저. **間島史新論 上**, 서울: 우리들의 편지사, pp. 280-285.

리광평(2009). "이주 1번지 두만강 기슭의 조선족 선배들". 在外韓人學會, **在外韓人硏究 20**, pp. 130-154.

문백란(2008). "캐나다 선교사들의 북간도 한인사회 인식".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144**, pp. 103-143.

문영미(1997). "나의 할머니, 김신묵의 살아온 이야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전공 석사학위논문.

문재린(1993). "명동은 간도의 오룡천". 徐紘一・東巖 편저. **間島史新論 上**. 서울: 우리들의 편지사, pp. 79-80.

dCollection @ jeju

문익환(1984). “어머니와 아버지의 간도이야기 2”. 오늘의 책 7(1984년 가을), pp. 214-240.

문익환(1997). “규암 김약연 목사”. 서굉일・김재홍. 北間島民族運動의 先驅者 圭巖金躍淵先生, 서울: 고려글방.

朴文一(1993). “동북조선거류민들의 교육운동과 그 역사적 역할(1906-1919 기간)”. 徐紘一・東巖 편저. 間島史新論 上. 서울: 우리들의 편지사, pp. 286-300.

朴文一(2006). “中國朝鮮族反日近代教育的杰出先驅金躍淵”. 중국조선족교육연구.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pp. 26-36.

박금해(1996). “北間島民族教育에 關한 一硏究-1905~1920年代를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박금해(1998). “滿洲事變以前 北間島民族教育에 關한 一硏究”.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18, pp. 295-321.

박금해(2005). “중국에서의 조선족 역사와 현실문제의 최근 연구동향”. 세계평화통일학회, 평화학연구 5, pp. 123-148.

박금해(2006). “20세기초 동북경내 조선족사립학교 민족교육운동에 대한 고찰-사립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서전서숙개숙 100주년기념문집, pp. 289-316.

박금해(2009). “20세기 초 間島 朝鮮人 民族教育運動의 전개와 중국의 對朝鮮人 교육정책”.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48, pp. 79-114.

박금해(2010). “1900년대 초~1920년대 日帝의 在滿朝鮮人교육정책 연구”.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99, pp. 223-260.

朴鍾勳(2008). “楚亭 朴齊家 詩 硏究”. 한양대학교 국어국문과 박사학위논문.

박종훈(2007). “楚亭 朴齊家의 愁州客詞 一考”. 단군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42, pp. 89-113.

박혁순(1998). “중국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1, pp. 83-98.

박명규(2004). “이주사를 넘어서 디아스포라 연구로”. 한국사회학회, 韓國社會學 38, pp. 235-241.

朴州信(1996). “日帝下 北間島 明東學校의 民族教育運動”.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18, pp. 67-110.

朴州信(1998a). “間島 韓國人의 民族教育에 關한 硏究: 1910年代~1920年代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dCollection @ jeju

朴州信(1998b). “滿洲事變以前 日帝의 間島 韓國人에 대한 植民地主義 敎育扶植 政策”,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20**, pp. 297-331.

朴州信(2000a). “1910년대 間島지방 私立學校의 活動과 性格-基督敎 및 大倧敎 계통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사연구 9, pp. 29-63.

朴州信(2000b). “1910~1920년대 間島 韓人 교육기관의 실태와 그 성격”.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22**, pp. 103-136.

朴州信(2007). “近代敎育史에서의 瑞甸書塾의 位相”. 韓國敎育史學會, 韓國敎育史學 **29**(2), pp. 51-86.

朴永錫(1983). ″大倧敎의 民族意識과 抗日民族獨立運動 上″. 일지사, 한국학보 **9**(2), pp. 107-131.

朴永錫(2002). “大倧敎의 民族意識과 獨立運動”.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 **1**.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pp. 437-445.

박창욱(1991). “조선족의 중국이주사 연구”.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pp. 179-197.

서굉일(1985). “1910年代 北間島 의 民族主義 敎育運動”. 백산학회, 백산학보 **30·31**, pp. 235-280.

서굉일(1986). “북간도 기독교인들의 민족해방 운동”.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보성.

서굉일(1990). “일제하 만주 북간도의 민족교육”. 초등우리교육 통권 **7**, pp. 353-372.

서굉일(1993). “日帝下 西北間島에서의 民族解放을 위한 歷史敎育”. 徐紘一·東巖 편저. 間島史新論 上. 서울: 우리들의편지사, pp. 131-147.

서굉일(1994). “일제하 서북간도지역 종교운동에 나타난 민족주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한신논문집 **11**, pp. 137-177.

서굉일(1995). “日帝下 北間島 韓人들의 民族主義 敎育運動 硏究(1906~1919)”. 인화대학교, 仁荷史學 **3**, pp. 273-315.

徐紘一(2006). “상동청년회와 서전서숙”. 서전서숙 10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韓國獨立運動과 瑞甸書塾, pp. 81-110.

서굉일(2009). “단군교포명서와 항일민족운동”.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13**, pp. 98-120.

성주현(2002a). “일제 강점기 만주지역 천도교인의 민족운동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성주현(2002b). “만주 천도교인의 교육운동”. 한국문명학회, 문명연지 **3**(3), pp. 135-180.

孫春日(1992). “日帝下 中國 朝鮮人의 敎育發展 實態에 대하여(1905~1931)”, 淑明女子大學校 韓國學硏究所, 韓國學硏究 **2**, pp. 37-64.

dCollection @ jeju

손춘일(1998). “日帝의 在滿韓人에 대한 土地政策 硏究 : 滿洲國時期를 中心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역사전공 박사학위논문.

손춘일(2009). “두만강이북에서 조선인사회의 형성”.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36**, pp. 307-325.

孫仁銖(1983). “韓國近代 民族主義 敎育運動 硏究-舊韓末 近代私學의 民族保存理念과 敎育救國運動을 중심으로”. 韓國精神文化硏究院 연구논집, 近代 民族敎育의 展開와 葛藤 **82**(8), pp. 5-48.

申世羅(2003). “鄭淳萬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25**, pp. 227-259.

심혜숙(1992). “연변의 지명과 조선족 이주”. 북한연구소, 북한 **242**, pp. 136-145.

梁鎭健(1991). “朝鮮朝 濟州 敎育思想史 硏究”. 단국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양진건(2010). “동계 정온 서원향배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24**(2), pp. 129-147.

유근호(1982). “한국 민족의식의 형성 과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 **5**(1), pp. 17-28.

劉秉虎(2001). “在滿韓人의 國籍問題 硏究(1881～1911)”.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尹炳奭(1982). “李相卨硏究: 國外獨立運動 基地設定의 活動을 中心으로”. 숭전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윤병석(2004). “만주지역 독립운동기지 설정과 북간도 민족주의 교육”. 殉國先烈遺族會, 殉國 통권 **158**, pp. 64-75.

尹炳奭(2006). “한국근대사상 간도와 독립운동, 서전서숙”. 서전서숙 10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韓國獨立運動과 瑞甸書塾, pp. 9-40.

윤종일(2007). “초정 박제가의 사회개혁론”. 한국청소년문화학회, 한국의 청소년문화 **10**, pp. 57-88.

尹政熙(1991). “間島開拓史”.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3**, pp. 13-28.

尹惠珍(2002). “北間島지역의 조선인 민족교육”,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석사학위논문.

이종수(2009). “중국 동북지역 조선족사회의 형성”. 식민지기 재만 조선인의 삶과 기억. 서울: 선인, pp. 44-81.

이승수(2006). “박제가의 北關 風俗誌, 愁州客詞”. 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 **29**, pp. 333-363.

李明花(1990). “北間島地方에서의 民族主義敎育과 植民主義敎育”. 모악실학회, 實學思想硏

dCollection @ jeju

究 1, pp. 105-151.
이명화(1996). “북간도 지역 한인 민족교육운동”. 殉國先烈遺族會, 殉國 64, pp. 10-17.
이명화(1988). “1920年代 滿洲지방에서의 民族敎育運動”.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pp. 259-331.
이명화(2007). “북간도 명동학교의 민족주의교육과 항일운동”. 백산학회, 백산학보 79, pp. 329-375.
이명화(2008). “항일독립운동사상에서의 명동학교의 위상”. 독립기념관, 명동학교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이왕무(2008). “19세기 말 조선의 강역인식 변화-李中夏의 勘界事謄錄을 중심으로”, 역사실학회, 역사와실학 37, pp. 125-176.
이윤미(2001). “교육사 서술 방식과 ‘근대’의 문제”.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23(2), pp. 245-262.
이성배(1999). “滿洲에서의 朝鮮人 民族敎育에 關한 硏究-1920年代 3府(參議府 正義府 新民府)를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석사학위논문.
이시용(2003). “일제침략기 간도 한국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교육논총 21, pp. 35-67.
이시용(2004). “일제침략기 간도한국인의 민족교육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교육논총 23, pp. 145-170.
이종각(1990). “한국교육학연구의 민족화문제”. 한국교육연구소 창립 1주년 심포지움, 한국교육학 연구 무엇이 문제인가.
李忠鎬(1996). “우리나라 民族主義 敎育理念의 變遷에 관한 硏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항재(2001). “오천석의 민족교육사상 연구”.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23(2), pp. 263-288.
이향준(2008). “호남지역 유배-지식인의 몇 가지 양상”.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호남문화연구 43, pp. 103-137.
李炫熙(1989). “瑞甸書塾의 創立運營과 石吾의 位相”. 동선사학회, 성신사학 7, pp. 11-24.
李元浩(1992). “韓國敎育思想의 座標와 展望”.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1, pp. 9-22.
임성모(2007). “친밀한 적에 대한 랩소디-재만조선인 민중사를 향하여”.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사이(間)SAI 2, pp. 251-263.

dCollection @ jeju

張世胤(2006). “中國 朝鮮族의 現況과 展望-1990年代 以後를 中心으로”. 만주학회, 만주연구 4, pp. 101-124.

장석홍(2009). “훈춘 북일학교의 건립과 독립운동”.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31, pp. 449-481.

주영흠(1994). “민족주의교육과 야학운동”. 고려대학교 교육사·철학연구회 편. 民族教育의 思想史的 眺望. 서울: 集文堂.

진동근(1975). “한국근대민족교육이념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全海宗(1994). “延邊 韓族의 定着過程과 初期 韓人社會”.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東亞研究 28, pp. 75-98.

정경호(2007). “일제하 북간도지역의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 김약연 목사의 신앙삶 연구”. 영남신학대학교, 신학과 목회 27, pp. 86-122.

丁海得(1996). “朝鮮後期 咸鏡道 儒林의 形成과 動向”. 檀國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정해득(1998). “조선후기 관북 유림의 형성과 동향”. 경기사학회, 京畿史學 2, pp. 73-103.

鄭在哲(1987). “韓國教育制度史研究의 成果와 課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9, pp. 91-113.

정지영(2009). “유인석과 그 문인들의 의병활동”.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趙東杰(1977). “1910년대 民族教育과 그 評價上의 問題”. 韓國學報 6, pp. 109-130.

趙得濟(1996). “中國東北地域의 韓民族教育運動에 관한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조윤덕(2001). “중국조선족의 정체성 형성과 교육”.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千敬化(1978). “日帝下 在滿韓人 民族教育에 관한 研究: 1920年代를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千敬化(1979). “日帝下在滿韓人民族教育에 관한 研究”. 백산학회, 白山學報 25, pp. 157-191.

千敬化(1982). “在滿韓國人 民族教育運動에 대한 中·日의 教育的 迫害”. 부천대학, 논문집 2, pp. 89-106.

千敬化(1986). “日帝下 在滿韓國人 民族教育에 관한 研究-1920年代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2, pp. 109-136.

千敬化(1988). “日帝下 在滿韓人 民族教育에 관한 研究: 1906年-1920年代를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최강현(1984). “유배지로서의 관북문화를 살핌”,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傳統文化研

dCollection @ jeju

究 2, pp. 7-34.

崔洪彬(2000). “北間島獨立運動基地 연구-韓人社會와의 相關性을 中心으로”.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111, pp. 43-70.

최봉룡(2002).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역사와 현황 및 그 전망”. 단군학회, 단군학연구 7, pp. 301-337.

崔峰龍(2003). “日帝下 在滿韓人의 宗教運動”. 한국종교학회, 宗教研究 31, pp. 249-285.

崔載一(1984). “韓國 海外民族教育運動의 展開過程 및 性格: 滿洲, 沿海州, 하와이를 中心으로-1860~1945”.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채휘균・안상헌(2006). “일제하 간도지역의 기독교계 학교 설립과 운영”. 교육철학회, 교육철학 30, pp. 217-238.

채휘균(2010). “간도지역 기독교 학교 연구”.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韓奎元(1979). “日帝下 韓國基督教學校의 民族教育에 관한 硏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韓哲昊(2009). “明東學校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51, pp. 262-380.

허룡구(1993). “점산호들의 토지 약탈”. 徐紘一・東巖 편저. 間島史新論 上. 서울: 우리들의 편지사, pp. 75-78.

현룡순(1993). “월강죄와 기사년 난입”. 徐紘一・東巖 편저. 間島史新論 上. 서울: 우리들의 편지사, pp. 67-74.

洪鍾泌(1984). “滿洲 朝鮮人 教育問題 小考-1920년대 間島地方을 中心으로”. 白山學會, 白山學報 28, pp. 5-26.

洪鍾泌(1993b). “滿洲朝鮮人移民의 展開過程 小考”. 明知大學校 史學會, 明知社論 5, pp. 63-94.

洪鍾泌(1993a). “在滿朝鮮人 社會團體 小考”.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논총 10, pp. 174-194.

洪鍾泌(1994). “滿洲事變以前 在滿朝鮮人의 教育에 對하여”. 明知大學校 史學會, 明知史論 6, pp. 47-110.

洪鍾泌(2000). “間島지방 朝鮮人이민의 교육에 대한 中・日의 압박에 대하여”. 모악실학회, 실학사상연구 15・16, pp. 353-372.

dCollection @ jeju

2. 중국 논문

姜龍范(2000). “清末民初中日兩國在間島朝鮮人教育權問題上的矛盾和斗爭”.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

耿金聲(1996). “日本帝國主義侵占我國時期的朝鮮族教育及其特点”. 民族教育研究 2.

耿金聲(1997). “清朝時期的中國朝鮮族教育”. 民族教育研究 4.

耿志剛(2007). “二十世紀初東北朝鮮族私立學校的反日民族教育”. 延邊教育學院學報 21(2), pp. 3-6.

盧貴子(2008). “中國朝鮮族教育發展探析”, 黑龍江民族叢刊 2.

朴文一(2006). “中國朝鮮族反日近代教育的杰出先驅金躍淵”. 중국조선족교육연구.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pp. 26-36.

朴文一(1991). “1906-1919年中國東北朝鮮族人民的私立學校教育運動及其歷史作用”. 朝鮮族研究論叢 三, 연길: 延邊大學出版社.

朴文鎬(1986). “二十世紀初東北朝鮮族居住地區的民族教育運動及其歷史功績”. 延邊歷史研究所編, 延邊歷史研究 1.

朴今海(2002). “九·一八”事變前日本對中國東北朝鮮族教育權的侵奪”. 民族教育研究 1.

朴今海(2004). “僞滿時期日本帝國主義對東北朝鮮族的“皇民化”政策”. 社會科學戰線 4.

朴今海(2004). “對朝鮮族百年教育的理性思考”.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1.

朴今海(2007). “日本對東北朝鮮人的殖民主義教育政策研究”. 延邊大學 世界史專攻 博士學位論文.

朴今海(2008). “僞滿時期日帝對朝鮮族的殖民主義教育實質”. 黑龍江民族叢刊 6.

朴今海(2008). “二十世紀初日本對東北朝鮮族地區的教育侵略”.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3.

朴今海(2008). “僞滿時期日帝對朝鮮族的殖民主義教育實質”. 黑龍江民族叢刊 6.

朴今海・姜善(2010). “東北朝鮮族近代反日民族教育的興起”. 東疆學刊 3.

朴今海・金東杰(2010). “僞滿時期日僞殖民主義教育与朝鮮族人民的反奴化斗爭”.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3.

于逢春(2005). “清末民初中日兩國的朝鮮族教育政策之一側面－以“間島”墾民教育會的教育活動爲中心”. 中國邊疆史地研究 4. pp. 16-29.

일목(2002). “조선족지구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반일학교 ‘서전서숙’”. 허청선・강영덕 주편.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 1.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pp. 97-99.

崔斌子(1990). “九·一八”事變前后的朝鮮族教育”. 民族教育研究 3.

dCollection @ jeju

孫春日(1992). “論“九·一八”事變前朝鮮族民族教育發展的特点”. 民族研究 5.

孫春日(2003). “論日僞對朝鮮族學校的整編”.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4.

전신자(2002). “간민교육회와 간민회”. 허청선・강영덕 주편.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 1.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pp. 109-112.

허청선(1989). “中國朝鮮族教育的形成與發展”. 朝鮮學研究編輯委員會, 朝鮮學研究 第一卷, 延邊大學出版社.

3. 일본 논문

槻木瑞生(1975). “日本在植民地的教育-滿洲及間島朝鮮族教育”, 名古屋大學教育學科, 名古屋大學教育學部紀要 21.

槻木瑞生(1992). “中國吉林省龍井村の朝鮮人學校－東北地區朝鮮族の學校の展開”. 東京: 國立教育研究所, 國立教育研究所紀要 121, pp. 123-145.

槻木瑞生(1994). “中國東北の朝鮮族と教育權回收運動”. 名古屋: 同朋學會, 同朋大學論叢 70, pp. 122-162.

槻木瑞生(1999). “中國間島における朝鮮族學校の展開－1910年代から1920年代初頭にかけて”. 八尾: 大阪國濟法科大學アジア研究所, 東アジア研究 25, pp. 73-85.

三好章(1998). “「滿州國」の朝鮮人－間島における朝鮮人への皇民化教育について”. 東京: 中國社會文化學會, 中國 21(3), pp. 197-216.

于逢春(2001). “中國朝鮮族教育をめぐる中日兩國の競爭-1905-31年の<間島>を中心に”. 東京: 國際アジア文化學會, アジア文化研究 8, pp. 207-220.

于逢春(2002a). “中國朝鮮族宗教団体による民族教育に關する一考察—1900～1930年代の中國東北地方を中心に”. 日本國際教育學會, 國際教育 8, pp. 70-92.

于逢春(2002b). “清末中國における東北少數民族教育に關する研究”. 日本科學協會科學研究助成金 研究報告書.

竹中憲一(2000). “間島における民族主義組織による朝鮮人教育”. 八尾: 大阪經濟法科大學アジア研究所, 東アジア研究 27, pp. 5-17.

許壽童(2002). “日本の在滿朝鮮人教育政策 1932～1937-間島の朝鮮人私立學校を中心に”. 東京: 一橋大學大學院 一橋研究編集委員會 編, 一橋研究 27(2), pp. 65-86.

許壽童(2006). “間島事件對教育的影響”. 東亞細亞教育文化學會年報 3.

許壽童(2008). “間島光明會と永新中學校 -韓日中の<理想鄉>は可能だったろうか”. 안동:

dCollection @ jeju

滿洲學會, 滿洲硏究 8, pp. 87-116.

■ 참고 사이트

재외동포재단 코리안넷: http://www.korean.net

dCollection @ jeju

ABSTRACT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educational thoughts in Bukgando

Hai-Ying Jin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in-Geon Yang

This study is a consideration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educational thoughts in Bukgando. Since the 19th century, Bukgando is a typical area of Korean immigrants in China. Distinct characteristics of moral culture in the area and society, life and culture in the society form a unique cognition of reality and community spirit. In the society, the cognition of reality and community spirit became national consciousness through continuous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with other nations. In addition, educational consciousness was generated for need of arousing and succeeding of national consciousness.

The educational consciousness has gone through specific development of be formed and it is spread by people, community leaders and the society. The immanent development of national educational consciousness made a foundation of accepting educational thoughts of nationalism of patriotic enlightenment from the Korean Peninsula in 1905 and 1910. Community leaders and the Confucians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doing so in Bukgando. They systemized people's educational consciousness, sublimated it into modern-oriented and nation-oriented one and played a mediating role in

dCollection @ jeju

accepting nationalism of patriotic enlightenment. So we can know their status in educational thoughts in Bukgando. In other words, Korean educational thoughts were amalgamated and formed by accepting all the educational thoughts to Bukgando in the early 20th century on the basis of educational consciousness native to the immigrant society.

The study is developed as follows.

Firstly, I analyzed theoretically meaning of Korean educational thoughts in the immigrant society in Bukgando. By the conceptual approach to the national education and national educational thoughts in Korean Peninsula and Bukgando, I found out that there is a contradiction to apply the definition of nation and national education in Korean Peninsula as it is to Bukgando. Additionally, I clarified the uniqueness of national education and national educational thoughts in Bukgando by analyzing their historical and theoretical meaning. I provided theoretical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Korean education in Bukgando in doing so.

Secondly, I considered the beginning process of the national educational thoughts in the immigrant society in discussing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Korean national educational thoughts in Bukgando. I reveale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distinctiveness of the immigrants by looking into the moral culture unique to Hamgyeongbukdo because most immigrants were from there. By that, I examined the origin of moral culture, possibility of generating educational consciousness and special zeal for education. Furthermore, I inferred the beginning process of consciousness for nation and education from aspects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history by looking at immigrants' movement and settlement in Bukgando.

Thirdly, I studi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educational thoughts in Bukgando. I emphasized the active roles of pioneer community leaders and the Confucians in immigrant society in Bukgando. Moreover, I made clear how the people in Bukgando accepted traditional Confucianism, national religions, foreign religions and educational thoughts of nationalism of patriotic enlightenment from the Korean Peninsula. By that, I proved the formation and amalgamation process of Korean educational thoughts in

dCollection @ jeju

Bukgando. Besides, I considered the practice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thoughts of nationalism through movement of establishment of Korean private school and movement of social education in taking into account that national consciousness is at the heart of Korean educational thoughts which was formed like that. In addition, I tried to ascertain how the national consciousness influenced movement for independence of Korea and formation of identity of Korean in Bukgando.

In short, the study is attempted to emphasiz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educational thoughts during Koreans' movement and settlement in Bukgando and formation of Korean society. And to conclude, Korean educational thoughts were formed not by one of nationalistic thoughts, national religions and foreign religions, but by accepting various thoughts on the basis of unique moral culture of Korean immigrants and distinctiveness of the society in Bukgando.

Collection @ jeju

中文摘要

北间岛朝鲜民族教育思想的形成与展开

金　海　英

济州大学校 大学院 教育学科

指导教授 梁　镇　健

本论文主要研究北间岛朝鲜民族教育思想的形成与展开过程。北间岛是自19世纪以来朝鲜人的主要移民地区。移居民以此地区的特殊精神文化、移民社会的文化生活洋相为基础形成了独特的现实认识与共同体认识。朝鲜移民的这种意识在移民社会，与异民族所发生的不间断的葛藤及矛盾中逐渐转化为民族意识。接着为了民族意识的鼓吹及传承，萌芽了教育意识。

移居民的教育意识有着特殊发展过程。它是通过民众内部、民族有志形成而社会化的。这种民族教育意识自下而上的发展过程，为接受1905、1910年为契机从朝鲜半岛传播于北间岛的爱国启蒙民族主义教育思想而奠定了基础。在这过程中北间岛的有志与儒林起到了举足轻重的作用。他们将移民漠然的教育意识系统的整理，并使之趋向近代化、民族化，同时使之能够呼应爱国启蒙思想家的民族主义教育思想，在此过程中他们起到了承上启下的作用。通过此我们可以确认北间岛有志与儒林的民族教育思想之地位。这样北间岛朝鲜民族教育思想可以说是以移民社会自来的教育意识为基础，接受自20世纪初以来流入北间岛的各种思想而形成的。

本论文的展开过程如下。

第一，分析了在北间岛移民社会所谓朝鲜民族教育思想的含义。通过比较朝鲜半岛内与北间岛的民族教育及民族教育思想的概念，指出用朝鲜半岛内民族教育的定义来理解北间岛的民族教育是有矛盾的。由此阐明了北间岛民族教育及民族教育思想的含义，指出其特殊性。从而提示了能够理解北间岛朝鲜民族教育的理论前提。

dCollection @ jeju

第二，阐述北间岛朝鲜民族教育思想之背景的同时，考察了在移民社会民族教育思想的胎动过程。北间岛移民的绝大部分来自于朝鲜咸镜道，因此通过了解咸镜道特有的精神文化之渊源，阐明了移民社会历史文化之特殊性。以此为基础考察了移民社会教育意识形成的可能性与独特的教育热。并且通过了解移民定居北间岛的过程，从社会史、经济史、政治史的角度分析了民族意识及教育意识的萌芽过程。

第三，考察了北间岛朝鲜民族教育思想的形成与展开过程。强调了在移民社会先觉有志及儒林的活动洋相。并阐明了朝鲜半岛的传统思想、民族宗教及外来宗教思想、爱国启蒙民族主义思想等各种思想被北间岛移居朝鲜人所接受的过程。从而论证了北间岛朝鲜民族教育思想的形成及融合过程。鉴于朝鲜民族教育思想的核心内容是民族意识，通过阐述北间岛朝鲜民族私立学校运动及社会教育运动来考察了民族教育思想的实践及展开过程。然后，分析了民族意识对北间岛朝鲜民族光复运动的影响，也阐明了这种民族意识对北间岛朝鲜人的根源问题起到的影响。

总而言之，本论文试图研究北间岛朝鲜人在其移居、定居及朝鲜人社会形成的过程中，民族教育思想的形成与展开过程。得出的结论是北间岛朝鲜民族教育思想并不是朝鲜半岛所传播的民族主义思想、民族及外来宗教思想中的某一层面为基础而产生的。而是以北间岛移居朝鲜人特有的精神文化及其社会特殊性为基础而形成，并接受各种外来思想得以完成的。

dCollection @ jeju

부 록

[부록 1] 북간도 교육을 주제로 한 논문

■ 한국

고영일(1990). “중국 朝鮮族 敎育史의 서막을 논함-養正學堂 82주년을 제하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2**, pp. 81-92.

金成俊(1969). “三·一運動以前 北間島의 民族敎育”. 동아일보사, 三·一運動 50周年紀念論集, pp. 45-62.

金石柱(2009). “北間島地域 民族學校에 關한 地理學的 硏究”.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 590-603.

金貞亞(1991). “瑞甸書塾에 관한 硏究”. 誠信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敎育學科 歷史敎育, 석사학위논문.

金貞亞(1992). “瑞甸書塾에 관한 硏究”, 동선사학회, 성신사학 **10**, pp. 159-186.

金周溶(1993). “1910년대 북간도민족교육기관의 독립운동: 3.13항일독립시위운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 석사학위논문.

金周溶(2009). “1920년대 전반기 북간도지역 학생운동의 양상”.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51**, pp. 281-300.

김해영(2008). “만주사변 이전 북간도 학생들의 교육운동”.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22**(2), pp. 77-95.

金興洙(1991). “日帝下 在滿韓民族의 歷史敎育”. 江原大學校 史學會, 江原史學 **7**, pp. 53-74.

金興洙(1995). “中國 延邊朝鮮族의 近代民族敎育에 關한 硏究-1910년 前後의 延吉과 龍井 지방을 중심으로”. 국사편찬위원회, 國史館論叢 **64**, pp. 1-36.

박금해(2009). “20세기 초 間島 朝鮮人 民族敎育運動의 전개와 중국의 對朝鮮人 교육정책”.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48**, pp. 79-114.

박금해(2010). “1900년대 초~1920년대 日帝의 在滿朝鮮人교육정책 연구”.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99**, pp. 223-260.

dCollection @ jeju

박금해(1998). “滿洲事變以前 北間島民族敎育에 關한 一硏究”.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18, pp. 295-321.
朴今海(2005). “滿洲事變 후 日帝의 在滿朝鮮人敎育政策 연구”. 延世大 國學硏究院, 東方學志 130, pp. 239-278.
박금해(2006). “20세기초 동북경내 조선족사립학교 민족교육운동에 대한 고찰-사립학교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서전서숙개숙 100주년기념문집, pp. 289-316.
朴州信(1996). “日帝下 北間島 明東學校의 民族敎育運動”.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18, pp. 67-110.
朴州信(1998). “間島 韓國人의 民族敎育에 關한 硏究: 1910年代~1920年代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朴州信(1998). “滿洲事變以前 日帝의 間島 韓國人에 대한 植民地主義 敎育扶植 政策”,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20, pp. 297-331.
朴州信(1999). “中國의 間島 韓國人에 대한 敎育政策과 韓國人의 敎育的 抵抗”.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21, pp. 154-178.
朴州信(2000). “1910~1920년대 間島 韓人 교육기관의 실태와 그 성격”.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22, pp. 103-136.
朴州信(2000). “1910년대 間島지방 私立學校의 活動과 性格-基督敎 및 大倧敎 계통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사연구 9, pp. 29-63.
朴州信(2007). “근대교육사에서의 서전서숙의 위상”.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29(2), pp. 51-86.
서굉일(1985). “1910年代 北間島 의 民族主義 敎育運動”. 백산학회, 백산학보 30·31, pp. 235-280.
서굉일(1993). “日帝下 西北間島에서의 民族解放을 위한 歷史敎育”. 徐紘一·東巖 편저. 間島史新論 上. 서울: 우리들의편지사, pp. 131-147.
서굉일(1990). “일제하 만주 북간도의 민족교육”. 초등우리교육 통권 7, pp. 353-372.
서굉일(1995). “日帝下 北間島 韓人들의 民族主義 敎育運動 硏究(1906~1919)”. 인화대학교, 仁荷史學 3, pp. 273-315.
성주현(2002). “만주 천도교인의 교육운동”. 한국문명학회, 문명연지 3(3), pp. 135-180.
孫春日(1992). “日帝下 中國 朝鮮人의 敎育發展 實態에 대하여(1905~1931)”, 淑明女子大學校 韓國學硏究所, 韓國學硏究 2, pp. 37-64.
이명화(1988). “1920年代 滿洲지방에서의 民族敎育運動”.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

dCollection @ jeju

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pp. 259-331.
李明花(1990). “北間島地方에서의 民族主義教育과 植民主義教育”. 모악실학회, 實學思想研究 **1**, pp. 105-151.
이명화(1996). “북간도 지역 한인 민족교육운동”. 殉國先烈遺族會, 殉國 **64**, pp. 10-17.
이명화(2007). “북간도 명동학교의 민족주의교육과 항일운동”. 백산학회, 백산학보 **79**, pp. 329-375.
이명화(2008). “항일독립운동사상에서의 명동학교의 위상”. 독립기념관, 명동학교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이시용(2003). “일제침략기 간도 한국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교육논총 **21**, pp. 35-67.
이시용(2004). “일제침략기 간도한국인의 민족교육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교육논총 **23**, pp. 145-170.
윤병석(2004). “만주지역 독립운동기지 설정과 북간도 민족주의 교육”. 殉國先烈遺族會, 殉國 통권 **158**, pp. 64-75.
리정문(1993). “20세기 초 조선인 사립학교교육”. 徐紘一・東巖 편저. 間島史新論 上. 서울: 우리들의 편지사, pp. 280-285.
李炫熙(1989). “瑞甸書塾의 創立運營과 石吾의 位相”. 동선사학회, 성신사학 **7**, pp. 11-24.
장석홍(2009). “훈춘 북일학교의 건립과 독립운동”.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31**, pp. 449-481.
장덕삼(2004). “宗教教育을 通한 間島韓人社會의 民族教育 考察”. 원광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23**, pp. 1-15.
千敬化(1979). “日帝下在滿韓人民族教育에 관한 硏究”. 백산학회, 白山學報 **25**, pp. 157-191.
千敬化(1982). “在滿韓國人 民族教育運動에 대한 中・日의 教育的 迫害”. 부천대학, 논문집 **2**, pp. 89-106.
千敬化(1986). “日帝下 在滿韓國人 民族教育에 관한 硏究-1920年代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22**, pp. 109-136.
채휘균・안상헌(2006). “일제하 간도지역의 기독교계 학교 설립과 운영”. 교육철학회, 교육철학 **30**, pp. 217-238.

dCollection @ jeju

韓哲昊(2009). “明東學校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51, pp. 262-380.

許壽童(2008). “間島光明會と永新中學校-韓日中の<理想鄕>は可能だったろうか”. 만주학회, 만주연구 8, pp. 87-116.

洪鍾泌(1984). “滿洲 朝鮮人 敎育問題 小考-1920년대 間島地方을 中心으로”. 白山學會, 白山學報 28, pp. 5-26.

洪鍾泌(1994). “滿洲事變以前 在滿朝鮮人의 敎育에 對하여”. 明知大學校 史學會, 明知史論 6, pp. 47-110.

洪鍾泌(2000). “間島지방 朝鮮人이민의 교육에 대한 中·日의 압박에 대하여”. 모악실학회, 실학사상연구 15·16, pp. 353-372.

■ 중국

姜龍范(2000). “淸末民初中日兩國在間島朝鮮人敎育權問題上的矛盾和斗爭”.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

耿金聲(1996). “日本帝國主義侵占我國時期的朝鮮族敎育及其特点”. 民族敎育研究 2.

耿金聲(1997). “淸朝時期的中國朝鮮族敎育”. 民族敎育研究 4.

耿志剛(2007). “二十世紀初東北朝鮮族私立學校的反日民族敎育”. 延邊敎育學院學報 21(2), pp. 3-6.

盧貴子(2008). “中國朝鮮族敎育發展探析”, 黑龍江民族叢刊 2.

朴文一(2006). “中國朝鮮族反日近代敎育的杰出先驅金躍淵”. 중국조선족교육연구.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pp. 26-36.

朴文一(1991). “1906～1919年中國東北朝鮮族人民的私立學校敎育運動及其歷史作用”. 朝鮮族研究論叢 三, 연길: 延邊大學出版社.

朴文鎬(1986). “二十世紀初東北朝鮮族居住地區的民族敎育運動及其歷史功績”. 延邊歷史研究所編, 延邊歷史研究 1.

朴今海(2002). “九·一八”事變前日本對中國東北朝鮮族敎育權的侵奪”. 民族敎育研究 1.

朴今海(2004). “僞滿時期日本帝國主義對東北朝鮮族的“皇民化”政策”. 社會科學戰線 4.

朴今海(2004). “對朝鮮族百年敎育的理性思考”.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1.

朴今海(2007). “日本對東北朝鮮人的殖民主義敎育政策研究”. 延邊大學 世界史專業 博士

dCollection @ jeju

學位論文.

朴今海(2008). “僞滿時期日帝對朝鮮族的殖民主義教育實質”. 黑龍江民族叢刊 6.

朴今海(2008). “二十世紀初日本對東北朝鮮族地區的教育侵略”.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3.

朴今海(2008). “僞滿時期日帝對朝鮮族的殖民主義教育實質”. 黑龍江民族叢刊 6.

朴今海・姜善(2010). “東北朝鮮族近代反日民族教育的興起”. 東疆學刊 3.

朴今海・金東杰(2010). “僞滿時期日僞殖民主義教育与朝鮮族人民的反奴化斗爭”.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3.

于逢春(2005). “淸末民初中日兩國的朝鮮族教育政策之一側面－以“間島”墾民教育會的教育活動爲中心”. 中國邊疆史地研究 4. pp. 16-29.

崔斌子(1990). “九·一八”事變前后的朝鮮族教育”. 民族教育研究 3.

孫春日(1992). “論“九·一八”事變前朝鮮族民族教育發展的特点”. 民族研究 5.

孫春日(2003). “論日僞對朝鮮族學校的整編”.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4.

허청선(1989). “中國朝鮮族教育的形成與發展”. 朝鮮學研究編輯委員會, 朝鮮學研究 第一卷, 延邊大學出版社.

dCollection @ jeju

[부록 2] 관북유배인 일람표 및 관북서원 일람표

관북유배인 일람표

유배인	시간	유배지	유배원인	저술·기타
一蠹 鄭汝昌 1450-1504	燕山君 4年 (1498)	鍾城	戊午士禍 연루 金宗直의 제자	燕山君 10年(1504) 甲子士禍 연루 배소 사사
錦南 崔溥 1454-1504	燕山君 4年 (1498)	端川	戊午士禍 연루 金宗直의 제자	燕山君 10年(1504) 甲子士禍 연루 배소 사사
服齋 奇遵 1492-1521		關北	己卯士禍 연루	己卯名賢 중 일인
尹自任 1488-?		關北	己卯士禍 연루	己卯名賢 중 일인
李若海		慶源	乙巳士禍 연루	배소 사사
眉巖 柳希春 1513-1577	明宗 3年 (1548)	濟州유배 (1547) 鍾城 이배	乙巳士禍 壁書事件	『眉巖日記』 『續蒙求錄』
鄭滋	明宗 5年 (1550)	光陽에서 경원 이배	壁書事件	
休菴 白仁傑 1497-1579	明宗 3年 (1548)	安邊	趙光祖의 제자, 戚臣 尹元衡 반대. 壁書事件 연루	
金儲	明宗 1年 (1546)	三水	尹任(1487-1545) 무죄 주장	己卯名賢 金世弼 (1473-1533)의 아들
柳堪 1513-1569		慶興	민심동요 杖配	
東厓 許磁 1496-1551	明宗 5年 (1550)	洪原 杖配	尹元衡의 미움 사 宋純과 결탁하여 閔齊英을 두호	배소에서 몰함
荷谷 許篈 1551-1588	宣祖 16年 (1583)	甲山	栗谷 李珥를 논핵	吉城秋懷詩
宋應漑 ?-1588		會寧	栗谷 彈劾	癸未三竄 중 일인
五山 車天輅 1556-1615	宣祖 6年 (1586)	明川	正字로 고향사람의 과거 글 대신 지어 과거 급제시킨 죄	사화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유배
重峰 趙憲 1544-1592	宣祖 22年 (1589)	吉州	개인적인 정치철학에 따른 시폐소로 三司의 배척	『北謫日記』
洪聖民 1536-1594	宣祖 24年 (1591)	富寧	정철의 당파라는 이유	
芝川 黃廷彧 1532-1607		吉州	왕자와 함께 왜에게 잡혔다가 풀려난 이유	
春湖 柳永慶 1550-1609		慶興	소북파 영수로 鄭仁弘 등 대북파에 몰려 정배	배소에서 사사
荷潭 金時讓 1581-1643	光海君 4年 (1612)	鍾城	全羅 鄕試에서 試題에 왕의 실정을 비유했다가 반	『涪溪記聞』

dCollection @ jeju

			대파의 논척으로	
休翁 鄭洪翼 1571-1626	光海君 6年 (1614)	鍾城 이배	폐모론 반대	
白沙 李恒福 1556-1618		北靑	폐모론	배소에서 棄世, 백사를 모시고 유배한 錦南君 鄭忠信 (1576-1636)의 『白沙先生北遷日錄』
石灘 李愼儀 1551-1627		會寧	폐모론	
金德誠 1562-1636		穩城・慶源	폐모론	
苔川 金地粹 1585-1639		富寧	폐모론	
東岳 李安訥 1571-1637	仁祖 2年 (1624)	鏡城	李适의 亂을 방관한 이유	『北塞錄』
市南 兪棨 1607-1664	仁祖 27年 (1649)	穩城	仁祖 승하 후 廟號 제정으로 新王의 노여움을 산 이유	
南坡 洪宇遠 1605-1687	肅宗 6年 (1680)	明川 文川 移配	庚申大黜陟 정변	남인으로서 죽음
壺谷 南龍翼 1628-1692	肅宗 15年 (1689)	明川	己巳換局으로 남인 집권의 계기가 된 정변으로	배소에서 죽음
葛庵 李玄逸 1627-1704	肅宗 15年	洪原 유배 鍾城 이배	인현왕후 폐비사건	葛庵의 『愁州管窺錄』, 배행한 아들 密菴 李栽의 『蒼狗客日』
竹醉 金濟謙 1680-1722	景宗 2年 (1722)	富寧	경종 1,2년 왕위계승관련 노소론대립의 辛壬士禍	배소에서 사사
退漁堂 金鎭商 1684-1755	景宗 2年 (1722)	茂山	辛壬士禍	
晩菴 柳鳳輝 1659-1727	英祖 1年 (1725)	慶興	왕세자 책봉을 신중해야 한다는 辛壬士禍 상소문	배소에서 사사
三山 李台重 1694-1756	英祖 16年 (1740)	甲山	노론의 입장에서 소론의 거두인 雲谷 李光佐를 논척하다가	
晦東 趙觀彬 1691-1757	英祖 29年 (1753)	三水 귀양 端川 이배	홍문관 제학으로 숙빈 최씨의 추시 죽책을 지으라는 왕명을 거역	
圓嶠 李匡師 1705-1777	英祖 31年 (1755)	富寧	羅州掛書로 큰아버지 北谷 李眞儒에 연좌	
釣隱 李世澤 1716-1777	英祖 44年 (1768)	端陽을 거쳐 鍾城 移配	인동부사로 살인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죄	
退軒 趙榮順 1725-1775	英祖 46年 (1770)	甲山	소론 4대신 중 損窩 崔錫恒의 伸寃을 상소	
陽齋 鄭存謙 1722-1794	英祖 48年 (1772)	北靑	당론으로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dCollection @ jeju

後松 柳義養 1718-?	英祖 49年 (1773)	鍾城	司憲府 執義로 왕의 노영움을 산 이유로	『北關路程錄』
洪樂命 1722-1784	正祖 2年 (1778)	甲山	勢道家 洪國榮의 미움을 산 이유	
潭庭 金鑢 1766-1821	正祖 21年 (1797)	富寧	도둑과 사귀는 무리(交結匪類)	『思유樂府』 『坎窞日記』
思窩 柳宜貞 1794-1861	憲宗 14年 (1848)	慶興 圍籬安置	吏曹正郎으로 폐정 개혁을 상소했다가	
鄭顯德 1810-1883	高宗 12年 (1875)	文川	興宣大院君의 심복이라는 이유	
秋史 金正喜		北靑		
尤庵 宋時烈		端川?		배행한 손자 鳳谷 宋疇錫의 『北關曲』
楚亭 朴齊家	(1801)	鍾城		
徐命膺		三水		『遊白頭山記』
晴簑 金鎭衡 1801-1865		明川		『北遷歌』

* 이 표는 최강현(1984)의 「유배지로서의 관북문화를 살핌」과 『朝鮮王朝實錄』 등에서 등장하는 관북유배인들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dCollection @ jeju

관북서원 일람표

지역	교육기관	설립 및 사액연대	종향인물	비고
茂山	鄕祠宇		南九萬	지방관
富寧	崇烈祠	1859	鄭文孚 元禧 黃乘 金銓 朴克謹 金鏡 朴仁範 朴禮範 車得道 車應麟 車得弘	壬辰義兵將 및 倡義者
	忠賢祠		金濟謙	流配
會寧	顯忠祠	1703 (1707)	鄭文孚 申世俊 吳允迪 崔彦英 許瓘 鄭餘慶 李希日 金岦 吳遵禮	壬辰義兵將
	鄕祠書院 尊德祠	1610	#金宇顒 #李潤雨 #金世濂 *金時讓 #文鼎重	*流配・#地方官
鍾城	鍾山書院	1666 (1686)	*鄭汝昌 *奇遵 *柳希春 #鄭曄 #金尙憲 *鄭弘翼 #鄭蘊 *兪棨 #趙錫胤 #閔鼎重 #*南九萬	*流配・#지방관
	行營祠宇	1666	皇甫仁 金宗瑞 金應河	관북개척
	希聖祠	1799	崔愼 韓世襄 韓夢麟 韓夢弼 蔡徽殷 韓汝斗 南溟學	관북유현
	彰義祠		金嗣朱 吳慶默 金敬仁 韓景華 朱嗣玄 安繼唐 韓允邦 朴祐	임진의병 李适의 亂 공적
穩城	忠谷書院	1606	奇遵 金德城 兪棨	유배
慶源	忠烈祠	(1688)	金應河 崔鎭立 申碎	지방관
鏡城	樺谷書院	1730	宋象賢 金尙憲 鄭蘊 閔維仲 李植 金昌協	유현・지방관 1801년 철수
	靖北祠	1437	尹瓘 吳延龍 金宗瑞 吳逈	관북개척
	淸德祠	1643	成夏宗	지방관
	興惠祠	1695	李光夏	지방관
	彰烈祠	1666 (1667)	鄭文孚 李鵬壽 姜文佑 崔配天 池達源 李希唐 李麒壽 朴惟一 徐遂 吳慶獻	임진의병장
	道北祠	1795	李載亨 朴興宗 李瑞世 李元培 崔斗炳 崔鳳壽 黃桑采 玄翊洙	관북유현
吉州	溟川書院	1670 (1696)	趙憲 閔鼎重	지방관
	鄕祠宇	1670 (1713)	#許惟禮 #許鎭 #金國信 許秀敏 許大成 許城一 #元忠恕	#李施愛亂 평정공신
	景賢祠		玄以規	관북유현
德源	龍津書院	1695 (1696)	宋時烈	유배
北靑	老德書院	1627 (1687)	李恒福 金德城 鄭弘翼 李尙眞 吳斗寅 李世華	유배
端川	孔夫子書院 (敬賢堂)	1664	孔子 (李安訥 金壽恒 閔鼎重 趙觀彬 李義弼 李明源)	(유현)
定平	望德書院	1666	鄭夢周 趙光祖 金尙憲	유현 지방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Collection @ jeju

			趙瀷 閔鼎重 趙明貞	
永興	興賢書院	1612 (1667)	鄭夢周 趙光祖	
	龍江書院	1736	朴淳 趙尙炯	유현
	精忠祠宇	1675 (1795)	金敬福 李夢瑞	지방관
	豊鄕祠宇		孝寧大君	
汶川	汶浦書院	1695	宋時烈 閔鼎重	
安邊	玉洞書院	1627 (1701)	李繼孫 金尙容 趙錫胤	지방관
咸興	文會書院	1576 (1586)	李繼孫 유강(兪絳) 李後白 韓浚謙 李光夏 南九萬	지방관
	雲田書院	1667 (1727)	鄭夢周 李滉 李珥 成渾 閔鼎重 趙光祖 宋時烈 趙憲	유현
	彰義祠	1666	白應祥 柳應秀 李惟一 韓仁濟 鄭海澤 朴仲立 李希祿 朴吉南 朴應蒿 李思悌 韓敬商 金應福	함경도 임진의병장
	鄕祠宇	1726	閔鼎重	지방관
	箕聖祠	1898	箕子	

* 이 표는 1859년 편찬한『關北志』와 1868년 편찬한『關北邑誌』,『韓國近代邑誌』 등을 참조, 정해득(1996)이 작성한 표와 최강현(1984)의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

dCollection @ jeju

감사의 글

이 논문은 그야말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완성했습니다. 유학을 선택하고 하루하루 좌충우돌의 유학생활을 해오면서 고생도 하고 웃고 울기도 하면서 나름 충실하게 보내느라 애썼지만 또한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늘 도움과 격려를 주시는 고마운 분들 덕분에 어려움들을 이기고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지면을 빌어서나마 진심에서 우러나는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그 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생면부지 저를 제자로 받아 교육학 연구에 입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늘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학문의 도리뿐만 아니라 인간된 도리 또한 깊이 가르쳐 주신 양진건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공간도 주시고 유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은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좋은 지도교수님을 소개시켜주셨고 유학생활 중 늘 전화로 안부를 전해주셨으며 심사까지 기꺼이 맡아 논문을 정성스럽게 다듬어 주신 김경식 교수님, 인사드린 지 한 학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논문을 마무리하는 동안 줄곧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항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년 전부터 찾아뵈면서 가르침을 받아왔고 늘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논문의 형식까지도 세세히 검토해주신 서명석 교수님, 언제나 자상하게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면서 유학생활 동안 배려를 주신 김성봉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따뜻하게 조언해 주셨던 교육학과 교수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낯선 제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배려해 준 선배님, 동기, 후배 선생님들께, 또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기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중국 연변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유학할 수 있도록 저를 추천해주시고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허청

dCollection @ jeju

선 교수님, 박태수 교수님, 박금해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일성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딸이 대학 들어가는 모습도 보지 못했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늘 저에게 힘이 되었던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늘 함께 했던 아버지와 동생 해하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저의 학업생애를 고스란히 지켜봐주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며 멘토이자 코치의 역할로써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남편 현홍국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저를 유학 보내줬고 또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 일을 도맡아 주어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또한 한창 엄마가 필요한 어린 나이에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했지만 씩씩하게 잘 자라준 아들 준림이에게도 정말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준림이를 잘 키워주시고 또 부족한 며느리를 늘 아껴주시면서 선뜻 유학을 보내주신 시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곁에서 늘 함께 해 준 시누이 가족에게, 특히 준림이의 좋은 형이 되어 준 조카 진우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늘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친지들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 하에 박사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겠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겸손함과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며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결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6월 30일

한라산 중턱 제주대학교에서

dCollection @ jeju